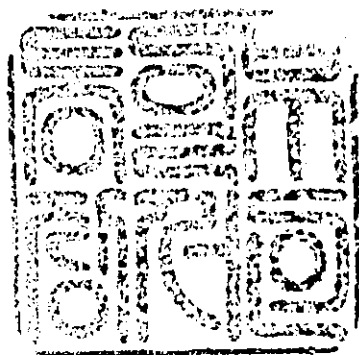




본 『南北對話 年表』는 南北會談 및  
기타 南北關係와 관련한 對內 主要動向  
· 北韓 主要動向 · 周邊動向 등을 綜合  
整理한 것으로서 統一 · 對話업무의 基  
礎資料로 활용하기 위하여 作成된 것입  
니다.

# 南北對話年表

1994



統 一 部  
南北會談事務局



## 目 次

1月 .....	1
2月 .....	30
3月 .....	54
4月 .....	91
5月 .....	128
6月 .....	162
7月 .....	216
8月 .....	250
9月 .....	296
10月 .....	332
11月 .....	374
12月 .....	415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	<p>○ 金泳三 대통령 新年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함.</li> <li>- 북한의 동포들도 개방과 개혁의 세계적 조류와 新韓國 창조라는 민족옹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겠음.</li> </ul>	<p>○ 金日成 新年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지난해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li> <li>-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이고 핵문제를 구실로 국제공조체제니 하면서 북남관계를 위협한 국면에 몰아넣었음.</li> <li>- 남조선의 문민정권이란 허울 뿐이고 실지로는 역대 군부독재정권과 다를 것이 없으며 더이상 지켜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음.</li> <li>-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있지도 않은 북의 핵개발의혹을 들고나온 것도 미국이므로 핵문제는 朝·美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li> <li>- 朝·美사이에 공동성명도 채택된 조건에서 쌍방이 합의한 원칙을 지키고 이행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li> </ul>	
1. 3	<p>○ 金泳三 대통령, 북한 핵문제 조속해결 촉구 * 始務式</p>	<p>○ 박성철 부주석, 金日成 新年辭 지지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 핵문제는 朝·美회</li> </ul>	<p>○ 美 백악관 대변인, 美·北 實務接觸 곧 妥結 언급</p>

■ 1 원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에는 협상이 필요 하나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li> <li>- 그러나 7천만 민족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북한의 핵문제가 금년초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답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그어떤 압력이나 위협도 우리에게 통할 수 없음.</li> <li>- 조국통일의 대헌장인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90년대 聯邦制 방식의 통일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韓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li> <li>- 金日成 신년사의 내용도 결국 협상을 통해 핵문제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임.</li> <li>- 북한이 엉뚱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한 금주중 접촉에서 IAEA·북한간 회담장소가 결정될 것임.</li> </ul>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북한 인권문제 제기 필요 언급</li> <li>* 기자회견</li> <li>- 북한도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남북간 화해와 공존공영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제기되어야 함.</li> <li>- 인권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산가족문제이며 이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북한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放, 金泳三 대통령 신년사 비난</li> <li>- 김 0 0은 취임사에서 그어떤 외세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이익을 외세에 통채로 팔아 넘기고 있음.</li> <li>- 그는 미군의 남조선 영구주둔과 감축보류를 애걸하고 다니면서 국제공조체제 수립 대가로 쌀시장을 개방하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음.</li> <li>- 또한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약속할 수 없다느니, 핵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국무부 차관보, 美·北韓 實務接觸 관련 記者會見</li> <li>- 북한은 핵안전협정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음.</li> <li>- 또한 북한은 남북 대화재개 수용의사를 밝힘으로써 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전망이 성숙되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는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함.</li> <li>- 북한이 대화를 제기해도 정부의 原則에 맞지않을 경우 무조건 응하지는 않을 것임.</li> </ul>	<p>해결전에는 북남대화 재개의 사가 없다느니 하면서 북남관계를 침체하게 악화시켰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야말로 문민의 탈을 쓴 파쇼매국노로서 더이상 지켜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음.</li> </ul>	<p>○ 美, 한국정부에 IAEA·북한간 협상재개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와 북한은 다 음주 빈에서 북한 핵사찰의 방법, 시기 등을 협의할 것임.</li> </ul>
1. 6	<p>○ 金泳三 대통령 연두기자회견</p> <p>&lt; 기자회견문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를 닦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li> <li>- 북한측은 이제라도 한반도문제를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올바른 자세로 나와야 함.</li> <li>-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밖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를 통해 민족내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정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람.</li> <li>-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li> </ul>	<p>○ 『祖平統』 정신희 부위원장, 金日成 新年辭 지지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북남대화들이 교착되고 북남합의서와 비핵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의 외세의존 정책에 기인함.</li> <li>-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범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은 온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됨.</li> <li>- 단군 이래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겨레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따라 굳게 뭉친다면 범민족 통일국가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음.</li> </ul> <p>○ 『祖國戰線』 중앙위 의장 염태준, 김일성 신년사 지지 담화</p>	<p>○ 크리스토퍼 미국무 장관, 미국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대북한 核協商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임.</li> <li>-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査察이 주기적이며 自主적으로 이루어져야 함.</li> </ul>

■ 1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6	<p>추진될 것임.</p> <p>- 북한이 하루속히 개혁과 개방의 추세에 동참한다면 우리 민족 전체의 세계화는 그만큼 앞당길 수 있음.</p> <p>&lt; 기자 일문일답 &gt;</p> <p>-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회담성사를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 몇가지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함.</p>		
1. 7		<p>0 『汎民聯』 해외본부, '94년을 '민족대단결의 해' 지정 제의 提案書 발송</p> <p>- 『汎民聯』 해외본부는 통일의 원년 1995년 전야의 해인 1994년을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전민족을 하나로 단합시키기 위한 운동을 공동으로 벌일 것을 남측과 북측에 제의함.</p> <p>0 『祖平統』 서기국, 통일원장관 기자회견(1.5) 비난</p> <p>- 남조선 통일원장관이란 자가 신년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북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겠다는</p>	<p>0 IAEA·북한 제1차 실무접촉(IAEA본부)</p> <p>- 사찰범위, 횡수, 사찰단규모, 방북 일정 등과 관련 의견 불일치</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7		<p>니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된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하에서는 도대체 人權問題란 없음.</li> <li>- 만일 남조선 통치배들 속에서 앞으로 이런 망발이 더 나온다면 北南關係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임.</li> </ul> <p>○ 『職總』위원장 주성일, 『社勞育』위원장 최용해, 『農勤盟』위원장 최성숙, 김일성 신년사 지지 談話</p>	
1. 8		<p>○ 『汎民聯』북측본부 의장 백인준, 김일성 신년사 지지 담화</p> <p>○ 조선기자동맹 위원장 현준극, 『女盟』서기장 강관선, 김일성 신년사 지지 담화</p>	
1. 9			<p>○ 하타 日 외상, 對北 수교협상 재개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북경)</li> </ul> <p>- 일본은 북한과의 修交회담을 언제든지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p>

■ 1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0	<p>○ 李榮德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북한핵문제 조기해결 추진 방침</p> <p>* 국회 외무통일위</p> <p>-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넘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離散家族들의恨과 고통을 씻어주는 일이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됨.</p> <p>-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어 경색된 南北關係를 풀어가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p> <p>- 북한의 핵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약속해 놓은 여러 施行事業들을 실천해 나가겠음.</p> <p>- 남북한·미국간 3당국자 회담개최를 현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p> <p>* 판문점 이산가족면회소 및 우편물교환소 설치, 고령자 고향방문단 교환의사 표명</p>		<p>○ IAEA·북한 제2차 실무접촉(IAEA본부)</p> <p>- IAEA는 북한측에 사찰문제관련 기술적 세부요구사항 전달</p> <p>○ 크리스틴 쉘리 美國 무부 副대변인, IAEA·북한 협상타결후 美·北 접촉 개최 시사</p> <p>- 북한·IAEA간 協商이 오래 끌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빨리 매듭질것으로도 보지 않음.</p> <p>- IAEA와 북한이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힐 경우 또다른 美·北韓 실무접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	<p>0 金泳三 대통령, 샘 년 美 상원 군사위위원장과 북한 핵문제 논의</p> <p>&lt; 김영삼 대통령 발언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解決돼야 함.</li> <li>-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가 어느때보다 절실함.</li> <li>- 한·미 관계의 긴밀한 協調를 위해 미국의회가 계속 지원해 주기바람.</li> </ul> <p>&lt; 샘 년 위원장 발언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美 관계의 긴밀한 협조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절대 필요하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도 필요함.</li> </ul> <p>0 李築德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북한 개방·변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북 5도청사 방문 치사</li> <li>- 남북대화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대화가 되어야 하며 모양내기식 對話는 이제 의미가 없음.</li> <li>-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li> </ul>	<p>0 북한,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장 48조로 구성</li> </ul>	<p>0 한스 마이어 IAEA대변인, IAEA·북한 협상문제 관련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속 접촉일정에 관해 아직 북한측 으로부터 통보는 없음.</li> <li>- 늦어도 주말이전에 또 한차례 접촉이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li> </ul> <p>0 訪韓 샘 년 美 군사 위위원장, 북한에 전면핵사찰 수락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2개 미신고핵시설을 포함한 IAEA의 완벽한 査察에 응함으로써 핵개발을 앎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li> <li>- 북한이 현재와 같이 폐쇄정책을 유지한채 핵에 대한 국제질서를 무시할 경우 경제파탄에</li> </ul>

■ 1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	<p>엄성이라는 보편적價値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남북이 다를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 북한도 변해야하며 북한이 변해야 우리가 소망하는 統一이 이루어짐.</li> <li>- 올해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절대절명의 과제인 북한 核問題는 금년초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음.</li> <li>-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li> <li>- 북한에 노부모 고향방문 정례화를 촉구하겠음.</li> </ul>		<p>직면할 것이며, 전쟁을 일으킬 경우 파국을 자초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경우 남북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경제회복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li> <li>- 韓·美 양국은 북한이 이같은 노선을 선택하기를 함께 희망하고 있음.</li> </ul>
1.12	<p>0 李基澤 민주당대표, 訪北 의사 표명 * 연두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平壤을 방문하여 金日成 주석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음.</li> </ul>	<p>0 『職總』중앙위 제27차 전원회의(1.12-13, 평양)개최</p>	<p>0 日 동경신문, 러시아-북한 잠수함 4척 판매계약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크스트로크' 급 잠수함 4척의 對북한 판매계약 체결</li> </ul> <p>0 크리스틴 셸리 미국 무부 부대변인, 북한 핵문제관련 중국 역할 긍정평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이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中國이 보여준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li> </ul>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昇洲 외무장관, IAEA · 북한 핵사찰협상 금명타결 전망</li> <li>• 기자회견</li> <li>- 북한과 IAEA의 핵사찰 협상은 특별한 현안이 없으므로 금명간 북한측으로부터 肯定的인 반응이 올 것으로 기대됨.</li> <li>- 북한과 IAEA의 협상은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복잡하게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나진-선봉 직할시로 합병추진(요미우리 신문)</li> <li>- 북한이 나진시 · 선봉군을 합병후 직할시로 승격, 항만건설 등 부분개방을 위한 방안을 추진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턴 미대통령-엘친 러대통령 회담 (모스크바)</li> <li>- 북한및 우크라이나 핵문제를 포함 국제적 핵무기감축 문제 등 논의</li> <li>○ 美 진보재단 로버트 매닝 연구원, 북한 핵문제해결 韓·美 日 단계별 공동접근 방안 제시</li> <li>• 연구보고서</li> <li>- 제1단계</li> <li>• 미국의 비전략상품 대북금수해제, T/S 훈련중지, 북한과 연락사무소 설치</li> <li>• 한국과 일본의 대북경제의(일본은 대북수교 추진)</li> </ul>

■ 1 원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단계</li> <li>· 한·미·일이 북 한의 IMF, IBRD, ADB 가입지원</li> <li>· 미국의 주북대사 사관 개설 및 대 북최혜국 대우지 위 부여</li> </ul>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민정음창제 550돌기념 평양 시 보고회(인민대학습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턴 美대통령-엘 친 리대통령, '모스 크바 선언' 채택</li> <li>- 북한에 국제핵사찰 수용 촉구</li> <li>- NPT 무기한 연장</li> <li>○ 클린턴 美대통령, 대북한 미사일겨냥 경고</li> <li>* CNN-TV 회견</li> <li>- 미국 핵미사일의 목표가 러시아가 아닌 公海를 향하 다고 해서 북한이 나 이라크, 리비아 등이 미국의 핵무 기를 도의시한 채 행동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될것임</li> <li>- 만약 핵미사일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4			<p>北韓 또는 다른 곳을 향해 재겨냥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를 신속히 할 수 있음.</p> <p>0 美 국무부, 일본에 對북한 미사일부품 판매관련 철저수사 촉구</p>
1.15		<p>0 최고인민회의 양형섭의장, 李基澤 민주당대표 방북의사 표명(1.12) 환영 성명</p> <p>- 나는 李基澤 대표의 평양방문 의사가 우국충정의 발현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지지와 환영을 표시함.</p> <p>- 나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민족내부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解消하고 새국면을 열어나갈 방도를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p> <p>- 나는 李基澤 대표가 올해에 첫걸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p> <p>0 「汎民聯」북측본부, 해외본부의 94년 민족대단결의 해 지정제의(1.7) 지지 성명</p>	<p>0 亞·太 의원포럼, 對북한 핵사찰 수락 촉구성명 채택</p> <p>- 국제사회는 북한이 IAEA의 핵안전조치를 완전히 遵守토록 촉구하기 위한 모든 쌍무-다자간 노력을 지원해야 함.</p> <p>- 북한의 NPT탈퇴 위협은 핵무기확산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條約의 효력을 훼손하게 될 것임.</p> <p>- 북한이 이같은 위협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UN안보리의 신뢰성도 약화될 것임.</p>

■ 1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련』북측본부는 해외본부의 이번 발기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며 열렬히 환영함.</li> <li>- 우리는 1994년을 민족대단결의 해로 할 것을 발기하고 北과 南에 호소한 것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한 매우 발전적인 조치로 된다고 인정함</li> <li>- 우리는 조국통일의 원년인 1995년 전야의 해인 1994년을 민족대단결의 해로 장식하기 위해 통일애국운동을 줄기차게 조직·전개할 것임.</li> </ul> <p>○ 당비서 황장엽, 중국방문 (1.15~1.23)</p>	
1.17	<p>○ 미국, 정부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국제조약화 제안 보도(동아일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한국정부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國際條約化할 것을 제안</li> </ul> <p>○ 李築德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 판문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추진 재천명 * 판문점 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상호교류나 판문</li> </ul>	<p>○ 『祖平統』대변인, T/S 대체 훈련계획 비난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대북강경론자들과 군부 호전광들이 올해에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이 중지되더라도 다른 종류의 韓·美합동군사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음.</li> <li>- 남조선에서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이 中止된다고 하여도 다른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게 된다면 팀스피리트 핵전쟁연습을 중지하는 의미가 없</li> </ul>	<p>○ IAEA·북한 제3차 실무접촉(IAEA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제2차 접촉시(1.10, 빈) IAEA 측이 제시한 사찰요구항목에 대한 답신 전달</li> </ul> <p>○ 한스 마이어 IAEA대변인, IAEA·북한 실무접촉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사찰당국자들과 북한대표들이</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7	<p>점 면회소 설치가 성사되도록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부터 UN司와 협의, 판문점 민간인 訪問을 두 배로 늘릴 계획임.</li> </ul> <p>○ 李基澤 민주당대표, 방북 신청의사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국회가 끝난뒤 2월중에는 정식으로 북한방문을 신청하겠음.</li> <li>- 북한에 가면 김일성 주석에게 남북정상회담과 韓·美·北韓이 참여하는 3자회담도 촉구할 방침임.</li> </ul> <p>○ 韓昇洲 외무부장관, 미국의 비핵화 공동선언 국제조약화 제의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이 선언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한이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적인 議定書를 체결할 사안이 아님.</li> <li>- 북한이 지난해 NPT탈퇴선언을 한뒤 미국정부가 아닌 다른 일각에서 비핵화선언의 조약화방안을 거</li> </ul>	<p>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핵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전쟁정세만 조성하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대화에 준비되어 있을 뿐아니라 戰爭에도 준비되어 있으며, 평화가 소중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자들의 무모한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li> </ul> <p>○ 金達玄, 대남공작소조 부책임자 임명說(세계일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 서방소식통 인용</li> <li>-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93.12.9-11)이후 '대남공작소조'를 신설, 김영주와 김달현을 正·副책임자로 임명하였다고 보도</li> </ul> <p>○ 북한, UNESCO 아·태지역 분과위원회 제1부의장국으로 피선</p>	<p>만났으나 북한측으로부터 사찰재개 문제에 대해 청신호가 전혀 없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은 사찰과 관련된 구체적 입장과 견해를 전해왔으며, IAEA측은 요구되는 사찰의 내용과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했음.</li> </ul> <p>○ 카네기재단 레너드 스펙터 연구원, 북한 미확인 핵시설 보유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HT紙 회견</li> <li>- 서방이 이라크사태로부터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중요한 핵시설소재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임.</li> <li>-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위험은 우리가 한반도 본적이 없는 핵시설들이 있다는 것이지만 현재로서 이는 2차적인 문제인</li> </ul>

■ 1 원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7	<p>론한 적이 있으나, 미국정부는 그같은 방안이 북한 핵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일축한 바 있음.</p> <p>- 미국정부가 우리정부에 비핵화선언의 조약화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韓·美간 이 문제를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음.</p>		<p>것 같음.</p>
1.18	<p>0 金泳三 대통령, 대북정보 활동 강화 지시 * 안기부 업무보고</p> <p>- 북한동향 및 핵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판단과 대공수사 및 방첩 활동을 強化해야 함.</p> <p>0 李基澤 민주당대표, 비핵화 공동선언 국제조약화 반대입장 표명</p> <p>- 비핵화공동선언은 국가간의 條約이 아닌 민족내부의 합의사항임.</p> <p>-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해 解決돼야 할 문제임.</p>		<p>0 미국, 韓·日에 미사일 개발제한 요구</p> <p>- 미국이 최근 한국 및 일본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사정 300Km이내로 제한하는 협정체결을 요구</p> <p>0 윌리엄 테일러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부소장, 북한 핵개발포기 조건부 駐韓미군 감축 주장</p> <p>- 미국은 북한의 핵 계획중단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납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보다 유연한</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8			<p>措置가 바람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개발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며, 3만5천명의 현 주한미군을 8천 내지 1만명 규모로 減縮할 수 있을 것임.</li> </ul>
1.19		<p>0 金日成, 문익환 목사 유가족에 弔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문익환 목사가 뜻하지 않은 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哀悼의 뜻을 표함.</li> </ul> <p>0 『農勤盟』중앙위 제22차 전원회의 (1.19-20, 평양)</p>	<p>0 IAEA·북한 실무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는 핵안전협정에 따른 전면사찰 수용 희망 입장을 북한측에 서면으로 통보</li> </ul> <p>0 한스 마이어 IAEA 대변인, IAEA·북한 실무접촉 결과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이 3차접촉(1.17)에서 IAEA가 요구하고 있는 査察의 많은 부분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상당수의 항목에는 동의해 오지않았음.</li> <li>- 북한측이 신고된 7개 시설에 대해</li> </ul>

■ 1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9			<p>핵안전조치의 전부 문에 걸친 승意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찰단을 평 양에 파견할 수 없 다는 것이 우리측 의 확고한 입장임.</p> <p>-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訪問과 추가 적 핵정보에 대한 접근문제는 별도로 다뤄지게 될 것임.</p>
1.20	<p>0 통일원, '94년 핵문제 우 선 해결 방침 * 대통령 업무보고</p> <p>- 핵문제 우선 解決과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회 담 추진</p> <p>- 이산가족문제 적극해결 노력</p> <p>- 남북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北韓의 개방 과 변화 유도</p> <p>&lt; 金泳三 대통령 지시사항 &gt;</p> <p>- 임기내 남북관계가 南北 聯合단계로 발전위한 최 선의 노력경주</p>	<p>0 『汎民聯』북측본부 의장 백인 준, 문익환 목사 조의방문단 파견 제의 통일원장관 앞 전 화통지문</p> <p>- 고인의 영전에 哀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서울에 조의 방문단을 보내기로 하였 음을 통지하는 바임.</p> <p>- 나는 우리방문단이 서울에 가 는 것과 관련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1월21일(금) 오전 10시 판문점 중감위회의 실에서 쌍방 實務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p> <p>- 우리측에서는 북남연락사무소 북측연락대표 2명을 내보내려 하므로 귀측에서 상응한 措置 를 취하여 줄것을 희망함.</p>	<p>0 클린턴 美대통령, 북한 핵무기 운반능 력 비보유 평가 * 美 CNN-TV 대담</p> <p>- 설령 북한이 핵무 기 하나를 開發했 다 하더라도 운송 능력은 없는 것으 로 의심함.</p> <p>- 북한이 핵무기 보 유국에 합류하지않 도록 매우 단호할 필요가 있음.</p> <p>- 나는 북한이 NPT체 제에 복귀하고 IAE A사찰을 허용할 것 이라는 기대를 포 기하지 않고 있음.</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統一院이 중심이 되어 남북 대화와 대북정책 추진</li> <li>- 離散家族問題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li> <li>- 감상적 통일론과 통일지상주의를 경계</li> </ul> <p>○ 국방부, 병력감축 방침          * 대통령 업무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군사력을 적정규모로 減縮, 부대구조를 병력위주에서 질위주의 기술집약형으로 재편</li> </ul> <p>○ 統一院 대변인, 「범민련」 북측본부의 고 문익환 목사 조의 방문단 파견 제의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汎民聯」은 이미 우리 대법원 확정판결('92.7.28)에 의해 국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의 우리측 지역방문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li> <li>- 북한핵문제 해결지연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북한측의 제의가</li> </ul>	<p>○ 북한, 개정 「합영법」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개정 합영법 (5장 47조) 채택</li> </ul> <p>○ 「汎民聯」 북측본부 백인준 의장, 문익환 목사 장례대책위원회 앞 전화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조의 방문단을 보내어 남북측의 각계인사들과 함께 유가족들을 慰問하기로 하였음.</li> <li>-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조의 방문단이 판문점을 통과 문익환 목사의 장례식에 參加하며, 오후에 서울을 출발 귀로에 오를 예정임을 알려드림.</li> <li>- 조의 방문단의 판문점 통과와 편의제공, 신변안전보장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귀측 통일원장관에게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필요한 協助를 기대하는 바임.</li> </ul> <p>○ 「조국전선」 중앙위·「법칭학련」 북측본부·기독교도연맹 중앙위, 문익환 목사 장례대책위원회 앞 弔電</p>	

■ 1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0	<p>南北關係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음.</p> <p>- 북한측은 하루빨리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離散家族 문제를 포함한 쌍방 주민이 자유롭게 南과 北을 오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p>	<p>0 이인모, 문익환 목사 유가족에 弔電</p>	
1.21	<p>0 李榮德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적극적 대북자세 강조</p> <p>• 『민주평동』원래강좌</p> <p>-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빠른속도로 개선될 것이며, 북한과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도 상당한 進展을 보게 될 것임.</p> <p>- 북한핵문제는 중국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에서 解決될 수 있을 것임.</p> <p>- 과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북인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積極的인 자세가 어느때 보다 필요함.</p>	<p>0 외교부 대변인, IAEA·북한 핵사찰 협상관련 기자회견</p> <p>-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구와의 協商에서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사찰범위를 제기했음.</p> <p>- 우리가 허용하기로 한 사찰은 조약상 의무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아니라 우리가 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순수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임.</p> <p>- 국제원자력기구는 朝·美 사이에 합의된대로 이번 협상에서 담보의 연속성보장에 상응하게 사찰범위를 확정하는데 긍정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임.</p>	<p>0 북한-호주, 관계정상화회담 진행 (연합통신)</p> <p>- 북한측 제의로 북한·호주 관계정상화회담을 '93.12월 말-'94.1월 초순까지 방콕 및 자카르타 주재 호주대사관에서 개최</p> <p>- 호주는 북한측에 관계정상화 條件으로 IAEA 핵사찰수락과 대미 및 남북대화 우선추진입장 제시</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사이 '대화를 위한 대화', '모양내기대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이 제는 문제해결에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생산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li> <li>○ 金三勳 핵전담대사, 북한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관련 논평</li> <li>- 외교부 대변인 聲明에는 북한과 IAEA사이의 협상을 어렵게 끌고가려는 측면과 북한 내부 무마용일 가능성이 반반임.</li> <li>- 그동안 북한이 보인 미국과의 協商태도로 볼때 내부용일 가능성이 높음.</li> <li>- 정부로서는 당분간 북한과 IAEA사이의 협상을 지켜볼 방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협정에 따른 정기 및 비정기사찰 문제는 제3단계 朝-美회담이 열려 一括妥結안이 합의되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li> <li>- 만일 국제원자력기구서기국의 당치않은 주장에 의해 담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함.</li> <li>○ 문익환 목사 북측 조의방문단, 서울방문 무산 관련 남한 당국 비난 성명</li> <li>- 남조선당국자들의 그릇된 처사로 북측 조의 방문단이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대 대해 깊은 遺憾을 표시함.</li> <li>- 김○○ 반역도당이「汎民聯」이니 핵문제니 하고 걸고든 것은 우리의 조의 방문을 가로막기 위해 들고나온 구차스런 꾀변에 지나지 않는 것임.</li> <li>- 조의 訪問을 당치않은 구실로 가로막은 행위는 김○○ 정권이 5명의 조객도 받을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매년 75억원 對북한 군사지원 (세계일보)</li> <li>- 중국이 대북한 원조규모 축소 이후에도 매년 75억원 규모의 軍事援助를 제공</li> <li>- 석유·석탄 등 에너지 원조외 매년 1백 50억원 규모의 食糧援助 별도제공</li> <li>○ 美 NYT紙, 북한 리잠수함 40척 구매 착수 보도</li> <li>- 북한이 일본의 중개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함대로부터 40척의 고물잠수함 구매에 착수</li> <li>- 북한 해군력 강화 또는 부품사용 목적인 것으로 분석</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	<p>0 정부, 對北 주민접촉전 통일교육 의무화 방침</p> <p>- 남한인의 북한주민 접촉전 통일원(통일연수원)의 사전 統一敎育 이수률의 무화하기로 방침 결정</p>	<p>0 「祖平統」, 문익환 목사 북측 조의방문단 서울방문 무산 규탄 聲明</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의 조의 방문제의를 核問題와 결부시켜 생트집을 부리는 것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결시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나온 정치도발 행위임</p> <p>- 우리는 남조선 통치배들이 초보적 인륜도덕도 짓밟고 우리측의 조의訪問을 가로막은 반역적 죄행에 대해 두고두고 저주하며 계산할 것임.</p> <p>0 「祖平統」 및 「汎民聯」북측 본부, 문익환 목사 추도회 개최(평양)</p>	
1.23		<p>0 「祖國戰線」중앙위, 문익환 목사 북측 조의방문단 서울 방문 무산 규탄 聲明</p> <p>-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원회는 우리의 弔意방문단 제의에 대한 김○○도당의 거부책동을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염원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탄함.</p> <p>-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인 조의 방문제의를 핵문제와 연결.</p>	<p>0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의미없는 대북핵사찰」 거부입장 천명</p> <p>* 佛 리베라시용紙 회견</p> <p>- IAEA는 북한이 지난해 영변핵단지내 시설에 대한 마지막 사찰이후 핵물질은 다른곳으로 빼돌렸는지의 여부</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3		<p>거부한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떠드는 핵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불순한 政治的 목적의 산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함.</p>	<p>를 확인할 수 없는 '의미없는 사찰'은 拒否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된 7개핵시설에 대해 작년까지 실시했던 것과 같은 사찰을 계속하고, 이어 2개의 추가시설에 대한 사찰방법을 협의할 것과 이러한 사찰이 定期的으로 실시되어야할 것도 북한측에 요구하고 있음.</li> <li>- 영변 원자로에 대해 査察을 한다고 해서 또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배제할 수는 없음.</li> </ul>
1.24	<p>○ 韓昇洲 外무장관, 토마스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와 북한핵문제 협의</p> <p>&lt;허바드 부차관보 발언요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정부는 곧 열리는 美·中 外무장관회담에서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담당토록 요청할 방침임.</li> </ul>	<p>○ 조선천도교회 위원장 유미영, 동학혁명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관련 남한 오익제 천도교 교령 앞 전화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오농민전쟁 100돌을 北과 南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문제를 귀측과 협의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목) 오전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 위 한영수 부위원장을 단장으로</li> </ul>	<p>○ IAEA·북한 실무접촉(빈)</p> <p>○ 크리스틴 쉘리 美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에 IAEA사찰조건 조속수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IAEA사찰조건을 조속히 받아들여야 함.</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中 1 외무장관회담에서 는 북한핵문제가 심도있 게 논의된 것임.</li> <li>- IAEA와 북한의 핵사찰 협 의가 마무리 되기까지는 美·北韓 접촉을 하지 않 을 것임.</li> </ul>	<p>로 하는 3명의 대표를 내보내 기로 하였음을 알리는 바임.</p> <p>○ 「汎民聯」북측본부 백인준 의 장, 북측본부 결성 3돌관련 담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해내외 모든 「범민련」 조직들과 함께 올해를 '민족 대단결의 해'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해'로 만 들어 1990년대에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갈 「汎民聯」북측본 부의 결의를 다시금 표명함.</li> <li>- 우리는 「汎民聯」을 이단시 하고 「범민련」운동을 비법 화한 세력에 대해서는 민족의 원수로 규정하고 그를 제거하 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것 임.</li> <li>- 현 남조선 당국자들이 「汎民 聯」의 통일애국활동을 적극 보장해 나설것을 주장함.</li> <li>- 우리 북측본부는 앞으로도 남 조선 「범민련」운동을 합법 화하기 위한 남측 「汎民聯」 관계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 성원할 것임.</li> </ul> <p>○ 「汎民聯」북측본부, 문익환 목사 북측 조의방문단 서울 방문무산 규탄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끝내 IAEA 와 사찰조건에 합 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핵문제 를 UN 안보리에 회 부, 經濟制裁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li> <li>○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회담 (파리)</li> <li>- 북한의 IAEA핵사찰 수용 필요성에 공 동인식</li> <li>- 북한의 핵사찰 수 용거부시에도 대북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일치</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汎民聯』북측본부는 조의 방문단의 앞길을 가로막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처사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탄함.</li> <li>- 남조선 괴뢰도당의 행동은 그들이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한 접촉과 對話,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li> <li>- 우리는 김 0 0 일당을 민족내부에서 제거하고 전민족 대단결로 90년대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해 『汎民聯』의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갈 것임.</li> </ul>	
1.25	<p>0 통일관계장관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해결 및 남북 대화 재개방안 등 주요 현안논의</li> </ul> <p>0 韓昇洲 외무장관, 북한핵사찰 문제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우호협회 만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한 대화와 설득을 통한 외교적 해결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지만 앞으로 2-3주일안에 對話정책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임.</li> <li>-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경</li> </ul>	<p>0 『汎民聯』북측본부 중앙위 총회 개최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lt; 총회 결의문 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를 '민족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汎民聯의 모든 활동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관철하는데 집중할 것임.</li> <li>- 민족대단결 운동을 모든 계기와 가능성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과감히 벌여나갈 것임.</li> <li>- 민족대단결을 방해하는 내외분열주의 세력과의 과감한 鬭爭을 전개해 나갈 것임.</li> </ul>	<p>0 IAEA·북한 실무접촉(빈)</p> <p>0 클린턴 美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반드시 실현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두교서</li> </ul> <p>0 존 머서 美하원 국방위 세출소위원장, 對북한 군사조치 강구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턴 미대통령은 핵사찰문제로 금년 중 북한과 격돌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軍事措置도 취</li> </ul>

■ 1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5	<p>우 한반도에는 재래식 武力衝突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p> <p>- 우리는 그럴 경우 한반도 안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憂慮하고 있음.</p> <p>○ 법무부, 통일대비 『재산 특례법』 제정 추진방침 * 대통령 업무보고</p> <p>- 남북한 법률·사법제도 통합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p> <p>- 남북통일에 대비, 재산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특례법시안』을 '94년중 마련</p> <p>- 판문점에 『남북 출입관리사무소』 설치 등 出入 境관리방안도 검토</p>	<p>- 범민련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임.</p> <p>○ 『범청학련』 북측본부 대변인, 남측본부 前부의장 구속관련 규탄 담화</p>	<p>할 각오를 해야 할 것임.</p> <p>- 핵폭탄개발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北韓은 깨달아야 할 것임.</p> <p>○ UN군축회의 개막 (제네바)</p> <p>* 제라르 에레라 군축회의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사찰거부를 비난</p>
1.26		<p>○ 북한·미국, 미군 유해송환 관련 실무회의 개최(1.26-27, 판문점)</p> <p>- 쌍방간 미군유해의 발굴, 선별, 인도·인수 과정에서 얻은 경험 통보</p> <p>- 유해문제와 관련한 合意書 이행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논의</p>	<p>○ 린 데이비스 美국무차관, '94 T/S훈련 중단시 대체훈련 실시입장 표명</p> <p>- 韓·美 양국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 상황이 북한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감소시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6		<p>0 중국-북한, 淸津항 공동개발 합의 (홍콩 大公報)</p> <p>- 중국 연길 公文物資貿易商社 와 북한당국간 청진항을 공동 개발키로 합의</p> <p>- 청진항 공동개발후 한국·대만·미국·일본·홍콩 선박의 입안을 許容키로 결정</p>	<p>경우에 한해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키로 합의했음.</p> <p>- 금년에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국에서 다른 주요한 합동훈련을 계속할 계획임.</p>
1.27	<p>0 李築德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 종교교류 조건부 허용 의사표명</p> <p>• 기자회견</p> <p>-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종교행사 교류도 할수록 좋음.</p> <p>0 김대중 前 민주당대표, 남북정상회담 조속개최 촉구</p> <p>• 아·태 평화재단 창립식 기조연설</p> <p>- 남북한 집권자인 金泳三 대통령과 金日成 주석간의 정상회담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함.</p> <p>- 핵문제가 타결되면 남북이 같은 동포로서 모든 현안을 풀어나가야 함.</p>	<p>0 빌리 그레이엄 목사 평양방문 (1.27-2.1)</p>	<p>0 코지레프 러 외무장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러 협력 필요성 강조</p> <p>• 중국외교연구소 연설</p> <p>- UN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두나라가 한반도 비핵화 및 아시아·태평양지역내 핵확산 통제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함.</p> <p>0 美 WP紙, 아파치 헬기 한국 배치 보도</p> <p>- 미행정부가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 배치계획과 별도로 2개 아파치 헬기대대 배치를 추진중</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8	<p>○ 국방부,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배치계획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등 주한미군 전력 증강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일뿐 북한의 군사적 도발징후에 의한 것은 아님.</li> <li>-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아파치헬기의 한국배치는 89,90년 韓-美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미 합의된 것임.</li> <li>- 아파치헬기의 配置도 주한미군의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코브라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예산에 포함된 것임.</li> </ul> <p>○ 韓昇洲 외무장관, IAEA이사회(2.21)전 핵의혹 非핵소시 대북제재 강구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 일본특파원 회견</li> <li>- 다음달 21일까지 (IAEA-북한)핵사찰협상이 실패할 경우 IAEA는 UN안보리에 그같은 상황을 통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li> </ul>	<p>○ 노동신문, 통일원 업무보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통일원장관이 김○○에게 보고한 통일원 새해 업무계획이라는데서 방북허용이니 이산가족 상봉문제니 하면서 그무슨 變化가능성에 대해 해 운운하였다함.</li> <li>- 남조선 괴뢰들이 누구의 변화에 대해 운운한 것은 자유화 바람을 불어넣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해 보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며, 離散家族 상봉문제 적극추진 하고 떠벌인 것은 인도적문제를 가지고 저들의 반통일적 정체를 가리워 보려는 위선행위에 지나지 않음.</li> <li>- 통일원장관이 통일원 업무계획에 대해 말하면서 통일이란 말한마디 비치지않고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政治·軍事 문제도 외면하며 면회소문제나 들고다니는 조건에서는 분열원이라는 오명을 절대 벗을 수 없음.</li> </ul>	<p>○ 美 WT紙, 미국 항공모함 한국배치계획 검토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방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및 아파치헬기 한국배치계획외에 항공모함의 한반도 인근해역 配置計劃을 검토중</li> <li>-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포괄적 작전계획의 일환으로 분석</li> </ul> <p>○ 美국방부 대변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배치계획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프전 이후 그동안 성능이 상당히 향상된 개량형 미사일이 나왔음.</li> <li>- 패트리어트 미사일 일의 한국배치 決定이 내려지면 이 개량형 미사일이 한국으로 가게 될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 빌리 그레이엄 美목사 일행 접견</li> <li>* 김일성에게 보내는 클린턴 美대통령의 구두메시지 전달</li> </ul>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祖平統」대변인, 패트리엇 미사일 남한배치계획 규탄성명</li> <li>- 미국은 대북첨보강화 명목밑에 美 국가정보지원팀이라는 것을 남조선에 투입하고 우리의 미사일 공격대응 구실밑에 패트리엇 미사일의 남조선 배치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함.</li> <li>- 이것은 우리민족을 멸살시키는 핵전쟁을 유발시키며 3단계 朝-美회담의 실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어가려는 반평화적·반동일적 범죄행위로 됨.</li> <li>- 미국은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정보요원들과 핵무기를 건어가지고 당장 제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김00도당은 사대매국과 북남대결책동을 무조건 中止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샘 년 미상원 군사 위 위원장, 북한 핵 문제해결 중국인권 문제보다 우선 주장</li> <li>* 美 NBC-TV 대담</li> <li>-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中國의 인권 문제보다 더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할 것임.</li> <li>- 동북아 지역에서 美國의 최우선정책은 핵확산금지, 핵무기 경쟁방지, 전쟁방지에 두어야함</li> <li>- 북한이 미사일 수출과 핵개발을 中斷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을 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li> </ul>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會昌 국무총리,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배치계획 관련 언급</li> <li>* 기자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대변인, 朝·美 합의사항 이행촉구 聲明</li> <li>-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은 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만강개발 실무자 회의(1.31-2.2, 뉴욕 UNDP본부) 개최</li> <li>- 참가국: 남·북한,</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남북한 관계에서 軍事的 긴장관계가 악화되었거나 북한의 위협징후가 새로 나타난것은 없음</li> <li>- 패트리엇 미사일의 한 국배치 문제는 아직 협의 중이며 確定된 것이 아님</li> <li>-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리에게 팔려고 미리 배치한다는 관측에 대한 근거는 없으나,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遺憾스럽게 생각함.</li> <li>○ 李基澤 민주당대표, 한반도 비핵화선언 수정 주장</li> <li>* 기자회견</li> <li>-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국제적 制裁조치도 반대함.</li> <li>- 核의 평화적 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아서 는 안됨.</li> <li>- 한반도 비핵화선언 제3조의 修正을 검토해야 하며 비핵화선언을 국제조약화 하는 문제도 반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 效力 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우리의 특수한 지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이 아니라 앞으로 朝·美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는 조약복귀에 맞먹는 전면사찰을 실현해 보려고 시도하였음.</li> <li>- 미국이 지금까지 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표방하면서 동분서주한것은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며 그에 필요한 시간을 벌여보려는 遲延술책이었다는 것이 뚜렷히 실증되고 있음.</li> <li>- 공화국 외교부는 조성된 위기 상황과 관련한 立場을 다음과 같이 천명함.</li> <li>· 첫째, 미국이 우리와 한 약속을 끝내 뒤집어 엮는다면 우리도 더이상 미국과 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 우리가 미국에 한 약속들에는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 效力발생정지, 일체 핵활동의 동결, 핵연감속원자로 체계의 포기 등 모든 선의적인 조치와 公約들이 다 포함됨.</li> <li>· 둘째, 미국이 朝·美회담을 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li> <li>&lt; 결정사항 &gt;</li> <li>· 5월까지 두만강 개발전략과 투자지침 자료 종합작성</li> <li>· 지역개발전략 등 6개 전문가작업반 구성</li> <li>○ 美 국무부, 북한 외교부 성명(1.31) 관련 논평</li> <li>- 이미 밝힌 바 있는 것처럼 핵문제 타결에 進展이 없다면, 우리는 이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할 수 밖에 없을 것임.</li> <li>-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북한이 IAEA측과 合意에 도달하기를 촉구함.</li> <li>- 북한은 IAEA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찰을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31		<p>지 않겠다면 우리도 구태여 회답을 할 생각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셋째, 미국이 그 어떤 다른 방도를 선택하겠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대응방도를 選擇할 것임.</li> <li>- 미국의 강경보수파들은 도래할 파국적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남조선 당국자들도 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음.</li> </ul> <p>○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김승필 소장, 팔만대장경 解題 무단복제 관련 「아름출판사」에 抗議文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이조실록 번역본을 무단복제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귀출판사가 최근 또다시 우리가 집필·출판한 팔만대장경 해제 전 15권을 무단복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li> <li>- 우리는 팔만대장경 해제를 무단복제하고 있는 귀 출판사의 처사를 비법적 행위로 규탄하면서 팔만대장경 해제의 복제·판매를 절대 許容할 수 없다는 것을 귀 출판사에 통고하는 바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	<p>0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북한 핵문제 韓·美·IAEA간 협의강화 표명 * 통일정책당정회의</p> <p>- IAEA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21일전후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p> <p>- 현재로서는 IAEA가 핵안전조치의 계속성 파괴를 선언, 북한 핵문제가 UN안보리에 회부되는 시나리오와 IAEA사찰이 실시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 본격적인 段階로 진입하는 두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음.</p> <p>- 中國의 대북영향력행사가 북한측 태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p> <p>0 外務部,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1.31)관련 論評</p> <p>- 우리는 북한이 IAEA사찰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인 입장을 알려오기를 기대함.</p> <p>- IAEA와 북한간의 협의동향을 주시하겠음.</p>	<p>0 외교부 대변인, 美상원의 자유아시아 방송 개시법안 통과관련 기자회견</p> <p>- 지난 1월 25일 미상원이 자유아시아방송을 개시할데 대한 법안을 通過시킨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적·적대적 범죄행위임.</p> <p>- 미국이 자유아시아방송을 개시하려는 속심은 미국식 민주주의 價値觀과 부르조아 독소를 우리나라를 비롯 아시아 나라들에 주입시켜 이지역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고 자주적인 정권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보려는데 있음.</p> <p>- 美國은 우리나라와 다른 아시아 나라들을 적대시하는 선전모략기구인 자유아시아방송 개시놀음을 당장 그만두어야 함.</p>	<p>0 데이비드 키드 IAEA 대변인, 북한 핵사찰 수용거부시 對북한 협상 중단 의사 표명(日 동경신문)</p> <p>- 북한측에 처음 제시한 사찰방법에서 조금도 讓步하지 않을 것임.</p> <p>- 북한의 회답이 사찰수용에 부정적이거나 시간끌기로 간주되면 협상을 단념하고 美國에도 그같은 취지를 통보할 것임.</p> <p>- 북한이 사찰을 둘러싼 불명확한 점에 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을 경우 協商이 계속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p> <p>0 美상원, 핵문제관련 對北제재 촉구결의안 채택</p> <p>- 북한이 국제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조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배치검토를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li> <li>○ 천도교 중앙총부 오익제 교령, 동학혁명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협의 관련 유미영 조선천도교회 위원장 앞 진화통지문</li> <li>-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귀측 인사의 방문이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남북천도교 관문점 實務接觸은 추후 3월초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li> <li>- 오는 3월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릴것으로 확신하며 또 반드시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굳게 믿음.</li> <li>○ 黄秉泰 駐中대사, 北·中 관계 관련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ul> </li> <li>- 중국은 북한핵문제가 UN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자신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 것을 우려, 현재 북</li> </ul>		<p>를 취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 배치 및 T/S훈련 실시 촉구</p>

■ 2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	<p>한과 對話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中 수교로 악화됐던 北-中 관계가 최근 胡錦濤 중국 정치국 상임위원 訪北과 黃長曄 북한 노동당 비서의 訪中으로 완전히 정상화된 것으로 보임</li> <li>- 중국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며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開放政策을 취할 것으로 믿고 있음.</li> </ul> <p>○ 서해 해상 구조(1.27) 북한군 병사 2명 북한 송환</p> <p>* 제509차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 (판문점)</p>		
2. 2	<p>○ 韓昇洲 외무장관, 北核 대결심리 지양 강조</p> <p>* 재외공관장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문제에 대결심리나 승부게임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함.</li> <li>- 북한이 핵협상에서 이득을 얻게되면 우리에게도 보탬이 될 것임.</li> </ul>	<p>○ 손성필 駐러대사, NPT탈퇴유보 취소 위협(모스크바방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 조절 과정은 신중한 난관에 직면했고 보다 위협한 위기로 전변될 수 있음.</li> <li>- 미국이 이전의 자기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NPT 효력발생 임시 정지조치를 취소할 수도 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3	<p>○ 韓昇洙 주미대사, 2.21 넘 기면 北제재 논의 언급</p> <p>- 북한·IAEA간 핵사찰협상이 21일까지 매듭되지 않으면 UN 안보리의 제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임.</p>	<p>○ 김정우 대외경제사업副부장, 북한 APEC 가입 희망 (日 교도통신)</p> <p>- 김정우 부부장은 최근 북경의 한 동유럽 외교관에게 북한이 APEC회원국과의 보다 긴밀한 접촉을 통한 투자유치를 추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북한 정치체제를 반대하지 않는 한 어떤 나라와도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p> <p>○ 조선천도교회 유미영 위원장, 동학100돌 기념행사관련 비난 談話</p> <p>- 북남 천도교인들의 관문점 접촉을 가로막은 남조선당국 자들의 죄행을 온민족앞에 준렬히 고발함.</p> <p>- 이른바 문민정권이라는 것이 철두철미 파쇼독재정권이고 민족반역집단이라는 것을 똑똑히 드러냈음.</p>	<p>○ 美국무부, 대북한 접촉지속 확인</p> <p>- 지난해 12.29 이후 회동(meeting)은 없었으나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해왔음.</p> <p>- 현시점에서 그들과 실질적문제를 다룰 접촉계획은 없음.</p> <p>○ 美 민주당연구그룹(DSG), 北核제재 관련 보고서발표 (日 산케이신문)</p> <p>-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지만 최악의 경우로 군사작전을 벌이면 4개월만에 미국이 승리할 것 임.</p> <p>- 미국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6전투부대의 절반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음.</p>
2. 4	<p>○ 柳宗夏 駐유엔대사, 北韓核問題 진전상황 언급</p>	<p>○ 비駐在 윤호진 참사관, 핵사찰 협상 난망 언급</p>	<p>○ 유엔安保理 5개 상임이사국, 北韓核問題 대응책 협의</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는 해결이나, 제재나 하는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li> <li>-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을 것임.</li> <li>- 중국은 북한의 강경노선을 협상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시설에 대한 IAEA의 무조건적 사찰을 허용하라는 합의에 즉각 도달할 전망은 없음.</li> <li>-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상반된 입장이 하나로 절충될 수 없으며 우리는 IAEA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li> <li>○ 外交部대변인, 日本 고속증식로 「몬주」기동 비난 답화</li> <li>- 일본이 다량의 플루토늄을 자체 확보하여 임의의 순간에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시도임.</li> <li>- 일본이 핵무장화를 다그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과정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임.</li> <li>-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엔 美 대사는 IAEA-북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엔제재 입장 표명</li> <li>-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입장 지지언급</li> <li>- 반면 中國대사는 미국측 입장을 北京당국에 전하겠다고만 표명</li> <li>○ 訪北(1.27~2.1) 빌리 그레이엄 목사, 클린턴 美 대통령에게 김일성 메시지 전달</li> </ul>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統一院, '南北교역은 국제통상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침 확정</li> <li>- 南北거래는 자결권에 근거한 민족내부문제이기 때문에 GATT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근거한 國際通商規範이 적용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勳盟」중앙위, 쌀시장개방 반대 시위관련 규탄 聲明</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6		0 조선학생위, 쌀시장 개방 반대 시위 관련 규탄 聲明	0 미국, 북한 남침에 대비한 對韓방어계획 수정(NYT紙)  - 미국은 최근 북한이 남침할 경우 격퇴 뿐만 아니라 강력한 역공을 펴 平壤을 점령하고 김일성정권을 무너뜨린다는 計劃수립
2. 7	0 張在龍 외무부 미주국장, 김일성의 對클린턴 메시지 내용 언급  - 김主席은 자신이 과거에 핵무기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언급했음을 지적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0 WP紙, 美國방부가 미군예비부대에 T/S 훈련 참가통보 보도  - 미국정부는 북한핵 해결 노력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美國방부는 본토 미군 예비부대에 이미 T/S훈련 참가를 통보했음.
2. 8	0 대통령 주재 安保關係長官會議  * 최근 북한핵문제에 대한 안보상황정세보고와 토의 및 정부차원의 對策 마련		0 日 요미우리신문, T/S훈련 3.22 부터 실시 보도  - 韓美양국은 북한이 21까지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경우 3.22부터 10일간

■ 2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8	<p>&lt;金泳三대통령 발언요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핵문제가 UN안보리로 회부되더라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음.</li> <li>- 북한은 IAEA사찰을 수용하고 남북한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함.</li> </ul>		<p>T/S훈련 실시키로 내부방침을 세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S훈련 개시후라도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면 훈련을 중단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음.</li> </ul>
2. 9		<p>0 외교부 대변인, 美국무성의 인권 연례보고서 비난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무슨 인권문제가 있는듯이 떠벌인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날조해낸 것으로서 논의할 가치도 없음</li> <li>- 우리는 미국의 분별없는 행위를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주권유린행위로 내정간섭적인 적대행위로 단호히 규탄함.</li> </ul>	
2.11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페리 美 국방장관과 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94 T/S 훈련을 재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합의</li> <li>- 韓장관은 패트리엇 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를</li> </ul>	<p>0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동학 100돌기념행사 관련 비난 聲明</p>	<p>0 美·日 정상, 공동 기자회견(워싱턴)</p> <p>&lt;클린턴大統領 발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도 협의했으며 제재를 가하는 문제도 포함됐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1	<p>공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시기선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p> <p>0 韓·美 외무장관회담, 對北 설득노력 추진 합의 (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北 설득노력과 UN안보리 조치를 병행추진하는데 인식을 공유</li> <li>- IAEA이사회가 폐막되는 2월말까지 막후대화채널을 총동원, 北韓의 사찰수락을 촉구하기로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日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키로 합의했음.</li> </ul> <p>&lt;호소카와總理 발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의 제제가 불가피해질 경우 日本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음.</li> </ul>
2.12	<p>0 金泳三 대통령, 클린턴 美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韓美공조체제 등을 담은 친서를 한승주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li> </ul> <p>0 韓·日 외무장관회담, 안보리 조치에 공동보조 합의 (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돼 제재에 돌입하면 이 조치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li> </ul>	<p>0 외교부 대변인, 핵문제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측에서는 IAEA사찰은 순수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로 되어야한다는데 대하여 입장을 명백히 하면서 朝-美회담 계속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3단계회담이 열리면 핵문제와 조·미관계개선 전반을 토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해 왔음.</li> <li>- IAEA에서도 종전의 전면사찰 주장에서 물러나 순수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하겠다는 시사가 있었음.</li> </ul>	<p>0 WP紙, 미국 北核 3 단계 제재방안 협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핵사찰거부에 따른 對北제재의 3단계방안을 동맹국들과 집중협의 하고 있음.</li> <li>· 1단계: 군수물자의 대북금수조치</li> <li>· 2단계: 대북 전면 외교접촉금지</li> <li>· 3단계: 에너지·식량 금수조치</li> </ul>

■ 2 원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타 장관은 UN안보리 조치가 발동되면 日本 국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실제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라면 행동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지금과같은 반공화국 압력소동부터 중지해야함.</li> <li>- 대화를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li> </ul> <p>○ 「범청학련」북측본부, 쌀시장 개방반대시위 관련 비난 성명</p>	
2. 14	<p>○ 韓·日정상, 北韓核 문제 전화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핵문제가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데 공동인식</li> <li>- 韓·美·日 긴밀한 공조 체제 중요성 재확인</li> </ul> <p>○ 民自黨, 핵재처리시설 보유방안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국회 상임위활동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비핵화선언의 국제 조약화는 핵재처리시설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함.</li> <li>- 핵재처리시설문제는 東北亞지역 전체의 비핵화문제와 연계해 추진돼야 함</li> </ul>	<p>○ 북한, 新義州·南浦市 개방 예정(중앙일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先鋒·羅津 에 이어 2 단계로 신의주·남포시 일부 지역에 경제개방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li> </ul>	<p>○ 호소카와 日本총리, 북한 미사일 실험 사실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방송 인터뷰</li> <li>- 북한이 최근 사정 1천 5백KM의 미사일을 실험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5		<p>○ 북한, 7개 핵시설에 대한 IAEA 査察要求 수용</p> <p>★ 북한·IAEA 실무접촉시 통보</p>	<p>○ 북한·IAEA 실무접촉 (빈)</p> <p>○ IAEA, 북한 핵사찰 수락 발표 (聲明)</p> <p>- 북한·IAEA 실무접촉에서 평양당국은 신고된 7개 핵시설에 대한 IAEA사찰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통보해왔음.</p> <p>- IAEA는 공식절차가 갖춰지는 대로 즉시 사찰단을 파견하겠다는 점을 북한측에 서면통보했음.</p> <p>- 이번 사찰목적은 7개 핵시설의 핵물질이 지난해 2월 사찰중단 이후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임</p> <p>- 사찰을 통해 감시 카메라의 유지, 교체와 봉인의 확인 등 향후 북한 핵 현황의 계속적 감시를 위한 기초활동을 병행할 것임.</p>

■ 2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5			0 美國·北韓 실무접촉 재개 (뉴욕)
2. 16	0 朱煥植 청와대 대변인, 북한 IAEA핵사찰 수락 환영 聲明  - 정부는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기로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함.  - 북한이 대외에 약속한 바와 같이 알찬 남북대화가 있기를 기대함.  <기자 일문일답 내용>  - IAEA 핵사찰이 시작되면 남북실무접촉이 재개될 것으로 추정됨.  - IAEA의 대북 사찰이 내주 수요일(23일)께엔 실시될 것 같음.  0 鄭鍾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한 IAEA사찰 수용 관련 기자회견  - 安保理로 넘어갈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이번 사찰로 핵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0 노동신문 사설, 金正日 중심의 일심단결 주장  -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 확고히 이룩됨으로써 단결의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가 가장 빛나게 해결되었음.  - 우리 일꾼들은 언제나 이인모동지가 지닌 당성과 자기의 당성을 대비해 보면서 그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해야 함.	0 다케무라 日 관방장관, 북한 IAEA사찰 수용 환영 論評  - 核을 군사목적에 전용하지 않는길을 열어주는 제1보적인 조치로 일본 정부는 이를 환영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단의 訪北과 함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질 것임.</li> <li>- T/S 훈련은 IAEA 핵사찰과 特使交換에 관한 남북한간의 협의와 연관지어 中斷여부가 결정될 것임.</li> </ul>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IAEA 사찰대상에 寧邊 원자로 핵연료봉 非포함 확인</li> <li>* 기자회견(워싱턴)</li> <li>- IAEA 사찰기간중 寧邊 원자로 핵연료봉에 대한 사찰은 하지 않을 것임.</li> <li>- 패트리엇 미사일 주한 미군 배치는 북한이 IAEA 사찰을 받기로 통보한 현 상황에서 재검토돼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세고드나紙, 북한 IAEA사찰 수용은 국제制裁를 일단 모면키 위한 것이라고 논평</li> </ul>
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특사교환 성사시 核공동위 재개 제의 발언</li> <li>*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주년 기념세미나</li> <li>- 남북특사교환이 이루어지면 현재 중단중인 핵통제 공동위 재개를 북한에 정식으로 제의할 것임.</li> <li>- 남북특사교환이 이루어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平放, 金正日이 당·국가 전반사업을 지도하고 있다고 보도</li> <li>-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며 신념임.</li> <li>- 지도자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쁜 나날에도 통일을 심려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 산케이신문, 金正日 신변이상설 보도</li> <li>- 김정일이 총격을 받았다는 미확인 정보를 일본 경찰이 입수했다고 보도</li> <li>○ 클린턴 美 대통령, 특사교환 실현이 美</li> </ul>

■ 2 원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8	<p>면 남북관계 개선을 낙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한간 3단계회담은 IAEA사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특사교환이 성사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li> </ul> <p>○ 韓昇洲 외무부장관, 핵문제 진전시 남북軍縮 논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CNN-TV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의 진전을 이룬 뒤에는 남북한 양측의 신뢰회복과 軍縮이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할 것임.</li> <li>- 우리는 긴장의 완화뿐 아니라 양측 兵力의 減縮을 목표로 삼고 있음.</li> </ul>	<p>시며 온겨레를 통일의 한길로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음.</p> <p>○ 외교부, 남한내 중수로 폐기 및 핵물질제거 요구「備忘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축해 놓은 핵물질을 제거하고 중수로를 없애거나 경수로로 교체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함.</li> <li>- 남한에서 非核化宣言을 백지화하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저들의 핵무기 개발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임.</li> </ul> <p>○ 金正日의 「온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 선포 20돌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2.8문화회관)</p>	<p>北韓 3단계회담 전제조건임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美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대로 美 정부는 3단계회담에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해결’을 추진할 것임.</li> <li>- 남북특사교환이 3단계 美·北韓회담의 기본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원칙임.</li> </ul>
2.19	<p>○ 韓昇洲 외무부장관, 3단계 美·北韓회담 3월말 개최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국기자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IAEA의 사찰이 완료된 뒤 회담을 재개한다는 입장인만큼 美·北회담은 3월말쯤에야 가능함</li> <li>- 패트리엇 미사일문제는 배치시기가 아직 결정되</li> </ul>		<p>○ 中國, 북한 핵보유 가능성 시사 (日 時事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폭탄 보유에 부정적 자세를 보여왔던 中國은 최근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가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9	<p>지 않았으며 우리측은 IAEA이사회가 끝날때까지 배치와 관련된 논의를 자체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음.</p> <p>- 남북한 대화도 3단계회담과 T/S 訓練 중지여부 등과 연계해 일정을 추진하게 될 것임.</p> <p>○ 民主黨, 북한핵문제 관련 클린턴 美 대통령에 書翰 전달</p> <p>•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對북한 제재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黨의 공식입장을 담은 李基澤 대표 명의의 서한을 전달</p>		
2.21	<p>○ 李會昌 국무총리, 남북특사 교환 내달중 실현 언급</p> <p>• 국회 본회의 답변</p> <p>- 북한의 IAEA사찰 수용은 북한 핵문제의 남북간 대화를 통한 해결의 첫걸음으로 긍정 평가함.</p> <p>-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 매듭지어 내달중 특사교환이 실현 되도록 하겠음.</p>	<p>○ 외교부 대변인, 북한·IAEA간 사찰합의(2.15)관련 記者會見</p> <p>- 이번에 합의된 사찰은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아니라 NPT 탈퇴효력 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우리의 특수한 지위에 상응한 사찰로서 지난번 사찰이후 핵물질이 다른 목적에 유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음.</p>	<p>○ IAEA 정기이사회 개막(2.21~23, 빈)</p> <p>• 북한核 경과사항 및 앞으로의 후속 조치, 국제적인 核 안전조치강화방안, 원전기술협력문제 협의</p> <p>○ 北韓 시베리아 벌목 노동자 百여명 귀순 요청 (세계일보)</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교환의 의제는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과 이산가족 문제, 교류협력 문제임.</li> <li>- 핵무명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수정할 용의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朝·美뉴욕접촉(12.29)에서 쌍방은 핵문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당면조치로 담보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을 받는 문제, 남조선측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기해오면 그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데 대한 문제, 美國이 '94 팀스피리트 군사연습 중지를 선포할데 대한 문제, 3단계 朝·美회담 날짜를 공동으로 발표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음.</li> <li>- 이미 朝·美사이에 약속된 대로 차후 동시행동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담보연속성 보장을 위한 기구의 사찰을 속히 진행하며 나아가서 3단계 朝·美회담을 개최하고 핵문제를 일괄타결할 수 있는 국면을 열어놓는 것으로 될 것임.</li> <li>- 우리가 NPT 탈퇴를 선포하게 된 근본이유의 하나가 특별사찰에 있는 것만치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조약밖으로 떠밀어내자는 것이며, 정기 및 비정기사찰 문제는 3단계 朝·美회담이 열리면 핵문제의 일괄타결방식의 테두리내에서 논의될 문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 수백명이 탈출해 러시아주재 우리 공관에 잇달아 歸順을 요청해 오고 있음.</li> <li>- 政府는 북한 및 러시아와 관계를 고려, 귀순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UN난민고등판무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임.</li> <li>○ 매커리 美 국무부 대변인, 핵사찰 착수 후 3단계회담 일정 결정 입장 표명</li> <li>- 우리는 사찰이 시작될 때 3차회담의 날짜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음.</li> <li>○ 호소카와 日 총리, 북한 미신고핵시설 사찰 필요성 언급</li> <li>* 일본 국회</li> <li>- 북한의 NPT 완전복귀, 2개 미신고시</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일 또다시 美國이 동시행동 조치를 합의하는데 당치않는 조건을 붙이거나 압력에 매달리면서 핵문제 해결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와 기구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항들이 이행될 수 없게 될 것은 물론 지금과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임.</li> </ul>	<p>설의 IAEA 특별사찰이 필요함</p>
2.22	<p>○ 韓昇洲 외무부장관, IAEA 사찰단 28일께 入北 언급 * 민주당 李基澤 대표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核사찰팀은 오는 28일 北京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기를 이용, 入北할 것 같음.</li> <li>- 북한의 핵사찰 수용이후 남북특사교환과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li> </ul>	<p>○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30돌기념 중앙연구토론회 개최 (인민문화궁전)</p>	<p>○ 美·北韓 실무접촉 개최(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3월하순에 갖고,</li> <li>- IAEA사찰단에 대한 비자를 조기에 발급, 사찰단이 내주초에 입북하여 2-3주간 사찰활동을 벌인다는데 의견 접근</li> </ul>
2.23	<p>○ 金泳三 대통령, 북한 핵문제 해결 낙관론 피력 * 美 뉴욕타임스紙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결국에는 핵사찰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li> <li>- 북한에 대한 원조와 투자가 실시되기에 앞서 남북</li> </ul>	<p>○ IAEA 이사회 북한대표단장 윤호진, 美·北韓 뉴욕 실무접촉 관련 브리핑 (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일 뉴욕 접촉에서 오는 3.1일 IAEA사찰단을 入北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li> <li>- 미국측이 南北간의 접촉을 3단계 고위급회담문제와 연계</li> </ul>	<p>○ 미·북한 실무접촉 속개</p> <p>○ IAEA 정기이사회 폐막(2.21~23, 빈)</p> <p>&lt;北核안건 토의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5일 북한과 IAEA간 합의를 환</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3	<p>대화와 2개 核폐기물저장소를 포함한 추가사찰의 이행이 필요함.</p> <p>○ 외교안보연구원, 北韓이 對美 관계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변화전망」 연구 보고서</p> <p>-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임.</p> <p>-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3단계 회담을 통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문제와 경제지원, 국교수립등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임.</p> <p>- 북한은 남북대화를 미국과의 대화의 종속변수로 취급할 것으로 보임.</p> <p>- 체제수호적 전략 범위내에서 제한된 물적·인적 교류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음.</p>	<p>시키고 나와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p>	<p>영하며 북한에 대해 후속적 협조노력을 촉구함.</p> <p>- 대다수 회원국들은 이달말까지 사찰개시 등을 포함, 만족스런 사태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이사회를 다시 소집토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음</p> <p>○ 워런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미·북한 3단계회담시 對北관계개선, 인권문제 등 논의 시사          * 美상원의외교위 증언</p> <p>- 3단계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핵문제의 추가적인 해결이며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여타 현안들이 진전될수 있음.</p> <p>- 3단계 회담에 들어가면 북한의 인권침해문제등 다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4		<p>0 북한 적십자회, 사할린 동포 귀환추진 비난 聲明</p> <p>- 남조선은 사할린 거주 조선 동포문제가 오늘에 와선 순수 인도주의적 문제로 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日本 정부로부터 몇푼의 여비를 받아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결말지으려는 속심을 공공연히 드러내 놓고 있음.</p> <p>- 조선동포문제는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는 4만명의 동포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전 소련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동포 전체를 상대로 日本 정부가 사죄와 전후보상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p> <p>- 우리는 이전 소련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남조선과 日本당국자들의 교활한 이주책동을 반대배격하고 과감한 투쟁을 벌여나가리라 확신함.</p> <p>0 「祖平統」, 문민정부 출범1년 국력 비난 「告發狀」 발표</p> <p>- 취임사에서 그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수 없다고 떠벌이면서 민족우위를 제창했으나 권좌에 들어앉기 바쁘게</p>	<p>0 제임스 울시 美CIA 국장, 北韓을 세계 최고의 불안정國이라고 발언</p> <p>* 美하원 정보위</p> <p>- 북한은 정권 속성이 아주 폐쇄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p> <p>- 北韓은 재래식무기 전진배치, 핵프로그램, 대량파괴무기와 다탄두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관리상 아주 어려운 문제 국가로 분류돼있음</p> <p>0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北韓核 해결해도 인권등 계속주시 언급</p> <p>* 예일大 연설</p> <p>- 미국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 단기적으로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수출人權 및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에</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4		<p>외세의존의 길로 나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〇 〇 이 올해초에 연두사, 연두기자회견에서 統一이라는 말조차 비치지 않고 동족을 걸고드는 자극적 언동만을 일삼은 것은 올해에도 계속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통일을 부정하겠다는것을 시사한것임</li> <li>-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문민의 탈을 쓰고 자주·민주·통일에 역행해온 김 〇 〇 반역도당의 머리위에 철추를 내리고 자주적인 민주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더욱 합차게 싸워야 할 것임.</li> </ul> <p>○ 平放, 시베리아 벌목장 북한 노동자 귀순요청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노동자들이 마치도 집단적으로 현장을 탈출해서 망명을 요청한듯이 붙어댄 것은 참으로 얼토당토않은 날조임.</li> <li>- 우리 인민들은 해외에 나가있건 어디에 가있건 오직 사회주의 조국을 옹호 고수하고 죽어서도 조국의 품에 안기는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인모 노인의 경우가 그것을 보여주었음.</li> <li>- 남조선이 허위날조자료를 유</li> </ul>	<p>대해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江澤民 중국 주석, 김일성 초청설 (新華통신)</li> <li>- 평양을 방문중인 이숙쟁 중국 黨 대외연락부장이 2.24 김일성 방문시 올해안에 편리한 때에 中國을 방문해 달라는 江주석의 초청을 전달했음.</li> <li>○ 솔로먼 前 美國무차관보, 북한정권유지에 부합되는 핵해결 방식 주장</li> <li>* 美하원외교위 北核 관련 합동청문회</li> <li>- 북한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장거리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증거가 없으며 對南군사도 발을 할 가능성도 적음.</li> <li>- 북한 핵문제는 당근이나 제재위협으로 해결되지 않고 金日成 정권유지에</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4		<p>포시키고 있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높아가고 있는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과 反감 〇〇 투쟁기운을 무마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판데로 돌려 보려는 술책임.</p> <p>〇 金日成, 전국농업대회에 서한 전달 *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 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하여"</p>	<p>부합되는 내용의 일괄타결방안만이 문제해결의 첩경임</p>
2.25	<p>〇 金泳三 대통령, 취임1주년 기자회견</p> <p>&lt; 기자회견문 내용 &gt;</p> <p>- 北韓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간의 진실한 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남북共存共榮의 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남북 經濟 共同開發을 서두를 용의가 있음.</p> <p>&lt; 기자 일문일답 내용 &gt;</p> <p>- 북한이 확실하게 核을 보유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核開發을 늦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함.</p>	<p>〇 전국농업대회 개막(평양)</p> <p>* 참석: 김일성,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연형목 (김정일 不參)</p> <p>〇 「祖國戰線」중앙위, 문민정부 출범 1년 관련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呼訴文」 발표</p> <p>- 김 〇〇 이 지난 1년동안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대죄를 결산하고 타도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하여 이 호소문을 보냄.</p> <p>- 김 〇〇 이 걸어온 1년은 친미사대매국의 1년이었고 문민파쇼의 1년이었으며 대결과 분열, 전쟁책동으로 얼룩진 범죄와 치욕의 1년이었음.</p>	<p>〇 美·北韓 실무접촉, 4개항 동시조치 합의 (뉴욕UN본부)</p> <p>&lt; 합의내용 &gt;</p> <p>- 3.1 4개항 동시조치 시행에 관한 「합의문」 발표</p> <p>① 안전조치 계속성 유지를 위한 IAEA 사찰 개시</p> <p>②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재개</p> <p>③ 한국, '94 T/S훈련 중단 조건부 발표</p> <p>④ 미·북한, 3단계 접촉을 3.21 제네바에서 개최예정임을 발표</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핵투명성이 보장되기 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음.</li> <li>- 특사교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과 金주석이 가장 믿는 사람이 만나 頂上會談을 논의하는 것임.</li> <li>- 정상회담을 하면 핵문제는 물론 모든 문제들이 다 얘기될 수 있을 것임. 남북한 共存共榮과 생존 문제, 통일문제, 경제협력 문제는 물론 좀더 깊은 얘기들을 할수 있을것임.</li> <li>- T/S訓練 중단문제는 IAEA 사찰과 남북한의 충실한 對話가 충족이 되면 한국 정부에서 조건부로 중지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될 것임.</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남북 대화 形式에 신축적 입장 표명</li> <li>* 국회 외무통일위</li> <li>- 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천만 온거레는 남조선에서 反민족적·反민주적·反통일적인 김 0 0 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함.</li> <li>○ 中·平放, 남한이 북측지역을 향해 포사격 주장</li> <li>- 2.25 10:53경 연평도 남조선군이 우리측 장재도를 향하여 155미리 대구경 포사격을 가해왔음.</li> <li>- 남조선의 포사격행위가 쌍방간의 무장충돌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우리 인민군인들이 높은 인내력을 발휘한데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94 T/S 훈련 중단 및 3단계 회담은 IAEA사찰 완전이행 및 특사교환전제하에 실시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충설명 별도 발표</li> <li>○ 韓·러 무기 공동생산 합의</li> <li>- 한·러 양국은 무기체계와 관련한 군사기술분야에서 상호협력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오는 3월 관련 의정서에 가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li> <li>○ 톰 허바드 美 국무부 부차관보, 한국 國家保安法 폐기 발언</li> <li>* 美아메리칸大 연설 연설</li> <li>- 한국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인권도 크게 신장됐음.</li> <li>- 美國은 한국이 추가적인 조치로 국</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5	<p>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形式으로서도 있어야 함.</p> <p>- 특별히 남북특사교환 형식에 집착하지는 않으며 어떤 형식이든지 가능한 것을 받아들일것음.</p>		<p>가보안법을 폐기할 것을 원하고 있음.</p>
2.26		<p>0 中央通信, 김영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비난</p> <p>- 김 〇 〇 이 기자회견에서 늘어놓은 장광설이란 매국, 파쇼와 폭압, 분열과 대결의 만고대죄로 얼룩진 지난 1년간의 치욕의 행적을 미사여구로 감싸는 것에 불과함.</p> <p>- 북의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頂上會談을 추진하겠다고느니 뭐니하면서 마치 북남관계에서 그어떤 변화를 보일 것처럼 제스처를 취한 것은 결국 지난 1년간의 잘못된 對北정책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됨.</p> <p>-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북남관계를 해결하려는것 자체가 제정신이 없고 방향을 잡지못해 마구 헤뎀비는 어리석은 자의 사고방식으로밖에 달리볼 수 없음.</p>	<p>0 매커리 美國무부 대변인, 미·북한 합의 (2.25)관련 聲明</p> <p>- IAEA사찰이 충실히 실시되고 특사교환을 통한 남북 핵문제 대화가 열린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T/S訓練 중단과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가 이루어질 것임.</p> <p>0 IAEA, 빈주재 北韓 대사관으로 부터 사찰단의 비자 발급 접수 발표</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8	<p>0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宋榮大 수석대표, 제4차 실무대표접촉 개최 제의 對北電通文</p> <p>- 남과 북이 특사를 교환하기로 한 것은 최고당국자의 뜻에 따라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것임.</p> <p>- 실무접촉을 재개하여 빠른 시간내에 특사교환에 필요한 모든 節次문제를 매듭짓고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p> <p>- '94.3.1 (화)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지역『평화의 집』에서 남북 최고당국자의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提議함.</p> <p>0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특사교환 관련 입장 표명</p> <p>* 국회 외무통일위 보고</p> <p>-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 문제로서 핵문제와 더불어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p>	<p>0 中·平放, 미·북한 실무접촉 合意文 공개</p> <p>- 북한과 미국은 '94.3.1 다음 4가지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 하였음.</p> <p>① 미국은 남한의 T/S練習중지에 동의한다는 결정 발표</p> <p>②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査察 시작 및 IAEA와 북한 사이에 합의된 기간내 완료</p> <p>③ 北南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재개</p> <p>④ 3단계 朝·美회담을 '94.3.21 제네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발표</p> <p>0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비난</p> <p>- 김 〇〇 은 정상회담이요, 특사교환이요, T/S연습 중지요, 경제공동개발이요하면서 목을 움추렸는데 이것은 지난 1년간의 저들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인정한 것임.</p> <p>- 북의 핵문제는 통일을 영원히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걸림돌이라고까지 한 것은 핵문제를 걸고 대결정책을 계속하고 민족영구분열을 추구하려는 범죄적 기도를 드러낸 것임.</p>	<p>0 톰 허바드 美 국무부 부차관보, 核전용맨 3단계 회담 재고 언급</p> <p>- IAEA의 사찰 결과 핵물질의 전용사실이 확인되거나 핵 안전조치의 계속성이 깨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 미국은 北·美 3단계회담 개최를 재고할 것임.</p> <p>- 북한이 3단계회담 이전에 남북한 특사교환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으나 美國은 이를 확실한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임.</p> <p>0 日 코리아리포트誌, 김정일이 金日成 생전 권력승계 가능성 부인 발언 보도</p> <p>- 김정일이 1.17 재미교포 방문객 면담시 "수령님이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직책을 승계할 생각이 없다"</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8	<p>한다는 입장에서 주요 의 제로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p> <p>-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체계를 정상화시키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할 것임.</p> <p>- 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모든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핵문제 우선 해결을 토대로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을 의미함.</p>	<p>- 핵문제를 걸고 대결을 추구하며 통일을 방해하는대로 나가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향방도 바로잡지 못하는 시라소니의 사고방식이라고밖에 달리볼 수 없음.</p> <p>0 全國農業大會 폐막 (2.25~28)</p> <p>*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맹세문」 채택</p> <p>0 金正日, 조총련 허종만 부의장 접견</p> <p>* 지난해 12.9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개막식 참석후 80여일만에 공개석상 출현</p>	고 말했다음.

원인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1	<p>0 金泳三 대통령, 3·1절 제 75주년 기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統一없이 자주독립국가 건설이 완성될 수 없음.</li> <li>- 동일은 세계사적 조류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li> <li>- 북한은 改革과 開放만이 민족을 하나되게 하며, 민족의 복리를 보장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임.</li> </ul> <p>0 金泳三 대통령, 정상회담 의제로 平和·核·經協 문제 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慶南新聞 창간 48주년 특별회견</li> <li>-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될 것인지는 생각할 수 없지만 회담이 이뤄지면 전쟁 없는 평화, 핵없는 나라,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 남북의 경제협력관계, 북한의 여러가지 어려운 국내 문제를 동시에 걱정해주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것이 포함될 것임.</li> <li>- 오는 26일 中國방문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li> </ul>	<p>0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박영수 북측단장, 실무대표접촉 일자 수정 제의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대표접촉을 재개하려는 귀측의 입장이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중지하며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체제」를 포기할데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귀측의 제의에 동의하는 바임.</li> <li>- 오는 3.3 (목) 오전 10시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가지기 위하여 해당한 래왕절차에 따라 판문점 귀측지역으로 나갈 것임.</li> </ul>	<p>0 IAEA 사찰단, 평양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주간 신고 7개 핵 시설에 대한 사찰 활동 실시(7명)</li> </ul> <p>0 美 국무부, 북한의 3.1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未실행에 대한 유감聲明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이 예정된대로 1일 판문점 실무대표접촉을 실행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li> <li>- 3일 북한이 판문점 실무회담을 가진 경우 이날 T/S訓練 중단과 3단계회담 일정을 발표할것임</li> </ul> <p>0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 北核 안전성 파괴면 별도 대응방안 모색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核 안전조치의 계속성이 깨졌거나 사찰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외교적 대안이 아닌 다른 방</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1	<p>해결을 위한 협의가 있을 것임.</p> <p>-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을 것임.</p>		<p>안을 모색할 것임.</p> <p>-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만일 핵무기가 있다면 이를 해체토록 함으로써 핵없는 韓半島를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목표임.</p>
3. 2	<p>0 특사교환 실무대표집측 宋榮大 수석대표, 북측의 실무대표집측 일자 수정제의 수락 對北電通文</p> <p>- 그동안 실무대표집측이 중단되고 진전되지 못했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p> <p>- 귀측이 수정제외한 대로 오는 3.3 (목) 오전 10시 관문집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임.</p> <p>0 金泳三 대통령, '통일한국의 안보비전' 정립 언급 • 제50기 육사졸업식 치사</p> <p>- 北韓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음. 화해와 협력의 세계조류에 합류하</p>	<p>0 외교부 대변인, 이스라엘 점령지 팔레스타인인 총격사건 규탄 담화</p> <p>0 平放, 金泳三 대통령 3.1절 75주년 기념사 비난 논평</p> <p>- 그 무슨 정통성에 대해서 떠들면서 선열들이 3.1운동을 벌인 것이 日本의 죄를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느니 뭐니하고 떠벌였음.</p> <p>- 이것은 3.1운동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며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략동을 미화분식하는 행위임.</p>	<p>0 허바드 美 국무부 부차관보,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해명 해명</p> <p>-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이 아니며, 韓美 관계를 폭넓게 다룬다는 차원에서 철학적인 기초를 말한 것임.</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北核진전엔 수교논의 언급</p> <p>- 美·北 3단계회담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기타현안들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임.</p>

■ 3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	<p>느냐, 고립과 대결의 냉전 노선을 고집하느냐로 주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당국은 이번에는말로 核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함을 보여주어야 함.</li> <li>- 우리는 21세기 통일한국의 안보비전을 세워나가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회담에서는 핵문제는 물론 인권문제, 통상문제, 양국간의 관계증진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li> <li>0 게리 렉 駐韓美軍사령관, 북한군 후방철수해야 T/S 훈련 영구 중단 발언</li> <li>* 美상원 군사위</li> <li>- T/S훈련을 영구 중단하려면 비무장지대에 근접 전진배치해 놓은 北韓軍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각종 포대도 휴전선에서 후방으로 완전 철수돼야 함.</li> </ul>
3. 3	<p>0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평화의 집」)</p> <p>&lt;남한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과 13조 28개항으로 된 「남북 최고당국자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 修正案을 제시</li> <li>- 북측의 4개항에 대한 立場표명 요구에 대해, 부당·부적절·불필요한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IAEA 사찰단, 북한 핵시설 사찰 개시 (3.3~3.14)</li> <li>0 美 국무부, 美·北韓 실무협상결과에 관한 聲明 발표</li> <li>- 미국은 북한과 제 3단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3.21일</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3	<p>&lt;북한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의 회담중단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특사교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4箇項을 제시하면서 오늘 접촉에서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li> <li>①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모든 대규모의 核전쟁연습 중지</li> <li>② 국제공조체제 포기</li> <li>③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신형무기 반입 중지</li> <li>④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발언을 공식 취소</li> <li>- 節次問題에 대해서는 쌍방안이 “근본적 차이는 없으며 빗장을 뺏으면 쉽게 타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토의 회피</li> <li>* 次期접촉 : '94. 3. 9 (수) 10:00, 판문점 「통일각」</li> </ul> <p>0 국방부 대변인, '94 T/S 훈련 條件附 中斷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美 양국은 IAEA 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남북한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이뤄진다는 전제아래 올해 T/S訓練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li> </ul>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 「핵카드」 사라졌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공사창립 21주년 특별회견</li> <li>- 북한 핵문제는 아직 몇</li> </ul>	<p>0 北韓 정당·사회단체, 한국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 비난 聯合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이 '86년부터 '92년까지 7년동안 바다에 흘려보낸 핵폐기물은 1경1천조 베크렐, 약 10만킬리에 달함.</li> <li>- 김○○ 일당의 핵폐기물 투기 행위를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국제법과 협약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로 낙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함</li> <li>- 남조선은 이미 버린 핵폐기물 투기행위를 즉시 공개하고 온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함.</li> </ul>	<p>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은 核과 여타 쟁점들의 철저하고 광범위한(thorough &amp; broad)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음.</li> <li>- 한국 정부가 '94 T/S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동의함.</li> <li>- '94 T/S훈련과 美 북한 3단계회담에 관한 美國의 약속 이행은 IAEA사찰이 완전히 이행되고 특사교환을 통한 남북 核 대화가 계속된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3	<p>고비를 넘겨야 하고 낙관은 금물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그동안 핵카드에 집착했으나 핵사찰을 받는 이상 결과적으로 핵카드는 없어진 것이며 남북대화가 상당히 진전될 수밖에 없을 것임.</li> <li>- 특사교환이 이뤄지는 등 남북대화가 잘 진행되고 북한의 핵개발이 지지되면 經濟協力과 함께 美國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지원할 것임.</li> <li>- 가장 중요한 것은 韓·美 공조체제임.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에서 때로는 회담을 중지시켜놓고 우리와 협의를 하는 등 사전사후에 반드시 협의를 해왔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인민들은 핵폐기물 투기행위를 반대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하며 이 투쟁을 反戰 反核투쟁과 결부시켜 반미 반정부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li> </ul> <p>0 中·平放, 특사교환 제4차 실무대표접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접촉은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서 4개월만에 재개되었음.</li> <li>- 우리측은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남측이 오늘 접촉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남측할만한 태도표명을 한 기초위에서 실무 절차토의를 1시간 동안에 계속짓고 가까운 며칠안에 특사교환을 실현하자고 주장했음.</li> </ul>	
3. 4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美 국가보안법 발인 관련 레이니 駐韓 미국대사에 유감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정부 관리들이 보안법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한국에 인권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li> </ul>	<p>0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美·北韓 뉴욕 실무접촉 합의 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미 쌍방은 그 무엇을 전제조건으로하여 동시행동조치들을 합의한 것이 아님.</li> <li>- 뉴욕접촉 합의문에는 동시행동조치의 하나로 북남 특사교</li> </ul>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한국 국가보안법 철폐 美 정부 공식 입장 확인</p> <p>* MBC 위성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 한다는게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4	<p>불리일으킬 소지가 있음.</p> <p>0 법무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관련 政府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이고 자위적인 제도적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한다.</li> <li>- 북한 핵사찰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동법률의 존폐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li> <li>-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이 한층 엄격하게 집행됨으로써 국가안보의 수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봉사할 것이며 결코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밝힘.</li> </ul>	<p>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에 대하여 언급되었을 뿐 특사교환의 실현에 대해 언급된 것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교환이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교환의 의미를 순수 핵문제 토의 일면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그를 통하여 朝·美회담에 제동을 거는 한편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북남대결을 격화시켜 왔기 때문임.</li> <li>- 남조선 당국이 핵문제 토의에 끼어들려는 부당한 행위를 그만두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데로 명백히 입장전환을 할 때에만 北南 특사교환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li> <li>- 미국측이 지난 접촉과정에서 합의문에 포함시키려 하다가 배격당한 바 있는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다시 꺼내드는 것이나 남조선 당국이 내는 조건부를 그대로 지지해 나서는 것은 다 합의문의 완전이행을 파괴할 수 있는 요소로 밖에 볼 수 없음.</li> <li>- 미국이 북남 특사교환과 IAEA 사찰문제를 T/S '94 합동군사연습중지와 제3단계 朝·美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년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에서 강조됐듯이 한국의 保安法은 남용의 여지가 있음.</li> <li>- 한국 정부와 국민이 그 법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길 희망함.</li> <li>0 파노프 러외무차관, 러·북한 시베리아 벌목협상 재개 언급</li> <li>- 北韓과 새로운 벌목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진행될 것임.</li> <li>- 벌목공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人權 침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새 협정에는 기존의 제외법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4		<p>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을 엄중시하는 것은 이것이 동시에 움직일데 대한 합의를 또다시 되집어엮는 결과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임.</p> <p>- 만일 IAEA와 남조선 당국이 이에 어긋나게 복잡한 문제들을 들고 나오고 美國이 그를 구실로 T/S '94 합동군사연습 중지 이행을 중도 반대하고 제3단계 朝·美회담 개최를 지연시키려 든다면 우리 역시 이미 시작된 IAEA의 사찰을 원만히 보장해 줄 수 없음.</p> <p>○ 駐UN 북한대표부 副대사 허중, 평양 귀임</p>	
3. 5	<p>○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南北특사교환 실현 가능성 언급</p> <p>* 日 요미우리신문 회견</p> <p>- 美 정부는 특사교환을 제 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견지하고 있는만큼 북한은 이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임.</p> <p>- 金泳三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도 특사교환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p>	<p>○ 平放, 金泳三 대통령 KBS창립 21주년 회견(3.3) 비난 논평</p> <p>- 김 o o 이 실무대표접촉에 대해 벌써부터 낙관은 금물이라고 떠들어댄 것은 특사교환에 장애를 조성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대결과 분열로 나아가려는 속심을 드러내 놓은 것임.</p> <p>- 북의 핵카드요 뭐요하고 떠들어댄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수작임. 김 o o 정권은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발언권도 없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5	<p>가능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양국은 북한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북한 회담을 연기할 방침을 세우고 있음.</li> <li>- 특사들 교환한다는 것은 쌍방의 특사가 왕래하는 것을 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무슨 공조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떠들었는데 그것은 외세와 한짜이 되어 동족을 해치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입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실증해 줌.</li> </ul>	
3. 6	<p>0 張在龍 외무부 미주국장, 북한 강석주의 특사교환 전제조건 부인 반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특사교환은 美·北 3단계 회담의 명백한 전제조건으로 공식문서화된 내용임.</li> <li>- 북한도 21일로 예정된 3단계 회담이 열리기 위해서 우선 특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li> </ul>	<p>0 中放, 韓·美의 '94 T/S 훈련 중단 및 3단계회담 발표 사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중단사실 은폐</li> </ul>	
3. 7	<p>0 朱焮植 청와대 대변인,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의 간첩죄가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에 관한 조항인데 반해 保安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li> </ul>	<p>0 「祖平統」서기국, 남한의 핵폐기물 투기 관련 국내외 기자회견 (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핵폐기물 투기행위는 민족과 인류를 전멸시키는 반민족적 반인류적인 범죄로 남조선은 국제공약을 위반하면서 核폐기물을 바다에 버리</li> </ul>	

■ 3 원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간첩에 대해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용하는 데는 法理적 어려움이 있음.</li> </ul>	<p>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함.</p>	
3. 8	<p>0 許陞 駐제네바대사, UN인권위 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는 고문과 강제실종, 무단처형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위장선거로 1당체제가 정당화되고 있음.</li> </ul>	<p>0 외교부 대변인, 美國의 한국보안법 폐지 입장 표명 관련 중앙통신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美國은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음.</li> <li>- 국가보안법은 콘크리트장벽과 함께 남조선 내부에 높이쌓인 법률상의 제2의 콘크리트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음.</li> <li>- 현 美행정부가 조선의 北과 南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데서 나온 것임.</li> </ul>	<p>0 美國무부, 특사교환 안되면 3단계 회담 취소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무부는 UN주제 北韓대표부에 진화를 걸어 남북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21 예정인 美·北韓 3단계 고위급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li> </ul>
3. 9	<p>0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5차 실무대표접촉(「통일각」)</p> <p>&lt;우리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교환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측에 「4개항 요구조건」철회 및 특사교환 호응 촉구</li> <li>- 金대통령 발언 취소 요구와 관련, 북한측에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방송매체를 통한 비방·중상 중지 촉구</li> </ul>		<p>0 국제사면위, 「한국인권보고서」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민정부하 한국의 人權상황 평가</li> </ul> <p>0 쉘리 美 국무부 副대변인, IAEA 핵사찰 진행부진 遺憾 표명</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9	<p>&lt;북한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 최고위급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修正案을 제시하였으나 『4개항 요구조건』에 대한 先입장표명을 요구하면서 節次문제에 대한 토의 회피</li> <li>- 수정안에서는 特使의 任務로 기존 5개항외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방도를 확정하는 문제’,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데 대한 문제’ 등 2개항을 추가</li> <li>* 次期접촉 : '94. 3.12 (토) 10:00, 판문점 『평화의 집』</li> <li>※ 회담종료후 『수석대표 단독접촉』별도 개최</li> </ul> <p>0 洪淳瑛 외무부차관, 3.21 美·北韓 회담 못열리면 UN 안보리 제재절차 밟을 방침 발언</p> <p>* 民自黨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수 강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1 예정된 북한·미국 3단계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北韓 핵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li> <li>- 이럴 경우 UN安保理의 제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li> </ul>	<p>0 中放, 특사교환 제5차 실무대표접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원칙적인 요구에 대해 명백한 태도 표명을 할 대신 처음부터 그무슨 장애조성이니 불필요한 것이니 하고 당치않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했음.</li> <li>- 심지어 남측은 실무절차토의와 관계없는 문제까지 고의적으로 들고나와 회담분위기를 깨뜨리는 도발적인 태도를 취했음.</li> <li>- 우리측은 어떻게 하나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고 실무접촉을 결속하려는 성의있는 입장에서 쌍방 단장들의 개별접촉을 제기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정부는 IAEA의 북한핵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함.</li> <li>- 북한이 IAEA사찰이 끝날 때까지 충실한 사찰을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을 희망함.</li> </ul> <p>0 英 제인스센터널誌, 북한 신형 미사일 2종 개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신형미사일 대포동1,2(TD-1,2 가칭)를 개발중이며 사정거리는 각각 2천km, 3천5백km 임.</li> </ul>

■ 3 원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0	<p>0 金泳三 대통령, 보안법 폐지 반대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시사만화가 라난 루리 집견시</li> <li>- 북한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끊임 없이 간첩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國家保安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li> </ul> <p>0 북한핵관련 韓·美 고위실무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金三勳 외무부 핵전담대사, 갈투치 美 국무차관보</li> <li>- 미·북한 3단계 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IAEA 사찰의 원만한 진행과 남북특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li> </ul> <p>0 李會昌 국무총리, 특사교환 안되면 T/S훈련 재개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핵사찰과 남북 특사교환을 전제로 T/S 중단 발표를 했고 北韓·美 협상도 3.21 개최키로 했으나 이같은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T/S 훈련 중단과 3단계 고위급 협상은 이행될 수 없음.</li> </ul>		<p>0 중국 李鵬 총리, 對 북한 우호관계 회복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기 全人大 2차 회의</li> <li>- 외교부문 보고에서 北韓과의 우호관계를 맨처음 언급, 양국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강조</li> </ul> <p>0 쉐리 美 국무부 副대변인, 寧邊 핵시설 봉인 파손說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봉인장치 파손 보도 관련) 전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음.</li> <li>- 寧邊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라고 생각지않음</li> </ul> <p>0 南北韓 천도교대표, 남한 동학혁명 1백주년 기념식(3.21)에 북측대표 15명 참석 합의(北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방진규 천도교 종무원장, 유미</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0			영 조선천도교회 중앙위원장
3.11	<p>0 金三勳 외무부 核전담대사 韓·美 北核 고위대책회의 후 기자회견</p> <p>- 북한이 IAEA의 핵사찰에 협조적이라도 특사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北·美 3단계 회담을 열 수 없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음.</p> <p>- 양국은 특사교환 실현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음.</p>	<p>0 노동신문, 남한내 자주 민주 통일 세력 '연합전선' 형성 촉구</p> <p>- 남조선의 자주, 민주, 통일세력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압력을 물리치고 문민 파쇼세력의 매국과 폭압, 대결과 분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 공동투쟁을 적극 벌이며 그것을 하나로 결합시켜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함.</p>	<p>0 美·日 외무장관회담, 北核 외교적 해결원칙 재확인 (도쿄)</p> <p>- 양국은 외교적 수단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재확인</p> <p>- NPT조약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 공약을 북한측이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p>
3.12	<p>0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6차 실무대표접촉(『평화의 집』)</p> <p>&lt;우리측&gt;</p> <p>- 첫발언에서 북한측의 『4개 요구조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절차문제에 관한 우리측안의 합리성을 강조</p> <p>&lt;북한측&gt;</p> <p>- 『4개 요구조건』을 撤回하고 '특사교환 의지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특사교환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共同報道文』 발표를 제의</p> <p>* 합의서案 총 28개항중 『특사의 임무』, 『특사의 방문순차 및 교환날짜』, 『체류일정』을 제외한 25개항에 합의</p>		<p>0 李鵬 중국 총리, 한반도 비핵화 강력 희망</p> <p>*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 예방시</p> <p>-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기를 우리가 미국보다 더 바라고 있음.</p> <p>0 南韓 단군대종교 안호상 총전교- 北韓 조선천도교회 유미영 위원장간 접촉 (3.12, 3.14, 북경)</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2	<p>* 次期접촉 : '94. 3.16 (수) 10:00, 판문점 「통일각」</p> <p>※ 회담 종료후 『수석대표 단독접촉』 개최</p>	<p>0 中放, 특사교환 제6차 실무대표 접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이리저리한 부당한 이유와 구실을 들면서 共同措置를 취할데 대한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음</li> <li>- 실무절차 토의에서는 쌍방이 제기한 합의서안에서 13개 항목, 28개 조항중 4개항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합의했음.</li> <li>- 실무절차 토의에서 南側은 부당한 입장을 고집하면서 민족 자주성을 지키는 문제, 조국 통일방도 확정문제, 전민족 대단결 도모문제 등 特使들의 任務와 관련하여 나서는 원칙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음.</li> </ul> <p>0 『職總』중앙위, '남조선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노동자들은 자주적인 민주노조에 굳게 결속되어 단결의 힘으로 문민파쇼독재와 맞서야 하며 각계각층 인민들과 연대 연합하여 共同鬪爭을 힘차게 벌여야 함.</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14	<p>○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3.21까지 특사교환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p> <p>* 日 마이니치신문 회견</p> <p>- 이론적으로는 3.21이내에 특사교환이 가능하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는 어려움.</p>	<p>○ 조선반핵평화위·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 남한 환경보호단체에 핵폐기물 투기 共同調査 제의</p> <p>* 반핵평화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앞으로 便紙 발송</p> <p>- 귀 단체들이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적인 핵폐기물 투기행위와 핵무기 개발책동을 반대 지지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펼쳐나서리라 믿음.</p> <p>- 北과 南의 반핵환경보호단체들이 남조선당국의 핵폐기물 투기행위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며 共同調査와 공동감시 활동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귀 단체들에 提議함.</p>	<p>○ IAEA사찰단, 북한핵사찰일정 종료 (3.3~3.14)</p> <p>○ 키드 IAEA 대변인, 北核 사찰활동 제한 확인</p> <p>- 한두 장소의 사찰에 있어 制限이 가해진 것은 확실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정도였는지는 사찰팀이 귀환한 뒤에 검토될 것임.</p>
3. 15	<p>○ 韓·美, T/S 훈련 조건부 중단 재확인</p> <p>* 李炳台 국방부장관, 위스너 美 국방차관 면담</p> <p>- IAEA 핵사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남북한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올해 T/S훈련을 재개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p>	<p>○ 外交部 대변인, 美國이 전제조건 고수하면 核감시활동 계속성 不보장 경고</p> <p>* 중앙통신 회견</p> <p>- 합의문이 발표된 후 동시행동 조치와 관련한 우리의 의무를 완전무결하게 이행하였음.</p> <p>- 미국이 朝·美 뉴욕접촉 합의문에 지적되어 있지도 않은 북남특사교환 실현 자체를 조건부로 내대는 것은 명백히 합의사항 위반임.</p>	<p>○ 美國무부, IAEA 北核 사찰관련 聲明</p> <p>- IAEA사찰관들이 한두곳 사찰장소에서 제지를 받았음을 (IAEA)본부에 보고해 왔음.</p> <p>- 북한 핵사찰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IAEA에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자기의 의무이행을 끝내 회피한다면 우리도 이번에 회복된 IAEA의 담보감시 연속성을 계속 보장해 줄 수 없고 北南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도 계속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제3단계 朝·美회담에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li> <li>○ 「祖平統」대변인, 특사교환 실무접촉 관련 談話</li> <li>- 접촉에서 아직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사교환앞에 난관을 조성하면서 조속한 타결을 달가와하지 않는 南朝鮮의 온당치 못한 처사에 기인됨.</li> <li>- 남측은 共同報道를 내는 것도 반대하고 특사의 임무를 규제함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반대함으로써 특사교환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며 3단계 朝·美회담에 고의적으로 제동을 거는 행동을 하고 있음.</li> <li>○ 전국무역부문일꾼회의 개최 (3.15~16, 인민문화궁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2.25 美·北韓간 합의에 근거한 핵사찰이 충분히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게 될 것임.</li> <li>○ WSJ紙, 中國 미사일 기술 북한 제공가능성 보도</li> <li>- 美국방정보국(DIA) 전문가들은 中國이 첨단 미사일기술을 북한에 제공했는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6	<p>O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7차 실무대표접촉(『동일각』)</p> <p>&lt;우리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共同報道』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절차문제 토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li> <li>- 『특사의 任務』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문제』, 『남북합의서 이행문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원칙에 기초한 조국통일 실현문제』를 절충안으로 제시</li> </ul> <p>&lt;북한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이 '대결의 입장'에서 실무접촉에 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기측의 『共同報道』제안 수용을 촉구</li> <li>- 『特使의 任務』와 관련 우리측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원칙 확인 정도가 아니라 그 실현방도가 명백히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입장 고수</li> </ul> <p>* 次期접촉 : '94. 3.19 (토) 10:00, 판문점 『평화의 집』</p> <p>C 金泳三 대통령, 북한핵사찰 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 NHK방송 회견</li> <li>-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한 상태로 국제적 制裁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li> <li>- 이번 IAEA 査察이 실질적으로 완벽하지 않았고 중요한 두군데 시설을 사찰</li> </ul>	<p>O 中放, 특사교환 제7차 실무대표접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共同報道를 내자는 우리측 제안도 반대하고 특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민족자주성의 원칙을 지키는 문제,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문제, 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문제를 명기하자고 한데 대해서도 덮어놓고 반대했음.</li> </ul>	<p>O IAEA, 北核사찰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해서는 합의됐던 중요한(사찰)조치들이 거부되었음.</li> <li>- 이같은 거부의 결과, IAEA로서는 그 핵시설에서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다고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li> <li>- 이 문제를 다룰 이사회가 3.21(월)에 소집될 것임.</li> </ul> <p>O 매커리 美 국무부대변인, 美·北韓 3단계 회담 연기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1 제네바에서 열리기로 했던 3단계 고위급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의문임.</li> <li>- 미국의 對북한정책은 IAEA특별이사회가 지난 2주간의 핵사찰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어</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6	<p>하지 못한 것은 국제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함.</p>	<p>- 이번 접촉과정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문제 토의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여 3단계 朝美회담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것이 남측의 입장이라는 것이 뚜렷히 입증됐음.</p> <p>0 最高人民會議, 제9기 제7차회의 4.6 평양 개최 발표</p>	<p>떻게 내리느냐에 달려있음.</p>
3.17	<p>0 外務部 대변인, IAEA 北核 사찰결과 관련 聲明</p> <p>- 정부는 북한측의 비협조로 이와같은 결과가 초래된데 대하여 우려와 遺憾의 뜻을 표함.</p> <p>- 정부는 이번에 IAEA가 사찰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査察이 지체없이 실시될 것을 촉구함.</p> <p>- 북한이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 보다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特使交換의 실현과 이를 통한 核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있게 되길 촉구함.</p> <p>- 정부는 美·北韓 3단계 회담 개최 이전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사찰</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 장관, 美·北회담 성사여부 남북실무 접촉 연계 발인 * 美하원 세출위</p> <p>-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國際査察을 계속 거부할 경우 유엔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p> <p>- 美·北韓간 3단계 회담의 성사여부는 3.19 板門店 남북 실무접촉 결과에 달려있음.</p> <p>0 울시 美 CIA국장, 북한 신형미사일 개발 확인</p> <p>- 북한이 지난해 시험 발사했던 사정</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7	<p>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남북간 特使交換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함.</p>		<p>1천km 미사일보다 더 긴 사정을 가진 2종류의 미사일을 추가 開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p> <p>- 이 2종류의 미사일은 東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모든 나라를 위협상태로 빠뜨릴 수 있음.</p>
3.18	<p>○ 韓昇洲 외무부장관, 크리스토퍼 美國무장관과 북한 핵문제 전화 협의</p> <p>- 3단계 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핵사찰이 만족스럽게 이뤄지고 남북한 특사교환이 성사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對話가 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p> <p>- 對話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다각적 努力이 필요하다는데 공동 인식</p>	<p>○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 IAEA 북한 핵사찰결과 발표 관련 談話</p> <p>- 우리는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범위의 사찰활동을 전부 허용해주고 사찰단의 사업을 적극 협조해 주었음.</p> <p>- 사찰단이 이번에 진행한 사찰활동이면 핵시설들에서 核물질이 유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담보의 연속성도 확고히 담보될 수 있음.</p> <p>- IAEA가 우리의 핵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바란다면 이번 사찰결과에 대해서 서둘러 내린 부당한 평가를 철회해야 함.</p> <p>- IAEA가 우리를 걸고들면서 또</p>	<p>○ 호소카와 日 총리, 핵문제 해결없이 對北修交 불추진 발언</p> <p>* KBS 특별회견</p> <p>- 북한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日·北韓사이의 국교정상화문제는 논의할수없음</p> <p>- 일본과 한국 미국 세나라가 협조해 北韓核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며 中國도 적극 협력해야 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8		<p>다시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소 동을 벌이려 시도한다면 우리 는 단호한 조치로 그에 대응 할 것임.</p>	
3.19	<p>○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접촉(「평화의 집」)          &lt;우리측&gt;          - 실무접촉이 北韓側의 부당한 자세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          - 북한측에 ① 우리측 최고당국자에 대한 誹謗·中傷 중지, ② 우리 국민에 대한 反정부투쟁 선동 즉각 중지, ③ 핵문제 우선해결 입장에서 특사교환을 실현하겠다는 명백한 입장표 시 등 「3개항의 조치」를 緊急提案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 한 북한측의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          &lt;북한측&gt;          - 절차문제 토의를 거부하고 6차 접촉시 철회했던 「4개 요구 사항」을 다시 거론하면서 우리측이 美·北韓회담 방해목적 에서 실무접촉을 악용했다는 점을 인정·사죄할 것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근본입장을 바꿔야한다고 주장          -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방침 결정은 '대화포기선언·전면대결 선언·전쟁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고 위협          * 次期接觸 날짜를 정하지 않고 회담 종료          ○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 결렬관련 聲明</p>		<p>○ 張庭延 한국주재 중 국대사, 北核제재 반대입장 표명          - 중국은 북한핵문제 의 UN안보리 회부 와 北韓에 대한 제 재조치에 반대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음.</li> <li>-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li> <li>- 우리의 평화의지는 확고하며 평화를 지킬 능력도 가지고 있음.</li> <li>- 북한이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올바른 자세로 돌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함.</li> </ul>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소카와 日 총리, 대북제재시 동참 발언 (북경)</li> <li>- UN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日本도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것임.</li> <li>○ 오건민 中國 외교부 대변인, 對北 UN 제재 반대입장 재확인</li> <li>- 중국은 대화를 통</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0			<p>한 해결 이외에 UN 安保理 상징 등 어떠한 형태의 對北 체제도 반대함.</p>
3.21	<p>○ 대통령 주재 安保理關係長官會議 개최, 북한핵문제 관련 안보상황 평가 및 대책 협의</p> <p>&lt;金泳三 대통령 발언요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중대한 기로에 들어섰음.</li> <li>-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둘 것이며 北韓이 자금이라도 고립과 대립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개방과 국제화의 길을 선택해야 함.</li> <li>- 완벽한 軍事安保理態勢를 갖추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패트리엇 미사일을 빠른 시일내에 한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韓·美간에 협의토록 함.</li> <li>- T/S 훈련문제는 韓·美간</li> </ul>	<p>○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북측대표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접촉의 전과정은 北과 南이 민족자주와 외세의존,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의 서로 다른 근본 입장을 보여주었음.</li> <li>- 朝·美회담과 북남특사교환은 원래 별개의 문제로서 남조선이 조·미회담을 가로막는데 특사교환문제를 악용하는 것 자체가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인 것임.</li> <li>- 우리에게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결정한 도발행위는 사실상 실무대표접촉 파괴선언이고 특사교환 포기선언이며 우리에게 대한 전면적인 대결선언임.</li> <li>- 남조선당국자들이 특사교환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끝내 北南실무접촉을 결렬시킨데 대해 단호히 규탄함</li> <li>- 남조선의 각계계층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이번 접촉과정에서 취한 남조선당국자들의</li> </ul>	<p>○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安保理 회부 決議案 채택</p> <p>&lt;결의안 요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IAEA의 기존 결의에 담긴 핵심적 요소들을 이행치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함.</li> <li>- 북한이 사찰단의 필수적 활동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핵물질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에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기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함</li> <li>- 북한에 대해 IAEA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찰활동을 즉각 허용할 것과 핵안전협정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함</li> <li>- 사무총장에 대해</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1	<p>충분한 협의를 거쳐 日·中 방문 이후에 재개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음.</p> <p>0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宋榮大 수석대표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대표단 성명을 통해 실무대표접촉이 결렬된 책임이 마치 우리측에 있는 것처럼 왜곡·비난한 것은 책임을 우리측에게 전가하고 核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모면해 보려는 적반하장격의 주장임.</li> <li>- 우리 내부의 혼란조성과 체제전복을 위한 냉전적 작태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호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li> <li>- 核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의 문 또한 열려있음.</li> <li>- 북한측이 대화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경우 우리의 평화의지와 힘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둠.</li> </ul>	<p>反민족적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함.</p> <p>0 외교부 대변인, 3단계 美·北 韓 회담 무산관련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지난 2.25 朝·美 뉴욕 접촉 합의문을 전면 뒤집어 엮는 배신행위를 하였음.</li> <li>- 미국측은 지난 2.25 뉴욕합의문 발표이후 빈말만 했을 뿐 자기의 의무를 어느하나 이행하지 않았음.</li> <li>- 미국이 뉴욕합의문을 뒤집어 엮고 朝·美 회담을 결렬시키는 조건에서 우리도 동시행동 조치와 관련한 우리의 의무를 더는 일방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li> <li>- 우리는 제3단계 朝·美 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음. 또한 기구의 담보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을 더이상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음.</li> <li>- 미국이 朝·美 회담을 끝내 회피하고 T/S '94훈련을 재개하거나 IAEA가 사찰결과를 왜곡하여 不公正성을 확대하면서 압력으로 나오는 경우 우리는 지난해 3.12부 공화국정부 聲</li> </ul>	<p>이번 특별이사회 결의를 IAEA 全 회 원국과 安保理·UN 총회에 송부하도록 요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결결과: 찬성25, 반대1 (리비아), 기권5 (중국 등)</li> <li>0 UN안보리, 북한 核 문제 비공개 협의</li> <li>0 클린턴 美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에게 親書 전달</li> <li>- 확고한 對韓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협의체제 강화 강조</li> <li>0 코지레프 러 외무장관, 對北 제재 동참 시사</li> <li>- 러시아는 核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와 절차의 이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임.</li> <li>0 울시 CIA국장, 북한 核물질 전용 발인</li> </ul>

■ 3 원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1	<p>○ 외무부 대변인, IAEA 對北 결의안 채택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특별이사회가 안보리에 회부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것을 주목하며 國際社會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함.</li> <li>- 북한이 하루빨리 안전조치협정상의 제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 核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함.</li> </ul>	<p>明에서 천명한 조치들을 실천에 옮기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p> <p>○ 갑오농민전쟁 100돌 기념보고회 (인민대학습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핵물질을 전용했으며 이는 최소한 1개의 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보임.</li> </ul>
3. 22	<p>○ 金泳三 대통령, 안보리 對北제재 지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주재 日本·中國 특파원 회견</li> <li>-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制裁措置를 취하더라도 이를 적극 지지할 것임.</li> </ul> <p>○ 韓昇洲 외무부장관, 중국 北核제재 안보리 결의 동참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도 단계적 제재조치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봄.</li> </ul>	<p>○ 『祖平統』대변인, 특사고환 실무대표접촉 결렬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실무대표접촉 자체를 결렬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를 침예한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음.</li> <li>- 3. 21 안보관계장관회의라는데서 취한 도발적인 조치들은 우리에게 대한 일종의 대결선언이고 전쟁선언임.</li> <li>- 김○○도당이 외세에 추종하여 대화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고가고 있는데 대하여 단호히 규탄함.</li> </ul>	<p>○ UN안보리 5개상임이사국, 對北 결의안 협의</p> <p>&lt; 미국측 제시 決議案 초안 내용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한에 IAEA 사찰단 재초청 촉구</li> <li>② 안보리가 북한 核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며 필요시 追加措置 고려</li> <li>③ IAEA 사무총장에 제사찰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核안전조치협정 실행 보고 요청</li> <li>④ 남북한 당국에 비핵화공동선언 이</li> </o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2	<p>0 韓·美 고위안보회의, 패트리엇 미사일 4원 배치 결정</p> <p>0 합동참모본부, 全軍에 '특별경계령' 시달</p> <p>• 대통령 해외순방중 북한 도발 대비, 3.23~31 限 특별경계태세 강화지시 시달</p>	<p>- 남조선 인민들이 단호한 무쟁을 벌여 매국노들을 제거함으로써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기대함.</p> <p>0 「朝總聯」상임위, 북한 입장 지지 聲明 발표</p> <p>0 「職總」중앙위, 남한 노동정책 비난 「남한 노동자 임금실태 백서」 발표</p>	<p>행에 관한 對話 시작 촉구</p> <p>⑤ 관련 당사국들에 유연결의 825호에 따른 핵문제 해결 노력 요청</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북한 안보리 決議 거부시 제재강구 발인</p> <p>• 美 상원 외교위</p> <p>-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노력이 위 기상황에 도달했음</p> <p>- 북한이 유연안보리의 결의안 마저 거부할 경우 가까운 시일내 제재방안이 강구될수밖에 없음</p> <p>0 李鵬 중국 총리, 北核 UN상정 반대입장 재확인</p> <p>- 중국은 압력을 찬성하지 않으며, 만일 北韓에 압력을 가한다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긴장을 더할 뿐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3	<p>0 金泳三 대통령, 북측대표의 '서울불바다' 발언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위원 및 수석비서관 오찬</li> <li>- 이를 문서로 미리 준비해 온 것을 보면 이는 회담자의 뜻이 아니라 평양 최고당국자의 의사로 볼 수 밖에 없음.</li> </ul> <p>0 國會 외무통일위·국방위, 북한 핵문제관련 정부보고 청취 및 정책질의</p> <p>&lt;李榮德 부총리 발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국제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측이 對話에 나오도록 유도해 나가겠음.</li> </ul> <p>&lt;韓昇洲 외무부장관 발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의 제재나 북한 설득에는 中國의 협조와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임.</li> <li>- 북한의 약속이행이 없는 한 3단계 美·北 회담 不可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원칙문제에 관해서는</li> </ul>	<p>0 駐中 북한대사 주창준, 對北 압력 계속되면 한반도에 전쟁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미국이 對北 압력진술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다시 전쟁에 휩싸일 것임.</li> <li>- 미국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경험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함.</li> <li>- 江澤民 중국주석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중국과 북한 사이의 우호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li> </ul> <p>0 중앙통신, 안보리 對北 제재시 '선전포고' 간주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와 관련해 UN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법률적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UN헌장에 대한 난폭한 위반임.</li> <li>- 불순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제재와 같은 부당한 압력책동을 강행한다면 그것을 선전포고와 같은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 바 있음.</li> </ul>	<p>0 매커리 美 국무부 대변인, 北核 해결 방안 美·中 긴밀협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은 UN 본부·北京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음.</li> </ul> <p>0 클린턴 美 대통령, 北核 해결위한 中國 노력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유에스투데이紙</li> <li>- 중국 지도부가 핵개발을 단념토록 북한을 설득하려 노력한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음.</li> </ul> <p>0 키드 IAEA 대변인, 북한 연내 제2원자로 완공 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변에 50MW의 출력을 가진 두번째 原子爐를 건설중이며 금년말쯤 설치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3	<p>미국도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임.</p> <p>&lt;李炳台 국방부장관 발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도발을 가해 올 경우 우리는 韓·美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강력한 응징보복을 실시하고, 도발양상에 따라서는 이를 統一戰役 수행의 기회로 연계시킨다는 전략 개념을 수립하고 있음.</li> <li>- T/S 재개시기는 현재 4월 하순, 5월중순, 6월이후 등 몇개 안을 놓고 韓·美 정부간 협의중이며 이번 훈련에는 패트리엇 미사일도 참여하게 됨.</li> </ul> <p>○ 국회 외무통일위, 북한 核 사찰 수용촉구 決議文 채택</p> <p>*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부는 북한 핵의혹을 조속한 시일내 해소시켜겠다는 분명한 의지천명</li> <li>② 북한은 IAEA 사찰활동을 즉각 수용하고 핵안전협정을 성실히 이행</li> <li>③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모든 합의</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3	<p>사항을 조속히 실천</p> <p>④ 북한은 핵의혹 해소는 물론 남북회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p>		
3.24	<p>0 金泳三 대통령 - 호소카와 日 총리 頂上會談(도쿄)</p> <p>- 북한의 핵사찰 비협조와 남북대화 결렬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우려 표시</p> <p>- 韓·美·日 3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는대 의견 일치</p> <p>&lt;金泳三 대통령 발언내용&gt;</p> <p>- 앞으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나, 북한이 지연전술을 계속할 경우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p> <p>- 안보리에서의 대북조치 등에 있어 韓·日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기를 기대함.</p> <p>&lt;호소카와 총리 발언내용&gt;</p> <p>- 북한과 대화창구를 남겨 놓은 채 단계적 접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p>	<p>0 원자력총국 대변인, IAEA 특별이사회 안보리회부 決議案 채택 비난 談話</p> <p>- IAEA서기국이 장갑복소구역에서 묻혀내기시료 한 두개를 자기들의 요구대로 채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사화학실험소에서 재처리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없다고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p> <p>- IAEA서기국은 이번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또다시 부당한 결의를 채택케함으로써 불공정성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켰음.</p> <p>- 우리의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 한다면 그릇된 평가에 기초하여 채택한 결의를 즉시 철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 만일 부당한 결의를 철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IAEA 서기국의 불공정성 확대에 상응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p>	<p>0 블릭스 IAEA사무총장, 북한 核사찰 결과 UN안보리 보고</p> <p>- 북한의 核개발계획 추진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3일간의 追加査察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UN안보리의 조치 촉구</p> <p>- 사찰의 계속성유지하려면 6주후 IAEA 재사찰 필요 주장</p> <p>&lt;안보리 보고 후 記者會見 발언&gt;</p> <p>- 분석결과,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확보하고있음을 의미함</p> <p>0 리 정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8者회담』제의</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4	<p>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안보리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경우 憲法의 범위내에서 책임있는 대응을 할 것임.</li> <li>○ 金泳三 대통령, 북한에 대해 언제나 대화의 문호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언급</li> <li>* 출국인사</li> <li>- 북한은 IAEA 핵사찰을 성실히 받지 않고 남북대화마저 일방적으로 단절하여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음.</li> <li>- 韓·美간의 굳건한 안보 협력 체제아래 우리는 저들의 어떠한 도발도 물리칠 것이며, 결코 저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임</li> <li>- 저들이 언제라도 대화에 응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을 것임.</li> </ul>	<p>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放, '미국의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경고</li> <li>- 미국 정부당국과 그밖의 고위정계인물들의 호전적 책동에 의해서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li> <li>- 이미 천명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의 그 어떤 제재도 곧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고 그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li> <li>○ 「韓民戰」중앙위, 한반도 전쟁위기에 관한 詳報 발표</li> <li>○ 「職總」중앙위 대변인, 남한 안보태세강화 관련 규탄 성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라신 외교부대변인 성명</li> <li>-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南北韓과 러·中·美·日·UN대표·IAEA대표 등이 참가하는 8자 회담을 제의</li> <li>○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리「8者회담」제의에 부정적 입장 표명</li> <li>- UN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장으로 생각함.</li> </ul>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泳三 대통령, 일본 國會 연설</li> <li>-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域內국가들이 더욱 협력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社勞青」중앙위 대변인, 남한 안보태세강화 관련 규탄 聲明</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첸 지엔 駐UN 중국 차석대사, 안보리 北核결의안 반대입장 공식 표명</li> <li>* UN 安保理 회의</li> <li>- 미국이 마련한 UN</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5	<p>- 이 지역의 긴장완화와 공동안보를 위한 多者間 협력도 시작해야 할 때임.</p> <p>○ 金泳三 대통령, 중국 거부권 不행사 시사          * 駐日한국특파원 간담회</p> <p>-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므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p> <p>○ 政府, 러시아 「8者회담」 제의 拒否          * 외무부당국자 논평</p> <p>- 러시아 정부의 제의를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며 그 취지를 평가함.</p> <p>- 美·日 등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로서는 UN安保理에서 논의되고 있는만큼 안보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p>		<p>안보리의 對북한 결의안 초안과 형식에 반대함.</p> <p>- 결의안 대신 '안보리 議長 聲明'을 채택하고 그 안에 긍정적이고 객관적이며 온건한 방향의 해결책을 담는다면 중국도 채택에 참여하겠음.</p> <p>○ 페리 美 국방장관, 한국軍 전력보강 권고</p> <p>- 우리는 韓國정부에 여러 차례 (군사력 증강을) 권고했음.</p> <p>- 한국은 특히 북한의 공격에 대비, 軍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대포공격을 막는데 특별히 유의해야 함.</p>
3. 26	<p>○ 金泳三 대통령, 韓·日 정상회담후 기자회견(도쿄)</p> <p>-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p>	<p>○ 노동신문, NPT탈퇴 성명 실행 警告</p> <p>- 우리는 회담재개에 연연하지</p>	<p>○ 로드 美 국무부 차관보, 북한 재래식 무기 한반도 최대위협 발원</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6	<p>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불식시키고 남북한사이의 대화가 본격화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가 우리의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UN安保理에 회부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li> <li>- 북한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꾼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수 있을 것임.</li> <li>- 두 나라는 UN안보리의 협조등을 포함, 북한핵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기로 하였음.</li> </ul>	<p>않을 것이며 그 어떤 제재에도 두려워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무력정책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침해를 좌시하지도 않을 것임.</li> <li>- 미국은 지난해 3.12 공화국 성명의 조치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화국의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NN방송 회견</li> <li>- 북한의 핵武器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은 북한의 재래식 무장병력임.</li> <li>-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대부분 북한이 1, 2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50%를 넘는 것으로 보고있음.</li> </ul>
3.27	<p>○ 韓昇洲 외무부장관, 중국의「안보리 議長聲明」제안 수용의사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의장성명을 먼저 내자는 중국의 제의가 효과적일 수도 있음.</li> <li>-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의안 채택 같은 높은 단계에서 제재를 시작하는 것보다 議長聲明</li> </ul>	<p>○ 민주조선, IAEA 北核결의안 철회 않으면 보복조치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가 부당한 결의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IAEA의 편파성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음.</li> </ul>	<p>○ NYT紙, 페리 美公군방 장관 주한 美공군에 탄약비축 명령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리 美公군방 장관은 유사시 美공군기들의 韓國중파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내 공군용 탄약과 부품들을 비축하라고 명령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7	<p>명처럼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는게 나올수도 있음.</p>		
3.28	<p>○ 金泳三 대통령-江澤民 中國 국가주석 정상회담 (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안정의 유지가 긴요하다는데 공동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li> <li>-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실과 이해를 토대로 긴밀히 협조해 가기로 합의</li> </ul> <p>&lt;金泳三 대통령 발언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함.</li> <li>- 한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항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li> </ul> <p>&lt;江澤民 중국주석 발언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비핵화를 철저히 지지함.</li> <li>- 남북한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li> </ul>	<p>○ 外交部대변인,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배치 중지촉구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말데 대한 朝·美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으로 단호히 규탄함.</li> <li>- 지형상으로 놓고 볼때 크지 않은 조선반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임의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음.</li> <li>- 미국의 이번 조치는 조선정전 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정전기구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로 됨.</li> <li>- 만일 美國이 끝내 신형 미사일 배치를 단행한다면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함.</li> </ul> <p>○ 中放, 金泳三 대통령의 訪日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각기간 일본에서 한 그의 모든 행동거지는 말그대로 친</li> </ul>	<p>○ UN安保理 5개상임이사국, 北核『의장성명』 문안 절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北 사찰촉구 결의안 대신 안보리 의장성명을 내기로 의견접근</li> <li>- 문안내용을 놓고 미국 등 서방국들과 중국측 의견이 엇갈려 문안수정을 벌인다음 31일째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결정</li> </ul> <p>○ 江澤民 중국 주석, 北核 안보리制裁 반대입장 재확인</p> <p>*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에서 긴장과 불안이 증대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쪽은 한민족임</li> <li>- 모순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안정이 절대 필요함.</li> </ul>	<p>일주구로서의 구결과 청탁, 사대매국행위로 일관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와 함께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도 성차지 않아서 일본반동들에게 까지 공동대처와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애걸하며 우리를 어찌해 보려고 시도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나뭇의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것은 제한돼있음</li> </ul>
3. 29	<p>0 金泳三 대통령, 北京大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개방·개혁의조류에 동참하게 된다면 황해경제권이 급속히 부상될 수 있을 것임</li> <li>-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평화적으로, 그리고 원만히 해결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li> </ul>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 핵문제의 대화 통한 해결방침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신 기자회견 및 수행 기자간담회</li> <li>-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對話가 가장 중요한 방법임.</li> </ul>	<p>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대변인 李基澤 민주당대표의 訪北意思 표명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보도들에 의하면 이기택 대표는 남조선당국의 방해가 거듭되는 속에서도 자신의 평양방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지난 3.20에는 빠른 시일안에 평양방문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다시금 밝혔음.</li> <li>- 이 기회에 이기택 대표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초청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의 평양방문이 빠른 시일안에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는 바임.</li> <li>- 오늘의 현실은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지체없이 한자리에 마주앉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국면을 열어나갈 획기적인 대책을 공동으로</li> </ul>	<p>0 파노프 러 외무차관 北韓 공격받으면 지원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도발하지 않은 전쟁에서 침공을 받을 경우 북한·소련간에 체결된 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北韓을 지원할 것임.</li> </ul> <p>※ 4.2 오보라고 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가 소련의 승계국으로서 '61년 체결된 조약에 자기 나뭇대로의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나 러시아 국내적 위기, 변화한 세계정세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頂上會談에 대한 기존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며, 이것이 北核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li> <li>- 북한이 대화를 수용한다면 북한의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여러가지 經濟적 방법으로 도울 길을 찾겠음.</li> <li>- 韓·中정상회담에서 T/S 훈련문제나 패트리엇미사일 배치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T/S훈련재개 시기를 순방후 결정하겠다는 데는 변화가 없음.</li> <li>- 對UN외교, 對미·일·중 3각외교, 나아가 對미·일·중·러 4강외교를 통해 북한 핵개발 저지방안을 철저히 강구하겠음.</li> <li>- 어느 경우에도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겠으며 흡수 통일도 있을 수 없음. 절대로 그길을 선택하지 않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li> <li>- 남조선의 이기택 대표의 평양 방문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나라의 통일문제 등 북남사이의 현안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함.</li> <li>○ 駐태국 북한대사 이도섭, 對美 협상의사 시사</li> <li>-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전망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음.</li> <li>- 북한 핵문제의 유일한 평화적 해결방안은 미·북한간 패키지 딜 뿐임.</li> <li>○ 노동신문, 신작전계획제5027호 공개 관련 비난</li> <li>-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미국과 함께 이미 북침전쟁계획을 짜놓고 이를 공개한 사실은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태임.</li> <li>- 남조선이 북침전쟁을 기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민족대단결 제안이 실현될 수 없었고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이 진전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귀결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英·佛·러 4개 상임이사국, 안보리 『北核결의안』문안 확정</li> <li>- 북한에 앞으로 6주의 시한을 주고 IAEA와 추가사찰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함.</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9	<p>0 洪淳瑛 외무부차관, 안보리 議長聲明 이후 단계적 제재 불가피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동참을 위해 평화적 해결노력을 국제사회에 계속 과시해 나가되 의장성명 이후에는 단계적 制裁가 불가피함.</li> <li>- 단계적 제재방안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지원 등 온건한 교류의 금지, 원자재 교류 및 송금금지, 전면봉쇄 등의 순서를 밟게 될 것임.</li> <li>-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 핵카드의 이용이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함</li> </ul> <p>0 國會 외무통일위, 시베리아 벌목장 北韓노동자 『실태조사단』 4월중 파견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00 일당은 우리와 대화할 의사도,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 놓음으로써 그들 자신이 일방적으로 北南합의서와 非核化共同宣言을 휴지화해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함.</li> <li>0 『조국전선』 중앙위, 反정부투쟁 선동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li> <li>0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규탄 평양시 군중집회(중앙사로청 회관)</li> </ul>	
3.30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전쟁 없이 해결 확신 표명</p> <p>* 北京주재 한국특파원 조찬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에 전쟁이 없이도 북한 核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li> </ul>	<p>0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대변인, 제2차 세계평화회의(3.27~29, 서울) 참가자 판문점통과 불허 관련 비난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 남측지역을 봉쇄하여 외국사절단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처</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30	<p>귀국함.</p> <p>0 金泳三 대통령, 일본·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p> <p>&lt; 귀국연설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및 중국의 지도자들과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 북한 핵문제,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했음.</li> <li>-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韓·中 양국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 조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li> </ul> <p>0 韓昇洲 외무부장관-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추가조치 명기해야 '議長聲明' 채택키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 北核대책 관련, 추가조치 가능성을 포함시킬 경우 '의장성명' 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의안' 을 채택키로 합의</li> </ul> <p>0 정부, 李基澤 민주당 대표 訪北 불허 입장 재확인</p> <p>* 발표문</p>	<p>사는 국제적 예의도, 도덕도 모르는 무례한 행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평화사절들의 판문점 통과조차도 부당한 구실을 붙이며 가로막아 나선 것은 외국 사절들에게도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이 국제사절단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한 것은 북과 남의 판이한 두 현실이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임.</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더이상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행위와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진 우리 민족의 영상에 손상을 주는 무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li> </ul> <p>0 조선종교인 확대회의, 동학100주년기념 공동행사 무산관련 對南便紙 채택</p> <p>* '남조선 종교단체들과 교직자·신도들에게 보내는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민을 표방하는 김00정권이 북남사이의 모든 접촉과 내왕을 차단하고 갑오농민전쟁100돌 공동기념사업마저 가로막은 처사는 그무엇으로도서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30	<p>- 남북간의 통일문제협의를 책임과 권한이 있는 쌍방 당국간 대화를 통해 추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p>	<p>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음.</p> <p>-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종교단체들과 교직자·신도들이 김00정권과 단호히 결별하고 참다운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울때가 왔다고 생각함.</p>	
3.31	<p>0 金泳三 대통령, 클린턴 美 대통령과 북한핵문제 전화 협의</p> <p>&lt; 金泳三 대통령 발언 &gt;</p> <p>-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韓·美의 긴밀한 협조와 일본과의 공조가 중요하며 가능하면 중국의 동참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함.</p> <p>&lt; 클린턴 대통령 발언 &gt;</p> <p>-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외교적 주도를 위한 제안도 취할 수 있음.</p>	<p>0 외교부대변인, 핵문제관련 기자회견</p> <p>- 미국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 악용하려 한다면 더이상 조·미회담에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압력에도 끝까지 맞서 나갈것임.</p> <p>- 미국이 국제적인 반공화국압력소동을 해소하고 조미회담의 기초를 재수립하는데로 나온다면 우리도 역시 협상을 한한 문제해결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p> <p>0 『전당 당세포비서대회』 개최 (3.31~4.2, 평양체육관)</p> <p>• 金日成, 당세포대회에 보내는 축하문을 통해 '당세포 5대과업' 제시</p> <p>①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영도</p>	<p>0 유엔 안보리, 북핵 관련 '議長聲明' 채택</p> <p>- IAEA 사찰결과 핵물질의 전용, 재처리 또는 다른 작업이 있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에 憂慮를 표명함.</p> <p>- 북한에 대해 IAEA 사찰단이 '94.2.25 IAEA·북한간 합의한 査察活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함.</p> <p>- 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後續査察 활동에 관하여 IAEA 사무총장이 보고할 때, '94.2.25 IAEA·북한간 합의한</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31		<p>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감.</p> <p>②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하여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움.</p> <p>③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함.</p> <p>④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침.</p> <p>⑤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함.</p>	<p>査察活動 완료문제를 추가로 안보리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p> <p>- 북한과 남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討議를 재개할 것을 요청함.</p> <p>- 안보리는 본건을 계속 계류하고,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追加 檢討할 것을 결정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	<p>○ 외무부 대변인, UN 안보리 議長聲明 채택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충분히 인식해 이번 의장성명서에 즉각 呼應해 올 것을 촉구함.</li> <li>- 정부는 앞으로 핵무기 비확산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北韓核問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함.</li> </ul> <p>○ 韓·美 외무장관, T/S훈련 재개여부 4월말 결정키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가 IAEA추가사찰 시한으로 요구한 4월말까지 T/S훈련의 재개결정을 연기키로 합의</li> </ul> <p>○ 韓·日 정상, 북한 핵문제 전화협의</p>	<p>○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北核多者협상 제의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가 제재와 압력을 반대하고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모색하려는데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li> <li>- 러시아의 다무적 협상제안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우려됨</li> <li>-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우선 우리와 美國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정치군사적 문제임.</li> </ul> <p>○ UN주재 북한대사 박길연, UN 안보리 의장성명 거부 표명 * 교도통신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리 의장성명의 추가사찰 요구는 일방적인 요구로서 이행할 수 없음.</li> </ul> <p>- 미국과 협상은 미국이 3단계 고위급회담을 향한 토대를 마련하면 반대하지 않겠음.</p> <p>○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대변인 李基澤 민주당 대표 訪北문제 관련 談話</p>	<p>○ 페리 美 국방장관, UN안보리 의장성명 미흡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수단이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최종적인 해결은 아직 요원함.</li> </ul>

■ 4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		<p>0 전당 당세포비서대회 폐막 (3.31~4.2)</p>	<p>0 워싱턴 포스트紙, 北 제2 재처리라인 완공뎀 플루토늄 생산능력 배증 보도</p> <p>- 북한은 寧邊에 기존 재처리라인에 이어 제2 재처리라인을 건설중이며, 6개월내 완공되면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2배로 늘어날 것임.</p>
4. 3	<p>0 韓·日 외무장관, 北核 협조방안 논의 (도쿄)</p> <p>- 4월말까지 대화를 통한 노력을 계속하되 北韓이 끝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p> <p>- 中國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p> <p>0 洪淳瑛 외무부차관, 특사 교환 전제 철회검토 주장</p> <p>- 아직은 남북 특사교환이 美·北韓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아있으나</p>		<p>0 페리 美 국방장관, 북한 핵무기 2개 보유 판단 발인</p> <p>* 美 NBC방송 회견</p> <p>- 美정부는 북한이 이미 2개의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면 우선 목표는 북한의 핵 개발계획을 중단시키는데 있음.</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3	<p>그 연계고리를 끊는 방안을 포함해 광범위한 논의가 가능하며 논의돼야 한다고 봄.</p>		
4. 4	<p>○ 韓昇洲 외무부장관, 호소카와 日총리와 北核문제 논의 (도쿄)</p>	<p>○ 외교부 대변인, UN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는 우리 핵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의장성명에 담보협정 이행문제를 꺼들임으로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편승하였음.</li> <li>- 우리가 朝·美회담을 위하여 NPT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순간부터 담보협정의 효력은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li> <li>- 따라서 담보협정이행이요, 추가사찰이요 하는 것은 공인된 특수지위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도 되지 않음.</li> <li>- 미국이 우리와 한 모든 공약을 뒤집어엮고 압력일변도로 나오는 현상황에서 우리는 朝·美회담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동결시키고 있던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정상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li> <li>- 힘에는 힘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li> </ul>	<p>○ 갈리 UN사무총장, 北核 평화적 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대화, 북한·미국 대화, 북한·IAEA 대화 등 3개 채널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현 상황에서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 사우드 차이나 모닝 포스트紙, 북한 국경탈출자 사살명령 보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4		<p>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정책임.</p> <p>0 천도교청우당 대변인, 李基澤 민주당 대표 訪北문제 관련 談話</p> <p>0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 1돌기념 중앙보고회                      * 참석자: 박성철, 양형섭, 김용순 장 철, 유미영, 강현수</p>	
4. 5	<p>0 金泳三 대통령, 주변 4強 北核결정 사전협의 발언                      * 식목행사</p> <p>- 북한核문제와 관련, 美·日·中·러 등 한반도 4개 주요국가들은 한국과의 협의없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임.</p> <p>0 국무총리 주재 안보장관회의                      * 외무부장관의 귀국보고 및 북한 核협상관련 대책 논의</p>	<p>0 『祖平統』대변인, 한반도정세 관련 비난 聲明</p> <p>-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무력증 강책동과 전쟁도발책동을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 우리민족을 새로운 核전쟁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강력히 규탄함.</p> <p>- 미국이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핵전쟁연습을 감행하려하는 것은 朝·美공동성명을 일방적으로 꺾어버리고 문제를 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임.</p> <p>- 남조선의 책동은 사대매국역적들만이 할수 있는 반민족적 행위이며 北南 비핵화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지장으로 만드는 배신행위임.</p>	<p>0 델라스키 美국방부 대변인, T/S훈련이 미뤄질 경우 다른 훈련 검토 발언</p> <p>- T/S훈련 실시를 기정사실로 알고 있으나 실시여부와 시기는 韓國정부와 현재 협의중이며, 미뤄질 경우 다른 종류의 훈련을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중임.</p> <p>0 타임誌, 美정부 北核보유 목인방침 보도</p> <p>- 美행정부는 북한이 핵폭탄을 추가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核査察을 받</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5		<p>-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올바르게 찾자면 美國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변경시킬 뿐 아니라 남조선에서 김 0 0 과 같은 사대매국노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민족자주세력, 민주통일세력이 정권을 차지해야 함.</p>	<p>는 조건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2개의 핵폭탄에 대해서는 묵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p>
4. 6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 별목공 망명 不許 방침          * 경제계인사 오찬</p> <p>- 중국측에 우리가 흡수통일을 원치 않으며 北韓 별목장의 인부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데려오지 않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p>	<p>0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 개최 (4.6~4.8)</p> <p>* 주석단 명단 :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강성산, 김영남, 최 광</p> <p>&lt; 의 제 &gt;</p> <p>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 과업 성과적 수행문제          ② '93예산집행결산과 '94 예산 심의          ③ 휴회기간 상설회의 채택 법안 승인</p> <p>&lt; 회의 결과 &gt;</p> <p>-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 과업 성과적 수행문제에 대한 결정」 채택</p> <p>①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관철          ② 석탄공업·전력공업·철도</p>	<p>0 팻 류캐넌, 한국 핵무장 허용 주장          * 워싱턴 포스트紙 기고문</p> <p>- 한국·일본·대만 호주 등이 소규모의 핵무기를 보유, 東아시아에 이웃해 있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수 있음.</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6		<p>운수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 계속 발전</p> <p>③ 경제조직사업 및 경제관리의 원만한 수행</p> <p>④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자력갱생의 기풍발양</p> <p>⑤ 국가 및 경제기관 간부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p> <p>⑥ 본 결정의 구체적 집행대책 을 정무원에 위임</p> <p>- 「'93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결정」과 「'94 예산에 대한 법령」 채택</p> <p>* '93 지출 402억4천만원 '94 예산 415억2천만원 (美貨 188억7천불, 전년대비 3.2%증액)</p> <p>- 「문화유물보호법」·「변호사 법」채택 및 「합영법」개정 승인</p> <p>0 「祖平統」서기국, 학생시위 관련 對南비난 보도</p>	
4. 7	<p>0 金泳三 대통령,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구성 지시</p> <p>* 안보장관회의</p> <p>- 北核 대책 및 안보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총 리 중심의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구성 지시</p>	<p>0 조선불교도연맹, '민족대단결 10대강령' 관련 해외동포 및 남한불교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p> <p>* 중앙위 확대전원회의 개최</p>	<p>0 클린턴 美 대통령, 北核 관련 「고위정 책조정팀」구성지시</p> <p>- 북한핵 관련 관계 부처간 입장을 협의·조정해 나갈 '고위정책조정팀' 구성을 지시하고</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7			<p>갈무치 국무차관보를 그 의장 겸 북한 핵전담대사로 임명</p> <p>○ 페리 美 국방장관, 북한 핵개발·남침 기도엔 UN다국적군 활용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루킹스연구소 발간 논문</li> </ul> <p>- 핵무기화산 기도국이나 침략국에 대해 UN이 결정한 다국적 합력군을 통해 그같은 기도를 저지시킬 수 있을 것임.</p> <p>-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경우 한반도 예방폭격도 불가피함.</p> <p>○ 吳建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 金日成생일에 대표단 파견 발언</p> <p>- 중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金日成 북한주석 생일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임.</p>

■ 4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8	<p>0 統一安保政策調整會議 첫 모임 개최</p> <p>- 회의운영방안과 UN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국내외정세 변화 논의</p>	<p>0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7차회의 폐막</p> <p>0 金正日 국방위원장 추대 1돌 경축 중앙보고회 개최 (2.8 문화회관)</p> <p>* 참석: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최 광, 계응태</p>	<p>0 파노프 리 외무차관 시베리아 벌목장 北韓 노동자 망명허용 발언</p> <p>- 탈출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한국으로 가도록 하겠음. 외교상으로 아무 문제도 없음.</p> <p>- 러시아는 舊소련의 승계자로서 북한과의 조약을 이어받았으므로 북한과 러시아간의 조약은 아직도 유효함.</p> <p>- 북한을 지원하는 경우는 북한이 제3자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를 러시아헌법과 국내법, UN헌장 및 NPT 등 국제규범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임.</p>
4. 9		<p>0 임업부 대변인, 시베리아 벌목장 北韓 노동자 인권문제 관련 談話</p> <p>-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을 모독하면서 조</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9		<p>사단 파견이니 귀순공작이니 하고 소동을 벌이는 것은 남북대결을 해외에까지 확대하여 민족적 반목을 조성하고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일심단결의 위력을 훼손시켜 보려는 계획적인 민족반역행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어떤 조사단을 파견하는 놀음을 벌이거나 그들에 대한 당치않은 귀순공작따위의 놀음을 벌인다면 그에 단호히 대처할것임</li> <li>-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적인 모략책동에 그어떤 나라나 국제기구가 가담하는데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임</li> <li>- 앞으로 우리 벌목노동자 몇몇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납치해간 것으로 인정하고 즉시 그에 상응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li> </ul> <p>0 平放, 李仁模가 방북1돌 즈음 남한의 도와준 인사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고 보도 * 3.13字 김상원·임수경등 6명</p>	
4.10		<p>0 『祖平統』서기국, 남한 혁무기개발 규탄 報道 발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1	<p>0 金洙三 대통령, 북한에 쌀 등 경제지원 준비 언급</p> <p>* 吳學謙 중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접견</p> <p>- 북한이 국제적 고립감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과 진지한 對話를 할 경우 고립감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p> <p>- 그 경우 한국은 美·北韓 간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줄 준비가 돼 있음. 韓國은 북한에 줄 수 있는 충분한 쌀이 있음.</p>	<p>0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民族大會」 소집 제의 (인민문화궁전)</p> <p>* 참석자: 강성산, 김병식, 양형섭, 김용순, 장 철, 유미영, 주성일, 최용해, 최성숙, 정두환, 백인준, 백남준</p> <p>&lt;최고인민회의의議長 양형섭 보고&gt;</p> <p>- 우리는 조국광복 50돌을 한해 앞둔 오는 8.15를 계기로 평양이나 서울에서 전민족의 대단결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남조선당국과 각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정중히 제의함.</p> <p>- '민족대회'는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단체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하는 圓卓會議로 할 수 있을 것임.</p> <p>- 대회에서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과 '90년대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필수적 요건으로 제기되는 민족공동의 과제들을 비롯하여 온민족이 관심하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임.</p>	<p>0 美의회조사국(CRS), 韓·美 양국과 북한의 예상되는 군사적 선택방안 검토 보고서 발표</p> <p>* 「한반도의 위기: 1994 -군사지리, 군사균형, 군사옵션」</p> <p>- 北韓 군사선택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군사적위협 극소화</li> <li>② 한국 불안조성</li> <li>③ 대남침투</li> <li>④ 국제테러리즘 격화</li> <li>⑤ 재래전과 비재래전 감행</li> <li>⑥ 핵무기 사용</li> </ol> <p>- 韓·美군사선택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군철수</li> <li>② 군사적 현상유지</li> <li>③ 전쟁억제력 강화</li> <li>④ 전진배치 방위</li> <li>⑤ 북한 봉쇄</li> <li>⑥ 북한핵시설 파괴</li> <li>⑦ 선제공격</li> <li>⑧ 핵무기 배치</li> </ol> <p>0 美 케미컬 &amp; 엔지니어링 뉴스紙, 北韓 플루토늄 최고 10kg</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소집하기 위하여 北과 南, 海外에서 각각 5명의 대표들로 '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5월중 순경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li> <li>&lt;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채택 &gt;</li> <li>* 4.13 平放 공개</li> <li>- 전민족의 대단결이야말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며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 나갈수 있는 출로로 됨.</li> <li>-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염원으로부터 조국광복 50돌을 한해 앞둔 오는 8.15를 계기로 평양 또는 서울에서 民族大會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는 바임.</li> <li>- 민족대회에는 北과 南의 당국과 정당, 단체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海外同胞대표들이 정견과 신앙, 소속과 직위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수 있을것임</li> <li>- 민족대회에서는 전민족대단결</li> </ul>	<p>보유 추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드 IAEA 대변인 발언 인용</li> <li>- IAEA는 최근 영변 핵사찰시 북한이 제공한 핵물질을 분석한 결과, 앞서 신고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에 도달했음.</li> <li>- 북한이 최고 10kg 까지 확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게 IAEA의 판단임.</li> </ul>

■ 4 원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1		<p>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비롯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p> <p>- 北과 南, 海外에서 각각 5명씩 대표들을 내어 민족대회 準備委員會를 구성, 오늘 5월에 평양 또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민족대회 소집날짜와 장소, 회의방식을 확정하며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p> <p>○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민족대회」 소집 제의 便紙 전달 관련 對南電通文</p> <p>-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단체·개별적 인사들에게 보내는 便紙를 넘겨주기 위하여 '94.4.13(수) 오전 10시 板門店 중감위원회의실에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임.</p> <p>○ 외교부, 日本 핵무장 폭로 백서 발표</p>	
4.12	<p>○ 남북연락사무소 李俊求 소장, 북한측 편지접수 거부 對北電通文</p> <p>- 귀측이 우리측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편지는 정상</p>	<p>○ 北韓, 남한이 '서울불바다' 발언 왜곡 주장</p> <p>•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참가자(최성익, 이금철) 平放 대담</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2	<p>적인 남북대화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현재 남북 현안문제인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政府의 판단에 따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바임.</p> <p>0 統一院 대변인, 북한측의 「8.15 민족대회」제의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석상에서 까지 '서울 불바다'를 운위하던 북한이 과연 민족적 화해를 말하고 민족대단결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li> <li>-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얽매어 이미 실패로 끝난바 있는 汎民族大會의 재판을 벌임으로써 또다른 형태의 統一戰線戰術을 기도하려는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함.</li> <li>-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만 조장하는 政治宣傳行爲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함</li> </ul>	<p>IAEA의 재사찰을 받지 않으면 北南 특사교환문제를 협의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한 것은 특사교환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도를 다시금 공언한 것으로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특사교환을 파탄시키려는데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남특사교환을 제3단계 朝·美회담의 制動物로 이용하려는데 있음.</li> <li>- 남조선이 우리에게 먼저 전쟁선언을 해놓고 전쟁의 길로 나가는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보려고 '불바다說'을 왜곡·유포시키면서 지금 모략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li> </ul> <p>0 전직 국가·정부수반·정치인 「平壤방문단」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 초청, 윌리엄 테일러 등 美 연 구단체·언론계 인사 포함</li> </ul>	

■ 4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속히 IAEA 추가사찰을 받아들이고 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블릭스 IAEA사무총장에게 對北 접촉 재개 요청</li> <li>- 안보리 의장성명(3.31)과 관련, IAEA측이 먼저 북한에 追加査察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안</li> <li>- 북한이 다음달초까지 계속 사찰을 거부할 경우 IAEA측이 북한의 의무불이행에 관해 安保理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li> </ul>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泳三 대통령, 북한 벌목공 대책 다각적 검토 지시</li> <li>• 朱燮植 청와대 대변인 발표</li> <li>- 金泳三 대통령은 4.13 정부관계부처에게 러시아내 작업장에서 탈출한 북한 벌목공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지시했음.</li> <li>- 이에 앞서 4.12 러시아로 떠난 韓昇洲 외무부장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 美·北 회담 통한 핵문제 해결 강조</li> <li>• 쿠바 프렌사 라티나 통신 會見 (5.20字 中放)</li> <li>-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美國의 對조선 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만큼 우리와 미국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li> <li>- 美國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압력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는 응당한 자위적 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核사찰 4월말까지 완료 희망</li> <li>-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IAEA는 UN안보리에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li> <li>- 이달말까지 방사화학실험실의 5MW급</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3	<p>에게도 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당국자들과 협의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p> <p>- 金 대통령은 그간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고 IAEA 핵사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문제를 일시 유보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北韓이 이에 부응하는 자세를 거부하고 있어 人道主義的인 原則에 입각한 검토를 지시한 것임</p>	<p>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p> <p>- 외국 투자자들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게 되면 지역적 경제협조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다른 나라 투자자들에게 언제나 投資의 문을 열어놓고있음</p> <p>- 南朝鮮 당국자들이 우리의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호응하여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오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외세 의존과 北南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p> <p>- 聯邦制 통일방안은 조선의 北과 南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공정하게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정당하고 현실성있는 통일방안임.</p> <p>0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對美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희망</p> <p>* 통일정책위 일꾼들과 세계 각국 전직 국가·정부수반, 정치인들 사이의 회담 (인민문화궁전)</p>	<p>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끝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p>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 연료봉고체 단독 강행맨 심각 상황 발생 경고</p> <p>* ABC-TV 회견</p> <p>- 북한이 몇달안에 영변 원자로의 핵 연료를 교체할 전망이다.</p> <p>- UN이 통제하지 않는 가운데 작업이 강행될 경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p> <p>0 吳學謙 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北核 중국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발언</p> <p>- 우리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할 것이지만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에게 經濟封鎖라는 말은 통하지 않으며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이 마련되어 있음.</li> <li>-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며 인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金正日 동지를 '친어버이'로 절대 숭배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음.</li> <li>-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우선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군축이 실현되어야 하고 朝·美사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함.</li> <li>- 앞으로도 인내성을 가지고 美國과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원하지만 미국이 끝내 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li> </ul>	
4.14	<p>0 韓·러 외무장관, 북한 벌목공 송환문제 협의 (모스크바)</p> <p>- 韓昇洲 외무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탈주자들이 북한에 송환되지 않고 러시아 국내법의 보호하에 들것과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韓國 이주를 원할 경우 협조해 줄 것</p>	<p>0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美·北회담 계속 주장</p> <p>* 통일정책위 일꾼들과 세계 각국 전직 국가·정부수반, 정치인들 사이의 座談會</p> <p>- 朝·美회담은 계속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하여 핵문제, 朝·美관계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p>	<p>0 갈루치 美國무부 차관보, 對北경제제재 중국과 포괄 협의 발언</p> <p>- 북한이 IAEA 추가 사찰 수용·남북대화 재개 등 2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미·북한 3단계 회담은 열리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4	<p>을 요청</p> <p>- 코지레프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하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p>	<p>-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美國도 신의와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임.</p> <p>○ 駐러 북한대사 손성필, NPT 脫退 위협 * 모스크바방송</p> <p>- 미국이 이전 합의에서 물러서면서 강경압력이라는 대책을 내리먹이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해당한 대책을 취해야 할 때임.</p> <p>- 지난해 3.12 선포한 NPT 脫退 선언을 다시 본격화할 수도 있음.</p> <p>- (러시아 '8者회담' 제의관련) 회의 참가국들중 다수는 미국의 편에 들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참가한다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임.</p> <p>○ 金日成 생일경축 중앙보고대회 * 참석자: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이인모</p>	<p>않을 것임.</p> <p>- 5월까지 북한이 핵사찰과 남북대화등 2.25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UN안보리에서는 經濟制裁등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해서도 中國측과 포괄적인 논의를 했음.</p> <p>○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寧邊에 추가 핵시설 건설 확인</p> <p>- 북한이 寧邊핵시설 단지 안에 또하나의 핵재처리시설을 건설중임.</p> <p>- 이 시설이 언제 완공될지는 알 수 없으나 완공되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은 배가될 것임.</p>
4.15	<p>○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특사교환 철회 및 북한 벌목공 망명허용 방침 결정</p>	<p>○ 北韓, 黨민방위부장 김익현에게 「次帥」칭호 수여</p>	<p>○ 코지레프 러 외무차관, 북한과의 벌목협정에 「人權條項」 삽입 방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5	<p>&lt; 발표문 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교환은 정상간의 간접대화로서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태도는 특사교환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음.</li> <li>- 특사교환을 통해서도 핵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음.</li> <li>-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한 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남북대화가 진행되어야 함</li> <li>- 남북상호사찰 없이는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북한의 핵 투명성 보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li> <li>- 정부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탈출자 본인이 망명을 희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희망자 전원을 국내에 데려오기로 방침을 결정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金日成, 각국 고위대표단 및 해외동포 대표단을 위해 연회 (금수산의사당)</li> <li>0 「韓民戰」중앙위, 김일성에 생일 축하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는 현재 협상중인 시베리아 벌목에 관한 북한과의 협정에 러시아 영토내에 있는 북한벌목공들의 인권보호문제를 철저히 반영할 것임.</li> <li>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北 추가사찰 받아야 3단계 회담 개최 발언</li> <li>- 남북한 특사교환 조건이 철회되었다 해도 북한이 추가 핵사찰을 받지 않는 한 美·北韓 3단계 고위급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들 탈출자의 망명 희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li> <li>○ 政府, 북한 별목공 관련 「정부지원대책반」 구성</li> <li>• 외무차관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li> </ul>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泳三 대통령, 北核 저지 국제공조 강조</li> <li>• 부시 前 美대통령 면담</li> <li>- 북한은 언제든지 핵을 가지려고 노력함.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강력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밀한 국제협조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해야 함.</li> <li>-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安保理에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li> <li>- 북한 별목공들의 亡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인권적·민족적 입장에서 취해진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 북한 핵개발의혹 부인</li> <li>• 美CNN방송 회견</li> <li>- 우리는 강대국이 되려고도 하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을 것임</li> <li>- '서울불바다' 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이었음.</li> <li>-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핵무기를 내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음. 핵무기를 보유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li> <li>- 핵무기를 먼거리를 향해 쏠 수 있는 운반수단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국토가 좁아 핵무기 실험을 실시할 수도 없음.</li> <li>- 북한이 어떤 전쟁의사도 갖고 있지 않음. 여기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커다란 피해를 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브라이트 유엔주재 美대사, 북한을 「不良국가」로 간주 발언</li> <li>○ 마린 보쉬 핵실험금지위원회 위원장, NPT 재검토 주장 (런던)</li> <li>- 핵강국들의 핵보유권만을 보호해주는 NPT는 재검토되어야 함.</li> <li>- NPT는 이미 와해되고 있으며 이 조약은 자국의 핵무기를 중강하고 성능을 개선해서 핵독점을 유지하려는 핵보유국들에 의해 수년동안 불모가 되어왔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6	<p>0 政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에 탈출 북한 별목공에 대한 國際法상 난민지위 부여 요청</p>	<p>을 것이며 따라서 전쟁을 원하는 자들은 제정신이 아님.</p> <p>- 사냥과 낚시 그리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싶음.</p> <p>0 金日成, 각국 예술인의 연환공연 관람 (만수대의사당)</p>	
4. 18	<p>0 金泳三 대통령, 韓·美 안보결속앞에 北韓도발 없을 것이라고 강조</p> <p>* 태평양지역관광협회 (PATA) 개막식 치사</p> <p>- 북한은 확고한 韓·美 안보결속 앞에서 어떠한 도발도 획책하지 못할 것임</p> <p>-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돌출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은 자신감과 활기로 넘치고 있음.</p> <p>- 북한은 UN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장성명을 비롯한 세계 여론을 거역하지 못할 것임.</p> <p>0 李榮德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와 북한 핵문제 논의</p>	<p>0 金日成, 美·北협상 무조건 재개 촉구</p> <p>* 日NHK방송 회견(4.18字 보도)</p> <p>- 미국은 핵무기가 있었던 적도 없고 국제기관의 사찰까지 받은 우리에게 부당한 트집을 잡아 압력을 가하고 있음.</p> <p>- 남조선에 핵을 반입해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미국이고 있지도 않은 핵개발의혹을 초래한 것도 미국임.</p> <p>-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협상으로만 해결이 가능함. 양국이 서로 합의성명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 이행해나가면 핵문제는 부드럽게 풀릴 것임</p> <p>- 양국간 관계개선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日本이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를 버려야 함 일본이 對북한 정책을 실질적</p>	<p>0 패트리엇 미사일 부산 도착</p> <p>- 패트리엇미사일 1차선적분 3개포대 00기가 부산항에 도착</p> <p>0 에드워드 위너 美 국방차관보, 한국에 重武器 사전배치 계획 언급</p> <p>* 美상원 군사위 소위원회 중언</p> <p>- 미국은 잠재적 분쟁가능지역인 韓國과 쿠웨이트에 여단급 중무기장비들을 미리 배치할 계획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8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핵활동의 투명성보장을 위해서는 IAEA사찰과 南北상호사찰의 2개 軸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li> <li>- 북한이 IAEA 추가사찰을 조속히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비핵화공동선인 이행을 위한 南北상호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li> <li>- 美·北 3단계회담과 남북 대화는 긴밀한 연계를 갖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li> </ul> <p>○ 韓·美 北核관련 고위실무회의, 추가사찰 수용해야 3단계회담 개최 합의</p> <p>* 金三勳 核담당대사, 갈무치 美국무차관보 참석</p>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美·北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에서 남북특사교환을 때기로 한 한국정부의 결정 존중</li> <li>- IAEA 추가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 3단계 美·北회담 개최</li> </ul>	<p>으로 전환해야만 관계개선의 전망이 열릴 것임.</p> <p>※ 前 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 발언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을 철수했음을 담보하지 않고 있음. 남조선에는 핵무기로 사용할 수단이 그대로 남아있음.</li> <li>- 일본의 요코스카항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있으며 50~100발의 핵폭탄이 실려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임.</li> </ul>	

■ 4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S 훈련의 중단여부는 북한 핵문제의 진전상황과 연계</li> <li>- 남북대화와 美·北회담은 상호 보완적 형태로 추진</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북한 별목공 難民지정절차 생략 방침</li> <li>* 러시아방문 귀국회견</li> <li>- 귀순의사와 신분이 확실할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난민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만으로 한국으로 바로 데려오기로 했음.</li> <li>-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북한 별목공에 대한 한국의 동포애를 이해하며, 귀순은 별목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음.</li> </ul>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 송환 요구 對南電通文</li> <li>- 우리는 명백히 전쟁포로들인 김인서·함세환의 송환문제가 그 어떤 이유나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조선정전협정과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의 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윌리엄 테일러 美 CSIS 부소장, 訪北 관련 회견</li> <li>- 金주석이 미국이 공식초청할 경우 지금이라도 방문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9		<p>구에 따라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환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을 가시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을 것임.</li> <li>- 귀 적십자사가 전쟁포로들인 김인서·함세환을 즉시 송환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지체없이 긍정적인 호응을 보일 것을 다시금 촉구함.</li> </ul> <p>○ 金日成, 경수로 지원 조건 核 재처리시설 포기 용의 시사          * 워싱턴 타임스紙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할 경우 美國이 걱정하고있는 원자로나 방사화학실험설비등 再處理施設은 아마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임.</li> <li>- 核무기를 만들 필요도, 의향도 능력도 없으며, 미국에 대해 핵카드를 써오지도 않았음.</li> <li>- 패트리엇미사일 배치문제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전쟁무기이므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용순 등 북한의 고위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이 진다고 인정하고 北韓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li> <li>- 북한은 IAEA 추가 사찰은 받아들여지되 영변 未申告施設 2곳은 IAEA사찰과 분리시켜 미국과의 협상에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음.</li> <li>- 늦어도 4월내에 美·北 대화가 재개 될 것으로 확신함.</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19		<p>0 조선반핵평화위원회,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비난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朝·美 공동성명과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배신행위이며, 군사적 도발행위임.</li> <li>-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미제와 괴뢰도당의 패트리엇 미사일 반입을 지지 파탄시키기 위하여 反美·反戰·反核·反政府 鬭爭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임.</li> </ul>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갈루치 미국무차관보에 서한 * 日니혼게이지사이신문 (4.22字)</p>	
4.20	<p>0 韓·美 국방장관, 북한이 『2.25 美·北합의사항』 불이행시 T/S훈련 11월 실시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lt; 합의사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지난 2월 합의사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94 T/S훈련을 11월경에 실시</li> <li>- 美·北 3단계회담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li> </ul>	<p>0 『汎民聯』 북측본부 의장 백인준, 문익환 목사 백일추모제 대표단 파견 관련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문목사 장례위원회의 초청에 호응하여 북측대표단을 서울에 보내기로 하였음.</li> <li>- 우리 대표단으로는 나뭇 포함하여 4명의 성원들로 하고 여기에 약간명의 수원, 기자들을 동행시키려고 함.</li> <li>- 귀측이 서울에 가는 우리</li> </ul>	<p>0 IAEA 대변인, 북한이 추가사찰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당국이 자국의 일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라는 UN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보내왔음.</li> <li>- IAEA는 앞으로 며칠내에 그 문제를</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0	<p>될 경우 '94 T/S훈련 중단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美연합방위체제의 공고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對北억제력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 발전</li> <li>-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전투력 현대화와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li> </ul> <p>○ 金泳三 대통령, 北核 대화로 안풀리면 UN제재 불가피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리 美국방장관 접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IAEA의 충분한 사찰을 받지않는등 대화노력에 성과가 없으면 UN제재라는 최후의 카드를 가질 수밖에 없음.</li> </ul> <p>○ 韓昇洲 외무부장관, 남북 대화는 北核해결의 장기적 전제조건이라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화는 3단계 北·美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북한핵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li> </ul>	<p>대표단의 身邊安全과 편의를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대표단이 서울에 나가는 것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4.22 (金) 오전 10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쌍방 實務者들의 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 문익환 목사 장례위원회 앞으로 電通文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故 문익환 목사 거래장 장례위원회가 북측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民族大團結을 도모하는데서 좋은 일로 된다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6 (火) 아침 8시 나들 포함한 4명의 대표들과 수인, 기자들이 판문점을 통하여 추모행사에 참가하며 28일 오후에 서울을 출발하여 귀로에 오를 예정임을 알려드림.</li> </ul> <p>○ 북한, IAEA에 원자로 연료봉 교체 입회요청 電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寧邊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시 IAEA가 입회해 줄 것을 요청</li> </ul>	<p>논의할 계획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0	<p>는 반드시 거쳐야할 전제 조건임.</p> <p>0 統一院, 부산항·청진항간 선박 운항 승인</p> <p>- 삼선해운(주)에 대해 St. Vincent 국적선 Halibut 호의 부산항↔청진항간 부정기 왕복 1회 운항을 승인</p> <p>* '94. 4. 20 부산항→청진항 '94. 4. 25 청진항→부산항</p> <p>0 李基澤 민주당대표, 北核 제재 반대 입장 표명</p> <p>*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p> <p>-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반대함.</p> <p>- 대화와 설득을 통한 개방만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이 돼야 함.</p>	<p>0 외교부, 核問題관련 「備忘錄」 발표</p> <p>-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담보의 연속성보장과는 인연이 없는 시료채취와 측정을 허용해주면 IAEA서기국은 지난 시기처럼 불일치를 조작해내고 특별 사찰이요 뭐요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p> <p>- NPT 탈퇴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특수한 지위에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p> <p>- 앞으로 朝·美회담이 열리고 일괄타결원칙에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동시행동 조치들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우리의 특수지위도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임.</p> <p>- 미국의 對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소동, IAEA서기국의 불공정성이 해소되지 않는한 우리의 조약복귀란 상상할 수 없으며, 지금단계에서 담보협정의 이행이란 말도 되지않음</p> <p>- 우리는 NPT 탈퇴효력을 임시 정지시킨 특수한 지위에 상응하게 그것도 朝·美회담의 진척여부에 따라 순수 담보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0		<p>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받아들여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함.</p>	
4.21		<p>0 金日成, 經濟制裁 해도 충분히 견디다고 발언</p> <p>* 在美 한국계 언론인 문명자氏 회견 (5.19字 아사히신문)</p> <p>- 南北韓은 기본합의에 따라 상호 군축이 실현되면 서로 군사기지마저 모두 보여줄 길이 열려 있음.</p> <p>- 단계적으로 무력을 축소한 후 한반도를 자주적으로 방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美軍을 철수하라는 것이지 당장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님.</p> <p>- 휴전이후 지금까지 미측에 의해 달러경제권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經濟制裁를 받아왔음.</p> <p>- 지금까지 받아온 제재 이상의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음.</p> <p>0 남한 核폐기물 투기 규탄 평양시 군중집회 (중앙노동자회관)</p>	<p>0 페리 美국방장관, 북한 5MW원자로 연료봉 교체시 核彈 4~5개 만들 플루토늄 확보가능 발언</p> <p>* 離韓 기자회견</p> <p>- 현재 가동중인 5MW원자로에서 수주내 핵연료봉을 교체할 예정인데 여기서 4~5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이 추출될 것으로 추정하고있음</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2	<p>0 姜英勳 韓赤 총재, 비전향 출소자 송환 요구 관련 對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12.3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미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遺憾스럽게 생각함.</li> <li>- 귀측이 진정으로 인도주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南北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부터 취해 나가야함.</li> <li>- 귀측이 인도주의 문제를 말하려 한다면 송환을 약속하고도 억류하고 있는 동진호 선원들부터 즉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임.</li> <li>- 귀측이 적십자 본연의 정신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440여명의 拉北된 우리측 인사들을 하루속히 송환하며, 중단된 南北赤十字會 談의 조속한 재개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함.</li> </ul>	<p>0 「職總」중앙위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비난 談話</p>	<p>0 IAEA, 북한의 연료봉 교체 立會 요청 수락</p>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核 군사압력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京 외국특파원협회 강연</li> <li>-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對北 경제제재를 UN에 요청하겠음.</li> <li>- 핵의혹해결을 위해 북한에 군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음.</li> <li>-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 국제의무를 다한다면 북한과 關係正常化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li> </ul> <p>0 모이세예프 러 외무부 한국과장, 한반도 군사분쟁시 북한 지원의무 없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이타르타스通信 인터뷰</li> <li>-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군사분쟁이 시</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2			<p>작될 경우 朝蘇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즉시 북한을 지원할 의무는 전혀 없음.</p> <p>- 러시아는 지난 '61년 체결된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미 변경했음.</p>
4.23		<p>0 「農勤盟」중앙위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비난談話</p>	
4.24		<p>0 조선인민군 창건 6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2.28 문화회관) * 참석자: 오진우, 박성철, 김영남 최 광</p> <p>&lt; 국방위원 김광진 보고내용 &gt;</p> <p>- 지난해 우리 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과 벌인 정치군사적 대결은 총포소리가 없는 대결전이었으며 우리 黨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決死戰이었음.</p> <p>-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과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무장하여 원수들이</p>	<p>0 키드 IAEA 대변인, 연료봉 샘플 채취 거부면 訪北 유보 표명</p> <p>- 북한측이 사찰단에 연료봉 샘플채취 허용을 분명히 약속하지 않는한 사찰단을 보내지 않을 것임.</p> <p>- 북한측이 이같은 요구에 동의하기만 하면 금주 후반께 사찰단이 北韓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임.</p>

■ 4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4		<p>언제 어디서 덤벼든다해도 일격에 소멸할 수 있도록 만단의 '戰鬪動員態勢'를 갖추고 있어야 하겠음.</p>	
4. 25		<p>0 金日成, 전국석탄일꾼대회 참가자 접견</p> <p>0 金日成·金正日, 인민군 창건 62돌 즈음 군부대 방문 * 영접 : 오진우, 최 광, 이을설, 김봉탈, 김광진, 최인덕, 백학립, 김익현</p> <p>0 UN주재 北韓대표부 참사관 한성렬, 경수로 지원맨 기존 核체계 포기 발언</p> <p>- 경수로 지원이 실현되면 흑연 감속로인 寧邊의 실험용 원자로와 건설중인 상업용원자로, 재처리시설등 기존 핵체계를 포기할 수 있음.</p>	<p>0 크리스틴 쉘리 美 국무부 副대변인, 북한에 추가사찰 수용 촉구</p> <p>- 연료봉교체때 사찰관 입회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음.</p> <p>- 북한은 2.15 합의대로 IAEA가 사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허용해야 할 것임.</p> <p>0 日경찰, 朝總聯 오사카 본부 사무실 수색</p>
4. 26	<p>0 韓·日 국방장관회담 개최 (도쿄)</p> <p>-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양국 군사 교류 증진 방안 논의</p>	<p>0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 송환 요구 對南電通文</p> <p>- 지난 전쟁시기에 '민병'으로 활동한 김인서·함세환은 엄연히 전쟁포로이며 따라서</p>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北 연료봉 재충전 반대 표명</p> <p>- 협상기간중 北韓의 핵계획이 동결되기를 바라며 북한측</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6		<p>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 할 대상들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관계없는 '이산가족' 문제와 '동진호' 선원 송환문제, 적십자회담 재개문제 등을 들고나온 것은 생역지에 지나지 않음.</li> <li>- 우리에게서 귀측이 말하는 이른바 '남북인사'란 없으며, 있다면 남조선에서 살다가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여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만이 있을뿐임.</li> <li>- 귀 적십자사가 진정으로 인도주의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적십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ul> <p>0 「汎民聯」북측본부, 문익환 목사 백일추모제 대표단 파견 무산 관련 규탄 聲明</p>	<p>에 연료 재충전조치를 재고토록 요청할 것임.</p>
4.27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에 南北對話 성의 촉구 * 日야사히신문 회견</p> <p>- 美·北韓 회담이 열리면 남북 상호핵사찰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만큼 북한은 南北對話에 성의를 보여야 함.</p>	<p>0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 빨치산출신 출신자 김병주의 딸 김지현 북송 요청 對南 電通文</p> <p>- 얼마전에 우리는 몇년전에 사망한 비전향수 김병주의 딸 김지현이 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음.</p>	<p>0 데이비스 美 국무차관, 북한에 IAEA 사찰조건 수락 촉구</p> <p>- 연료교체 입회와 관련한 IAEA의 요구가 절대적인만큼 北韓은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에 대해)前 정권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現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li> <li>-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美國과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으나 핵사찰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한 미국이 관계개선을 받아 들이는 일은 없을 것임.</li> <li>-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韓·美·日 3국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도 일본정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향수를 아버지로 두었다는 죄 아닌 '죄'로 냉대를 받고 가난에 쪼들리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김지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도는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 공화국 북반부에 그를 데려다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li> <li>- 우리는 김지현과 그의 형제들이 북에 와서 치료를 받고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귀적십자사가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바임.</li> <li>- 만일 그가 지금까지 갚지 못한 입원비와 약값, 치료비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알리는 바임.</li> </ul> <p>○ 외교부 대변인, IAEA의 연료봉 교체 입회허용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의 노심연료 교체과정에 IAEA의 입회를 허용하였으며, IAEA의 입회활동에는 노심연료 교체활동에 대한 관측, 폐연료봉 계수기에 의한 모든 연료의 측정, 교체된 모든 연료에 대한 IAEA의 봉쇄와 감시, IAEA의 봉인 및 감시기재와 관련한 활동, 운영 및 회계기록 문건들에 대한 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의 사찰을 위해서는 핵연료봉 추출시 사찰단 현장입회, 연료봉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 연료샘플 채취 등 3가지 條件이 충족되어야 함.</li> </ul> <p>○ IAEA, 북한에 전면 사찰 보장요구 囑翰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드 IAEA 대변인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해 IAEA 사찰단이 핵연료봉 교체과정을 현장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7		<p>등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충분한 사찰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심연료 교체과정에 만일 정기 및 비정기 사찰범위에 속하는 사찰활동문제가 제기된다면 앞으로 朝·美회담에서 핵문제가 일괄타결된 다음에 허용될 수 있을 것임.</li> <li>- 지난 3월 IAEA의 사찰활동에서 제기된 방사화학실험소에 대한 추가사찰문제도 미국과 IAEA의 태도와 밀접한 연관속에서 고찰하고 있음.</li> <li>- 우리는 최근 北南특사교환문제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맞게 미국과 IAEA의 차후 동향을 보고 追加査察 문제도 特例로 허용해줄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이미 그들에게 통보해 주었음.</li> </ul> <p>0 「祖平統」대변인, 문익환 목사 백일추모제 대표단 파견 무산 관련 규탄 談話</p> <p>0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서기국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비난 談話</p> <p>0 「文藝總」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비난 談話</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8		<p>0 외교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對美협상 제의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들인 우리와 美國을 적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停戰體系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li> <li>- 제반 사태는 朝·美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반드시 정전협정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li> <li>-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協商을 진행할 것을 미국에 제기함.</li> </ul> <p>0 北韓, 군사정전위(MAC) 기능 중지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통보하고,</li> </ul>	<p>0 美·北韓 실무접촉 개최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연료봉 교체시 IAEA사찰단 입회문제, 寧邊 방사화학 실험실 추가사찰 문제, 3단계회담 개최여건 조성문제 등 협의</li> </ul> <p>0 셸리 美國무부 副대변인, 북한 평화협정체결 요구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군사정전위원회 대표가 아니라 美軍 대표와 직접 관계를 갖고자하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음.</li> <li>- 우리에게 관련한 휴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함.</li> </ul> <p>0 하타 日총리, 北核 UN제재시 적극 동참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임기자회견</li> <li>- UN의 결정이 내려지면 憲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28		<p>중립국감독위원회 북측 초청 국인 폴란드 대표도 철수시키 겠다고 통보</p> <p>- 현 휴전협정은 대체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준수하였으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판문점내 군사당국자간 直通電話는 계속 유지할 것임을 통보</p> <p>0 朝日우호친선협회, 日本경찰의 「朝總聯」사무실 수색 관련 규탄 성명</p> <p>0 金日成, 「朝總聯」의장 한덕수 일행 집견</p> <p>0 전국축산일꾼 열성자회의 (4.28~29, 인민문화궁전)</p>	<p>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p> <p>- 북한핵문제는 對話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함</p>
4.29	<p>0 외무부,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위한 對美 協商제의 관련 논평</p> <p>• 외무부 당국자 논평</p> <p>- 현재의 韓半島의 긴장 및 불안정요인은 북한의 핵 의혹에 그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p> <p>- 북한은 현 단계에서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협조해야 함.</p>	<p>0 외교부 대변인, 日本 경찰의 「朝總聯」사무실 수색(4.25) 관련 규탄 聲明</p> <p>- 일본 당국은 이른바 위력업무 방해라는 혐의를 걸고 총련 오사까부 본부 사무실과 책임 일꾼들의 주택 그리고 여러 산하지부들을 강제 수색하는 폭력적인 소동을 벌였음.</p> <p>- 이것은 총련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짓밟는 적대 행위이며 우리 共和國에 대한</p>	<p>0 IAEA, 사찰단 訪北 유보</p> <p>• 마이어 IAEA대변인 발표</p> <p>- 4.27 평양에 전달한 書翰에 대한 답신이 IAEA에 접수됐으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 사찰단의 파견을 연기했음.</p>

■ 4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 29	<p>- 남북한은 이미 '92. 2. 19 발효된 基本合意書에서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하였음.</p> <p>- 북측이 제기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문제는 당연히 南北韓이 직접 당사자로서 상기 합의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p> <p>○ 韓·러국방장관, 군사교류 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모스크바)</p>	<p>묵과할 수 없는 도전행위임.</p> <p>- 日本 당국이 우리의 핵문제를 결코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면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총련과 在日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p> <p>- 우리는 총련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할 것이며 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p>	<p>○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북한 核의도를 모른다고 발언</p> <p>• 日참의원 방문단 면담</p> <p>- 북한 核실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p> <p>- 북한이 정말 핵을 개발하려는 것인지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美國과의 관계개선에 이용하려 하는 것인지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p>
4. 30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국민신뢰에 바탕한 통일정책 추진 방침</p> <p>• 취임 기자간담회</p> <p>- 남북관계에는 대결구도와 대화라는 狀況의 二重性이 있으며, 양쪽을 다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음.</p> <p>- 정책목표의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상황의 이종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p>	<p>○ 외교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의 관련 備忘錄 발표 (중앙통신)</p> <p>- 군사정전위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줄 수 없는 빈 종이가 되었음.</p> <p>- 朝·美사이에 적대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체계를 종결짓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4.30	<p>대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통일업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li> <li>-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절대적으로 실현되고 지켜져야 함. 核이 있다면 폐기해야 하고, 현재 核을 개발중이라면 중지해야함</li> </ul> <p>0 呂만철씨 일가족 5명, 북한 탈출·귀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북한의 제안에 응답해 오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서는 정전협정의 일방 서명국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임.</li> </ul> <p>0 5.1절 경축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便紙' 와 '남한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呼訴文' 채택</li> </ul> <p>0 사회민주당 대변인, 남한 핵무기개발 규탄 聲明</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	<p>○ 金泳三 대통령, 하타 신임 日총리와 긴밀 협조체제 유지 재확인</p> <p>• 전화통화</p>		<p>○ IAEA, 北韓에 연료봉 시료채취 촉구 電文 발송</p> <p>-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시 IAEA가 핵안전협정에 따라 필요한 사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촉구</p> <p>○ 가키자와 日외무, 한반도 유사시 대비 자위대法 개정 주장</p>
5. 2	<p>○ 金泳三 대통령, 北韓 핵문제 해결 위한 노력 강조</p> <p>•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관계장관 오찬</p> <p>- 全장병이 일치단결해 24시간 철통같은 경비태세를 구축토록 함.</p> <p>- 安保관계 장관들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더욱 활성화해 빠른 시일안에 北韓 핵문제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p> <p>- 앞으로 북한 핵문제등 안보현안에 대해선 확고한 原則을 지키면서 단호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p>	<p>○ 외교부 대변인, 제2의 對공산권수출통제기구(COCOM) 설립 추진 관련 記者會見</p> <p>- 美國이 새로운 수출통제기구를 내오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발전도상국들이 경제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주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측시키려는 것임.</p> <p>-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한다는 간판을 들고 우리 나라를 통제 대상국에 집어넣은 것임.</p> <p>- 지난시기 코롬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것처럼 제2의 그 어떤 수출통제기구도 우리를 어찌지 못할것임</p>	<p>○ 셸리 美국무부 副대변인, 北韓 군정위 기능 중지 통보관련 입장 표명</p> <p>- 停戰(協定)이 무용하고 무효라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p> <p>- '92.2 南北韓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한간 대화에 의해 타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우리는 이같은 접근방식을 강력히 지지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	<p>- 美·日 등 우방과 더욱 긴밀히 공조,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p>	<p>0 천도교청우당 대변인, 남한 핵 무기개발 규탄 聲明</p> <p>0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관련 규탄 談話</p> <p>0 「韓民職」중앙위, 남한 고속 증식으로 개발중지 촉구 白書 발표</p>	
5. 3	<p>0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군정위 기능 중지 관련 聲明</p> <p>- 북한의 행위는 쌍방 합의에 따라서만 정전협정을 수정·중보토록 되어있는 停戰協定 제61항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위배되는 것임.</p> <p>- 특히 핵문제가 중대한 고비에 와있는 시점에서 현 정전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있는 것은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보지 않을수 없음</p> <p>- 현 정전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를 성실히 유지해야 하며 현 停戰機構를</p>	<p>0 외교부 대변인, 핵연료봉 교체 관련 記者會見</p> <p>- IAEA가 노심연료를 선택 측정하겠다는 것은 NPT 탈퇴 효력 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우리의 특수지위를 무시하고 정기 및 비정기사찰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음.</p> <p>- 우리가 이번에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과 지난 3월 사찰시 제기되었던 완료되지 못한 사찰활동까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찰단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IAEA가 管理理事會와 UN 安保理에 우리의 핵문제를 제기한 것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줌.</p> <p>- 만일 IAEA가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한 요구</p>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 사찰거부 계속면 안보리 회부 발언</p> <p>* 美아시아협회 초청 내셔널프레스 클럽 연설</p> <p>- 미국은 북한핵을 일부 묵인할 방침이 아님.</p> <p>- 외교노력이 계속돼야 하나 북한이 끝내 사찰을 거부할 경우 安保理 회부는 불가피함.</p> <p>- 3단계회담이 열리면 핵을 포함해 외교, 법적 측면, 경제 및 안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가 들어가게 될 것이며 북한이 맹</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3	<p>무용화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협정의 대체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전환문제는 南北韓이 당사자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li> <li>- 北韓은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함은 물론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임.</li> <li>-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버리고 하루속히 핵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ul>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북한에 정전협정 준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3社 인터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기본합의서 5조에 따라 정전협정문제는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li> </ul>	<p>를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우리의 운영계획에 따라 노심연료를 교체할 수밖에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심연료 교체는 기술적으로 보나 안전상 견지에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문제임.</li> <li>- 입회를 하던 안하던 시험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폐연료계수기와 열형광검출기 및 감시기재가 계속 동작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료교체작업은 철저히 IAEA의 감시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됨.</li> <li>- 우리는 교체된 모든 노심연료를 IAEA의 통제하에 둘 것이며 앞으로 朝·美회담에서 핵문제가 일괄타결되는 시점에 가서 그에 대한 測定도 허용해 줄 것임.</li> </ul> <p>○ 『祖平統』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제의 거부 관련 규탄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제4조 1항에는 “北南연락사무소는 北南사이에서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만큼 南側으로서는 응당 우리측 편지를 접수</li> </ul>	<p>방들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할 용의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가 만족할 만한 사찰을 마치고 또 南北韓간 대화가 열리면 T/S훈련이 재조정될수있음</li> </ul> <p>○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3단계 회담에서 平和協定 협의 가능성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회담에서는 核問題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政治·經濟 현안들이 토의될 수 있을 것임.</li> </ul> <p>○ 日아사히신문, 北 별목공 라오스 파견 추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라오스에 올해 2만명의 별목공을 파견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3월중순 70명의 조사단을 라오스에 보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가 중대한 고비에 있는 현 시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님.</li> </ul>	<p>하여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이 당사자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측의 便紙집수를 거부한 것은 北南합의서를 무시하고 궤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li> </ul>	
5. 4	<p>0 金泳三 대통령, 北 핵개발 계속면 자멸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主平統」운영·상임위원 초청 다과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그리고 서방의 인내를 시험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自滅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북한 당국에 분명히 경고함.</li> <li>- 북한은 '서울불바다' 발언에 이어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겠다고 對南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나, 이는 北韓의 외교적 고립과 어려운 내부사정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li> <li>- 이제 우리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북한 핵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지지돼야 함.</li> </ul>	<p>0 「祖國戰線」중앙위 의장 정두환, 남한 핵무기개발 규탄談話</p> <p>0 외교부 대표단, 러시아 방문 (5.5~5.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 외교부 부부장 이인규</li> </ul>	

■ 5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4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經協·核연계 계속 유지 방침</p> <p>* 「民主平統」운영·상임위 연설</p> <p>- 정부는 韓半島 비핵화 선언 이행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며 南北기본합의서를 휴지로 만들어서 는 결코 안됨.</p> <p>- 핵문제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經協과 핵문제를 연계한 정부의 정책은 계속될 것임.</p>		
5. 5			<p>○ 윈스턴 로드 美국무 차관보, 중국 北 핵 개발 지원 언급</p> <p>* 美상원 亞·太소위 청문회</p> <p>- 중국은 과거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같은 지원이 없었더라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현재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을 것임.</p>
5. 6		<p>○ 외교부 대변인,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 수립' 제의 관련 記者會見</p>	<p>○ IAEA,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의 답신은 사찰단 파견에 미흡 평가</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 통수권을 쥐고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법률적·현실적 조건을 고려한데 있음.</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평화협정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함.</li> <li>-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결만을 낳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만이 朝·美사이에 제기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li> <li>- 北南 사이에 불가침을 기본으로 하는 합의서가 채택되고 軍事共同委員會가 조직된 조건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 그 이행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문제도 완전히 풀리게 될 것임.</li> </ul> <p>○ 외교부장 김영남, 연료봉 교체 관련 IAEA사무총장에게 電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폐연료봉의 선택, 분리, 보관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현 특수지위하에서는 절</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6		<p>대로 허용된 수 없는 원칙적 문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이제라도 편견과 독선을 버리고 우리의 해당기관에서 천명한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바란다면 협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음.</li> <li>- 귀측이 사찰시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는 특수사찰을 특별로 허용하고 연속성 보장을 위한 IAEA사찰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측의 부당한 처사로 감시기재가 멈춰서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그로인한 엄중한 결과에 대해 절대 책임질 수 없음.</li> </ul>	
5. 7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IAEA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키로 결정</li> </ul> <p>0 북한 탈출 귀순자 3명, 서울 도착</p> <p>*김대호(북한 원자력공업부 작업반장) 외 2명</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8		<p>0 平放, 김정일에 '위대한 수령' 호칭 사용</p> <p>- 김정일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세계 혁명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위대한 수령', '세계가 공인하는 탁월한 수령' 등으로 호칭</p> <p>※ '수령' 호칭 연혁</p> <p>- '86. 5.25 中放 논설 '91. 6.30 인민경제대학 보고 '92. 2.13 민주조선 보도 '93.11.18 기자동맹 보고</p> <p>0 『조평통』부위원장 정신혁, 남한 핵무기개발 규탄 談話</p>	
5. 9	<p>0 姜英勳 韓赤 총재, 노부모 방문단 조기실현 및 남북 적십자회담 재개 촉구</p> <p>*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사</p> <p>- 이산가족노부모 방문단 교환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하며 남북적십자회담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p> <p>- 북한은 '87.1.21 동진호 선원들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외에도 강제 납북된 어부, 민간항공기 승</p>		<p>0 美·北韓 실무접촉 (뉴욕)</p> <p>* 연료봉 교체 및 추가사찰 문제 논의</p> <p>0 울시 美 CIA국장, 北 '95~'96년 대형 원자로 보유면 4~6주만에 핵탄 1개 제조능력 보유 언급</p> <p>0 日마이니치신문, 김일성 '91.10 訪中 때 등소평에게 핵 재개발 약속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9	<p>객, 승무원 등 4백여명의 우리측 억류자들도 즉각 송환해야 함.</p>		<p>0 中, 최근 북한에 연료봉고체 자제 요청                      * 張庭延 駐韓중국대사 발언</p> <p>-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독자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했음.</p>
5. 10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핵문제 해결시 美·北韓 관계개선 지원 발언                      * 中央日報 회견</p> <p>- 핵문제의 가닥이 수개월 안에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상황발전에 따라 經協 재개 등 단계적 대응방안을 세워놓고 있음.</p> <p>- 결국 南北, 美·北, 北韓·IAEA 등 모든 문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음. 우리의 對北 정책 기조는 북한이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속에 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p> <p>- 북한이 中國모델을 참조해서 적응하려한다면 우</p>	<p>0 李仁模, 빨치산 출신 출소자 김병주의 딸 김지현에게 便紙 발송</p>	<p>0 日本 도카이 핵연료 공장에서 플루토늄 70kg 발견</p> <p>- IAEA는 일본 핵연료 공장에서 5년만에 걸친 조업기간 동안 신고되지 않은 70kg 가량의 플루토늄이 제조라인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p> <p>0 하타 日총리, 北核 관련 정책방향 제시                      * 국회 시정연설</p> <p>- 북한 핵의혹은 국제적 핵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東北亞안보의 중대 위협요인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0	<p>리는 그같은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적십자회담이든 어떤 것이든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南北이 인도주의와 관련된 모든 보따리를 풀어놓고 포괄적으로 논의 해결하자는 입장임.</li> <li>- 북한의 평화협정 대체 주장은 핵문제의 초점을 흐려놓으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北韓의 책임있는 행동을 지켜보겠음.</li> <li>- 남북당사자간에 직접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갈 것임.</li> </ul> <p>○ 탈북동포돕기 운동본부 발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장 : 오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동포 실태 파악 및 정착 지원</li> </ul> <p>○ 「民藝總」, '코리아 통일 예술축전' 가을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예술인이 참가하는 축전을 올 가을 서울과 日本 5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국과 협력,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방지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최대한 노력할 것임.</li> <li>- UN 결정을 준수하고 헌법 범위내 긴급시에 대비하며 韓·美와 긴밀히 협조·대응할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1		<p>○ 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핵문제 이중기준 적용 비난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중동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經濟制裁를 철회시키려 하면서도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없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있음.</li> <li>- 이것이야말로 거꾸로 된 논리이며 국제관계에서의 노골적인 二重基準임.</li> <li>- 美國의 모순적인 행위는 핵문제가 우리 공화국을 고립말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여 조작해낸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음.</li> </ul>	<p>○ IAEA, 사찰단 5.14 派北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드 IAEA 대변인</li> <li>- 北韓이 연료봉교체를 연기한다면 방사화학실험실의 글러브박스내 시료채취와 감마선지도작성 등을 위한 查察團을 수일내에 보내기로 했으며, 북한측에 이같은 방침을 이미 통보했음.</li> <li>○ 러시아, 한국에 北韓 벌복공귀순 재고 경고</li> <li>* 러 외무부 소식통</li> <li>- 韓國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거나 지금과 같은 과열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벌복공처리에 대한 입장을 전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강경 立場 전달</li> </ul>
5.12	<p>○ 金泳三 대통령, 북한 핵개발 절대 저지 확신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향군인회 신임간부 오찬</li> </ul>	<p>○ 북한 임업부, 벌복공문제 관련 對南 규탄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모략책동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전행위로, 우</li> </ul>	<p>○ 美·北韓 실무접촉 개최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이모어 美國무부 군비확산방지국장, 한성련 北韓 UN주재</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개발은 어떤 경우든 절대 막아야 하며 또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li> <li>○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 핵개발엔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 경고</li> <li>* 신문편집인협회 조찬간담회</li> <li>- 北韓이 핵무기를 반개라도 개발한다면 비핵화 선언은 무효화되는 것임.</li> <li>- 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때까지는 核과 經協과의 연계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임.</li> <li>- 남북상호사찰은 IAEA사찰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핵통제공동위의 역할이 중요함.</li> <li>○ 金大中 亞太재단 이사장, 김일성 訪美 초청 제안</li> <li>*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li> <li>- 미국은 핵개발의도가 없다는 김일성의 진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 임업노동자들의 존엄을 침해하는 反人道적 행위로, 朝·리 인민들사이의 전통적 친선을 해치려는 행위로 준렬히 규탄함.</li> <li>- 남조선이 벌이고 있는 남치모략책동은 오늘 北南관계 전망과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음.</li> <li>- 남조선이 우리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남치공작에 매달린다면 단단히 쓴 맛을 보게될 것임.</li> <li>- 만약 그들중 단 한명이라도 잘못되는 경우 우리 벌목노동자들은 단호한 보복을 안길 것임.</li> <li>- 러시아 당국이 南朝鮮의 불순한 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함.</li> <li>○ 北韓, IAEA에 핵연료봉 교체작업 시작 통보 電文</li> <li>* UN주재 북한대표부 확인</li> <li>-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IAEA가 부당한 조건을 제기하면서 사찰단원을 보내지 않아 부득불 연료교체를 시작할 수 밖에 없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참사관 참석</li> <li>○ 델라스키 美國방부대변인, IAEA 추가 사찰 실시 언급</li> <li>- IAEA사찰단이 5.14 평양으로 떠나 완료되지 못한 핵사찰을 끝내도록 허용할 것이며, 사찰에는 필름과 밧데리 교환, 봉인점검 등이 포함될 것임.</li> <li>- 북한이 연료봉교체 작업을 시작했는지도 공식 확인할 수 있을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12	<p>를 초청할 필요가 있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정부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원로정치인들을 북한과 중국에 특사로 파견, 김일성의 체면을 세워주면 북한으로부터 결정적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li> </ul>	<p>된데 대해 遺憾스럽게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심 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므로 기회는 아직 얼마든지 있음.</li> </ul> <p>○ 北·러 외무차관 회담 (5.12~13, 모스크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 파노프 러시아 亞太담당 차관 참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 벌목공 문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li> </ul>	
5. 13	<p>○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핵문제와 벌목공 수용 대책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벌목공 문제는 제3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조용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li> </ul> <p>○ 國防部, 「'94 환태평양훈련」(RIMPAC) 참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美·日·캐나다·호주 등 5개국이 참가하는 「'94 환태평양훈련」이 5.26~7.16 중서부 태평양해역에서 실시되며, 사상 최초로 韓·美·日 3개국이 같은 함대로 구성돼 작전을 벌임.</li> </ul>	<p>○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미국 二重基準 적용 비난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자기의 동맹국들이나 일부 다른 나라들의 위협한 核장난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고 있으며 우리와 같이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활동 조차 의심하면서 制裁까지 운운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전파방지를 국가외교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美國의 진의도는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써 평화적 핵활동을 트집잡아 우리와 같은 나라들을 고립 압살하는데 있음.</li> </ul>	<p>○ 쿠나제 駐韓 러시아 대사, 북한 벌목공 귀순신청 全無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 韓國으로 가겠다고거나 러시아에 남아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러시아 정부에 신청한 사례는 하나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까운 시일안에 그런 신청이 있게 되면 사안마다 人權차원에서 신중하게 심의될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그늘밑에서 일부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은 더욱 위험한 개선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장차 국제적인 핵무기 전파방지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될 것임.</li> <li>-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며 자주권을 존중하며 동시행동조치를 취하려는 입장에 선다면 朝鮮半島의 핵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 것임</li> </ul>	
5.14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먼저 제의않겠다고 발언</p> <p>* 부산매일신문 창간 5주년 기념 특별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25 당시와 현저히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頂上會談이나 특사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li> <li>- 북한측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정상회담을 제의해 온다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음</li> <li>-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거</li> </ul>	<p>0 외교부 대변인, 핵연료봉 교체 시작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가 사찰단 파견을 회피하고 노심연료 교체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취해주지 않는 조건에서 안전상 이유로 하여 부득불 해당 봉인들을 해체하고 노심연료를 꺼내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음.</li> <li>- NPT 脫退 효력발생을 임시 정지시킨 우리의 특수한 지위하에서 일부 노심연료의 선택보관 등 정기 및 비정기사찰에 속하는 활동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li> <li>- 노심연료 교체작업이 IAEA가 설치한 기재들의 감시하에 진행되고 있는만큼 교체되는 연</li> </ul>	<p>0 키드 IAEA 대변인, 北韓 연료교체 '심각한 단계'엔 사찰단 조기소환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교체작업이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IAEA 사찰단은 사찰을 단축, 조기 귀환할 것임.</li> <li>0 베이커 美國방부 대변인, 북한 연료봉 교체 한달째 진행중 확인</li> <li>- 북한이 한달여 동안 핵연료봉 제거 과정에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4	<p>나 지연전술을 쓰는 북한의 태도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國際社會도 다른 결심을 하지 않을수 없을것임</p> <p>○ 金泳三 대통령, 감상적 통일론 위험 경고</p> <p>* 스승의 날 수상자 초청 오찬</p> <p>- 멀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지만 예멘 내전에서 보듯이 그저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된다는 感傷的 統一論은 위험함.</p> <p>○ 외무부 대변인, 북한 核연료봉 교체작업 시작 通告 관련 論評</p> <p>- IAEA 사무총장이 추가사찰과 후속사찰 실시를 위해 수일내 IAEA 사찰팀을 北韓에 파견키로 한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함</p> <p>-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S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시작했다고 通告한 것은 심히 遺憾스러운 일이며 IAEA 사찰단 訪北을</p>	<p>료봉들이 다른 목적에 유용되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우려할 근거는 조금도 없음.</p> <p>- 노심연료 교체작업을 도중에 정지시키는 것은 안전상 견지에서 새로운 위험성을 야기시킬 수 있음.</p> <p>- 노심연료 교체작업이 시작에 불과한 만큼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아직 얼마든지 남아있음</p>	<p>- 이 과정이 핵연료봉에서 핵폭탄제조용 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알고있지 않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4	<p>통해 연료봉 교체와 관련한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를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해 모든 연료봉 교체시 IAEA가 요구하는 연료봉 샘플의 선정 및 보관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함.</li> <li>- 북한측이 IAEA가 요구하는 조치를 수락함으로써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li> </ul>		
5.16	<p>○ 宋榮大 통일원 차관, 북한 핵개발 지지 및 보유시 완전 폐기 강조 * 통일고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표는 北韓의 핵무기 개발 지지 및 핵무기 보유시 이의 완전한 폐기에 있음</li> <li>- IAEA 사찰 실시와 함께 한반도 비핵선언 이행을 위한 南北對話 재개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임.</li> <li>- 현 停戰協定은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계속 유효하며 이 문제는 반드시 北韓이 협의 해결해야함.</li> </ul>		<p>○ 美내셔널 프레스 클럽(NPC), 김일성 訪美초청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에게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오찬연설을 하도록 招請狀을 발송할 것임.</li> <li>- 이 초청이 결코 김일성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li> </ul> <p>○ 하타 日총리, 對北 제재 동참 표명 * 참의원 회의</p>

■ 5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북한의 자체핵시설 전면사찰 거부에 따라 미국이 對北제제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동참할 것임.</li> </ul>
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사찰단, 平壤 도착</li> <li>- 5.17~24 (8일간) 寧邊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과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시작 여부 확인</li> <li>○ 美 국무부, 김일성 訪美 부적절 논평</li> <li>- 현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이 美國을 방문하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보지 않음.</li> </ul>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벌목공 5명 서울 도착</li> <li>• 최청남, 김동운, 김승철, 백호철, 원유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올림픽위원장 박명철, 히로시마 아시아게임 단체경기 불참 표명</li> <li>- 단체종목 선수명단을 제출시한인 5.5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단체경기 불참을 의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사찰단, 사찰 활동개시(5.18~25)</li> <li>○ 英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북한 핵 무기 보유 판단</li> <li>• 제럴드 시걸 연구원</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8		<p>0 「광주인민봉기」14돌기념 평양시 군중대회 (평양체육관)</p> <p>·참석: 박성철, 김용순, 장 철유미영, 염태준, 정두환, 여연구, 주성일, 최용해</p>	<p>-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판단은 미국·유럽국가들의 정보분석등에 근거한 것임.</p> <p>0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 北 인도에 긴급 식량원조 요청說 보도</p>
5.19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美·北 3단계회담 6월초 개최 가능성 언급</p> <p>- 연료봉 교체작업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아주 심각하지 않을 때 美·北 3단계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시기는 현실적으로 내달초가 될 것임.</p> <p>- 북한이 IAEA의 입회없이 '線을 넘어' 연료봉 교체작업을 했을 경우 安保理 회부는 불가피하며, 어느 정도가 선을 넘는 것인지 전적으로 IAEA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韓·美 양국의 입장임.</p>	<p>0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 김인서·함세환 및 김지현 송환 재촉구 對南電通文</p> <p>-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回信조차 보내지 않는 것은 인도주의를 본연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적십자인의 옳은 처사라고 말할 수 없음.</p> <p>- 전쟁포로인 김인서·함세환 문제를 국제적으로 규탄되고 있는 國家保安法에 맞추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국제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릇된 행위임.</p> <p>- 이산가족문제 보다 더 절박한 김인서·함세환 송환문제는 외면하면서 마치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심이나 있는 것처럼</p>	<p>0 IAEA, 北 핵연료봉 교체 시작 공식확인 및 立會 협상단 파견 관련 聲明</p> <p>- 사찰단은 北韓이 이미 연료교체작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p> <p>- IAEA는 더 이상의 연료교체가 진행될 경우 과거 핵물질 전용여부를 밝혀내는데 필요한 核안 전조치를 취해나갈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음.</p> <p>- IAEA는 5.19 북한에 電文을 보내 核</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19		<p>나서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출신 비전향수였던 김병주의 딸 김지현을 북에 데려와 병치료를 해주겠다고 한 우리의 인도주의적 제의에 지금까지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li> <li>- 우리측 인도주의적인 제의들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설 것을 촉구함.</li> </ul> <p>○ 外交部 대변인, 日本 핵연료공장 플루토늄 발견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는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되게 이 문제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美國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li> <li>- 日本 당국은 전국적으로 감추어 두고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을 국제사회에 앞에 밝히고 핵무장화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함.</li> <li>- 日本의 핵무장화가 위협계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된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非核化는 실질적으로 의의가 없게 되었다고 우리는 간주함.</li> </ul>	<p>안전조치없이 핵연료를 교체하는 것은 핵안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며, 이 사실을 IAEA 이사회와 UN 안보리에 보고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는 핵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여건 마련 및 그때까지 작업 중단을 北韓측에 촉구했음.</li> <li>- 핵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 조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즉각 관계자팀을 平壤에 보내겠다고 북한측에 제의했음.</li> </ul> <p>○ 日銀, 對北 달러 송금 전면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도쿄신문 보도</li> <li>- 日本은행들은 달러 베이스로 북한에 들어가는 送金の 중개를 올봄부터 사실상 전면 중지</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0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갔지만 비관적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li> <li>- IAEA측이 제안한 협상단 派北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일단 주시하기로 결정</li> <li>- 북한이 연료봉 교체작업을 중단하고 사찰의무를 준수하라는 IAEA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UN 安保理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기존입장 재확인</li> </ul> <p>0 外務部 대변인, 북한 연료 교체시작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5MW 원자로의 연료 교체를 시작했음이 IAEA 사찰팀에 의해 확인되었는바, 이에 대해 遺憾과 우려를 표명함.</li> <li>- 北韓이 연료 교체를 더이상 계속하지 않는 한 아직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IAEA 발표에 유의함</li> <li>- 북한이 IAEA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5MW 원</li> </ul>	<p>0 駐中 북한대사 주창준, 核추출물 사찰단 입회下 봉인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안전연속성 보장과 투명성을 위해, 核연료봉을 교체하면서 추출된 물질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IAEA 사찰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할 것임.</li> <li>- 美·北韓 3단계회담이 실현돼 협상이 일괄타결되면 IAEA는 봉인된 추출물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임.</li> </ul>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北 연료봉교체는 '안전조치 중대 위반' 이라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연료봉인출은 IAEA의 연료선정 및 계측을 위한 보관문제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져 안전조치의 중대한 위반임.</li> <li>- IAEA는 원자로에서 빼낸 연료의 전용이 없다는 점을 자신하고 있으며 제거된 연료봉들이 인근 저장수조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li> <li>- 3단계 회담을 위해서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밝힌 추가사찰을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또는 아마도 거의 완료됐다고 봄.</li> </ul> <p>0 美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 金日成에 초청장 발송</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0	<p>자로의 연료 교체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IAEA·北韓간 협의의 진행결과를 주시하면서, 추후 대책에 관해 우방국과 긴밀히 協議해 나갈 것임.</li> </ul> <p>○ 韓·美 국방장관간 직통전화(hot line)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炳台 국방장관은 5.20 양국 국방부간 최초로 개통된 직통전화망을 통해 페리 美 국방장관과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li> </ul> <p>○ 北韓 벌목공 1명 귀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일운(30세)氏가 제3국 적선을 이용, 인천항에 밀입국해 귀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인 NPC회장은 金日成에게 워싱턴 NPC에서 오찬연설을 해 주도록 초청하는 서한을 UN 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li> </ul> <p>○ 국제표준화기구(ISO), 한글 로마자 표기 관련 「기술보고서」 채택 (스톡홀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로마자표기에 관한 국제표준어 제정회의에서 南北韓 양측의 案을 모두 포함한 「기술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한글 로마자 표기 單一基準 제정의 계기 마련</li> </ul>
5.21	<p>○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벌목공 송환 요구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벌목공들의 자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하고 있음.</li> </ul>	<p>○ 「祖平統」서기국, 귀순 북한 벌목공 송환 요구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족은 정상적인 벌목노동을 하고 있던 우리의 공민 6명을 납치하여 서울로 끌여가는 범죄행위를 김행하였음.</li> <li>- 귀족의 행위는 이 강토에서</li> </ul>	<p>○ 워싱턴 포스트紙, 美,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 결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클린턴 행정부는 백악관 고위대책회의를 열어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결정</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이를 政治問題로 변질시키면서 한반도에 또 다른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음.</li> <li>- 벌목공들은 自由와 福祉를 찾아 우리측에 스스로 귀순해온 만큼 납치 운운하며 시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li> <li>- 북한이 긴장고조를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강력히 促求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산 가족을 증폭시키는 대범죄로, 격폐된 北南關係를 극도로 냉각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도전임.</li> <li>- 귀족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서도 감쌀 수 없으며 용납될 수 없음.</li> <li>- 이번에 강제로 유인 납치해간 우리의 모든 벌목노동자들을 무조건 당장 돌려보내야 하며 민족과 세계앞에 사죄해야 함</li> <li>- 만일 돌려보내지 않고 납치행위를 계속 감행하는 경우 북남관계 전반에는 엄청난 후과가 미치게 될 것이며 費側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루고야 말 것임.</li> </ul> <p>○ 北韓, IAEA에 연료봉 입회협상팀 파견 제의 수락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외교부 대변인, 北核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 聲明</li> <li>- IAEA와 북한이 이견을 協議를 통해 해소할것을 희망함</li> <li>- 기술적요소의 문제를 UN 安保理에 제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li> <li>○ 南北예멘 재분단</li> <li>- 南예멘은 통일 예멘으로부터 분리하여 아덴을 수도로 한 '예멘민주공화국' 창설을 선포</li> </ul>
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泳三 대통령, 北韓에 핵포기·남북대화 재개 촉구</li> <li>• 리 특파원들과 회견</li> <li>-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平和와 統一을 원한다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문제를 미국만을 상대로 풀려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한국과 대화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交部 대변인,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 관련 정전협정 의무 불이행 경고 談話</li> <li>- 미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군사행동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평화적 발기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 이성적인 처사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韓 비공식 실무접촉 (뉴욕)</li> <li>• 세이모어 美국무부 핵비확산局 부책임자, 한성렬 UN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 참석</li> <li>○ 매커리 美 국무부 대변인, 핵연료봉</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3	<p>시작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의 북핵문제 관련 國際會議 개최제안은 한 반도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러시아의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환영함.</li> </ul>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 방사화학실험실 계속 유지엔 非核化 공동선언 再考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외무통일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核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계속 유지한다면 南北韓 비핵화공동선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 현실임.</li> <li>- NPT 만료시한이 내년 상반기로 다가온만큼 南北韓의 핵문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시점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일 美國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조선정전협정의 의무를 더는 이행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함.</li> </ul>	<p>교체 관련 북한에 IAEA와 합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협상단이 북한측과 연료봉 안전조치 유지문제에 관해 합의한다면 3단계회담의 모든 장애가 없어질것임</li> </ul> <p>○ 무라다 日 방위청 방위국장, 북핵관련 韓半島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강구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예산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자위대가 유사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li> </ul>
5.24	<p>○ 金炯基 통일원 대변인, 李洪九부총리의 '非核化공동선언 재검토 가능' 발언 보완설명</p>	<p>○ 북한, 軍停委 대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설치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軍 유영철 상좌·UN軍 홀러리 중령 판문점접촉</li> </ul>	<p>○ IAEA 협상대표단, 核연료봉 교체 입회 협상차 平壤 도착</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이 재처리시설을 계속 유지하면 非核化 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IAEA와 미국등 국제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배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임.</li> <li>○ 韓·美·日, 북한 핵문제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 (뉴욕)</li> <li>* 김삼훈 核담당대사, 갈투치 美·日 무차관보, 유키오 日외무성 심의관 참석</li> <li>- 美·北 3단계회담과 관련한 공동대응책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위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협상기구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개설했다고 UN군축에 통보</li> <li>- 중장 이찬복을 대표로, 대좌 박림수를 부대표로, 상좌 유영철을 책임연락군관으로, 중좌 신군성을 연락군관으로 임명</li> <li>○ 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對북한 '테러국가' 지정 비난 담화</li> <li>○ 북한·IAEA, 핵연료봉 교체문제 관련 실무협상 개최</li> </ul>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泳三 대통령, '경제력 강해야 統一 뒷받침' 발언</li> <li>* 경제부처 국장 오찬</li> <li>- 우리는 반드시 統一을 달성해야 하지만 예멘사태에서 보듯이 환상적인 통일론은 절대 안됨.</li> <li>- 우리는 통일을 하되 지킬 수 있는 통일을 해야 함.</li> <li>- 經濟力이 강해야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정당·사회단체 대표협의회 개최 (평양)</li> <li>- '민족대회' 관련 「祖平統」 서기국에 對南電通文 발송 위임 및 '민족대회 準備委' 북측대표 선출</li> <li>* 정문산(정무원 사무국장) 김영호(사회민주당 부위원장) 백남준(「祖平統」서기국장) 김영남(「職總」부위원장) 강영섭(기독교도연맹 위원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IAEA 핵연료봉 교체 임의문제 관련 實務協商 개최 (5.25~27, 平壤)</li> <li>○ 마이어 IAEA대변인, 추가사찰 완료 및 임의협상 개시 발표</li> <li>- IAEA 사찰단은 방사화학실험실 사찰의무는 완료했으나 5MW 원자로 사용후 연료봉의 試料는 채취하지 못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5		<p>0 『祖平統』서기국장 백남준, 민족대회 소집제의 호응 촉구 對南電通文</p> <p>- 우리측은 지난 4월11일, 오는 8.15를 계기로 당국과 정당, 단체의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대회를 소집할것을 발기하고 북과남, 해외에서 5명의 대표를 망라한 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중에 제1차회의를 평양또는 서울에서 가질데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음.</p> <p>- 민족대회가 소집되면 그 자체 만으로도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며 기탄없는 협의를 통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실현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방도를 모색할수 있을것임.</p> <p>- 우리는 귀 당국이 민족대회 소집 제안에 긍정적 호응을 보일 뿐 아니라 민족대회준비위원회 남측대표들을 빨리 선출함으로써 우리와 보조를 같이하게 되기를 기대함.</p> <p>0 원자력총국장 박용남, 일본내 다량의 플루토늄 발견 관련 IAEA에 特別措置 촉구 便紙</p>	<p>- 연료봉 교체입회문제 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IAEA대표단이 5.25 북한측과 協商에 들어갔음.</p> <p>0 北韓·러시아, 새 『임업협정』案에 합의</p> <p>* 러 이타르 타스 통신 보도</p> <p>- 북한과 러시아는 벌목공의 파업권 인정 등 人權 보장을 강화한 새 협정안에 합의</p> <p>0 日니혼게이지아 신문, 美 북한 두만강 개발계획 지원 검토 보도</p> <p>- 미국은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UNDP 주도아래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 등에 대한 경제 지원 입장을 표명할 예정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日本의 핵무장화가 아시아 특히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되고 있는 오늘, 이번 사건을 그저 스쳐 보낼 수 없음.</li> <li>- IAEA 서기국이 지체없이 특별 이사회에서 이번 플루토늄 은닉사건을 상정 토의하고 日本 국내에 있는 모든 핵시설들에 대하여 보다 전면적이고 철저한 特別措置를 취하는 등의 촉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li> </ul> <p>○ 外交部 대변인, UN 군축회의 (5.17-7.1, 제네바)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존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는 의의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NPT의 차별적인 성격이 제거되어야 함.</li> <li>- 美國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우리의 핵의혹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면서도 최근 日本의 플루토늄 은닉사건과 같은 실제적인 핵무장화 위협에 대해서는 모르는척하는 것은 이중 기준 적용의 극치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6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준수가 중요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임을 재확인</li> <li>- 北韓에 대해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호응할 것을 촉구</li> <li>- 停戰協定の 일방적 폐기란 있을 수 없으며, 정전협정의 대체문제는 반드시 政治·軍事的인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위에서 남북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 정립</li> <li>- 지금 시점에서 核-經協 연계정책의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 확인</li> </ul> <p>0 金大中 亞太재단 이사장, 통일방안 國民投票 필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記者會見</li> <li>- 統一方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우리 입장도 훨씬 더 유리해짐</li> </ul>	<p>0 제2차 『汎民聯』공동의장단회의 (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海外본부 대표들의 電話회의 형식으로 진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합의문 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차 범민족대회를 '민족대단결과 민족자주' 주제로 8.10~15 서울에서 개최</li> <li>2. '민족대단결의 해' 선포에 따른 『汎民聯』사업계획과 관련, 6.1~8.15까지 3단계의 운동기간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6.1~6.25) : 민족자주권 수호와 민족대단결 방도를 모색</li> <li>· 2단계(6.26~7.27) : 전쟁위협을 분쇄하고 분단 종식을 촉구</li> <li>· 3단계(7.28~8.15) :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li> </ul> </li> <li>3. 공동사무국 기구를 보강하고 공동기관지를 발간</li> </ol> <p>0 金日成, 재미교포 손원태 접견</p> <p>0 金日成, 美내셔널 프레스 클럽 訪美 초청 거절</p>	<p>0 美·北韓 실무접촉 개최 (뉴욕)</p> <p>0 갈루치 美 핵전담대사, 북한 핵문제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겨레신문 회견</li> <li>-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양국은 좀더 정상적인 관계로 움직이게 될 것이며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는 베트남과 중국 등 여러 모델이 있을 수 있음.</li> <li>- 지난 1년간의 북한과의 회담을 평가한다면, 肯定的인 면은 △北핵시설에 대한 핵안전조치 유지 △북한의 플루토늄 未추출 △ 몇 차례의 핵사찰 실시 △북한의 NPT체제내 잔류 등이며, 否定的인 면은 △북한이 실제 얼마나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 불일치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정책의 집행은 政府의 몫이지만 통일논의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림팩(RIMPAC)훈련 개시(5.26~7.16)</li> <li>0 日도쿄신문, 美 3단 계획담시 北 핵개발 관련 정보공개 요구 방침 보도</li> </ul>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統一院 대변인, 민족대회 소집촉구 對南電通文  관련 論評</li> <li>- 북한측이 또다시 구태의 연한 政治宣傳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li> <li>- 북한은 민족의 생존과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성의를 다해야함.</li> <li>-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토대위에서 南北基本合意書 이행을 위한 실천기구를 하루속히 정상가동하는데 호응해 나올 것을 요구함</li> <li>- 북한은 소모적 정치선전은 물론, 최고당국자에 대한 誹謗을 즉각 중지하고 쌍방간의 신뢰를 조성해 나가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노동신문, 예멘 內戰에 관한 국내외 언론 보도 관련 '연방제' 통일방안 옹호</li> <li>- 예멘 內戰과 관련하여 일본과 남조선이 우리의 聯邦制 통일방안을 헐뜯는 여론을 퍼뜨리고 있음.</li> <li>- 예멘에서의 통일과정과 우리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원칙과 방도, 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li> <li>- 예멘에서는 北과 南이 화해와 단합을 이루지 못한채 양측 수반의 합의에 따라 통합하였으나 聯邦制 통일방안은 전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와 원칙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li> <li>- 예멘에서는 北과 南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의 균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담보가 없었으나 聯邦制 통일방안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공정하게 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블릭스 IAEA 사무총장, UN사무총장에게 北核 보고서 제출</li> <li>- 지금 핵원자로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연료가 인출됐으며 이 작업은 IAEA가 필요한 전면적인 安全措施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음.</li> <li>- 만약 인출작업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될 경우 IAEA가 계측을 위해 선별·분리·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수일내에 상실될 것임.</li> <li>-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IAEA는 북한의 모든 핵물질이 실제로 안전조</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7	<p>0 金泳三 대통령, 聯邦制 통일 반대 표명 * 공군부대 순시</p> <p>- 연방제 통일을 원하는 것은 잘못되고 큰 오류를 범하는 일임.</p> <p>- 감상적이고 허황되게 얘기하는 聯邦制 통일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통일을 해야 함.</p>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 핵개발 계속면 강도 높은 制裁 불가피 발언 * 러 이즈베스티야紙 회견</p> <p>- 북한이 핵개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制裁는 불가피할 것임.</p> <p>- 國家保安法은 우리의 특수안보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임.</p> <p>- 북한이 對南赤化 기도를 버리고 핵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적 협력관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한 선택임.</p>	<p>하고 정치세력들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담보가 마련되어 있음.</p> <p>- 예멘에서는 北과 南이 무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통솔권도 분할된 상태에서 통합되었으나 聯邦制 통일방안에서는 군대를 대폭 축소하고 쌍방의 군대를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연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들 것을 예견하고 있음.</p> <p>- 日本과 남조선의 일부 언론들이 예멘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통일방안을 헐뜯는 것은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불순세력의 속심을 대변한 것임.</p> <p>0 北韓, 『자유무역항규정』('94.4 제정) 및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94.3 제정) 發表 * 중앙통신</p>	<p>치하에 놓여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없을 것임.</p> <p>0 UN안보리, 北核관련 비공식 전체회의 및 상임이사국 회의</p> <p>- 對北결의안을 준비하기로 잠정 합의</p> <p>0 갈무치 美 국무차관보, 3단계회담 취소 경고</p> <p>- 만약 북한이 계속 연료봉을 교체한다면 美國은 3단계 고위급회담을 취소할 것임.</p> <p>-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UN 안보리로 넘겨져 經濟制裁를 포함한 대응책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 28	<p>○ 外務部 대변인, IAEA·북한간 협상결렬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핵연료봉의 인출을 즉각 중단하고 NPT 당사국으로서 협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li> <li>- 만약 북한이 핵연료봉의 인출작업을 계속해 IAEA에 의한 계측 가능성이 상실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음</li> </ul> <p>○ 金泳三 대통령, 北韓에 식량지원 비공식 제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여야 領袖회담</li> <li>- 비공식적으로 보유 저장미를 일부 보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北韓은 거부했음.</li> </ul> <p>○ 金泳三 대통령, 한반도 전쟁 가능성 '사실상 없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위크誌 회견</li> <li>-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韓半島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li> <li>- 北韓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li> </ul>	<p>○ 외교부 대변인, 北·IAEA간 핵연료봉 교체 협상(5.25~27)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협상에서 IAEA측은 노심연료의 선택 및 분리 보관 방법을 제기했으나 우리의 특수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수될 수 없다는데 대하여 쌍방 사이에 양해가 이룩되었음.</li> <li>- 협상에서는 우리가 노심연료 교체작업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의 합리성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음.</li> <li>-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의 방법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협상과정을 통하여 이 방법은 보다 보충 완성되게 되었음.</li> <li>- 우리는 이번 IAEA와의 협상과 입회활동을 통하여 평화적 핵활동을 철저히 IAEA의 통제하에 두려는 우리의 선의가 최 대한 표시되었다고 인정함.</li> <li>- 우리는 앞으로도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朝·美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임.</li> </ul>	<p>○ IAEA, 북한과의 연료봉 교체문제 協商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27 IAEA 관리들은 북한에서의 협의를 종료하였으나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음.</li> <li>- 북한은, 원자로 노심의 이력을 검증하기 위한, 특히 이것이 최초의 노심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추후 계측을 위해 연료봉 선택·분리·보관을 목적으로 제기한 모든 IAEA의 제안들을 거부했음</li> <li>- 북한은 '특수한 지위'를 내세워 제기된 IAEA의 검증조치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음.</li> <li>- 북한에 의해 제기된 제안은 IAEA가 원자로 노심의 이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받아들</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8	<p>점을 알고 있음.</p> <p>- 한반도에 어떠한 위기상황도 조성되고 있지 않으며, 그같은 危機說이 설령 있다면 그것은 언론의 과장된 기사때문임.</p>	<p>○ 『祖平統』대변인, 통일원장관의 '비핵화 공동선언 사실상 무효화' 발언 비난 聲明</p> <p>- 남조선 통일원장관의 발언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그 파기를 선언한 것임.</p> <p>-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이며 北南관계의 전망을 더욱 암담하게 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임.</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배신행위가 북남관계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약에서 벗어나 핵무기 개발을 다그쳐 보려는 무모한 책동이 어떤 파국적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데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함.</p>	<p>일 수 없었음.</p> <p>- 2명의 사찰관들이 추후 진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 북한에 잔류하고 있음.</p> <p>○ 日니혼게이자이紙, 美 북한 지원 多者 협의체 제안 보도</p> <p>- 미국은 북한의 전면 핵사찰 수락을 조건으로 韓·美·日 3국과 中·러 및 IBRD·UNDP 등에 의한 對北 '다국간 경제지원' 구상을 韓·日 양국에 제안했다고 보도</p>
5.29		<p>○ 金日成,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 등 평화회담 참가자 接見</p>	<p>○ 南北韓 총 6천만弗 상당 물물교환 합의說</p> <p>* 조선샘물주식회사 총사장 차경주 발언 (홍콩)</p> <p>- 북한 조선샘물주식회사와 남한 한국</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29			<p>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총 6천만弗에 이르는 물물교환에 합의했음.</p>
5.30	<p>○ 大統領 주재 안보관계장관 회의 개최</p> <p>• 북핵 핵문제와 관련 현안과 안보상황 논의</p> <p>&lt;金泳三 대통령 발언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대한 기로에 봉착해 있음.</li> <li>- 북한은 핵연료봉 교체작업을 즉각 中斷해야 함.</li> <li>- 핵연료봉의 선정·보관·계측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확고한 입장을 바탕으로 美國 등 관계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함.</li> <li>- 북한 핵문제가 UN안보리에 재상정될 가능성에 따른 여러가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한 對備策을 수립해야 함.</li> </ul>		<p>○ UN안보리, 北韓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관련 議長聲明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이 지금과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IAEA 기준에 따른 추후 계측을 위해 연료봉을 선택·분리·보관할 수 있는 기회가 수일내 상실될 것이라는 IAEA 評價에 심각하게 우려함.</li> <li>- 북한이 IAEA 요구에 따라 연료 계측의 기술적 가능성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li>-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관해 IAEA와 북한간 즉각적인 協議를 요청함.</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위기에 처해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야 함</li> <li>○ 韓·美 정상, 북한 핵문제 전화협의</li> <li>- 북한 핵상황이 매우 위험한 시점에 도달했으며, 韓·美간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처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일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MW 원자로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北韓에 사찰관들을 유지시킬 것을 IAEA사무총장에게 요청함.</li> <li>- 본건을 계속 계류시키고,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안보리가 追加審議를 가질 것임을 결정함.</li> </ul>
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li> <li>• UN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정부 입장 검토</li> <li>○ 外務部 대변인, UN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관련 聲明</li> <li>-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이를 전폭 지지함.</li> <li>-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더이상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시키지 말 것을 警告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民戰』중앙위, '문민정권의 화폐개혁에 관한 공보' 발표</li> <li>• 6.4字 中放 보도</li> <li>○ UN주재 북한副대사 김수만, 안보리 의장성명 수용 거부</li> <li>- 북한에 압력을 가해 승통을 조이려는 美國과 IAEA의 또 한차례의 시도로 단호히 거부 부함.</li> <li>- 모든 현안은 安保理가 아닌 美·北 직접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함. 그러나 IAEA와는 앞으로 더 협상을 벌일 의향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 포스트紙, 美 대북제재 방침 결정 보도</li> <li>-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안보회의를 열어 對북한 制裁를 사실상 결정했다고 보도</li> <li>○ 히로시 日관방장관, 안보리 의장성명 지지 공식 표명</li> <li>- 일본 정부는 UN 안보리의 議長聲明을 지지함.</li> <li>- 북한은 연료봉 교</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5.31	<p>- 北韓이 연료봉 인출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IAEA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수락함으로써 NPT 당사국으로서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p> <p>○ 金泳三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절명의 가치'라고 강조 * 호국보훈의 달 즈음 談話</p> <p>- 냉전체제가 막을 내린 오늘의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p> <p>-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고 가꾸 나가야 할 절대절명의 가치임.</p> <p>○ 韓·美 정상, 북한 핵문제 관련 전화협의</p>	<p>○ 빈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 운호진, 연료봉 교체 중단 拒否</p> <p>- 5MW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中斷할 수 없음.</p> <p>- 사용후 연료봉을 감시카메라가 작동되는 가운데 40개씩 일련번호를 매겨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IAEA가 추후계측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p> <p>○ 北韓, 실크웜 對艦 미사일 발사 실험 * 美 국방부 확인</p> <p>- 동해상에서 실크웜 對艦 크루즈 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 (사정거리 200km)</p> <p>○ 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 김영호, 민족대회 소집 관련 정당 간 접촉 제의 談話</p> <p>○ 외교부장 김영남, 비동맹 外相 회의 참석 (5.31~6.3, 이집트)</p>	<p>환을 즉각 중지하고 IAEA와 조속히 협의할것을 촉구함</p> <p>○ 워싱턴 타임스紙, 北 핵연료봉 교체 60% 이상 진행 보도 * 美 국무부 소식통 인용</p> <p>- 北韓이 지금까지 원자로에서 빼낸 연료봉은 4,850개로 전체의 60%가 넘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	<p>0 韓·러 정상회담 개막 (6.1~2, 모스크바)</p> <p>0 金泳三 대통령,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4角 외교 완결' 언급</p> <p>* 訪러 출국인사</p> <p>- 러시아를 방문, 취임이래 추구해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4角외교를 완결하고자 함.</p> <p>-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p> <p>- 이번 방문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冷戰時代가 확실히 종식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p>	<p>0 외교부 대변인, 안보리 의장성명 관련 談話</p> <p>- UN 안보리가 그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이 IAEA가 그릇되게 내린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문제를 논의한 것은 천만부당한 것임.</p> <p>- 지금 노심연료 교체작업은 앞으로 우리의 특수지위가 해소되는 시점에 가서 IAEA가 요구하는 차후 測定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보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p> <p>- 얼마전에 노심연료 교체속도가 좀 빠른 적이 있는 것은 연료교체기계의 최대 性能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음.</p> <p>- 또다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우리는 더이상 부당한 요구의 희생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그 무엇에도 구속됨이 없이 자기의 길을 따라 나갈 수 밖에 없음.</p> <p>- 만일 IAEA가 노심연료의 차후 測定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이 깨졌다고 선포하거나 UN 안보리가 제재요, 뭐요하고 압력을 가한다면 그에 대응한 決定的인 措置를 취해 나가는</p>	<p>0 日교도통신, 北 해안지역 기뢰부설說 보도</p> <p>- 日本 방위청은 북한이 해안지역에 기뢰를 부설했다는 보도를 확인중에 있다고 방위청 관리가 밝혔음.</p> <p>0 가키자와 日외상, 韓·美·日 독자제재 가능 언급</p> <p>* 중의원 예산위</p> <p>- 일본은 UN 제재가 유보되더라도 韓·美 양국과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취할수 있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		<p>길을 택하게 될 것이며, 평화적 핵활동의 연속적인 공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문제를 공정하게 대하고 對話와 평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는데 대해서는 아무 때건 더없이 성근한 자세로 응해 나설 것이지만,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하는데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대처해 나갈 것임.</li> </ul> <p>○ 金日成, 전쟁준비 완료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 면담 (6.16字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紙 보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핵사찰을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북한은 戰爭을 할 준비가 돼있음.</li> <li>-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美國과 직접대화를 갖기를 원함.</li> <li>- 북한은 공격을 받으면 저항할 것이지만 戰爭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	<p>○ 韓·러 정상회담 종료 (6.1~2, 모스크바)</p> <p>&lt; 韓·러공동선언 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함.</li> <li>- 韓國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러시아는 호의적으로 고려함.</li> <li>- 남북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停戰體制가 유지되어야 함</li> <li>-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이 긴급하며, 북한이 NPT 의무를 이행하고 IAEA 사찰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li> <li>- 한국은 러시아의 '한반도의 안보 및 비핵지위에 관한 多者會議' 소집에 관한 제의에 유의함.</li> <li>- 정상간의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청와대와 크렘린간에 直通電話 (Hot Line)를 설치함.</li> </ul> <p>&lt; 공동기자회견 要旨 &gt;</p>	<p>○ 원자력총국 대변인,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UN 안보리 보고 관련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노심연료의 선택 보관은 우리의 특수한 지위가 해소되기 전에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li> <li>- IAEA는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인 5.27 협상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부당한 평가를 내린 報告를 서둘러 UN 안보리에 제출했음.</li> <li>- 제반 사실은 IAEA가 이미 짜 놓은 각본에 따라 처음부터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li> <li>- 만일 IAEA가 노심연료의 차후 측정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이 깨졌다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응한 決定的인 措置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임.</li> </ul> <p>○ 외교부장 김영남,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관련 최근 UN사무총장에게 便紙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放 보도</li> <li>- 美國의 전략적 목적에 복무하고 있는 남조선 주둔 美軍이 UN군으로 행세할 조건은 더는</li> </ul>	<p>○ 블릭스 IAEA 사무총장, UN 안보리에 北核연료봉 추후 계속 불가능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는 북한의 5MW 실험용원자로 핵연료봉 교체와 관련하여 북한이 과거 핵연료를 전용했는지 여부를 밝혀줄 추후 계속을 위한 연료봉 선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음.</li> </ul> <p>○ 美, 對北제재안 UN 안보리 상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무부 특별성명</li> <li>- IAEA의 보고에 따라 美·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모두 취소함.</li> <li>- 북한 핵문제는 이제 안보리에 회부됐으며 美정부는 안보리가 對북한 제재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토의할 것으로 생각함.</li> <li>- 미국은 對북한제재</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	<p>[ 金泳三 대통령 발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북한에 대해 武器 부품을 계속 지원·판매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했고 였친 대통령도 이를 지켜 주겠다고 했음.</li> </ul> <p>[ 였친 대통령 발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현재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NPT를 탈퇴할 때는 우리와 국경이 너무 가깝다는 점에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북한에 경고하고 이후 제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li> <li>- 朝·러조약에 대해서는 최근에 해석을 새롭게 했고 그전에 있었던 견고한 조항을 완화시켰음.</li> <li>- 北韓 벌목공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우리 영토에 있는 외국인들이 자의대로 출국할수 있다고 했음</li> </ul> <p>○ 金泳三 대통령, 핵문제 해결시 對北 경제지원 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上院 연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북</li> </ul>	<p>없다고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이 우리 나라와 불미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나 정전협정을 平和協定으로 교체할데 대한 자기의 결의를 이행하는 의미에서나 우리의 제안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간주함.</li> <li>- 핵문제는 사실상 UN이 논할 대상이 아니며 朝·美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li> <li>- 만일 UN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制裁를 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임.</li> <li>- UN은 남은 停戰構造의 기틀로 되고 있는 UN군 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li> </ul> <p>○ 『 祖平統 』 서기국, 정부의 韓總聯 전면수사 비난 보도</p> <p>○ 『 祖國戰線 』 서기국장 유호준, 민족대회 소집 관련 정치인·각계인사 접촉 촉구 談話</p> <p>○ 조선사회민주당 전원회의 개최 (평양)</p>	<p>결의가 채택될 경우 단순한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희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태이블로 돌아오게 하는데 있음.</li> <li>- 미국은 중국이 對 북한 제재결의안이 표결된 경우 동참하기를 희망함.</li> </ul> <p>○ 였친 러 대통령, 對北 우호조약 2년후 자동폐기 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르 타스 통신 보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전쟁발발시 자동적으로 러시아가 北韓을 지원해 개입토록한 러시아와 북한간 조약이 2년후 기한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할 방침임을 金 대통령에게 밝혔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	<p>한의 재건과 개혁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모 든 준비가 되어 있음.</p> <p>0 國防部, 「을지·포커스 렌즈」훈련 8월 통합 실시 발표</p> <p>- 별도로 실시해온 한국단 독의 을지훈련과 韓·美 연합군사훈련인 포커스 렌즈 훈련을 올해부터 재 통합, 오는 8월 하순부터 2주동안 실시함.</p>	<p>* 민족대회 소집 계의 실현을 위한 과업 토의</p> <p>0 金日成, 항일혁명열사 유자녀 일행 접견 및 오찬</p>	<p>0 데니스 박스 美국방부 대변인, 한반도 상황 매시간 점검 발언</p>
6. 3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IAEA의 연료봉 추후 계속 불가능 보고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p> <p>&lt; 발표문 要旨 &gt;</p> <p>- 북한 핵문제가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이르렀다 는데 인식을 같이했음.</p> <p>- 북한의 완강한 거부태도 로 우리의 평화적 해결노 력이 중대한 挑戰을 받고 있음.</p> <p>- 국제사회는 제재국면으로 의 수순을 밟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실효성있는</p>	<p>0 美·北회담 북측대표단장 강석 주, 미국의 對北제재 추진 관련 談話</p> <p>- 우리로서는 과학기술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존해 놓고 있으므로 朝·美사이의 핵문제 만 해결되면 노심연료의 축적 은 물론 그보다 더한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을것임.</p> <p>- 노심연료교체를 시비하는 것 은 우리 핵활동의 과거를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흑연감 속로체계의 운영을 문제시하 여 우리의 현존 핵동력공업발 전 전반에 제동을 걸려는 기 도이며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 는 정치적 음모의 일환임.</p>	<p>0 갈루치 美국무차관 보, 對北제재조치와 관련 입장 표명</p> <p>- 우리는 북한과 3단 계획담을 개최할 토대가 없어졌다고 판단, UN안보리에 서 추가적인 조치 를 모색할 것임.</p> <p>- 이미 우방 및 안보 리 회원국들과 제 재조치를 포함한 다음 조치를 협의 하기 시작했음.</p> <p>- 우리는 북한의 NPT 완전 준수, 전면적 인 핵안전조치 이</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3	<p>對北제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韓·美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예상되는 제반상황에 대비하여 汎정부적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li> </ul>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대책 만전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榮德 국무총리에게 전 화 지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UN안보리의 對北경제제재가 구체화돼가는 등 긴박한 상황인만큼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 핵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함.</li> </ul> <p>0 金泳三 대통령, 北·러 동맹관계 앞으로 없을 것 이 라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스크바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친 대통령은 北·러 조약의 기한이 만료되는 2 년후에는 경신하지 않겠 다는 입장을 밝혔음.</li> <li>- 조약 폐기후에도 유사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이제와서 朝·美회담의 허울마저 벗어던진다면 우리 역시 외교적 해결책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li> <li>- 美國이 이제라도 회담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의 一括妥結 제안은 아직 유효함.</li> <li>- 우리는 우리의 핵활동의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것이며 지금의 방식대로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음.</li> <li>- 미국이 朝·美회담의 기초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경우 우리가 NPT 탈퇴효력을 임시정지시키고 있는 기초도 허물어지게 될 것임.</li> <li>- 우리는 經濟制裁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는데 대해서도 이미 유관국들에게 통지한바 있음. 이 경우 제재에 참가하는 측은 물론 되바침하는 측들도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li> <li>0 원자력총국 대변인, 일본내 플루토늄 발견 관련 IAEA 비난 記者會見</li> <li>- IAEA가 실험용으로 추출한 극</li> </ul>	<p>행, 특별사찰 수용 남북한 비핵화선언 이행 등을 추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는 고무적인 조치가 될 것임.</li> </ul> <p>0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과 대화노력 계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 보고</li> <li>- 핵안전조치협정은 유효한 것으로 생각함.</li> <li>- 북한이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벌이고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li> </ul> <p>0 제11차 非同盟 외상 회의(5.31~6.3, 카이로), 「최종선언문」 채택</p> <p>&lt; 韓半島관련 조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공동성명 및 남북기본합의서 원칙에 따른 한국민의</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3	<p>어떠한 동맹관계나 조약도 체결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말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옐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무기와 부품을 앞으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li> <li>-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측으로부터 북한핵에 대한 최고급 비밀을 들었음.</li> </ul>	<p>소량의 신고된 우리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면서 일본의 미신고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적극 두둔할 뿐 아니라 진상을 밝힐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IAEA의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의 적용을 더욱 부각시키며 IAEA의 사명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해주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는 마땅히 이를 명백히 하고 관리이사회에서 상정토의해야 하며, 일본의 모든 핵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사찰조치를 취야 함.</li> </ul> <p>0 「職總」중앙위원장 주성일, 민족대회 소집 관련 남한 노조단체들에 접촉제의 談話</p> <p>0 金日成, 쿠바 여성법률가(로드리게스) 接見</p> <p>0 정무원 총리 강성산, 라오스 방문 (6.3~6.4) * 양국간 경제협력문제 논의</p>	<p>통일노력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회담을 포함한 당사자간 대화와 IAEA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핵문제 해결 촉구</li> </ul> <p>0 홍콩 「大公報」紙, 중국 對北경제제재 동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UN이 대북 제재를 실시하면 북한에 대한 식량 및 휘발유 공급과 국경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li> </ul> <p>0 佛, 對北제재결의안 초안 독자 마련 * UN주재 佛외교관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기초로 사용될 독자적인 제재결의안 초안을 이미 작성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4	<p>○ 國務總理 주재 북한핵관련 정부대책 點檢會議 개최</p> <p>&lt; 회의 결과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원 차관 주관의 관계 부처 實務對策班을 가동,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일일점검함.</li> <li>-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 대비해 全軍 경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함.</li> <li>- 對北제재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관계부처가 필요한 준비를 갖추.</li> <li>-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과 앞으로의 核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함.</li> <li>- 美·日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함.</li> </ul> <p>○ 李承坤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장, 강석주 담화 관련 對北聲明</p>	<p>○ 駐中 북한대사 주창준, 일본내 플루토늄 발견 관련 IAEA 비난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핵무장화 책동에 대해서는 두둔하면서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해서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문제시하는 처사는 IAEA 자체의 취지를 엄중히 저버리는 행위임.</li> <li>- 조선반도 핵문제는 반드시 朝·美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li> <li>-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선전포고로 여길 것임.</li> </ul> <p>○ 『汎民聯』 해외본부 의장단회의 개최 (도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도발책동 반대 등 4개항의 '결의문' 채택</li> </ul>	<p>○ 클린턴 美대통령, 對北제재 불가피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다달았음.</li> <li>-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전쟁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될 것임.</li> </ul> <p>○ 日, UN 對北제재 대비 10개항조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 소식통 인용</li> <li>- 일본 정부는 UN의 對北경제제재가 실시될 것에 대비, 10개항의 국내 대응조치를 마련했음</li> <li>- 對北제재조치에는 인적교류 규제, 학술 및 문화교류 규제, 상품 및 금융 규제 등 3개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음</li> </ul> <p>○ 北, 식량·생필품 대량 주문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소식통</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북한이 5MW 원자로 연료봉교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임.</li> <li>- 북한이 NPT탈퇴를 위협하고 한단계 더높은 핵활동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와 민족전체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우롱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임.</li> <li>-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li> </ul> <p>○ 金泳三 대통령, 韓·美, 北을직임 100% 장악·발언 * 기자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비할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음</li> <li>- 24시간 감시체제를 통해 韓·美 양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100% 장악하고 있음.</li> <li>- 절대로 전쟁은 막아야 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기업들이 쌀, 옥수수, 설탕 등 1백여가지에 이르는 생필품들을 홍콩기업들에 대량으로 주문한 후 6월 초까지 계약체결을 서두르고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4	<p>지만 한·미 양국은 만일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을 갖추고 있음.</p> <p>○ 韓·美·日, 對北제재결의 안 초안 협의 (6.3~4, 뉴욕)</p> <p>* 金三勳 핵담당대사,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야나이 日외무부 외교정책국장</p> <p>&lt; 갈루치 차관보 회담결과 발표 &gt;</p> <p>- 3국은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통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책을 긴급히 검토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음.</p> <p>- 북한의 행동으로 한반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p> <p>○ 韓·美·러 정상, 對북한 안보리 제재추진 관련 3角 전화통화</p> <p>○ 韓·美 국방장관, 한반도 정세 관련 直通電話</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5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核 단독제재 불사 발언</p> <p>- UN에서 對北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美國은 독자적이거나 우방국들과 연합으로 對北경제제재를 추진할 수도 있음.</p>
6. 6	<p>0 金泳三 대통령, 北 핵모험 강행땐 파멸 경고 * 기자 오찬간담회</p> <p>- 북한의 핵개발은 7천만 민족의 생존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평화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문제임.</p> <p>- 북한이 끝내 무모한 모험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자멸과 파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임.</p> <p>- 북한핵은 단 한개는 물론 반개라도 허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지지할 것임.</p> <p>0 UN司, 북한측에 停戰委 비서장회의 개최 제의</p>	<p>0 『祖平統』, 對北제재 추진 관련 대남비난 聲明</p> <p>- 우리는 외세의 이익에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제 정신을 못가진 자들에 의하여 언제 저질러질지 모를 민족적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p> <p>- 이것은 北에 한한 문제도 아니고 南에 한한 문제도 아니며 어느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관한 문제도 아니며, 7천만의 존망에 관한 문제임.</p> <p>-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 도박에서 이득을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함.</p> <p>- 제재는 戰爭이며 전쟁에서는 자비가 없음. 외세와 한쪽이</p>	<p>0 IAEA 정기이사회 개막 (빈)</p> <p>&lt;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gt;</p> <p>- 추가적 장소와 정보에 대한 접근, 특히 寧邊 핵폐기물 저장관련 2개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거부에 더해진 일방적인 원자로 노심 교체로 인해 IAEA는 北韓의 핵물질 전용여부, 다시말해 핵안전협정의 전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p> <p>- 현단계에서 北韓의 핵물질 전용여부를</p>

날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군의 일방적인 군사 정전위원회 철수와 관련,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서장회의 개최 제의</li> <li>- 북한군의 일방적인 군사 정전위원회 철수와 관련,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서장회의 개최 제의</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中 제재 거부 명분없다고 발언</li> <li>- 북한을 제재하는데 中國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임.</li> <li>- 안보리에서 對北제재안이 나오면 그것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나오는 것이므로 中國도 지지할 명분이 없을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되어 동족에 대한 제재판을 벌여놓고도 자기만은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임.</li> <li>○ 원자력총국장 박용남, IAEA의 연료봉 추후 계속 불가능 결론 관련 블릭스 사무총장에 便紙</li> <li>- UN안보리와 관리아사회에 제출한 보고에 연료봉의 차후 축정은 실제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정치적 편견을 앞세우면서 핵문제의 공정한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li> <li>- IAEA 서기국이 사찰의 미명하에 우리의 군사대상을 하나하나 개방해 보려는 美國의 對 朝鮮 적대시정책에 계속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li> <li>- 지난시기 IAEA의 부당한 처사가 우리로 하여금 NPT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를 빚어내게 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음.</li> <li>- 우리가 IAEA 서기국과 더이상 상종해야 핵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더욱더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핵안전조치 관련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li> <li>○ 中 외교부 대변인, 러 제의 北核 '多者會議' 검토 언급</li> <li>- 중국은 북한핵문제 관련, 남북한과 미국, IAEA 등 4개 당사자간 대화가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토대인 것으로 믿고 있음.</li> <li>- 중국은 러시아가 요구한 다자간 회담 개최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것임</li> <li>○ 安保理 4개국, 對北 제재 원칙적 합의 * 워싱턴 포스트紙</li> <li>- 상임이사국중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은 북한에 대해 制裁 조치를 취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음.</li> <li>- 그러나 북한이 NPT</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서기국이 불공정성을 확대하면서 UN에 끌고가 압력 일면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는 IAEA의 부당한 구속을 받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平和的 核活動의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임.</li> <li>○ 외교부장 김영남, 러 제의 多 者간 국제회의 검토 언급 (키예프)</li> <li>- 우리는 러시아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檢討하고 있음.</li> <li>○ 『社勞青』중앙위원장 최용해, 민족대회 소집 관련 남한의 청년 및 청년학생단체에 접촉 제의 談話</li> <li>○ 조선소년단 제5차 대회 (6.6~7)</li> <li>○ 北韓 군사대표단, 중국 방문 (6.6~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부터 脫退할 정도로 밀어붙이지는 않기로 의견을 모았음.</li> <li>○ 허바드 美 국무부 부차관보, 對北제재 방안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협회 연설</li> </ul> </li> <li>- 클린턴 美행정부는 다양한 제재방안에 대한 윤곽을 잡아 왔음.</li> <li>- 制裁方案중에는 무기금수, 평화적 핵 협력 차단, 국제공조와 금융지원의 금지, 원유 및 에너지 금수, 전면적인 무역금지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li> <li>- 미국은 현재 對北 제재를 점진적으로 할 지 아니면 사전 예고기간을 줄지에 대해 내부협의중임</li> <li>- 북한이 과거에 추출한 플루토늄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국제사찰 의무</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6			<p>틀 준수한다면 미국은 對話를 계속할 용의가 있음.</p> <p>0 日 경찰, 「朝總聯」 교토본부 및 사무실 일제 수색</p>
6. 7	<p>0 金泳三 대통령, '4角외교의 틀·완성 천명</p> <p>• 러시아 방문후 歸國인사</p> <p>- 러시아가 北韓에 대한 무기판매중단과 상호원조조약의 사실상 폐기를 밝힌 것은 우리 안보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임.</p> <p>-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시 국제적 제재에 동참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確約했음.</p> <p>-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동북아 평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4角외교의 틀을 완성한 것임.</p>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에 핵개발 포기 촉구</p> <p>• 「民主平統」제6차 지역</p>	<p>0 외교부 대변인, 특별사찰 거부 재천명 記者會見</p> <p>- 노심연료 측정문제와 관련한 질책을 거부하고 3단계 회담의 기초를 깨버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美國임.</p> <p>- 미국이 우리의 방법을 무시하고 노심연료의 측정가능성이 파괴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순수 특별사찰 실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데 속심이 있었음.</p> <p>- 특별사찰의 강요는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反공화국 압살정책의 집약적 표현임.</p> <p>-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은 애초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함.</p> <p>0 빈주재 참사관 윤호진, IAEA 특별사찰 결의시 NPT탈퇴 경고</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北核 관련 선제공격 가능성 배제 시사</p> <p>• NBC방송 회견</p> <p>- 우리는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어떤 것을 배제하거나 하는 입장이 아님.</p> <p>- (선제공격을 포함해) 어떠한 선택도 배제하지 않음.</p> <p>0 錢其琛 中외교부장, 北核 대화해결 주장</p> <p>• 몰타 총리 면담시</p> <p>- 제재는 문제해결의 좋은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을 격화시키게 됨.</p> <p>- 중국은 조선의 핵문제가 3角 4軸의 범위내에서 담판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7	<p>회의 개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도 북한은 세계 대세에 순응하여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길로 나서야 할 것임.</li> <li>-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고립과 멸망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단언해 둬.</li> <li>-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하지만 幻想的 통일론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없음.</li> </ul>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어떤 대가 치리도 체제 수호'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主平統」제6차 지역 회의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에 동참, 단계적인 압력을 가해나갈 것임</li> <li>-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으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자유와 체제를 지켜나갈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이사회가 또다시 특별사찰을 결의하면 NPT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과 다툼이 없음.</li> <li>○ 「文藝總」의장 백인준, 민족대회 소집관련 남한 문학예술단체들과 접촉제의 談話</li> <li>○ 李仁模,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 함세환에게 송환투쟁 적극 전개 촉구 便紙</li> <li>○ 金日成, 「朝總聯」의장 한덕수 집견</li> </ul>	<p>통해 해결되기를 바랍.</p> <p>○ 코지레프 리 외무장관, 서방의 일방적 對北제재 反對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조치만큼은 오직 UN안보리만이 취하거나 거둘 수 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8	<p>0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른 군사적·경제적 대비태세 점검</li> </ul> <p>&lt;金泳三 대통령 발언 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의 핵투명성 뿐만 아니라 과거의 핵활동도 철저히 규명돼야 함.</li> <li>- 북한은 이번에 UN안보리의 制裁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봄.</li> <li>- 예상상황과 정세의 변화에 대해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들도 안보의식을 새롭게 할 때 임.</li> </ul> <p>0 金泳三 대통령, 對北제재 후 남북대화 추진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府요인 및 여야대표 초청 오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제재는 UN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li> <li>- 우리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남북대화는 UN 안보리의 制裁결정이 있는 뒤에나 가능할 것임.</li> </ul>	<p>0 외교부장 김영남, 對美 협상 재개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 (키예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朝·美 협상이 재개된다면 우리의 핵시설에서 핵연료봉의 실험과 측정, 보존 등의 사찰을 보장하겠음.</li> <li>- 미국과 朝鮮은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음.</li> <li>- 우리는 今世紀 말까지 조선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임.</li> <li>- 조선반도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의도는 없으며, 단일 국가에 기초를 둔 두개 제도, 두개 정부 공존이라는 聯邦制 통일을 지지함.</li> </ul> <p>0 駐러대사 손성필, 대북제재 지지 선전포고 간주 警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연방 공산당 출신 국가회의의 대의원과 친선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에게 위협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朝鮮半島의 핵문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li> <li>- 2개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이란 말도 되지 않으며 그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함.</li> </ul>	<p>0 美 국무부,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 제의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IAEA 접근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 같음.</li> <li>-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으나 대화의 근거를 구축하는 문제는 북한에 달려 있으며 김영남의 발언은 이에 훨씬 모자람.</li> </ul> <p>0 키드 IAEA 대변인, 北 연료봉 교체완료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연료 제거가 사실상 끝났음. 핵연료의 과거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었음.</li> </ul> <p>0 美, 일본에 對北송금 금지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나이 日외무성 외교정책국장 발언</li> <li>- 미국은 對北제재의</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8	<p>0 金泳三 대통령, '北핵개발 계속은 우리의 비핵화공동선언 준수노력 중대도전' 발언</p> <p>* 한국일보 창간 40주년 특별회견</p> <p>- 북한이 끝내 핵개발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노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제재 3原則 언급</p> <p>* 기자간담회</p> <p>- 북한에 대한 制裁는 신속하게 착수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실효성있게 단행되어야 한다는 3가지 原則을 세우고 있음.</p> <p>0 韓·러 정상, 對北제재 전화협의</p> <p>- 對北제재가 UN제재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p>	<p>- 制裁에 가담하는 측이나 제재를 지지하는 측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전포고로 인정할 것임.</p> <p>0 김인서 누이동생들, 김인서·함세환 송환추진본부 등 남한 4개단체에 송환협조 便紙</p> <p>0 『법정학련』북측본부, 정부의 韓總聯 수사 관련 비난 聲明</p>	<p>일환으로 일본에 朝總聯계 재일동포들의 對북한 은행 송금이나 현금증여를 금지하도록 요구했음.</p> <p>- 일본은 이에 따라 對북한 현금송금을 차단할 각오이지만 즉각적인 제재에는 찬성하지 않음.</p> <p>0 美하원, 한반도 군사력 증강촉구 수정안 통과</p> <p>- 美하원은 北核관련 한반도의 군사력을 보강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95 회계년도 美國방수권법 修正案을 통과</p> <p>- 수정안은 美國방장관에게 12.1이전에 한반도 군사력강화 방안을 議會에 보고토록 요구</p> <p>0 北, 남예멘에 전투기·미사일 제공說</p> <p>* 살레 북예멘대통령 언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8	<p>0 韓·美 고위군사회의 (국방부)</p> <p>* 李炳台 국방장관, 게리 러 한미연합사령관 참석</p> <p>- 北核 관련 韓·美 연합대응체제 강화방안 협의</p>		<p>- 북한과 남예멘이 미그 29기와 상당수의 T-82 탱크, 전술미사일 인도협정을 체결했다는 화음을 얻었음.</p>
6. 9	<p>0 金泳三 대통령, 하타 신임 日총리와 전화통화</p> <p>- 하타 총리는 韓·美양국과 긴밀히 협조, 안보리 제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경고절차 없이 제재 결의안 추진 언급</p> <p>* 日야사히신문 會見</p> <p>-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핵연료봉을 일방적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계속 경고해 왔음. 경고 결의안 단계는 이미 지났음.</p> <p>- 제재내용에는 朝總聯의 송금, 중국의 원유와 식량의 禁輸는 최소한 중간 단계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p>	<p>0 외교부, 일본 경찰의 『朝總聯』 사무실 수색 관련 聲明</p> <p>- 이것은 일본 당국이 미국에 편승하여 조작한 계획적인 反공화국 책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됨.</p> <p>- 일본이 우리에게 대한 그 어떤 제재에 앞장서든 끌려가든 그에 합류해 나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日本은 응당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임.</p> <p>- 日本 당국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폭압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사죄하며 사건 주도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함.</p> <p>0 金日成, 미국과 '일괄타결' 땀 흘려개발 중단 용의 표명</p> <p>* 셸리그 해리슨 美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 접견 (6.11字 교도통신)</p>	<p>0 IAEA 18개 이사국, 對北제재案 사무국 제출</p> <p>- 美·日·리등 IAEA 18개 주요 이사국들은 독자적 제재 조치와 사실상의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決議案을 사무국에 제출</p> <p>0 갈무치 美 국무차관보, 對北 제재결의 표결시 中國 지지 희망</p> <p>* 美하원 외교위 東亞太소위 증언</p> <p>- 美國 정부는 UN안보리의 對북한 제재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中國의 지지가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있음</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제재안은 빠르면 내주, 늦어도 3~4주내에는 安保理에 상정·채택하지 않으면 안됨.</li> <li>- 북한은 IAEA가 요구하는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고, 원자로 운전상황 日誌 등의 자료제출이 불가결함.</li> <li>- 만약 북한의 재처리 활동 등 핵무기 개발로 인해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효화될 경우 우리도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수 없음</li> </ul> <p>○ 韓·中 외무장관회담 (북경)</p> <p>&lt; 韓昇洲 외무장관 귀국 기자회견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이 制裁결의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님.</li> <li>- 앞으로 中國의 태도는 북한이 IAEA의 의무준수 여부에 달려있다고 봄.</li> <li>- 북한 핵문제에 해결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대화에 의해 국교정상화 등이 一括妥結되고 경수로 전환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면 현재의 원자력개발계획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li> <li>- 만약 美國과 다른 나라로부터 경수로를 공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방사화학연구소와 현재 건설중인 20만KW 원자로 개발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li> <li>- 한국에서의 공산주의혁명은 불가능함. 한국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나라가 투자하고 있어서 많은 적을 만드는 것이 됨. 우리는 이미 하나의 적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적을 확대하고 싶지 않음.</li> </ul> <p>○ 외교부장 김영남, 전쟁발발시 南韓 초토화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이터통신 회견(키예프)</li> <li>- 남조선이 미국의 제재 강행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조선은 황폐화할 것임을 상기해야 함.</li> </ul> <p>○ 外交部 대변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비난 記者會見</p> <p>○ 『6.10 만세시위투쟁』68돌 기념 평양시보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核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합당한 대화의 토대가 다시 구축되기까지는 북한과 對話를 하지 않을 것임.</li> <li>- 필요하다면 UN안보리 밖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li> </ul> <p>○ 파노프 러 외무차관 現단계 북한제재 반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는 現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않음</li> <li>- 북한이 현재 러시아가 제안한 國際會議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동임.</li> </ul> <p>○ 카라신 러 외무부 대변인, 北核 정치적 해결 착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는 北核문제로 최근 침체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9	<p>○ 李炳台 국방부장관, 북한 도발 대비태세 완비 발언 * 국회 국방위 답변</p> <p>- 局地戰이든 全面戰이든 어떠한 유형의 북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단계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p>		<p>치적 방법으로 풀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임.</p> <p>- 이에는 일정기간내 북한의 IAEA 사찰 허용 보장·한반도 안보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國際會議 소집이 포함됨.</p>
6. 10	<p>○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韓昇洲 외무장관의 리·중·UN 순방결과 보고 및 對北제재결의안 논의</p> <p>&lt; 발표문 요지 &gt;</p> <p>- 정부는 미국 등 관계국들과 협의를 거쳐 UN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음.</p> <p>- 정부의 기본입장은 △ 모든 노력은 북한의 핵무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궁극적 목표가 있으며 △ 매 단계별 모든 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것임.</p>	<p>○ 민주재 북한대표 윤호진, IAEA 제재 決議案 채택 관련 회견</p> <p>- IAEA와는 이제 끝임. 美國의 방향과 논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IAEA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음.</p> <p>- IAEA를 脫退하지는 않으나 이번 결의는 나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임.</p> <p>-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것은 平壤에서 결정할 것임.</p> <p>○ 外交部長 김영남, 미국에 協商 호응 촉구 * 베를린 記者會見</p> <p>- 우리 나라는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p>	<p>○ IAEA 이사회, 對北 제재 決議案 채택</p> <p>- 北韓이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에 대한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의 핵심적 요소를 이행치 않은 것을 개탄함.</p> <p>- 북한이, IAEA가 원자로 노심의 역사를 검증하고 지난 수년간 원자로로부터 核物質이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안전조치협정 불이행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함.</p> <p>- 북한은, 특히 모든</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0	<p>○ 韓·美 정상, 北核 안보리 제재 거듭 확인 * 전화통화</p> <p>- 현시점에서 北核 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UN안보리의 對北 제재라는데 의견일치</p> <p>- 韓·美·日 3국이 공조체제를 긴밀하고 폭넓게 함으로써 안보리 制裁가 성사되도록 노력키로 합의</p> <p>○ 金泳三 대통령, 북한 핵무기 개발은 파멸 초래 警告 * 전쟁기념관 개관식 치사</p> <p>-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최대 과오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p> <p>-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40여년전의 반민족적 행위를 검히히 반성하고 역사앞에 사죄해야 할 것임</p> <p>○ 金泳三 대통령, 정부 對北 정책 혼선없다고 발언 * 민자당·국회 간부 만찬</p> <p>- 일부에서 정부가 南北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한다고 하나, 가장 중요한 것</p>	<p>그 어떤 制裁조치도 우리를 놀래우지 못함.</p> <p>- 美國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담에 응당 관심을 가지고 응해야 함.</p> <p>- 미국이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조선반도의 긴장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처신해야 함.</p> <p>-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統一을 이룩할 것임.</p> <p>○ 「農勤盟」중앙위원장 최성숙, 민족대회 소립 관련 남한 농민단체들과 接觸 제의 談話</p>	<p>안전조치관련 情報와 場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IAEA 사무국에 대하여 즉각 충분한 협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p> <p>- 憲章 제12조 c항의 규정에 따라 IAEA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료를 제외한 지원을 중지할 것을 결정함.</p> <p>* 찬성 28, 반대 1 (리비아), 기권 4 (중국·인도·레바논·시리아)</p> <p>○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러 8者회담 제의 수용 시사 * 美·러 외무장관 회담</p> <p>- 美國은 북한에 대한 UN 결의의 하나로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國際會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0	<p>은 韓半島에서 전쟁을 없게 하는 방법을 찾고 평화유지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北韓 태도에 따라 대응하는 것임.</p> <p>○ 韓昇洲 외무부장관, 北 플루토늄 추출 核彈 1개 제조 가능 언급 * 국회 외무통일위</p> <p>- IAEA 사찰을 근거로 北韓이 최소한 1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政府의 공식판단임.</p>		<p>○ 카터 美국방차관보, 北 核공격 시나리오 검토 착수 발언</p> <p>- 미국은 韓半島일대에서 정보수집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대량살육무기를 사용하는 사태를 중시,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分析하고 있음.</p> <p>○ 中國, 지하 核실험 실시</p>
6.11	<p>○ 외무부 대변인, IAEA 이사회 對北결의안 채택 관련 聲明</p> <p>- IAEA 이사회가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歡迎함.</p> <p>- 북한은 이 결의를 준수하여 과거의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앞으로의 핵무명성도 완전히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p> <p>- 정부는 UN 안보리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p>	<p>○ 인민軍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UN司의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 개최 제의 관련 談話</p> <p>- 미국측은 저들끼리 회의장에 나타나 준비된 발언문을 읽고 우리측의 행동이 정전협정의 위반으로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였음.</p> <p>- 미국측의 이러한 행동은 정전협정과 정전기구를 체계적으로 파괴말살해온 저들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가소로운 연극에 불과함.</p> <p>- 미국측에 의하여 무력증강도 전쟁재발도 막을 수 없게 된</p>	<p>○ 키드 IAEA 대변인, 사찰요원 2명 北韓 체류 확인</p> <p>- 모든 것이 정상이며 이들이 반드시 북한을 떠나야 할 조짐이 없음.</p> <p>○ 타노프 美국무차관, 8者회담보다 制裁 우선 확인 * 離韓기자회견</p> <p>- 미국은 러시아가 제안한 8者회담보다는 안보리 制裁案 마련이 더 우선</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1	<p>을 강구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北韓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임</p> <p>○ 外務部, 중국 핵실험 실시 관련 유감 論評</p> <p>- 현재 주요 核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자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中國이 다시 핵실험을 행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p> <p>- 정부는 포괄적핵실험금지條約(CTBT)의 조기타결을 위해 모든 核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자제할 것과 非擴散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함.</p> <p>○ 韓昇洲 외무부장관, 타노프 美 국무차관·가키자와 日 외무장관과 연쇄 會談 (서울)</p> <p>- 현 상황에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UN 안보리의 制裁밖에 없으며 제재결의에는 北韓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기도록 한다는데 의견일치</p>	<p>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무엇에 필요한가?</p> <p>- 미국측은 停戰機構를 되살리려하기 보다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는 데로 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임.</p> <p>○ 金日成, 러시아 국경절 즈음 엘친 대통령에게 祝電</p> <p>-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관계가 자주·평등·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發展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함.</p> <p>○ 外交部長 김영남, 귀국 * 5.31~6.11 카이로, 키예프, 베를린 방문</p>	<p>적이라는 입장임.</p> <p>○ 하타 日총리, 對北 군사적 제재 불참 표명</p> <p>- 무력행사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는 헌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함.</p> <p>○ 日, 對北송금 年 20 억불중 제재때 70% 차단 가능 * 日교도통신</p> <p>- 북한은 매년 GNP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억달러의 현금을 日本으로부터 송금받고 있으며, 日정부는 이중 60~70%를 금지시킬 수 있음.</p> <p>○ 원폭 美CIA 핵불화산센터 부소장, 北 플루토늄 年 65kg 생산 가능 추정</p> <p>- 북한의 재처리공정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면 연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1			<p>약65kg의 플루토늄 생산 추정</p>
6.12		<p>0 중앙통신, 남예멘 무기공급說 부인</p> <p>- 터무니 없는 조작으로, 그같은 보도가 북한 핵문제의 심각한 국면과 때를 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하지 않음.</p> <p>0 『汎民聯』북측본부, 일본경찰의 朝總聯 사무실 수색 규탄 聲明</p>	<p>0 뉴욕 타임스紙, 美 온건한 制裁결의안 추진 보도</p> <p>-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단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원칙하에 결의안 초안의 대강을 마련, 이번주초 UN 안보리에 상정할 예정임.</p> <p>-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UN 기술지원 금지, 과학·문화 교류 중단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원유공급 중단, 일본의 송금 차단과 같은 강경한 경제 제재조치는 포함되지 않음.</p>
6.13	<p>0 국무총리 주재 中央民防衛 協議會 개최</p> <p>* 북한核 상황과 관련 국민 안보의식고취 및 민방위 대책 협의</p> <p>0 金泳三 대통령, 북한 태도</p>	<p>0 外交部 대변인, IAEA 탈퇴 聲明</p> <p>- 북한 외교부는 IAEA가 우리에게 대해 부당한 제재를 가하고 더욱이 우리의 군사대상물에 까지 끝내 침입하려고 책동하</p>	<p>0 마이어스 美 백안관 대변인, 北 IAEA 탈퇴 성명 관련 論評</p> <p>- 탈퇴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매우 부</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3	<p>에 따른 신속적 대응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日의원연맹 일본측 대표단 접견</li> <li>- 북한핵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대원칙아래 北韓의 태도에 따라 신속성을 갖고 대응한다는 것임.</li> <li>-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UN 安保理 북한 핵문제 토의에서 우리 목표가 단계적으로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봄.</li> <li>○ 金應 안기부장, 北 초보적 핵무기 개발 임박 언급</li> <li>* 국회 국방위원회</li> <li>- 북한은 지금쯤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li> <li>-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li> <li>○ 宋榮大 통일원차관, 北 핵연료봉 재처리 새카드화 의도 발언</li> </ul>	<p>고 있는데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천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IAEA로부터 즉시 脫退함</li> <li>· 지금까지 우리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진 IAEA의 모든 부당한 決議들을 무효로 인정하며 금후 IAEA의 그 어떤 규정이나 결정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임.</li> <li>- 둘째, 우리의 特殊地位下에서 받아오던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査察을 더이상 지금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함.</li> <li>· 우리가 NPT에 복귀하는가 완전히 탈퇴하는가가 판가름날 때까지 그 어떤 부당한 사찰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li> <li>· 이로부터 IAEA 査察員들도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할 일이 없게 될 것임.</li> <li>- 셋째, UN 制裁는 곧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재확인함.</li> <li>· 적대세력의 제재조치의 확대에 自衛的 措置의 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임</li> </ul>	<p>정적 사태발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논평</li> <li>- 이는 對북한 제재 결의안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가 이를 수락토록 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임.</li> <li>○ 카터 前 美 대통령, 북한 방문차 서울 도착</li> <li>○ 클린턴 美 대통령, 中·러 정상에게 北 제재 협조 요청</li> <li>* 마이애스 백악관 대변인 확인</li> <li>○ 케리 美 상원의원, 美·北韓 막후접촉 시사</li> <li>* CNN방송 대담</li> <li>- 美國과 北韓은 현재의 핵위기 타개를 모색하기 위해 양측 관리들간의 접촉을 갖고 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자당 평화통일위원회</li> <li>- 북한이 연료봉을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은 앞으로 폐연료봉 재처리를 새로운 핵카드로 개발하기 위한 의도임.</li> <li>-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이와같은 입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임.</li> <li>○ 外交部長 김영남, IAEA 탈퇴 결정 美國에 공식 통보</li> <li>- IAEA가 부당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엄중하게 침해하였으며 우리와 IAEA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데 대해 상기시키는 바임.</li> <li>- IAEA규약 제18조 2항에 따라 '94.6.13부로 IAEA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당신을 통하여 기탁국인 미합중국 정부에 알리는 바임.</li> <li>○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일본 경찰의 朝總聯 사무실 수색 규탄 聲明</li> </ul>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li> <li>&lt; 부총리 발표문 요지 &gt;</li> <li>- 북한이 IAEA 탈퇴를 결정한 것은 이미 심각한 북한 핵문제를 더욱 어렵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양건 黨국제부 부부장, 美國과 대화 재개 희망</li> <li>• 日사회당 대표단 면담</li> <li>- 우리는 IAEA 탈퇴가 朝·美간의 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도 우리는 朝·美간의 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北 IAEA 탈퇴 선언 관련 聲明</li> <li>- 회원국이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는 IAEA회원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4	<p>만드는 것으로서, 정부는 깊은 憂慮를 표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PT체제가 요구하는 모든 안전조치에 지금이라도 협조할 것을 北韓에 강력히 촉구함.</li> <li>- 제재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核무명성 보장을 위한 긍정적 입장으로 회귀하여 對話에 응하도록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li> <li>-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확고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li> </ul> <p>○ 外務部 대변인, 北韓 IAEA 탈퇴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를 탈퇴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대해 심각한 憂慮를 표명함.</li> <li>-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데 대해 警告함.</li> <li>-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서 IAEA의 모든 査察을 수락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li> </ul>	<p>화 재개를 위해 노력중임.</p> <p>○ 노동신문, 한반도 비핵화 위한 '포괄적 核위협 제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의 핵무기 철폐 및 핵위협 제거는 이 지역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관건적인 고리로 되며 일본의 핵무장화 종식은 비핵화 실현의 절실한 요구임.</li> <li>- 미국·일본 및 남조선측의 核위협은 시대 흐름에 배치되므로 포괄적으로 제거되어야 함</li> </ul> <p>○ 「汎靑學聯」북측본부 대변인, 일본경찰의 「朝總聯」사무실 수색 관련 규탄 聲明</p> <p>○ 일본의 「朝總聯」탄압 규탄 평양시 군중집회 (모란봉 청년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현재까지도 법률적으로 안전조치협정에 기속되어 있음.</li> </ul> <p>○ 옐친 러 대통령, 北 NPT 탈퇴땐 제재 동의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NPT 탈퇴를 강행하려 한다면 러시아는 이와 관련한 國際會議을 긴급히 소집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단계적 制裁를 가하는데 동의할 것임.</li> </ul> <p>○ 日외무성 대변인, 北 IAEA 탈퇴선언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IAEA 탈퇴 및 사찰거부를 재고하도록 요구함.</li> </ul> <p>○ 김일성 차남 金平一 軍 요직 기용설          • 北京 서방소식통</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UN 안보리에서 對북한 제재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더욱 확고해질 것임.</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고수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信기자회견</li> </ul> </li> <li>- 북한이 核武器 개발에 계속 집착한다해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끝까지 준수하고 국제적인 核 비확산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li> <li>○ 李基澤 민주당 대표, 北核 정부특사로 訪北용의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記者會見</li> </ul> </li> <li>- UN결의에 의한 제재는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일부 국가간의 제재방식은 반대함.</li> <li>- 만일 정부가 나의 뜻을 받아들이고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갈 수 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15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對北 제재결의안 논의</p> <p>0 金泳三 대통령, 유사시 北 격퇴능력 충분 발언 * 금융계인사 오찬</p> <p>-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는 없으며 정부는 유사시 이를 격퇴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p> <p>0 民自黨, 非核化 공동선언 재검토 촉구 決議文 채택</p> <p>- 북한이 UN안보리 제재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때는 정부는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검토하는 등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p>	<p>0 外交部長 김영남, 카터 일행 위해 宴會 마련(목란관)</p> <p>&lt; 김영남 연설 요지 &gt;</p> <p>- 이번 방문이 두나라 사이에 증폭되고 있는 불신과 적대감을 선린과 우호, 호상존중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믿고 있음.</p> <p>- 美國이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현명하게 대한다면 핵문제를 비롯한 朝·美사이의 여러 현안문제들도 원만히 풀리게 될 것임.</p> <p>&lt; 카터 연설 요지 &gt;</p> <p>- 두나라가 완전한 친선과 이해 무역, 인사교류를 비롯한 전면적인 관계를 수립할 때가 되었음.</p> <p>- 이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응당 북한과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음.</p> <p>- 핵문제가 해결되고 오해가 해소된다면 분명히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도 전진을 이룩할 수 있음.</p>	<p>0 카터 前 美대통령, 판문점 통해 訪北</p> <p>0 美,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對北제재 결의안 협의 착수</p> <p>&lt; 결의안草案 요지 &gt;</p> <p>-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북한에 NPT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단계에 걸친 제재조치 발동</p> <p>- 1단계 조치로는 △핵관련 기술·과학협력 중단△비정기 항공기 이착륙 금지 △UN 경제원조 중단 △상호원조조약 효력중단 △북한 외교관 인원감축 △강제적 무기금수 △문화·교육 등 분야 교류 금지 포함</p> <p>- 북한이 IAEA 핵안전협정 의무 이행시 한반도에 관한 '國際安保會議' 개최할 용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5		<p>0 勞動新聞, 美·러의 국제회의 추진 합의 관련 論評</p> <p>-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국제회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되지 않음.</p> <p>- 우리가 國際會議 제안에 일정하게 관심을 표시하게 된 것은 朝·美 회담이 결렬된 지금 그것이 핵문제를 포함한 조선반도 문제를 協商을 통해 긍정하게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로부터 출발한 것임.</p> <p>- 우리는 國際會議를 우리에게 대한 압력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p> <p>-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지만 우리에게 대한 압력과 제재에는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p> <p>0 파리주재 北韓대사 박동춘, 美·北 주한미군 철수 비밀 합의 발언 * 佛 리베라시용紙</p> <p>- 미국은 지난 2월 북한과 체결한 '비밀' 협정에 따라 駐韓 美軍 철수원칙을 수락했었음.</p>	<p>- 북한이 NPT 탈퇴, 재처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외자산 동결, 대북송금 금지 등 추가조치</p> <p>0 IAEA, 北탈퇴 공식 발표</p> <p>- IAEA현장 수탁국인 미국은 6.13자로 북한의 IAEA 탈퇴 결정을 통보한 北韓 외교부장 명의의 서한을 같은 날 짜로 IAEA에 전달했음.</p> <p>0 日, 美 대북 제재결의안 草案 수락</p> <p>- 하타 日총리 주재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을 검토, 원칙적 수용의사를 美 정부에 전달</p> <p>0 갈무치 美 국무차관보, 北 IAEA 사찰원 감시활동 계속 허용 확인</p> <p>- 사찰간첩팀은 현재</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기독교도연맹·천도교인 협회, 일본의 「朝總聯」 탄압 규탄 聲明</li> <li>○ 북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 (평양)</li> </ul>	<p>현장에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파신 러 방첩본부장, 核부품 구입 시도 북한인 5명 추방 발언</li> <li>• 인테르 팩스 통신</li> <li>- 러시아는 최근 핵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을 구입 하려한 북한인 5명 을 추방했음.</li> </ul>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政府, 미국의 UN안보리 재 결의안 草案 승인</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발표</li> <li>- 정부는 6.15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草案을 검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안보리 토의에 회부토록 재가를 받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카터 회담 (주석궁)</li> <li>• 경수로 지원조건 핵개발 동결 용의 표명</li> <li>&lt; 카터 CNN방송 회견요지 &gt;</li> <li>- 국제사회가 輕水爐 건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을 제공하면 현재의 核開發을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음.</li> <li>-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IAEA 사찰팀의 체류와 寧邊 원자로 핵연료봉 교체 입회를 계속 허용하며 IAEA 감시장비를 현 재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린턴 美 대통령, 美·北회담 재개 의사 표명</li> <li>• 특별성명</li> <li>- 북한의 제안이 기존의 核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다는 뜻을 담고있는 것이라면 이는 기대할만한 발전임.</li> <li>- 협상은 북한이 IAEA와 협력하고 더이상 국제 핵안전을 해치지않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할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6		<p>- 북한은 NPT를 脫退한 바 없으며 장래에도 이같은 조약국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음</p> <p>○ 金正日 노동당사업 시작 30돌 기념 전국토론회 개최 (2.8문화회관)</p> <p>* 참석 : 이종옥, 최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최영림, 양형섭, 백학림 외</p>	<p>- 北韓이 진지하고 실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 재개와 함께 기존의 核 프로그램 동결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高位級會談을 재개할 수 있음</p> <p>- 물론 이러한 가운데 UN에서 制裁에 관한 협의는 계속 추진할 것임.</p> <p>○ 갈루치 美國무차관 보, 北 핵개발 동결 환영 聲明</p> <p>- 미국은 북한의 의사가 건설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歡迎함.</p> <p>- 적절한 여건만 조성된다면 언제라도 3단계會談에 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음.</p> <p>- 북한이 △IAEA 사찰팀·사찰장비의 체재 허용△경수로 지원시 기존원자로의 대체△NPT의 준</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6			<p>수와 IAEA 안전조치 이행 등에 관해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 것에 주목함.</p> <p>※ 기자 질문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오늘의 메시지가 재처리 유보, 연료봉 재장전 유보, 핵안전조치 연속성 유지 등을 뜻한다면 3단계회담 재개를 위한 적절한 근거로 볼 수 있음.</li> </ul> <p>○ 키트 IAEA 대변인, 北 IAEA 사찰단 잔류 허용 관련 언급 * CNN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우리에게 단지 사찰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일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님.</li> </ul> <p>○ 沈國放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전쟁시 자동개입 의무 없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에서 전쟁발</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6			<p>발시 중국은 이 전쟁에 자동개입할 의무가 없음.</p> <p>- '61년 체결된 中·朝 우호협력조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이 조약에 한반도 전쟁시 자동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p> <p>○ 코지레프 러 외무장관, 美 제재결의안 초안 지지 거부</p> <p>-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결의안 초안을 지지하지 않을것임</p> <p>○ 美상원, 駐韓미군 증강 촉구 결의안 채택</p>
6.17	<p>○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lt; 발표문 요지 &gt;</p> <p>- 정부는 카터 前 美대통령 訪北을 계기로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韓·美 외무장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 진전을 주시하고 있음.</p>	<p>○ 金日成·카터 2차회담 (김일성 전용 요트)</p> <p>&lt; 美CNN 방송 보도 내용 &gt;</p> <p>- 金日成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p> <p>- 또한 한국戰 당시의 실종美軍 유해 수색작업을 위해 美·北</p>	<p>※ 카터 訪北 日程</p> <p>- 6.15 외교부장 김영남 주최 만찬</p> <p>- 6.16 金日成과 회담</p> <p>"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와 의견 교환</p> <p>" 민속무용 공연 관람</p> <p>" 제일백화점,</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7	<p>-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北韓의 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없을 경우에 대비한 UN 안보리의 對北 制裁결의안 채택도 계속 추진할 것임.</p>	<p>韓 합동팀을 만들 것을 제안했음.</p> <p>- 카터는 클린턴 美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制裁 조치를 가하려는 노력을 중단했다고 말했음</p> <p>- 클린턴 행정부가 北韓과의 3 단계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음.</p> <p>- 워싱턴 당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不使用 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말했음</p> <p>- 북한측이 원하는 경수로 원자로의 교체를 美國이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음.</p> <p>0 黨중앙위 후보위원 ·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李基澤 민주당 대표 訪北 환영 談話</p> <p>-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침체한 정세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각계인사들이 속속 平壤을 방문하고 있는 때에 남조선 야당 대표가 방문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p> <p>- 이기택 대표가 특사의 자격으로라도 평양을 방문할 의사를 표명한 것은 민족자주정신의 발현으로 된다고 생각함.</p>	<p>옥류관 참관</p> <p>- 6.17 金日成과 회담 " 서해갑문 참관 * 김일성 부부 동행 " 학생소년궁전, 만수대창작사, 평양 지하철도 참관</p> <p>- 6.18 판문점 통과 귀환</p> <p>0 마이어스 美 백악관 대변인, 對北 制裁 추진 중단 否認</p> <p>- 우리는 제재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음.</p> <p>0 키트 IAEA 대변인, 北 核안전의무 이행 판단 시기상조 발언</p> <p>- 북한이 核안전의무를 이행할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아직 이룸.</p> <p>-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으며 앞으로 며칠 내에 그 내용이 밝혀져야 할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이기택 대표의 평양 방문이 민주당 대표의 자격으로 실현되어도 좋고 어떤 특사의 자격으로 실현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함.</li> <li>- 이기택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면 기꺼이 歡迎할 것이며 그와 北南關係를 전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平壤방문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함.</li> </ul> <p>○ UN駐在 북한대사 박길연, 미신고 2개 핵시설 사찰不可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군데 시설은 협상에 관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li> </ul>	<p>○ 페리 美국방장관, 대북제재에 따른 駐韓미군 3단계 증강 계획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 타임스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北제재의 강도에 따라 駐韓미군 전력을 증강시키는 3단계계획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건의</li> </ul>
6.18	<p>○ 金泳三 대통령, 金日成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터 前 美대통령 집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이 카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건없이 빠른 시일내에 金泳三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제의를 해온데 대해 즉각 수락</li> </ul>	<p>○ 카터, 판문점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放 보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朝·美 사이의 직접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북조선의 흑연감속로체계는 경수로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면서 핵문제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음</li> <li>- 조선통일문제는 北南 조선인민들 자신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li> </ul>	<p>○ 카터 前 美대통령, 訪北결과 설명 記者會見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은 북한은 과거에도 핵개발의사가 없었으며 현재도 核보유의지가 없다고 밝혔음.</li> <li>- 현재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3단계회담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오해라고 하면서 制裁가 효과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음.</li> <li>- 美國이 조선을 반대하는 제재 문제를 더는 추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음.</li> </ul> <p>0 외교부 대변인, 프랑스의 UN 對北제재 지지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프랑스 당국자들의 무분별한 언동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우리는 그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그를 뒤바침해주는 측들도 응당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는 것을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음.</li> <li>- 프랑스 당국은 우리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심사숙고해야 함.</li> </ul> <p>0 金正日 노동당사업 시작 3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2.8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남, 최 광 계웅태, 전병호, 한성룡</li> </ul> <p>0 金日成, 베트남 군사대표단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연감속로를 경수로로 전환할 용의가 있으며, 전환에 대한 美國의 지원과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核공격을 받지 않을 것을 공식보장해 줄 것을 희망했음.</li> <li>- 金日成은 남북문제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核問題가 해결되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음.</li> <li>- 김일성은 金泳三 대통령이 전에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頂上會談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남한측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음.</li> <li>- 對北제재 결의안 추진 중단 발언은 美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얘기한 것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9		<p>0 金日成, 온천군 금강협동농장 현지지도</p>	<p>0 카터 前 美대통령, 金日成 남북한 감군 비율 따른 駐韓미군 감축案 제시 언급          • CNN방송 회견</p> <p>- 김일성은 남북한 군대를 상호 10만 명으로 감축하고, 駐韓미군도 동일한 비율로 감축하는 것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군하자는 등 몇 가지 제안을 하였음.</p> <p>- 북한 핵문제로 인한 위기는 이제 끝났으며, 따라서 對北제재를 위한 UN 결의안도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함.</p> <p>0 갈무치 美 국무차관보, 美·北회담 개최 용의 표명</p> <p>- 인출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IAEA 사찰요원들의 간류를 허용하는 등 몇가지 조건에 동의하면 3단계 회담을 가질 준비가 되었음.</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19			0 中외교부, 남북정상 개최 환영 論評 - 中國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 어 긍정적 진전은 모두 歡迎함. - 빠른 시일안에 3단 계 美·北韓 고위 급회담이 시작되길 희망함.
6.20	0 李榮德 국무총리, 남북정 상회담 예비접촉 제의 對 北電通文 - 귀측의 제의에 대하여 민 족의 염원으로 보나 오늘 날 우리가 처한 내외상황 으로 보나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귀측에 알리는 바임 -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절 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豫備接觸이 조속히 열리 기를 희망하면서 오는 6. 28 (火)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접촉을 가질 것 을 제의함. - 예비접촉 대표단은 부총 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로 구성하고	0 러시아駐在 북한대사 손성필, 제재와 병행한 '國際會議' 개 최 반대 표명 * 러시아 국가회의 핵문제 관련 청문회 -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우리가 사찰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미국사이의 軍事·政治的 문 제임. - 핵문제는 우리와 美國 사이의 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 - 압력을 가하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 우리는 制裁가 어떤 규모에서 취해지는가에 따라 그에 상응 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	0 클린턴 美 대통령, 北核관련 · 희망적 징후 · 발견 언급 * 美NBC 회견 - 카터의 訪北을 통 해 북한 핵개발계 획을 둘러싼 충돌 을 면할 수 있다는 희망적 징후들이 발견됐음. - 중요한 문제는 외 교가 진행되는 동 안 그들이 核계획 을 동결할 태세가 돼있느냐는 것임. 0 가키자와 日 외상, 對北 관계정상화 협 상 재개 용의 표명 * 참의원 외교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0	<p>수행원은 5명 내외로 할 것을 제의함.</p> <p>○ 國務總理 주재 고위전략회의 개최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책 논의</p> <p>○ 金泳三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 철저 지시 * 李洪九 부총리 회담 준비 상황 보고시</p> <p>- 解放이후 우리 역사가 바뀔지도 모름.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p> <p>○ 金泳三 대통령, 남북상호사찰 중요성 강조 * 美상원 의원 접견</p> <p>- 남북한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兩頂上의 만남이 있어야 함.</p> <p>- 핵문제는 북한과 IAEA, 미국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남북한간의 공동 相互査察이 대단히 중요함.</p>	<p>- 우리는 제재를 가하면서 國際會議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음.</p>	<p>- 日本은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북한측의 협상재개 제의를 수락할 용의가 있음.</p> <p>- 회담재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모든 의혹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지 않을 것임.</p>

■ 6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0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頂上會談시 핵문제 논의 언급</p> <p>• 국회 외무통일위</p> <p>- 북한이 반 개라도 核폭탄을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것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임</p> <p>- 核問題는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재처리시설의 보유가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論議될 것으로 봄.</p> <p>- 북한核의 과거 투명성문제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임.</p>		<p>0 갈무치 美 국무차관보, 北韓에 핵계획 동결의사 확인 요청 書翰</p> <p>- 북한이 카터 前대통령에게 밝힌 내용을 확인토록 요청하는 書翰을 駐UN 북한대표부를 통해 전달</p>
6.21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개최 낙관</p> <p>• 민자당 의원 만찬</p> <p>- 북한이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것임.</p> <p>- 金주석이 카터를 통해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일 것임.</p>	<p>0 金日成, 대성구역 협동농장 현지지도</p> <p>0 중국 군사대표단, 북한 방문 (6.21~6.29)</p> <p>• 단장: 王克 瀋陽군구 사령관</p>	<p>0 미키 前日총리 미망인, 金日成 남북정상회담 8월 중순 개최 희망 언급</p> <p>• 北京 기자회견</p> <p>- 金日成은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8월 중순 개최되기를 희망하였음.</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北핵동결의지</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1			<p>확인시 制裁노력 중 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측의 핵개발 동결의지를 확인할 경우 對北韓 制裁 노력을 중단하고 美·北韓 고위급 회담을 재개할 것임.</li> <li>○ IAEA 사찰요원 2명, 北韓 체류 연장</li> <li>- 북한은 최근 IAEA 사찰요원 2명에 대한 체류허가를 2주간 연장</li> <li>○ 日 중외여행사, 北 일본인 관광객 入北 재허용 언급</li> <li>- 북한 여행사가 5월 중순 북한 관광을 희망하는 일본인을 받아들일것다는 연락을 해왔음.</li> </ul>
6.22	<p>○ 韓昇洲 외무부장관, 北核 과거 반드시 규명 강조 *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p> <p>- 북한 핵과거 문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p>	<p>○ 정무원 총리 강성산, 남북정상 회담 예비접촉 동의 對南電通 文</p> <p>- 최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北南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p>	<p>○ 클린턴 美 대통령, 美·北韓 3단계 회담 재개 발표 * 특별성명</p> <p>- 6.22 북한으로부터 美·北 3단계 회담</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2	<p>美·北간 회담을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과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정상적 외교 활동을 하는 정상적 국가로 인정받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음. 美·北 관계 진전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음.</li> <li>- 북한의 진의가 남북교섭과 美·北 3단계회담에서 확인되기까지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li> </ul>	<p>주적으로 평화적으로 祖國統一의 새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방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의 첨예한 정세는 北南 쌍방에 다같이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li> <li>- 귀측이 우리와 최고위급회담을 하려는 입장을 표시한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北南최고위급회담을 위한 豫備接觸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를 환영하며 그에 同意한다는 것을 통지하는 바임.</li> <li>- 쌍방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는 7천만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쁨을 주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역사적 사변으로 될 것임.</li> </ul>	<p>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핵개발계획을 동결할 것이라는 서한을 접수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다음달 초 제네바에서 3단계 고위급회담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음을 北韓에 통보함.</li> <li>- 북한은 3단계회담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寧邊원자로 핵연료 장전 △사용 핵연료봉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과 △ IAEA사찰팀 北韓 잔류 및 감시 장비 계속 유지할 확인했음.</li> <li>- 미국은 3단계회담에서 北韓과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정치·경제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힘.</li> <li>- 미국은 이 대화기간에 UN 안보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對북한 制裁노력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2		<p>0 金日成 「조국통일 5대방침」 발표 21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박성철, 양형섭, 장 철, 유미영, 강현수, 염태준</p> <p>&lt;「祖平統」서기국장 백남준 기념보고 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北과 南, 海外의 모든 조선인민들 앞에는 '전민족대 단결 10대강령'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위업을 앞당겨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음.</li> <li>- 우리는 며칠전에 있는 미국 前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믿음.</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의존 정책을 버리고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야 하며 동족간의 대결정책을 그만두고 민족의 화해와 단결의 길에 나서야 함.</li> <li>- 민족대단결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서로 만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방도를 함께 모색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임.</li> </ul>	<p>유보할 것임.</p> <p>0 日방위백서, 북한을 최대위협국으로 간주</p> <p>* 日요미우리신문</p> <p>- 日 방위청은 「94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일본의 최대위협으로 간주하는 등 위협 대상을 변화</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3	<p>0 李榮德 국무총리,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남측대표 명단 통보 對北電通文</p> <p>- 수석대표: 李洪九(부총리) 대 표 : 鄭鍾旭(대통령 외교안보수석) " : 尹汝尙(국무총리 특별보좌관)</p>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頂上會談 예비접촉 대책 방향 협의 및 대표단 구성문제 논의</p> <p>0 韓·美 정상, 北核 대책 전화협의</p> <p>-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美·北 3단계회담 재개를 비롯한 北韓核 대책을 논의하고 韓·美공조체제 재확인</p>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정상회담시 상호사찰문제 논의 시사 * 記者會見</p> <p>- 南北상호사찰문제 등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임.</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 3단계 회담 개최 관련 記者會見</p> <p>- 클린턴은 우리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 UN안보리에서의 우리에게 대한 제재논의를 정식 철회하고 제3단계 회담에 나서겠다는 것을 밝혔음</p> <p>- 제3단계 朝·美회담은 7월 첫 주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p> <p>-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제3단계 朝·美회담이 진행됨으로써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朝·美사이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 합의가 이룩되기를 기대함.</p> <p>0 『祖平統』, 남한 핵무기 개발 주장 '備忘錄' 발표</p> <p>- 대덕단지에 있는 조사후 시험 시설은 재처리시설이며,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추출한 플루토늄양이 50kg에 달함</p> <p>- 남조선에서는 제3국으로부터 이산화물 형태로 플루토늄을 반입하고 있으며, 고속중식로의 개발은 플루토늄의 대량생산, 다량반입에 목적을 두고 있음.</p>	<p>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3단계 회담에서 北 과거 핵활동 논의 표명</p> <p>- 앞으로 며칠안에 뉴욕 실무접촉을 통해 3단계회담의 의제를 분명하게 정리할 것임.</p> <p>-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관한 토론이 될 것임.</p> <p>0 파노프 러외무장관, 한반도문제 관련 국제회의案 수정 제의 * 정례브리핑</p> <p>- 기존의 8者に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英·佛이 추가된 10者 國際會議 개최를 제의</p> <p>- UN 사무총장이 관련국에 초청장을 발송, 찬성할 경우 1주일 이내에 1차 國際會議가 제네바에서 개최된 것이라고 언급</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미국에 NPT 조약 국으로서의 의무와 IAEA 와 맺은 핵안전협정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은 北南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기 위한 책동을 계획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나중에는 현실적 무효화론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침내 그것을 휴지화해 버렸음.</li> <li>- 남조선 당국은 비법적으로 확보한 플루토늄을 공개하고 재처리시설인 조사후 시험시설을 폐기해야 함.</li> </ul> <p>○ 북한 국제문제연구소, 일본의 6.25전쟁 참가 공개 '備忘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미국과 함께 조선침략 전쟁을 준비하였음.</li> <li>- 일본은 조선전쟁시기 미군의 병참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였음.</li> <li>- 일본은 선박을 동원하여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등 조선전쟁에 직접적인 참가자임.</li> <li>- 일본은 세균전에도 직접 가담했음.</li> </ul>	<p>○ 해리스 美카네기재단 연구원, 김일성 聯邦制 양보 의사 표명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嶺南일보 기고</li> <li>- 金日成은 남한이 연방제案에 거부감을 보인다면서 대안으로 金大中的 '3단계 통일방안' 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li> </ul> <p>○ 美·러, 군사목적 플루토늄 생산금지 協定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어 美부통령·체 르노미르딘 러총리</li> <li>- 군사목적의 플루토늄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러시아측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하는 協定 체결</li> </ul>
6. 24		<p>○ 金日成, 태국 국회대표단 접견</p>	<p>○ 美·北韓 실무접촉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이모어 美국무부 핵비확산국 부책임자, 한성렬 UN주재</li> </ul>

■ 6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4			<p>북한대표부 참사관 참석</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 장관, 클린턴·김일 성 회담가능성 언급 * CNN방송 회견</p> <p>- 장래 어떤 시점에 서 그것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함.</p> <p>- 만약 北韓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정당화시킬 수 있 는 종류의 행위를 시작한다면 클린턴 대통령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 고 확신함.</p> <p>※ 마이애스 백악관 대변인, 정상회담 발언 관련 '美 행 정부의 정책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고 언급 (6.25)</p> <p>0 러 이즈베스티야紙, 北 핵기폭장치 보유 보도 * KGB 비밀문서('90. 2.22) 인용</p> <p>- 북한이 90년에 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4			<p>기폭장치를 개발했으며 핵폭탄제조에 필요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음.</p>
6.25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반개라도 不容 거둬 강조 * 참전용사위로연</p> <p>- 북한 핵개발은 한개가 아니라 반개라도 절대 안된다는게 확고한 입장임.</p> <p>- 우리는 전쟁없는 평화를 원하며, 현시점에서 한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p>	<p>0 정무원 총리 강성산, 남북정상 회담 예비접촉 북측대표 명단 對南電通文</p> <p>- 단장 : 김용순(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대표 : 안병수(『조평통』부위원장) " : 백남준(정무원 책임참사)</p> <p>0 외교부 대변인, 對北 특별사찰 주장 비난 記者會見</p> <p>- 일본과 남조선당국은 3단계 朝·美 회담에서 우리의 핵의혹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는니 하면서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음.</p> <p>- 3단계 朝·美 회담과 핵문제 해결에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핵무장화를 다그치고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해 보려는 속심이 깔려있음.</p> <p>- 우리의 핵의혹문제는 앞으로 朝·美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p>	<p>0 유럽연합(EU) 12개 외무장관, 北核 조속해결 촉구 聲明</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5		<p>척되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신뢰가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임.</p> <p>- 일부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되는 군사대상 사찰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도 이롭지 못할 뿐 아니라 엄청난 후과를 산생 시키게 될 것임.</p> <p>0 北韓 올림픽위 전무 장웅,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全面不參與</p> <p>* 日교도통신 회견</p> <p>0 金日成, 방글라데시 민족사회당 接見</p>	
6. 27	<p>0 以北출신 前의원 36명, 정상회담前 김일성의 6.25 남침 사과 촉구 聲明</p> <p>- 金在淳, 金仁湜, 宋元英 등 以北출신 前의원 36명은 정부에 정상회담前 김일성에게 6.25 남침에 대한 시인·사과를 요구할 것을 촉구</p>	<p>0 外交部 대변인, 3단계 美·北 회담 개최 관련 '報道' 발표</p> <p>- 朝·美 쌍방은 제3단계 朝·美 회담을 '94. 7. 8 제네바에서 시작하기로 합의했음.</p> <p>- 회담에는 북측에서 강석주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이, 미국측에서는 갈루치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이 참가하게 됨.</p> <p>- 회담은 제네바 북한대표부와 미국대표부에서 엇바꾸어 진행하며, 첫날회의는 우리 대</p>	<p>0 마이어스 美백악관 대변인, 3단계 美·北 회담 개최 발표</p> <p>- 3단계 고위급회담이 7.8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임.</p> <p>- 회담은 생산적으로 진행되는한 계속될 것임.</p> <p>0 日아사히신문, 美, 북한과 2단계 수교 방안 검토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7		<p>표부에서 하기로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에서는 一括妥結 방식으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朝·美 사이의 현안문제들이 토의될 것으로 예견됨.</li> </ul> <p>0 「韓民戰」 평양대표부 대표 이정상, '6월민중항쟁' 7월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당국자들의 배신과 기만, 사기협잡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5, 6공 때의 군사파쇼를 능가하는 문민파쇼와 공안통치가 재현되고 있음.</li> <li>- 현 정권은 민족의 운명에는 아랑곳 없이 어떻게 해서나 대통령 권좌만 유지하면 된다는 말 그대로 대통령病 환자의 작태를 연출하고 있음.</li> </ul> <p>0 조선노동당·방글라데시 민족사회당 共同聲明 (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국제적 연대성 강화 표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北韓이 핵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면 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인권, 미사일 수출문제까지 해결되면 국교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임.</li> <li>0 미에르 IAEA대변인, 사찰요원 2명 임무 교대차 向北 발표</li> <li>0 러 이타르 타스통신 北韓, 연구용 플루토늄 보유시인 보도</li> <li>* 北 원자력위 대외 관계국장 최정순 발언 인용</li> <li>- 寧邊 방사화학실험실에 '연구용 목적'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으나 보유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li> <li>0 美하원 세출위, '95 駐韓美軍유지비 2억 5천만불 증액 합의</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8	<p>0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 판문점 「평화의 집」)</p> <p>※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合意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을 '94.7.25 ~7.27 平壤에서 개최함.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음. 다음 회담은 쌍방 頂上의 뜻에 따라 정함.</li> <li>-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대표접촉에서 토의, 합의함. 대표접촉은 '94.7.1 판문점 「統一閣」에서 가짐.</li> <li>-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남북정상회담 雰圍氣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함.</li> </ul> <p>* 남측 대표 : 李洪九, 鄭鍾旭, 尹汝雋 북측 " : 김용순, 안병수, 백남준</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후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장고조의 국면을 타개하고 대결보다는 協力の 時代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게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음.</li> <li>- 이를 위해 양측 頂上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임</li> <li>- 議題는 정상들이 자유롭게 논의한다는 방침임.</li> </ul>	<p>0 中放,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北南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의 모든 내용들에 견해의 일치를 보고 문안을 정리한데 기초하여 정식 합의서를 채택했음.</li> <li>- 우리측은 오늘 접촉에서 온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성의와 아량을 보였음.</li> </ul>	<p>0 파네타 美백악관 비서실장, 남북정상회담 합의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오는 7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획에 크게 고무돼 있음</li> <li>- 클린턴 대통령이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상회담의 결본들에 전적으로 따를 것으로 생각함.</li> </ul> <p>0 하타 日총리, 정상회담 합의 긍정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지역의 상황을 위해서도 잘된 일임.</li> <li>- 국교정상화를 위한 日·北회담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음.</li> </ul> <p>0 로버트 오드 美태평양군 사령관, 亞太 합동軍 창설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개국 軍참모총장 참석 국제군사훈련 회의 (호주 타운스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 28		<p>○ 金日成, '한반도 위기상황 완화·발언 * 王克 중국군 瀋陽군구 사령관 접견 (6. 29字 신화통신)</p> <p>- 한반도 상황은 완화됐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p> <p>○ 『職總』중앙위 대변인, 남한 철도·지하철 파업 관련 규탄 聲明</p>	<p>- 亞太국가들이 역내 공동의 군사개입규정을 마련, 단일 군사연합체로 작전을 수행토록 하자고 제의</p>
6. 29	<p>○ 金泳三 대통령, 정상회담 超黨적 지원 당부 * 신임 국회의장단·상임위 원장단 초청 오찬</p> <p>- 이번 南北정상회담은 조건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축성이 많은 대신에 정형화돼 있지 않음.</p> <p>- 여러분들이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주면 큰 힘이 될 것임.</p> <p>○ 李榮德 국무총리, 頂上의 만남을 통한 화해·협력시대 개막 강조 * 제169회 임시국회 국정보고</p> <p>- 두 정상의 만남이 南北화해·협력시대의 개막으로</p>	<p>○ 중앙통신, 北 스커드 미사일 對시리아 수출說 부인</p>	<p>○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韓 플루토늄 축소 신고 언급 * 리 이타르 타스 통신 회견</p> <p>- 북한은 당초 신고한 것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음.</p> <p>○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美·北 회담시 核동결 최우선 언급 *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원소(CSIS) 주최 세미나</p> <p>- 美정부는 美·北 3단계 회담에서 북한의 기존 核프로그램을 중지시키는</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29	<p>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p>		<p>대 최우선 순위를 둘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과거 규명과 현재 추진중인 대형원자로 및 제2핵연료 재처리 라인의 건설포기도 추구할 것임.</li> </ul>
6.30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판문점 대표접촉시 제시할 실무절차案 논의</p> <p>0 金鍾泌 민자당 대표, 북한 핵문제 완전 해결 강조                      * 국회 본회의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 반세기만의 역사적 南北정상회담이 한반도내 확실한 평화와 공존의 시작이 되기를 바람.</li> <li>-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問題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임.</li> <li>- 북한 핵은 그 수량이 많고 적고간에 결코 허용할 수 없음.</li> </ul>	<p>0 노동신문,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관련 환영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서 채택은 90년대 통일의 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며 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민족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임.</li> <li>- 수십년간 실현되지 못했던 北南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만족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임.</li> <li>- 역사적인 北南최고위급회담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적대와 대립, 분단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민족역사로 기록될 것임.</li> </ul> <p>0 金日成, 리도 마르텐스 벨기에 노동당 위원장 접견</p>	<p>0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 北韓 지연 계속될 제재 再추진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美·北 3단 회담을 지연을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UN안보리에 다시 회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적절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태세가 돼있음.</li> </ul> <p>0 고노 신임 日외무장관, 北核 대화해결 협조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관련 당사국과 협력해 나가겠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6.30			<p>0 워싱턴 타임스紙, 韓·美·日, 對北 경수로지원 컨소시엄 구성 검토 보도</p> <p>- 韓·美·日 3국은 美·北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한 10억弗 규모의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p> <p>0 美과학국제안전보장연구소, 北 2010년 까지 플루토늄 1.7t 확보 전망</p> <p>- 北韓이 현재대로 핵개발을 진행할 경우 2010년까지 원자폭탄 26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될 것임.</p> <p>- 미국은 8천여개의 핵연료봉을 러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 넘겨주거나 콘크리트 밀폐용기에 넣어 영구히 매장할 것을 북한에 요청할 것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1	<p>0 南北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 판문점 『통일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實務節次문제 협의</li> <li>• 남측 대표 : 尹汝雋, 具本泰, 嚴翼駿 북측 대표 : 백남준, 최승철, 최성익</li> </ul> <p>0 金泳三 대통령, 무라야마 신임 日총리와 北核 긴밀 협조체제 유지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통화</li> </ul> <p>0 韓·美·日, 3단계 고위급 회담 대비 實務協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三勳 핵전담대사,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가와지마 日아주국장 참석 (워싱턴)</li> <li>- 북한 핵문제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過去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li> </ul> <p>0 韓國林學會, 북한에 솔잎 흑파리 공동연구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학술연구발표대회</li> <li>- 금강산 보호를 위해 남북한 학자가 만나 공동으로 솔잎흑파리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의</li> </ul>	<p>0 『祖平統』서기국, 李榮德 국무총리의 남북정상회담시 핵문제 논의 발언 비난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최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를 토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北과 南의 최고위급들이 알아서 할 일임.</li> <li>- 핵문제를 가지고 이리쿵 저리쿵 시비하는 것은 北南최고위급회담에 샷대질하는 것이 아닐 수 없음.</li> <li>- 北과 南은 현시점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함.</li> </ul> <p>0 金日成, 싸미투 신임 요르단 대사 接見</p> <p>0 조선인민군 차수 주도일 (黨군 사위원·국방위원) 사망</p>	<p>0 클린턴 美대통령, 對北관계개선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 마이니치신문 회견</li> <li>- 핵문제를 넘어 대화를 확대하고 싶음.</li> <li>- 현시점에서 북한이 1~2개의 원자폭탄 보유능력을 가졌느냐 여부보다 장래 核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는나의 문제가 더 걱정임.</li> </ul> <p>0 무라야마 日총리, 기존 對한반도정책 유지 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임기자회견</li> <li>- 사회당과 북한노동당의 관계는 당과 당의 관계에 불과하며, 정부로서는 그동안 구축해온 對한반도정책을 유지할 방침임.</li> <li>- 北核문제는 韓·美·日 3국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1			<p>0 李鵬 중국총리, 남북 정상회담 성공 희망 * 기자회견</p> <p>- 중국은 남북정상회담과 美·北 고위급회담이 성공하기를 희망함.</p> <p>- 이같은 일련의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하더라도 앞으로 계속돼야 할 것임.</p>
7. 2	<p>0 南北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접촉 ( 판문점 『평화의 집』 )</p> <p>※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 合意書』 채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수행원 100명, 취재기자 80명</li> <li>2. 회담형식 : 단독회담,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 배석</li> <li>3. 체류일정 : 2박 3일, 필요시 연장</li> <li>4. 실무자접촉 : 7.13 ~16 평양, 각기 17명 참가 선발대파견 : 방문 3일전 25명 파견 경호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8, 판문점 『통일각』 통신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7, 판문점 『평화의 집』</li> <li>5. 왕래절차 : 대표단 명단 방문 7일전 통보 실무자접촉과 선발대 명단 방문 4일전 통보</li> <li>6. 편의보장 : 북측은 통신·숙식·의료 등 모든 편의 제공 1일 2회 행낭운반 보장</li> <li>7. 신변안전보장 : 북측은 총리명의로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 남측에 전달</li> </ol>		<p>0 美, 對北 핫라인 제의 방침 * 日 교도통신, 美정부당국자 인용보도</p> <p>- 美國은 3단계회담에서 상호 불신 해소를 위해 핫라인 설치, 군사정보 공개 및 정보교환 등 몇가지 신뢰조성장치를 제안할 방침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2	<p>8. 수행원·기자의 표지 : 수행원 표지는 양측이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기자는 완장 착용</p> <p>9.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어떤 표지도 하지 않음.</p> <p>10. 회담기록 : 속기·녹음·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함.</p> <p>11. 회담보도 : 북측은 남측의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TV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 제공</p> <p>12. 취재활동 : 북측은 남측기자의 취재활동을 보장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함.</p> <p>13. 기타 실무절차 : 남측은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선 이용 기타 실무절차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의 관례에 따름.</p> <p>14. 합의서 발효 : 쌍방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효력 발생</p> <p>0 政府, 남북 4개간선도로망 구축 추진</p> <p>* 제11차 新경제추진회의, 「중장기 사회간접자본화충계획」확정</p> <p>- 서울~신의주, 원주~해산, 서울~만포, 강릉~선봉 노선 등 남북을 연결하는 4개 간선도로망 구축 추진</p> <p>0 安企部, 「구국전위」간첩단 사건 발표</p> <p>* 조직총책 安在求(61) 등 23명</p>	<p>0 中央放送,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 채택 보도</p> <p>- 실무절차 합의서까지 채택됨으로써 근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北南최고위급의 평양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北과 南, 해외동포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게 되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4	<p>0 金泳三 대통령, 이산가족 문제를 頂上회담 主의제로 제시 방침 * 以北출신 인사 초청 오찬</p> <p>- 인도적 입장에서 離散家族의 고향방문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이 문제를 중요한 의제중 하나로 제기하겠음.</p> <p>0 李榮德 국무총리, 3者회담 不고려 표명 * 국회 본회의 답변</p> <p>- 남북한 및 미국간 3者회담은 어떠한 경우든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고려하지 않고 있음.</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핵문제 진전없이 남북경협 不추진 언급 * 국회 본회의 답변</p> <p>- 북한 핵문제의 진전없이 南北經協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p> <p>-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 경협의 추진이 있을 것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p>	<p>0 勞動新聞,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환영할 만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社說)</p> <p>- 北南최고위급회담 개최 합의는 조국통일을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민족적 의지의 발현이고 '90년대에 祖國統一을 반드시 이룩할데 대한 거래의 염원의 반영으로서 환영할 만한 역사적 사변임.</p> <p>- 北南최고위급회담이 일정에 오른 오늘 일찍이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더욱 더 커다란 현실적 의미를 가짐.</p> <p>-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적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최고위급회담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90年代 統一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역사적 계기로 될 것임.</p> <p>0 平壤放送, 金正日이 통일문제 영도 주장</p> <p>-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투쟁과 북남대화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조국통일을 위해서 모든 정력을 기울이는 金正日의 세련된 영도를 떠나서 생각할</p>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美·北 전면 수교 가능 언급 * 뉴스위크誌 인터뷰</p> <p>- 북한이 국제사회의 뜻을 지키고 남북한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면 美·北韓간 전면적 국교 수립이 가능할 것임.</p> <p>- 3단계 고위급회담이 결렬될 경우 북한 핵문제는 UN 안보리로 되돌려질 것임.</p> <p>- 북한의 핵개발 포기 대가로 미국이 제시할 반대급부중 하나는 세계 각국과 정치적·경제적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이 얻게 될 혜택임.</p> <p>0 키드 IAEA 대변인, 사찰요원 2명 지난 주 入北 확인</p> <p>- IAEA 사찰요원 2명이 지난주 寧邊 핵단지를 방문했음.</p>

■ 7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4	<p>책을 세워두고 있음.</p> <p>- 統一憲法은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의 최종단계에서 채택될 것이며, 내용은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조장하는 복지민주국가틀 지향하게 될 것임.</p>	<p>수 없음.</p>	
7. 5	<p>0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李洪九 수석대표, 통신 및 경호실 무자접촉 참가 남측대표 명단 통보 對北電通文</p> <p>&lt; 통신실무자접촉 &gt;</p> <p>- 류익현(청와대 통신국장) 박영환(청와대 공보비서관, 방송담당) 정용대(청와대 통신심의관)</p> <p>&lt; 경호실무자접촉 &gt;</p> <p>- 김광주(청와대 경호국장) 정한유(청와대 경호부국장) 정해창(청와대 경호부국장)</p> <p>0 金泳三 대통령, 평화정착과 신뢰구축이 정상회담의 중요 목적이라고 언급</p>	<p>0 『祖平統』서기국, '구국전위 간첩단' 사건 발표관련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비난 (報道)</p>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 참가차 평양 출발</p>	<p>0 게리 락 駐韓미군 사령관, 미군 계속 주둔 언급</p> <p>* 韓美우호협회 연설</p> <p>- 美軍은 다른 복잡한 세계적 현안이 대두되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韓半島에 주둔할 것임.</p> <p>0 臺灣, 중국 대표권 경쟁 포기 발표</p> <p>* 대륙위원회 공개 統一白書</p> <p>- 이미 본토와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전시비상조치법을 폐지했으며 공산정부와 더이상 中國의 대표권 다툼을 벌이지 않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5	<p>* 「民主平統」운영위원 접견</p> <p>- 平壤에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에 신 뢰를 구축하는 것임.</p> <p>※ 「民主平統」, 정상회담 의제 7개항 건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호 체제인정·긴장완화 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li> <li>② 3단계 민주평화통일 대원 칙 천명</li> <li>③ 고향방문·판문점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및 인 도적 문제 해결</li> <li>④ 남북대화 재개 및 기본합 의서 이행</li> <li>⑤ 한반도 비핵화 천명</li> <li>⑥ 백두산 및 금강산 공동개 발 등 관광개발</li> <li>⑦ 경제협력</li> </ol>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정상회담에서 吸收 統一 반대의사 공식 전달 언급</p> <p>* 국회 본회의 답변</p> <p>- 金대통령은 북한을 흡수 통일 않겠다는 의사를 여 러번 밝힌 바 있음. 이갈 은 뜻이 이번 頂上會談에 서 직접 전달된 것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6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남북정상회담과 美·北 3단계회담 대책 논의</p> <p>0 李榮德 국무총리, 核 해결 되면 남북經協 재개 언급 * 국회 본회의 답변</p> <p>- 북한의 核투명성이 보장 되면 언제라도 남북經協 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임.</p> <p>-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한 신뢰구축기반이 조성 되면 광범위한 남북經協 활동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p>	<p>0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단장 김용순, 통신 및 경호 실무자접촉 참가 북측대표 명단 통보 對南 電通文</p> <p>&lt; 통신실무자접촉 &gt;</p> <p>- 김명호(체신부 국장) 한명환(체신부 부국장, 방송 담당) 이영림(체신부 과장)</p> <p>&lt; 호위실무자접촉 &gt;</p> <p>- 최 춘(호위총국 부장) 리재용(호위총국 참모) 리금철(호위총국 참모)</p> <p>0 美·北 3단계회담 참가 북한 대표단, 제네바 도착</p> <p>&lt; 도착성명 &gt;</p> <p>- 그동안의 사태발전은 압력과 위협으로는 우리의 핵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음.</p> <p>- 핵문제를 포함한 朝·美사이의 현안문제들은 오해와 불신에 근원을 두고 있음.</p> <p>0 金日成, 경제건설과업에 대한 지침 제시</p>	<p>0 카터 前 美대통령, 北韓의 對日수교 희망 메시지 언급 * 도쿄 기자회견</p> <p>- 김일성과 회담시 日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부탁받았으며, 김일성은 이 메시지의 전달로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p> <p>- 金日成은 이산가족의 재회와 상호 방문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음. 우선 시험케이스로 70세 이상 노인들의 面會를 시작하는 案을 제시했음.</p> <p>0 니코노프 러 하원의원, 北核억제 위해 朝蘇조약 연장문제 연계 제안</p> <p>- 朝蘇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효력연장문제를 연계시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지도일꾼협의회</li> <li>- 시멘트 증산, 함흥지역 화학 공업기지 강화, 신형 발전 설비개발, 단군릉 개건공사 조기 완공 지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臺灣, 3不通정책 사실상 포기</li> <li>• 高孔廉 대륙위원회 부주임 발표</li> <li>- 대만 정부는 중국과 통신과 항공 및 선박운행에 있어서 直交流를 허용키로 했음.</li> </ul>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신실무자접촉 ( 관문점 「평화의 집」 )</li> <li>-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남북간 통신망 가동과 방송중계에 따른 기술적 문제 협의</li> <li>• 남측 대표 : 柳益鉉, 朴榮煥, 丁龍大, 북측 대표 : 김명호, 한명환, 이영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平壤放送,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신실무자접촉 보도</li> <li>- 쌍방은 텔레비전 실황중계문제, 북남직통전화 이용문제, 휴대용 위성전화 이용문제 등 구체적인 통신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고 많은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음.</li> <li>- 일부 합의하지 못한 문제들은 7.13 평양 실무자접촉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했음.</li> <li>0 김형직 탄생 100돌 기념 중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스코트 슈나이더 美 평화연구소 연구원, 美·北외무장관회담 개최 가능성 언급</li> <li>• 日요미우리신문 회견</li> <li>- 3단계 美·北회담이 진척을 보일 경우 8월이나 9월경 양국 외무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음.</li> <li>0 카터 前 美대통령, 김일성, 日·北 정상회담 희망 언급</li> <li>• 기자회견</li> <li>- 김일성 주석이 日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했음.</li> </ul>

■ 7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7		<p>연구토론회 (인민문화공전) * 참석: 박성철, 양형섭, 김기남, 강석송</p> <p>0 北韓·UNDP, 농업생산 증대와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조계획서 합의</p>	<p>0 南北에멘, 무력 재 통일</p> <p>- 北에멘군은 5.4 내 전발발 2개월만에 남에멘 수도 아덴 港 점령</p>
7. 8	<p>0 南北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경호실무자접촉 (판문점 『통일각』)</p> <p>* 남측 대표: 김광주, 정한유, 정해창 북측 대표: 최 춘, 리재용, 리금철</p> <p>0 李榮德 국무총리, 정상회담에서 남북 공통의 統一目標 합의 희망</p> <p>* 한국발전연구원 조찬 강연회</p> <p>- 정상회담에서 공통의 통일목표를 세우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함.</p> <p>-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한다면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달해야 함.</p>	<p>0 金日成 사망</p> <p>* 7.9字 參照</p>	<p>0 美·北韓 3단계 고위급회담 (제네바)</p> <p>*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갈투치 미국무차관보 참석</p> <p>- 美國측은 북한이 추가적인 재처리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核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경수로 전환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 제시</p> <p>- 북한측은 최단시일 내 경수로 전환 지원과 무력불사용·불위협에 대한 법적 보장 등 기존 주장 되풀이</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9	<p>0 金泳三 대통령 주재 國家安全保障會議 개최</p> <p>* 金日成 사망에 따른 대책 논의</p> <p>&lt; 金泳三 대통령 발언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어떠한 사태발생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li> <li>- 보름후 南北頂上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아쉽게 됐음.</li> </ul> <p>0 政府, 全공무원 비상대비령 및 全軍 비상경계령 하달</p>	<p>0 북한, 金日成 사망 발표</p> <p>*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국방위·중앙인민위·정무원 공동명의 (12:00, 中·平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이 '94.7.8.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였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림.</li> <li>-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인 金正日이 서 있음.</li> <li>- 우리 당의 세련된 영도는 김일성이 개척하고 이끌어 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하여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됨.</li> </ul> <p>&lt; 국가장의위원회 구성(7.8)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개웅태, 전병호, 한성통, 서운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립, 홍성남, 강희원, 양형섭, 홍석형, 연형목, 이선실, 김철수,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종린, 서관희, 김용순 외 (273명)</li> </ul> <p>&lt; 국가장의위원회 공고(7.8) &gt;</p>	<p>0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 연기 발표</p> <p>0 클린턴 美대통령, 金日成 사망에 애도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성명</li> <li>- 미국시민을 대표해서 진정한 哀悼의 뜻을 표함.</li> <li>- 美·北韓간 대화 재개를 가능케한 金주석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대화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뒤 지속되기를 희망함</li> </ul> <p>0 鄧小平, 北韓노동당 중앙위에 弔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와 조선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가장 심심한 哀悼의 뜻을 표하는 바임.</li> </ul> <p>0 江澤民·李鵬·喬石, 북한에 弔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조선 인민들이 金日成이 남</li> </ul>

■ 7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 영구를 금수산의사당에 안치함.</li> <li>- '94. 7. 8~7. 16 까지를 哀悼期間으로 정하며 '94. 7. 11~7. 16 사이에 조객들을 맞이함.</li> <li>- 추도대회를 '94. 7. 17 平壤에서 거행함.</li> <li>- 外國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함.</li> <li>&lt; 金日成의 질병과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 &gt;</li> <li>- 겹쌓이는 정신적인 과로로 하여 '94. 7. 7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심장쇼크가 합병·중약되어 사망하였음.</li> <li>○ 中·平放, 金正日을 '당과 혁명의 수위에 모실 것' 주장</li> <li>- 金日成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인 金正日을 우리 黨과 革命의 수위에 드높이 모시고 그의 현명한 영도따라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임.</li> <li>○ 「朝總聯」중앙상임위, 金日成 추모위원회 구성 및 조의대표단 파견 결정</li> </ul>	<p>긴 뜻을 계승하고 金正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 조국을 건설하고 조선반도의 자주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을 확신함.</p> <p>○ IAEA, 北 체류 사찰단원 2名 안전조치 활동 계속수행 확인</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0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 보,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弔意 방문</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 장관, 北 후계자와 대화 용의 표명 * 로이터통신 회견</p> <p>- 북한이 핵개발의 속을 해소한다면 美 國은 김일성의 후계자와 만날 용의가 있음.</p> <p>0 서방 선진 7개국 (G7), 北核 투명성 보장 촉구 聲明 * G7 정상회담 의장 성명 (나폴리)</p> <p>- 非核의무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준수를 통한 核프로그래의 완전한 투명성 보장 요구</p>
7.11	<p>0 李榮德 국무총리, 남북정상회담 합의 유효 언급 * 국회 행정경제위</p> <p>- 金日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南北이 이미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원칙은 유효함.</p>	<p>0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남북정상회담 연기 동보 對南書翰</p> <p>- 우리측의 유고로 예정된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通知하는 바임.</p>	<p>0 클린턴 美대통령, 南北頂上會談 조속 재개 희망</p> <p>- 무기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열리기를 희망함.</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면 양측은 頂上會談 개최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임.</li> <li>○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김일성에 弔意 표시 불고려 언급</li> <li>• 국회 외무통일위</li> <li>-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하거나 조의를 표명하는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음.</li> <li>- 정부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권력을 계승한 金正日 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신문, 金正日體制下 기존 정책노선 유지 시사 (社說)</li> <li>- 金日成이 이룩한 주체의 혁명 전통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며 김일성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임.</li> <li>- 金正日을 높이 받들고 두리에 달결하는 것이 김일성의 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는 참된 길임.</li> <li>- 우리 式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빛내여 나가는 것은 김일성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임.</li> <li>○ 黨·政 간부들, 金日成 영전에 弔意 표시</li> <li>• 참가 :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웅태 전병호 한성룡 서운석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석형 연형목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서관희 김용순 김 환 김복신 김창주 김운혁 장 철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유미영 한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江澤民 중국 주석, 駐中 북한대사관 弔意 방문</li> <li>○ 錢其琛 中외교부장, 北, 김일성 대화 노선 답습 전망</li> <li>• 불가리아 외무장관 과 회담시</li> <li>- 북한은 金日成의 생전 정책에 따라 평화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믿음.</li> <li>○ 엘친 러 대통령, 對北 무기부품 공급 중단 계속시행 언급</li> <li>• G7 정상회담 記者會見</li> <li>○ 그레그 前駐韓 美대사, 김정일 과도기 지도자 가능성 언급</li> <li>• 日교도통신 회견</li> <li>- 金正日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도 있으나 과도기적 지도자일 가능성도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내분이 일어날 수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1		<p>0 平壤放送, 갈루치 美국무차관 보의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弔意 방문 보도</p> <p>- 갈루치는 “金正日이 金日成의 위업의 계승자로서 그의 노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p> <p>- 갈루치는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 이러한 시각에는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고 주의록에 썼음.</p> <p>0 中央放送, 金正일을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호칭</p>	
7.12	<p>0 李築德 국무총리, 南北 대화국면 지속 언급</p> <p>* 국회 본회의 보고</p> <p>- 북한은 金正日에게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당분간은 기존 정책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김정일체제의 조기 안정과 강화에 역점을 둔 대내외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봄</p> <p>-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국면은 일시적인 우여곡절이 있으나 持續될 가능성이</p>	<p>0 美·北韓 3단계회담 북한대표단, 평양 귀환</p> <p>0 『朝總聯』조의대표단, 평양 도착</p> <p>* 단장: 『朝總聯』중앙상임위원장 한덕수</p> <p>0 平壤放送, 金正日 黨·政·軍 완전장악 시사</p> <p>-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黨과 國家, 革命武力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게 됐음.</p>	<p>0 무라야마 日 총리, 사회당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弔電</p> <p>- 일본 사회당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과 인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포함.</p> <p>0 페리 美국방장관, 한반도 전정억제가 중요 정책목표라고 언급</p> <p>* 美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증언</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2	있음.	- 지도자 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 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임.  0 李仁模, 김일성 영구에 弔意 표시	
7.13	0 黃秉泰 駐中대사, 北·中 국익우선 관계 전환 전망  - 金日成 사망을 계기로 平 壤·北京 관계는 종전의 혁명 1세대간의 끈끈한 관계에서 벗어나 국익을 앞세운 관계로 전환될 것 임.	0 平壤放送, 김정일에 '위대한 태양' 호칭  - 우리 인민은 金正日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태양' 이며 우리 운명의 전체이고 모든 승리의 기치라는 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음  0 金正日,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김일성 영구에 哀悼 표시  0 朴普熙 세계일보 사장, 金日成 조문차 訪北 (7.13~22)	0 엘친 러 대통령, 북 한에 弔電  0 李鵬 中國 국무원 총리, 駐中북한대사 관 방문 조의 표시  0 金正日, 한국상표 북한내 유통 허용지 시說 * 홍콩소식통  - 金正日是 6월말 경 제일꾼들에게 南韓 상품에 일본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없 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음.  0 러 콤포스몰스카야 프 라우다紙, 北核의혹 관련 順川·白山 농 축우라늄 검증 필요 주장 * 리 핵전문가 발언 인용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개발의혹 관련, 寧邊 미신고 핵시설외에 順川과 白山에서의 농축우라늄 추출여부도 검증돼야 할 것임.</li> </ul>
7.14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 김일성 사망 후 북한동향 및 관련국 반향 보고청취</p> <p>&lt; 회의후 李洪九 부총리 당부말씀 &gt;</p> <p>- 정부 입장은 '頂上會談' 개최 원칙 유효·뿐이며, 나머지 節次問題는 북한의 사태진전을 보아가며 의연하게 풀어나간다는 입장임.</p>	<p>0 『祖平統』대변인, 남한 조문단 訪北 환영 談話</p> <p>- 남조선의 각당각파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조문을 보내오며 平壤에 조문단을 파견하려 하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함.</p> <p>- 남조선의 조문단이나 조문객들이 平壤에 체류하는 기간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임.</p> <p>0 金正日, 조의 방문중인 해외동포들 接見</p> <p>* 한덕수 강 일 최흥희 문명자 송두울 박경선 양영동 최기환 홍동근 전총립 김진경 등</p> <p>0 駐UN 북한대표부, 미국에 3단계 회담 日程 협의를 위한 接觸 제의</p> <p>- 북한측이 UN대표부를 통해 전화로 제네바회담 재개 일정을 잡기위해 다음주에 만날 것을 요구</p>	<p>0 北, 제네바 3단계 회담시 핵연료 재장착 입장 표명說</p> <p>* 워싱턴 외교소식통</p> <p>- 강석주는 7.8 제네바 회담에서 핵문제와 관계개선 문제가 조기에 일괄타결되지 않으면 5MW원자로에 核연료를 재장착하고 인출된 폐연료봉을 再處理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p> <p>0 日정부, 해외공관에 김일성 弔問 금지 지시</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5	<p>0 韓·美정상, 北정세 관련 전화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상황변화에 대해 긴밀 협조, 대처키로 합의</li> </ul>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金正日체제 전제로 對北정책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 강연</li> <li>- 정부는 金正日 사후의 김정일체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전제로 對北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있음.</li> <li>- 金正日체제는 김일성의 기본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같은 구도에서 북한은 南北정상회담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봄.</li> </ul>	<p>0 북한, 金日成 장례식 7.19로 연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장의위원회 공보</li> <li>- 국가장의위원회는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요구를 반영하여 추도행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객들을 7.18 까지 계속 맞이함.</li> <li>2. 영결식을 7.19 平壤에서 거행함.</li> <li>3. 추도대회는 7.20 진행함.</li> </ol> <p>0 平壤放送, 남한 특별경계령 관련 김대통령 거명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1字「韓民戰」중앙위 談話 인용</li> <li>- 南北정상회담을 앞두고 뜻하지 않게 생긴 불상사에 슬픔을 같이 나누지 못할망정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동족을 자극하는 행위는 상식 이하의 무례한 처사이며 초보적인 예의범절도 모르는 비인간적 행위임.</li> <li>- 온겨레는 지금 金○○ 일당의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음.</li> </ul>	<p>0 美, 해외공관에 김일성 조문금지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 외교소식통</li> <li>- 美정부는 김일성 사망과 관련, 조의를 표하거나 조문하는 일은 금지시킨다는 훈령을 재외공관에 하달</li> </ul> <p>0 美상원, 對북한 경제지원 금지 내용의 대외활동 세출예산법 수정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核 비보 유 △核계획 중단 △ 플루토늄 수출 금지 등 3개사항을 클린턴 대통령이 확인,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 어떠한 基金도 북한에 제공 금지</li> </ul> <p>0 日, 北韓 난민 대비 해상경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메이 日 운수상 기자회견</li> <li>- 해상보안청이 7.9부터 난민 발생을 상정해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5			0 사이나 CNN방송 편 집국장, 카터 訪北 金正日 허가 발언 * 日산케이신문 회견  - 카터 前 美대통령 의 북한 방문이나 美 CNN의 평양으로 부터의 생방송 등 은 모두 金正日의 허가로 이루어진 것임.
7.17		0 『汎民聯』북측본부 대변인, 남측본부 조문단 訪北 무산 관 련 비난 談話  0 金正日,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및 해외동포 접견  * 손원태, 서순옥 가족, 이재덕 가족, 허종만, 임민식 등	0 러 TV, 北韓 전시 비상식량 대량 방출 보도 * 러 오스탄키노 TV  - 북한은 장례기간 조문객들의 식사문 재를 해결하기 위 해 戰時用으로 비 축해 두었던 쌀 등 을 대량으로 방출 하고 있음.
7.18	0 李榮德 국무총리, 김일성 조문논쟁 관련 政府 입장 발표 * 국무회의 발언  - 金日成은 민족분단의 고 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자라는 역사적 평가	0 『韓民戰』평양대표부 대표 이 정상, 김일성 조문 관련 對南 비난 談話	0 무라야마 日총리, 北核 국제공조체제 지속 표명 * 국회 시정연설  - 日정부는 金日成 사망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악 영향이 미치지 않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8	<p>가 이미 내려져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일부 재야 및 운동권학생과 사회一角에서 弔電 발송, 조문단 파견 논의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매우 遺憾스러운 일임.</li> <li>- 정부는 實定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단할 것임.</li> <li>-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나간다는 政策基調는 일관성있게 견지할 것이며, 南北頂上會談 개최의 원칙은 유효하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음.</li> </ul> <p>○ 金泳三 대통령, 北韓 주민 인권에 UN 등 국제적 관심 傾注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인권고등판무관 접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벌목공의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해 세계와 UN은 너무 관대함</li> </ul> <p>○ 金泳三 대통령, 극렬 좌경 학생 不관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총장 초청 오찬</li> </ul>		<p>기를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韓·美·日 3국의 연대아래 對話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li> </ul> <p>○ 中, 對北 경제지원 방침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교도통신 보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國지도부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金正日 후계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북한에 대한 經濟支援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음.</li> <li>- 중국은 북한 새 지도부와 의 관계강화를 위해 金正日을 올가을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할 방침임.</li> </ul> <p>○ 울시 美CIA국장, 北韓 핵연료봉 재처리엔 核彈 5개분 플루토늄 보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전략문제연구</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차별 폭력과 남아빠진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학생들에게 까지 관용으로 대해 줄 수는 없음.</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亞·太인권기구』 창설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UN 亞·太지역 인권워크샵</li> </ul> </li> <li>- 亞·太지역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인권회의등 人權포럼 설치가 필요함.</li> <li>○ 徐東權 前안기부장, 남북 정상회담 '92년 성사직전 무산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통신 회견</li> </ul> </li> <li>- 6共和國 당시 북한이 고려연방제등 조건을 철회, 회담이 성사직전에 이른 적이 있었으나 북한이 4.15 平壤 개최를 주장, 盧泰愚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li> <li>○ 北韓주민 조명철(35) 귀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정무원 건설부장, 現 당 중앙위 후보위원 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명철의 子로 김일성大 경제학부 상급교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CSIS) 주최 세미나</li> <li>-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5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가로 보유하게 될 것임.</li> <li>○ 美國방부, 駐韓美軍 병력 3만6천921명으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31 現在</li> </ul> </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9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綜合的 통일정책' 추진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주재 국정평가보고회</li> <li>- 金日成 사망후 남북관계 새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겠음.</li> <li>- 남북간에 합의한 頂上회담 개최 원칙을 견지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절차 문제를 협의하며, 南北공동위원회 재가동을 추진하겠음.</li> </ul> <p>※ 金泳三 대통령 지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임.</li> </ul>	<p>0 金日成 영결식 (12:00~, 금수산의사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인식 참석 명단 : 金正日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김영주 김영남 최 광 개웅태 전병호 한성통 서운석 김성애 김철만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희 김용순 김 환 김복신 김창주 김운혁 장 철 공진태 윤기복 박남기 전문섭 유미영 한덕수</li> <li>- 영결식은 金日成 영구 의장대 사열 → 평양 시내 주요거리 행진 → 금수산의사당 재안치 순으로 진행</li> </ul> <p>0 「韓民戰」, 국무총리의 정부 입장 발표 관련 비난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가 南北關係를 파국적 사태로 몰아갈 새로운 위협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인정함.</li> <li>- 北을 자극하다 못해 北을 정면으로 걸고든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고 朝·美회담에 새로운 제동을 걸기위한 고의적인 도발임.</li> </ul>	<p>0 IAEA 대변인, 金日成 사망후 사찰활동 정상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金日成사망 후 7.19까지 寧邊에 남아있는 IAEA 사찰원들의 활동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음.</li> </ul> <p>0 ASEAN 6개국, 「동남아 비핵화지대」'95년까지 창설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외무부 발표</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19		0 金正日, 「朝總聯」 조의대표 단 및 재일동포 조객들을 위해 위로연 마련 (목란관)	
7.20	0 외무부, 6.25 남침 사실 입증 러시아 외무부 對外 정책문서 공개 * 216件	0 金日成 중앙추도대회 (10:00~, 김일성광장) * 참석 : 金正日, 당·국가 지도간부, 국가장의위 위원, 한덕수, 이인모  < 黨정치국위원 겸 부총리 김영남 추도사 > * 金正日 위임  -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영도의 후계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것은 金日成이 우리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이룩한 가장 특출한 공적임.  -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다지는 맹세는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단결하여 主體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맹세뿐임.  - 앞으로도 金日成의 革命思想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사상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金日成이 마련해준 白頭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하겠음.	0 갈무치 美국무차관보, 北核 국제공조 협의차 來韓 * 韓·日·中·러 등 4國 순방 예정  0 로드 美국무차관보, 3단계회담시 북한에 남북대화 개최 촉구 방침  - 미국은 제네바에서 속개될 美·北 회담에서 북한에 南北對話를 가질 것을 촉구할 것임.  - 남북대화에서 논의될 의제가 美·北 회담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임.  0 서덜랜드 GATT총장, 남북교역은 내부거래·간주 언급  - 현 GATT체제에는 한국만 가입돼 있기때문에 南北韓의 교역은 내부거래로 간주될수 있을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0		<p>-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함</p> <p>&lt; 조선인민군 차수 김광진 추도사 &gt;</p> <p>- 金正日의 두리에 봉친 혁명대오의 혼연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그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장병들 모두가 金正日을 걸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고 성세가 될 것임.</p> <p>-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金日成의 유훈을 지켜 金正日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수위로 높이받들어 모시고 조국통일을 90年代에 반드시 성취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엄숙히 맹세함.</p> <p>0 金正日,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및 前 중국 흑룡강성 省長 부부 接見</p> <p>0 金正日, 범민련 해외본부조의 대표단 등 해외동포 위로연 마련(목란관)</p>	<p>0 日요미우리신문, 平壤 시민 金正日 배지 부착 보도</p> <p>• 平壤주재 외국상사원 발언인용</p> <p>- 평양시내 일부에서는 金日成 배지 대신 金正日 배지를 가슴에 단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p> <p>0 日·캐나다, 북한에 美·北회담 재개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 촉구</p> <p>•외무장관회담(도쿄)</p> <p>- 북한이 핵개발의 흑을 일소하고 美國과 대화를 재개할 것과 南北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바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1	<p>0 政府, '94 남북인간띠잇기 대회 관련 立場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원·내무부·문화체육부 공동명의 발표문</li> </ul> <p>- 금번에 개최코자 하는 남북인간띠잇기대회는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p> <p>-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간띠잇기행사를 적극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함.</p> <p>- 정부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및 남북관계 개선에 위해롭지 않는 한 민간의 자율적인 통일운동을 보장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복리 증진' 차원 對北 경수로지원 접근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투치 美 국무차관보 면담시</li> </ul> <p>- 북한의 경수로 도입 지원 문제와 관련,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민족복리의 증진을 고려하는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韓·美간</p>		<p>0 美·北韓 실무접촉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고위급회담</li> <li>8.5 제네바 재개 합의</li> </ul> <p>0 그레그 前駐韓 美대사, 對北 우호정책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駐美한국대사관 공보원 주최 세미나</li> </ul> <p>- 한반도는 강경책을 사용할 장소가 아니며 자칫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 재래식 전쟁을 초래할 수 있음.</p> <p>- 대북한 경제지원을 통해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p>

■ 7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1	<p>에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p> <p>○ 韓·美, 북한핵문제 관련 實務協議 개최</p> <p>* 金三勳 핵전담대사,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참석</p> <p>- 북한의 △핵연료 재장전 금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금지 △IAEA 안전조치 계속성유지 등 核활동 동결은 앞으로 美·北 대화의 지속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p> <p>-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北韓의 △NPT 완전복귀 △IAEA사찰의무의 완전한 이행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과거 核활동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p> <p>- 북한측이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경우 경수로 전환 지원문제, 美·北 관계개선 문제 등 북한측이 제기한 제반 정치·안보·경제적 요구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한다는 입장 재확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도 확고한 韓·美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li> <li>○ 정부, 美 戰域미사일방위 구상(TMD)의 연구단계 참여 통보</li> <li>* 韓·美 국방차관 실무 협의시</li> <li>- 정부는 戰域미사일방위구상(TMD) 연구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되 본격 가입은 상당기간 유보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li> </ul>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li> <li>* 경수로 지원문제 등 美·北 3단계회담 예상의제들 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대변인, 3단계 美·北 회담 8.5 재개 발표</li> <li>- 7.21 朝·美뉴욕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제3단계 朝·美회담을 8.5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음.</li> <li>○ 北韓, '중앙인민위' 명의로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독립절 축하 電文</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 북한에 '6대정책' 제시說</li> <li>* 홍콩『信報』紙 보도</li> <li>- 中國은 7.9 비밀리에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김일성 遺志 계승 지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유지 희망 △모든 군사도발반대 △경제개혁 추진 지지 △당對당 우의 지속△中·朝 우호 조약 수정 등 '6대정책' 을 제시했다고 보도</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2			<p>0 고노 日외상, 북한 경수로 지원 용의 표명                      * 갈무치 美 국무차 관보 면담시</p> <p>-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완벽히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경수로 전환을 위한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음.</p>
7.23	<p>0 韓·日 정상회담 (서울)</p> <p>- 현재·미래는 물론 과거 핵무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p> <p>-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韓·美·日 3국의 긴밀한 공조체제 중요성 재확인</p> <p>- 日·北수교 교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p>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 당사자간 대화 중요성 강조                      * 韓·日정상회담 후 기자회견</p>	<p>0 「汎民聯」 북측본부 중앙위, 金日成 조문 단속 관련 대남 비난 聲明</p> <p>- 김일성 사망과 관련, 남조선 정부가 특별경계령, 범민련 남측본부인사 구속 등 反北 대결책동을 한것은 최고위급 회담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도발행위임.</p> <p>0 朴普熙 세계일보 사장, 평양 출발 기자회견                      * 7.24 중앙방송 보도</p> <p>- 회장은 訪北이 정치이전의 인도주의적인 소행이고 사상과 이념위에 있는 민족적 차원에서 행해진 행동이고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의 교리에도 부합되는 신성한 일로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답</p>	<p>0 朴普熙 세계일보 사장, 訪北(7.13~22) 후 記者會見 (北京)</p> <p>- 金正日是 '남북한 간에 합의된 南北 정상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며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 잘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p> <p>- 金正日是 또한 생전에 訪美를 희망했던 김일성의 뜻에 따라 자신도 美國을 訪問,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며, 당사자 원칙이 중요함.</li> <li>- 북한이 결국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li> <li>-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의 화해와 협력,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아래 경수로전환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li> </ul>	<p>하였음.</p>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中·러 외무장관과 연쇄 會談</li> <li>*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PMC) 및 아세안지역 안보 포럼 (ARF) 참가 (방콕)</li> <li>- 김일성 사후의 한반도 정세 협의 및 北韓 핵문제 해결에 협조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어 美 副統領, 金正日의 訪美 희망 관련 언급</li> <li>* 美 NBC-TV 대담</li> <li>- 金正일이 美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제안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음</li> </ul>
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築德 국무총리, 주사파 척결 지시</li> <li>-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내무부와 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대변인, 남북관계 개선 선결 주장은 핵문제 해결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 이라고 경고 (記者會見)</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이 제3단계 朝·美회담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朝·美관계 개선의 선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 김일성 사후 북한정세 관련 방위계획 수정</li> <li>* 마이니치신문 보도</li> <li>-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정세가 유동적이라고 판단, 육·</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5	<p>무부에 지시</p>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박보희 訪北 관련 사법처리 방침 표명</p> <p>- 사전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해 엄격한 사법처리가 있을 것임.</p> <p>○ 韓昇洲 외무부장관, '동북아 多者 안보대화' 제의</p> <p>*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연설</p> <p>- 南北韓을 포함, 美·日·中·러 등 한반도 주변 6 개국이 참가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창설을 제의</p>	<p>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대해 문제제시 하지 않을 수 없음.</p> <p>- 제3단계 朝·美회담에서 경수로제공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고 朝·美사이에 적대관계 해소, 신뢰조성문제 등이 해결되어 朝·美관계가 실제적으로 개선되면 北南관계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임.</p> <p>- 핵문제 해결을 위한 朝·美회담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朝·美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핵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되리라는 것은 명백함.</p> <p>○ 『職總』중앙위, 弔問 관련 남한당국 규탄 聲明</p>	<p>해·공군 자위대가 각각 올해 방위정비계획 수정작업에 착수했음.</p> <p>○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남북대화 조기 재개 지지</p> <p>* 의장성명 채택</p> <p>- 국제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핵무기 비확산에 유의하면서, 계속적인 美·北협상을 환영하며 남북대화의 조기재개를 지지함</p>
7.26		<p>○ 해주방송, 金正日 '총비서 및 국가주석' 추대 주장</p> <p>- 우리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黨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를 빛낼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7	<p>0 귀순자 康明道·趙明哲, 북한 核彈 5개 보유 주장 * 기자회견</p> <p>- 북한은 '93년말까지 이미 핵탄두 5개 정도는 생산을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p> <p>- 최소한 1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뒤 공개해 南北 및 對美관계에 이용하려 하고 있음.</p> <p>※ 강명도(36)는 정무원 총리 강성산 사위로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산하 무역회사 부사장 재직중 '94. 5 제3국 경유, 귀순</p>	<p>0 『조국해방전쟁』 승리 4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2·8문화회관) * 참석 : 오진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최 광, 계응태, 강현수, 허종만 外</p> <p>* 당비서 계응태 경축보고</p> <p>0 육·해·공군 청년군인들, 김정일에 '충성의 결의' 모임 (전승기념탑) * 참석 : 최 광, 김봉철, 김광진, 각 군종·병종 사령관</p> <p>0 『사료청』 중앙위, 弔問문제 관련 對南 비난 聲明</p>	<p>0 페리 美국방장관, 北 핵무기 5개 보유 否認 * 美PBS-TV대담</p> <p>- 북한이 핵무기 5개를 보유한 것으로 믿지 않으며,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가 1~2개라는 판단에 큰 신뢰를 갖고 있음.</p> <p>0 美 공화당 중진들, 對북한 강경 대처 촉구 * 美 공화당 전국위원회 주최 외교정책포럼</p> <p>- 키신저, 베이커 前 국무장관, 체니 前 국방장관 등은 클린턴 행정부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경 대처할 것을 촉구</p>
7.28	<p>0 韓·日, 한반도 정세 관련 실무협의 * 崔東鎭 외무부 제1차관보 후쿠다 日외무성 심의관 참석 (도쿄)</p> <p>- 북한의 核과거를 포함해</p>	<p>0 平壤放送, 귀순 강명도·조명철 기자회견 관련 '정치적 연극' 이라고 비난</p> <p>0 黨정치국 후보위원 겸 정무원 부총리 강희원 死亡</p>	<p>0 美 백악관 대변인, 北韓 핵탄 5개 보유 부인</p> <p>- 미국이 보유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현 단계에서</p>

■ 7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8	<p>핵투명성이 규명되어야 하며,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도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합의</p> <p>○ 北韓 주민 김동훈, 인천 밀입국 귀순 * 금강산무역회사 과장</p> <p>○ 國防部, 북한 플루토늄 15 kg 보유 추정 * 정례 북한동향 브리핑</p>	<p>* 국가장의위원회 구성 : 강성산, 김영남, 한성룡,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外</p> <p>○ 『韓民戰』 중앙위, 주사파·한 총련 단속 규탄 聲明</p>	<p>확실히 평가할 수 없는 내용임.</p> <p>-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p> <p>○ 대무린 러 외무부 副대변인, 北韓 핵탄 보유 공식 否認</p> <p>-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北韓에는 핵무기가 없음.</p> <p>○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 核동결 안되면 美·北 회담 중단 표명 * 美하원 외교위 청문회</p>
7.29	<p>○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美·北 3단계 회담 재개 관련 정부입장 재확인 및 韓·美 공조방안 논의</p>	<p>○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의 조의표시 엄단 지시 비난 論評</p> <p>- 남조선 통치배들의 반공 히스테리발작으로 모처럼 화해와 대화에로 흐르던 朝鮮半島 정세는 또다시 대결국면으로 되</p>	<p>○ 中, 對북한 긴급 식량 원조 * 日 마이니치신문 보도</p> <p>- 중국은 金日成 추도대회가 있었던</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29		<p>돌아서고 있음.</p> <p>- 이것은 남조선 위정자들에게 우리와 화해할 생각도 없고 대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 할 의지도 전혀없다는 것을 말해줌.</p> <p>0 「<b>祖平統</b>」서기국, 남한 당국의 박보희 사법처리 방침 규탄 報道</p> <p>0 黨·政 간부들, 강희원 빈소 조의방문</p> <p>* 참가 :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용 김철만 최영립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희 김용순 외</p>	<p>7.20전후 밀가루· 소금·쌀 등 식료 품을 北韓에 긴급 원조했음.</p> <p>0 IAEA, 북한 核彈 5 개 보유 부인</p> <p>-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로 볼 때 康씨 의 주장은 신빙성 이 없음.</p> <p>0 北, 호주에 「아세 안 지역안보포럼」 참여 지원 요청</p> <p>* 더 오스트레일리안 紙 보도</p> <p>- 北韓은 방콕주재 대사관을 통해 호 주 정부에 北韓이 「아세안지역안보포 럼」(ARF)에 참여 하도록 도와줄 것 을 요청했음.</p>
7.30		<p>0 「<b>祖平統</b>」, 남한 당국의 반공 반북대결소동 규탄 聲明</p> <p>- 김○○은 대화상대방에 발생 한 유고를 불순한 정치적 목 족에 이용하는 反민족적 역적 행위를 자행하면서 군사적 도 발로 대응해 나섰음.</p>	<p>0 국제사면위, 北韓 정치범 수용소 실태 및 55명 명단 공개</p> <p>* 기자회견 (서울)</p> <p>- 平壤 근교 정치범 수용소(승호마을) 의 실태와 이곳에</p>

■ 7 원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30		<p>- 北南關係의 현 대결사태는 바로 여기로부터 발단되었음.</p> <p>- 우리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國家保安法의 희생물로 되고 우리가 이 악법에 의하여 계속 적대시되는 사태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음.</p> <p>0 강희원 國葬 * 참석 : 김영남 한성룡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외</p> <p>0 美CNN-TV 방송사 대표단(단장: 제1부사장 이슨 조던), 북한 방문 (7.30~8.6)</p>	<p>구급되어 있는 정치범 49명을 포함한 55명의 명단을 공개</p> <p>※ 前수도여고 교사 高相文씨 포함</p> <p>0 非核운동가들, 日本 핵탄 5천개분 플루토늄 보유 주장 * 亞太지역 평화세미나 (방콕)</p> <p>- 일본은 현재 4.5~26t의 플루토늄239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나가사키 무하됐던 것과 같은 크기의 핵폭탄 9백~5천개를 만들수있는 분량임</p>
7.31		<p>0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南北인간띠잇기대회 관련 실무접촉 제의 談話</p> <p>- 얼마전 '94 남북인간띠잇기대회 남측본부는 올해 인간띠잇기대회를 南과 北이 공동으로 개최할데 대한 제안을 해왔음</p> <p>- 우리는 이 제안이 거래의 통일 의지와 열망을 높이고 민족이 하나임을 과시하며 조국통</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7.31		<p>일을 앞당기려는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간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이번 대회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8.5 오전 10시 판문점 『統一閣』에서 남측 본부 대표들과 마주앉아 공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함.</li> </ul> <p>※ 南側 제의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6 : 남북인간띠잇기대회 발기인대회시 북측에 공동개최 제의</li> <li>- 5.30 : 김동완 KNCC 총무, 강영섭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에게 공동개최 제의 (도쿄)</li> <li>- 6.30 : 남측본부, 공동개최 호응 촉구 (기자회견)</li> </ul> <p>0 『祖國戰線』중앙위 의장 염태준, 남한 당국의 朴普熙 사법처리 방침 규탄 談話</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	<p>0 金泳三 대통령, 拉北 억류자 조속 송환 노력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高相文씨 등 拉北 억류자가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li> <li>- 통일원, 외무부 등 내각은 여러 對北 채널과 우방과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세계여론에 호소해서 이들이 즉각 송환되도록 최선을</li> <li>- 우리가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북한에 송환해준 것과 같은 인도적·인권적 차원에서 남북자 송환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li> </ul> <p>0 남북인간미잇기대회본부, 대회 취소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남북인간미잇기대회를 취소하고 대신 8.15 전국 16개 도시에서 '평화통일기원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li> </ul> <p>0 與野, 拉北인사 조속 송환 촉구 對北聲明</p>	<p>0 조선종교인협의회, 남한 당국의 朴普熙 사법처리 방침 규탄</p> <p>0 金平一, 최근 핀란드 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대사관 대변인 확인</li> </ul>	<p>0 北, 核동결 약속 준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NN방송 平壤發 보도</li> <li>- 북한 관리들은 核동결 약속을 지킬 것임을 밝혔다.</li> <li>- 북한측이 미국과 계속 대화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li> </ul> <p>0 무라야마 日총리, 對北 국교정상화 한국과 긴밀 협의下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특파원 회견</li> <li>- 국교정상화는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韓國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음.</li> <li>- UN이 制裁 결의를 할 경우 평화헌법 범위내에서 UN결의를 존중할 것임.</li> <li>- 경수로 지원은 핵 개발의혹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			<p>0 日, 核彈 제조능력 보유 추진</p> <p>* 마이니치신문, '69년 작성 日외무성 극비문서 폭로</p> <p>- 핵무기 不보유 정책을 견지하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能力은 항상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p>
8. 2	<p>0 金泳三 대통령, 拉北억류자 송환 노력 재강조</p> <p>*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에게 지시</p> <p>- 拉北억류자 송환문제는 인권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p> <p>- 국제사면위원회와 별도로 UN인권위원회·국제적십자사 등 國際機構를 통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p> <p>0 『韓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拉北 고상문씨 송환 협조 書翰</p> <p>0 朴弘 서강대 총장, 北韓 장학금 받은 교수있다고</p>	<p>0 노동신문, 美·北 3단계회담 재개 관련 경수로 지원 강조</p> <p>-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종식시키는 문제를 떠나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p> <p>- 현 시점에서 경수로 도입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됨.</p> <p>- 경수로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그무슨 '전체' 운운하는 것은 朝·美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3단계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p> <p>- 美國을 비롯한 유관국들이 진실로 핵문제 해결에 관심이</p>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제네바 美·北 회담에서 '전반적 타결' 모색 언급</p> <p>* 기자회견</p> <p>-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타결임.</p> <p>- 안보문제뿐 아니라 北韓과의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향해 나가는 폭넓은 현안들, 즉 무역·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계개선문제를 다뤄나갈 태세가 돼 있음.</p> <p>- 전반적인 핵문제의</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2	<p>발언 * 日마이니치신문 회견</p>	<p>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경수로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야 할 것임.</p> <p>0 조선인권연구협회, 국제사면위의 북한 정치범 보고서 발표 관련 비난 聲明</p> <p>- 우리 공화국에는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인권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무슨 수용소라는 것도 없음.</p> <p>- 고상문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에서 더이상 살 수 없어 해외에 나간 기회를 이용하여 공화국의 품에 찾아온 의거자들중의 한 사람임.</p> <p>- 남조선에서 파쇼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을 즉시 철폐하고 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정치범들과 각계인사들을 당장 석방하여야 함.</p> <p>- 김인서·함세환을 무조건 우리 공화국으로 송환하여야 함</p>	<p>타결에는 경수로 지원문제와 특별사찰 문제 등 IAEA가 제기한 우려들의 해결방안이 포함됨</p> <p>0 北韓, '93년 대외무역 2.4% 감소</p> <p>* 일본무역진흥회 (JETRO) 보고서</p> <p>- 北韓의 '93년도 무역규모는 27억 5천만 弗을 기록, 전년에 비해 2.4% 감소</p> <p>· 輸出: 9억8천만 弗 (8.5% 감소)</p> <p>· 輸入: 17억7천만 弗 (1.4% 증가)</p>
8. 3	<p>0 拉北 고상문씨 가족, UN인권고등판무관에 귀환 호소 긴급탄원서 발송</p>	<p>0 美·北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제네바 도착</p> <p>* 단장: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p> <p>0 李仁模, 만경대 및 대성산 혁명열사릉 찾아 '전사의 맹세' 피력</p>	<p>0 美 핵전문가, 對北 경수로 대신 火力 발전소 지원 주장</p> <p>* 길린스키 核규제위원회 前위원, 美WP紙 기고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正日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이 곧 수령님의 유훈을 지키고 빛내는 길이라는 신념과 의지를 간직하고 代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칫거리 국가에 대한 보상은 다른 국가에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li> <li>- 만약 北韓이 전력 공급을 명목으로 구형원자로 교체를 바란다면 석탄을 때는 火力발전소가 훨씬 합리적임.</li> <li>○ 고노 日외상, 非核 입장 불변 강조</li> <li>* '69년도 外무성 核 정책문서 폭로 관련 기자회견</li> <li>- 核보유는 일본에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명백하며, 국민감정을 고려하더라도 核보유란 생각할 수 없음.</li> </ul>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억류자문제 관련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li> <li style="text-align: center;">〈 회의 결과 〉</li> <li>- 高相文씨 등 국제사면위 발표 억류자는 물론, KAL 기, 어선 등을 통해 남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통신, 金正日이 '당·국가 혁명무력의 수위'에 올랐다고 보도</li> <li>- 조선인민들은 金正日을 조선 노동당·국가 및 혁명무력의 首位에 올려놓음으로써 金日成이 제시한 주체의 혁명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이란에 「노동 1호」미사일 판매 합의說</li> <li>* 이집트 알 아흐람 紙 보도</li> <li>○ 홀럼 美군축국장, 북한 核彈 2개이상</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4	<p>된 모든 억류자들의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경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십자사·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의 南北對話시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억류자 送還문제를 제기</li> <li>-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억류자들의 생사확인·서신교환 및 궁극적인 송환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 경주</li> <li>- 북한 억류자 송환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統一院 次官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實務對策班을 구성 운영</li> </ul> <p>○ 統一院,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의 北韓 주민접촉 신청 불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의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8.5 남·북·해외 3者 실무회담」 관련 北韓住民 접촉 신청을 불허</li> </ul>	<p>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수 있게 되었음.</p> <p>○ 北韓, 對北전통문 접수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연락관 2명 교체를 통보하는 對北전통문에 대한 접수를 보류</li> </ul> <p>○ 「朝總聯」중앙상임위, 남한당국의 주사파 단속관련 규탄 聲明</p>	<p>보유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핵무기 1~2개이상 보유했다는 징조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음.</li> <li>-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개발에 우려를 갖고 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5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lt; 공보관 브리핑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 회담 관련, 의제 문제를 비롯, 회담의 진전·교착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음.</li> <li>- 北韓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초점을 두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임.</li> <li>- 현단계에서는 UN인권위, UN인권고등판무관실, 국제적십자사 등 國際機構를 통하여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li> <li>- 南北사이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 대화통로가 열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해 갈 것임.</li> </ul> <p>0 許陞 駐제네바 한국대사,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高相文씨 소재파악 및 귀환 협조 요청</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 3단계 회담 재개 관련 경수로 지원이 관건임을 강조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찰이란 우리의 군사대상을 개방하라는 것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되며,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음</li> <li>- 특별사찰을 주장하는 것은 경수로 등 핵문제 해결의 초점을 다른데로 돌려 회담앞에 난관을 조성하고 회담장을 대결장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임.</li> <li>- 이외의 문제들이 아무리 논의된다고 해도 경수로 문제가 낙착되지 않는다면 핵문제 해결에서 근본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없을 것임.</li> <li>- 경수로 대신 火力발전소 건설 주장은 이번 회담에서 경수로 도입 제안을 무산시키고 회담 자체를 흐지부지 하게 하려는 기도가 깔려 있음.</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이 朝·美 대화에 北南對話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거꾸로된 도식까지 내돌리는 것은 회담에 난관을 조성해 보려는 양탈에 지나지 않음.</li> </ul>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재개 (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갈무치 美 국무차관보, 北核 과거문제 해결입장 불변 언급</li> <li>• 회담후 기자회견</li> <li>- 北韓 핵문제의 해결에는 반드시 과거문제의 해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li> <li>0 솔라즈 前 美하인 亞太소위 위원장, 北核과거 목인 주장</li> <li>• 美 뉴 리퍼블리크誌 최신호 기고문</li> <li>-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은 전세계 핵질서에 심각한 타격이 되지 않음.</li> <li>- 북한의 과거 核환동을 인정하는 협상안은 韓國이나 日本의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나, 결국 협상을 통한 타결방식에 동의할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5		<p>0 中央放送, 平壤이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에 처음으로 평양시 강동군 황대부락 앞산에서 5천년 전에 축조된 옛성을 발굴했음</li> <li>- 단군릉에서 10km 밖에 안되는 강동군 신창군 돌갑무덤에서는 16개재분의 사람뼈가 발굴되었음.</li> <li>- 이러한 성과는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의 시원을 해명하는 면에서나, 단군조선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서 디딤돌로 되며, 平壤이 고대문화의 발상지였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힘있는 자료로 됨.</li> </ul> <p>0 『祖平統』서기국, 공보처의 차림 서강대 총장 논문 배포 관련 비난 報道</p> <p>0 '현대와 자주위업의 진로에 관한' 주체사상 討論會 개최 (8.5~9, 평양)</p> <p>* 참석 : 황장엽, 이지수, 김영걸, 한수길, 김득수</p>	<p>0 美, 북한에 영사급 외교관계 수립 제의 방침</p> <p>* 美 NYT紙, 美고위 관리 인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네바 美·北회담에서 북한이 핵국가로 되는 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영사급 외교관계수립을 제의할 것임.</li> </ul> <p>0 리 일간지, 북한, 국가차원서 마약 밀매 보도</p> <p>* 콤포스카야 프라우다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정보기관은 5월 블라디보스톡에서 北韓人 2명에 의한 헤로인 밀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마약밀매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li> </ul>
8. 6		<p>0 노동신문, 金日成 혁명사상의 무장 강조 (社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黨의 사상이론을 심장깊이 새겨갈 때 우리는 위대한</li> </ul>	<p>0 北, 核彈 3~4개 분량 플루토늄 22~27kg 추출說</p> <p>* 朝鮮日報, 정부 소식통 인용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6		<p>수령님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임</p> <p>-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를 관철하는 것을 우리의 사회주의 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함.</p>	<p>- 북한은 영변 5MW 원자로의 가동을 89년 71일, 90년 30여일, 91년 50여일간 중단했음.</p> <p>- 이를 근거로 할 때 히로시마형 핵폭탄 3~4개 분량, 22~27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됨.</p>
8. 7			<p>0 日외무성, 對북한 非군사지원 검토 * 산케이신문</p> <p>- 美·北회담을 측면 지원하고 북한 독립화를 막기 위해 농업, 비료, 환경·문화교류 등 비군사분야 협력추진을 검토중임.</p> <p>0 北,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회 (IPPNW) 加入 신청 * 기구 관계자 확인</p> <p>- 북한은 수개월전 加入 신청을 했으며 승인여부는 '95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8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흡수통일 기회 오면 실현' 발언 * 통일연수원 특강</p> <p>-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지만 기회가 온다면 실현시킨다는 것이 政府입장임.</p> <p>- 민족적 차원에서 흡수통일의 기회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님</p> <p>0 南北韓 학자들, 컴퓨터 처리 표준화 공동연구 합의 * '94 코리언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 (연변)</p> <p>- 컴퓨터용어, 한글자모 배열순서, 자판배열 등 우리말 컴퓨터 처리상의 남북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비정기 회의를 열어 표준안을 마련키로 합의</p>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흑연감속로 동결에 따른 보상 요구 * 회담후 記者會見</p> <p>-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흑연감속로 凍結이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흑연감속로 체계의 동결에 따르는 보상도 응당 되어야 함.</p> <p>-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5MW 시험원자로에서 꺼낸 연료봉 처리와 관련하여 國際社會가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방도를 내놓았음.</p> <p>0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남북인간띠잇기대회 不許 규탄談話</p> <p>- 남조선 당국자들의 이번 처사를 민족의 통일염원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으로, 우리 종교인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낙인하면서 준렬히 규탄함.</p> <p>- 김○○ 일당이 조의표시를 탄압한데 이어 종교인들의 인간띠잇기대회 마저 가로막음으로써 입버릇처럼 외어대는 화해와 통일이라는 것도 한낱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음.</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계속</p> <p>0 모이세예프 러 외무성 韓半島 과장, 경수로문제 美·러 본격 협의 발언 * 이타르 타스통신</p> <p>- 美·러는 러시아製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음.</p> <p>- 북한이 5MW 원자로를 폐쇄할 경우 이로 인한 전력손실 보상을 위해 러시아가 油類를 제공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중임.</p> <p>0 臺灣, 북한과 구상 무역 및 합작투자 적극 추진 * 홍콩 信報지, 劉泰英 국민당 黨營事業 관리위원장 발언 보도</p> <p>- 국민당은 북한에 농축산품 등을 주고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求償무역을 통해 물물교환할</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8		0 黨·政 간부들, 김일성 사망 한달 즈음 김일성 동상에 화환 진정 (만수대) * 참석 :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최 광 계응대 외	예정이며 合作投資 도 적극 추진중임.
8. 9	0 金泳三 대통령, 統一 대비 재정능력 확충 지시 * 제12회 신경제추진회의  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南北정상회담 개최는 북한의 의사표시 필요 언급 * 국회 외무통일위 보고  - 경수로 지원문제는 북한 核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바탕위에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민족복리의 증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경수로전환 지원문제는 결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반대급부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은 아님.  - 南北정상회담은 북한이 연기의 사유를 해제시키는 필요한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임.	0 中央放送, 金日成 회고록 출판 불허 비난 論評  -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출판했다고 해서 폭압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임  -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 다른 인민들 속에서도 적극 탐독되고 있는 위인의 전기를 동족인 남조선 인민들이 애독하는 것이 어떻게 탄압의 대상으로 될 수 있겠는가.  - 예의와 도덕도 모르는 악한으로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 김○○ 일당은 또다시 회고록 출판을 탄압함으로써 최악에 최악을 덧쌓고 있음.  0 金正日, 남한·해외 인사들의 김일성 弔電에 대한 답전 발송 * 수신 : 안호상, 신창균, 유원호 박용길, 이창복, 문선명, 임창용 이승만, 윤이상, 손달원	0 마이애스 美 백악관 대변인, 美·北회담에 難題가 많다고 언급  - 회담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복잡한 問題들을 갖고 있음.  0 IAEA, 북한 흑연감속로 동결로 核위험 감소 평가 * IAEA 소식통  - 북한의 흑연감속로 동결조치는 北韓의 핵폭탄 제조위험을 줄일 것임.  0 美WSJ紙, 카터 訪北 레이니 駐韓美대사가 요청 보도  - 레이니 대사는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 무력충돌 위험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9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휴전이후 拉北者 438名 명단 공개</p> <p>* 국회 외무통일위 제출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p> <p>- 休戰이후 해상이나 항공기를 통해 北韓에 납치된 한국인은 4백 38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를 제외하고 현재 억류되고 있는 인원은 모두 4백 29명임.</p> <p>0 국회 외무통일위, 拉北인사 송환 촉구 決議文 채택</p> <p>* 「북한 억류인사의 송환과 인권개선에 대한 국회외무통일위 입장」</p> <p>-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高相文씨등 납북인사들이 당장 송환되고 가족과 재상봉돼야 함.</p> <p>- 北韓은 이산가족재회와 억류자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위해 南北이 채택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실천하여야 함.</p>		<p>이 고조되자 카터 前 美대통령에게 빨리 平壤을 방문 해주도록 요청했음</p> <p>0 러 일간지, 北韓 별 목공 우라늄 채취 보도</p> <p>* 모스콥스키에 콤소몰레츠紙</p> <p>- 70년대에 문을 닫은 우라늄폐광에서 방사능측정기를 휴대하고 드나드는 것이 목격됐으며 우라늄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p>
8. 10		<p>0 北韓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 송환 촉구 記者會見</p> <p>- 조상전례의 예의풍습과 인문</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계속</p> <p>* 전문가회의 별도 개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0		<p>도덕마저 무시하고 弔意도 표시하지 않는 자들이 감히 인권을 떠들면서 의거자들에게 모독적인 언동을 일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응당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은 억류해 두면서 의거 입북자들을 그에 대치시키려 하는 것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가로막기 위한 모략술책이며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임.</p> <p>- 숭고한 적십자인도주의 사명에 맞게 그들을 공화국 북반부로 무조건 즉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p> <p>0 平壤放送, 남북억류자 高相文氏 기자대담 보도 * '지리학 연구사'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p> <p>- 入北해서 어버이 수령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고 있음. 15년동안 아무 불편없이 어버이 수령님 밑에서 생활해왔음</p>	<p>0 美 국무부, 한국 국가보안법 개폐 희망 * 對 언론 답변 자료</p> <p>- 美 정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한국의 國家保安法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바 있음.</p> <p>-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음.</p> <p>0 야마시타 駐韓 日本 대사, 북한 核의혹 해소전 日·北 수교협상 가능 언급 * 駐日 한국특파원 회견</p> <p>- 核의혹 해소가 양국간 수교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님.</p>
8.10		<p>- 79년 内外 기자회견에서 명백히 밝혔지만 남쪽 당국자들의 박해때문에 공화국 북반부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온 의거 입북자임.</p>	<p>- 日本은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통해 핵의혹 해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0		<p>0 노동당 대표단, 金日成 사후 처음으로 中國(遼寧省) 방문 * 단장 : 국제부 중국담당 류용 문</p> <p>0 金正日, 60여개국 국가수반들에게 김일성 弔電에 대한 答電 발송</p>	<p>0 美정보기관, 金正日 체제 정착에 5년 소요 전망 * 日교도통신 보도</p> <p>- 美 CIA와 국방정보국(DIA)은 94.1 김 정일이 金日成사후 정권을 잡더라도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를 개혁하는데 5년이 필요하며, 이 기간동안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p>
8.11	<p>0 외무부 대변인, 美국무부의 국가보안법 개폐 언급 관련 유감 論評</p> <p>- 현재의 남북분단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법의 존재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국내문제임.</p>	<p>0 「汎民聯」북측본부 대변인, 범민족대회 관련 북측대표단 서울 파견 및 平壤 행사 일정 발표</p> <p>- 5.26 제2차 汎民聯 공동의장 단회의 합의에 따라 8.14 판문점을 통하여 10명의 대표들을 서울에 파견하며, 이보다 하루앞서 5명의 대표들을 도쿄에 보내게 됨.</p> <p>0 전국 사료청 일꾼들, 김정일에 충성맹세 모임 (만수대 김일성 동상앞)</p>	<p>0 美상원, 對北 재정 지원금지案 재통과</p> <p>- 북한의 핵무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對북한 재정지원금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세출법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p> <p>-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는 단서 첨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1		<p>0 손원태 80돌 생일 축하연회 (목란관) * 참석 : 이종옥, 양형섭, 장 철 박남기, 류미영, 강석승, 여연구</p>	<p>0 中 『현대병기』誌, 북한 노동 1호 미사일 核·化學 무기 적재 가능 보도</p> <p>- 노동 1호는 소련製 스킵드 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높고, 유사시 TNT 5만t에 해당하는 核彈이나 VX신경독가스탄을 적재할 능력을 갖고 있음.</p>
8.12	<p>0 姜英勳 韓赤 총재, 남북적십자사 총재 또는 부총재 接觸 제의 * 적십자회담 제의 23주년 즈음 聲明</p> <p>- 남북의 적십자인들은 하루속히 모여앉아 지금까지 이룩한 合意事項을 재확인하고 사업이 실천을 도모해 나가야 함.</p> <p>- 중단된 南北적십자회담은 조속히 재개되어 서로 편지를 교환하고 상봉하며 자유왕래할 수 있는 인도의 가교를 놓아야 함.</p> <p>- 남북이산가족들의 교환방문단 교환도 다시 이어져야 하며, 합의한 남북이</p>	<p>0 『祖平統』, 李洪九 통일원장관의 흡수통일 관련 발언 비난 聲明</p> <p>- 통일업무를 주관하는 통일원 장관이라는 자가 이른바 政府 입장으로 감히 흡수통일 운운한 사실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음.</p> <p>- 문민을 표방하는 김○○ 일당이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표방해 나선 것은 北南사이에 대결을 선포하고 北南최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무효화한 계획적인 행위로 된다고 인정하고 단호히 규탄함</p> <p>- 남조선 통치배들이 이미 한달 전에 벌써 정상회담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며 김○○</p>	<p>0 美·北 3단계고위급회담 1차회담 종료 (제네바)</p> <p>0 페리 美국방장관, 北核 과거와 현재·미래 核투명성 보장 분리 접근 언급 * 美CNN-TV 회견</p> <p>- 미국 정부의 北核 정책은 먼저 북한의 핵계획을 동결시킨 후 과거에 대한 원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임.</p> <p>0 日 방위문제보고서, 북한과 군사대화 추진 언급 * 총리자문 '방위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2	<p>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은 지체없이 교환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사와 소재가 밝혀져야 하며 이제라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li> <li>- 사급히 해결해야 할 이같은 과제를 협의해 나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쌍방의 總裁 또는 副總裁가 아무런 조건없이 회동할 것을 제의함.</li> <li>- 회동이 板門店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지기를 희망하며 북한측의 조속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함</li> </ul> <p>○ 韓昇洲 외무부장관, 美國 무부의 보안법 개폐 언급 관련 레이니 駐韓美대사 불러 遺憾 표명</p>	<p>까지 나서서 회담을 서울에서 먼저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한 것도 北南최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쌍방 합의사항을 백지화하고 흡수통일 야욕을 보여준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〇 〇 일당이 감히 흡수통일 야망을 꿈꾸며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해 나선이상 그에 상응한 措置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임.</li> </ul> <p>○ 외교부 대변인, 핵보유국들의 핵정책 수정 촉구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 소유국들은 비핵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핵불사용 담보를 하며 핵무기 선제불사용 및 핵무기 사용의 완전금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한시바삐 나서야 함.</li> <li>-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무기 축감과 전면적 핵시험금지조약 체결, NPT 효력연장 등은 핵무기 완전철폐로 지향되어야 함.</li> <li>- 朝·美회담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함.</li> </ul>	<p>제 간담회·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장래 북한과도 군사부문 대화를 추진하고 UN 평화유지군(PKF) 참가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제질서형성에 기여해야함</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3	<p>0 외무부 대변인, 美·北 합의성명 발표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합의발표문이 핵 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해 상호 지향해야할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함.</li> <li>- 북한이 NPT에 잔류,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한 것이 북한 핵활동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核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로 판단함.</li> </ul> <p>0 韓·美 외무장관, 美·北 3단계회담 결과 관련 전화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核의 투명성 확보가 美·北 합의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긴밀 협조 다짐</li> </ul> <p>0 북한 주민 이철수氏 일가족 3명 귀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포시 객화차대 물자조달원</li> </ul>	<p>0 美·北韓, 3단계 고위급회담 1차회담후 「합의성명」 발표 (제네바)</p> <p>&lt; 朝·美 합의성명(8.12字)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은 '93.6.11 朝·美 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다음 사항들이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음.</li> </ul> <p>1. 조선은 흑연감속로들과 연관 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is prepared to) 美國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으로 2백만 KW(2,000M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에 제공하며 그동안 조선에 흑연감속로들을 대신할 대용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음.</p> <p>조선은 경수로와 대용에너르기 제공조치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받는 차제로 5만KW, 20만KW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의 건설을 동결하고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방사화 핵실험소를 봉인하고 IAEA의 감시하에 두기로 하였음.</p> <p>2. 朝·美는 정치, 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p>	<p>0 갈투치 美국무차관보, 北 특별사찰 수용 원칙 합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성명 발표후 記者會見</li> <li>- 북한측이 이번 발표를 통해 特別査察이라는 개념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였음.</li> <li>- 북한이 특별사찰에 동의할 때까지는 경수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임.</li> </ul> <p>0 키드 IAEA 대변인, 美·北합의 긍정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이룬 합의를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음.</li> <li>-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NPT를 존중키로 약속했다는 점임.</li> </ul> <p>0 데라다 日 외무성 대변인, 美·北합의</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p>로서 각기 상대방의 수도들에 외교대표부들(diplomatic representation)을 설치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하였음.</p> <p>3.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전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美國은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朝鮮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할 일관한 용의를 표명하였음.</p> <p>4. 조선은 NPT의 성원국으로 남아있으며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용의를 표명하였음.</p> <p>- 이번 회담에 제기된 문제들 가운데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음</p> <p>- 쌍방은 조선의 흑연감속원자로계획을 경수로기술로 교체하는 사업과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처분, 대용에네르기의 보장,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급 協商들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였음.</p> <p>- 이에 따라 전문가급 협상들이</p>	<p>관련 論評</p> <p>- 북한이 이번 공동성명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 남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核무기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바람.</p> <p>0 中 외교부 대변인, 美·北합의 환영 論評</p> <p>- 중국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함.</p> <p>0 佛르몽드紙, 美·北합의 관련 핵문제 해결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p> <p>- 북한은 단 하나의 카드로 외교적 승인과 경제적 지원을 얻은 반면 미국은 폐연료봉을 외국의 관할하에 두는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재정부담을 지게 됨.</p> <p>0 카라신 러 외무부 대변인, 美·北합의</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3		<p>조선과 미국 혹은 합의되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朝·美는 회담을 휴회하고 94.9.23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li> <li>- 그때까지 美國은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서 조선에 경수로 제공 담보를 주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朝鮮은 외교부 강석주 제1부 부장과 美國무성 갈무치 차관보사이에 94.6.20, 6.22 교환된 메시지들에서 합의된 核활동의 동결과 담보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됨.</li> </ul>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美·北 합의성명 채택 관련 記者會見 (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비정상관계에 있는 우리와 美國이 도달해야 할 최종 종착점들을 확고히 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이룩한 것임.</li> <li>- 경수로발전소 제공과 보상문제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그 이행의 필수적인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朝·美사이에 관계정상화 조치들이 뒤따르게 됨.</li> </ul>	<p>환영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 협상의 타결로 복잡한 한반도 교착상태에 중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음.</li> <li>- 러시아는 이 타결의 지지자로 남아 있을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이 명백하고 확고한 경수로 제공을 담보하고 우리가 경수로를 받을 때까지 흑연로 동결에 대한 실천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는데 따라 우리도 동결조치를 段階的으로 취해 나가자는 것임.</li> <li>- 미국이 책임지고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데 대해 우리와 합의하였으며, 美國이 경수로 제공문제를 어떤 나라들과 토의하여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임</li> <li>- 우리는 특별사찰에 대해 인정해본적도 없고 절대로 접수할 수 없음. 核활동의 투명성 보장문제는 IAEA의 불공정성이 완전히 해소되는가 안되는가에 전적으로 좌우됨.</li> <li>- 폐연료봉 처리문제는 실무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며 이번 협상에서 합의본 것은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장기건식보관하는 조건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임.</li> <li>- 외교대표부 설치에서 연락사무소를 하겠는가 연락대표부로 하겠는가 하는 것과 그 시기문제는 실무급협상에서 토의하기로 하였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NPT에 언제부터 복귀 하는가 하는 것은 IAEA의 불공정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朝·美관계가 정상화된 때에 가서 결정될 것임.</li> <li>○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북한 정책노선 불변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 포스트紙, 로이터 통신, 요미우리신문, NHK 방송 등과 記者會見 (제네바)</li> </ul> </li> <li>- 金正日是 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 사업을 영도해 왔으며 앞으로 그 어떤 變化도 절대로 있을 수 없음.</li> <li>- 金日成이 밝힌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3대원칙에 기초하여 聯邦制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함.</li> <li>- 特別査察이란 말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며 경수로 제공과 절대로 연관될 수 없음.</li> <li>- 경수로 제공과 관계정상화로 朝·美사이에 신뢰가 보장되고 IAEA의 불공정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IAEA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核무명성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함.</li> </ul>	

■ 8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朝·日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핵문제, 일본인 문제 등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철회하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朝·日국교정상화 회담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함.</li> </ul>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과거 核의혹 규명이 경수로지원 전제라고 강조</li> <li>• 기자회견</li> <li>-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特別査察 등 북한핵 과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전제될 때만 가능함.</li> <li>- 회담 합의문에 북한이 핵 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특별사찰을 받게 된다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아사히신문, 김정일 개방정책 추진 표명 보도</li> <li>- 金正日是 7.20 재 미교포 문명자氏와 회담을 갖고 북한 경제재건을 위해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li> </ul>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泳三 대통령,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천명</li> <li>• 광복절 49주년 慶祝辭</li> <li>-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중심의 自由民主主義가 바탕이 되어야 함.</li> <li>-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 (2.8 문화회관)</li> <li>• 참석 : 박성철, 양형섭, 김용순 장 철, 유미영, 백남준, 이인모</li> <li>• 공동결의문,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美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등 채택</li> <li>&lt; 汎民聯 북측 의장 백인준 대회보고 요지 &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美·北합의는 사실상 특별사찰 포함 발언</li> <li>- 북한이 핵안전협정 준수를 약속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特別査察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li> <li>- 다만 특별사찰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5	<p>이루어 나가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은 통일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임.</li> <li>- 통일의 길은 민주와 번영의 길이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개개인의 자유와 福祉와 人間尊嚴性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함.</li> <li>-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li> <li>- 이것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民族發展 共同計劃'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임.</li> <li>-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통일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한 김 00 일당은 對話와 統一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음.</li> <li>- 金正日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그를 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르며 통일대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불패의 힘이 있는 한 90年代 統一은 화정적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共同決議文 요약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세의 개입과 간섭에 반대하며 民族自主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li> <li>2.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汎民聯을 중심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대단결운동을 줄기차게 벌어나갈 것임.</li> <li>3. 먹고 먹히우는 통일을 반대하며 聯邦制 통일방안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li> <li>4. 북남 당국이 北南合意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國家保安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의 석</li> </ol>	<p>나는 것은 앞으로 계속협의할 문제임</p> <p>0 데이비스 美·北 신속합의는 일괄타결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PBS-TV 회견</li> <li>- 美·北 회담에서 신속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양측이 핵문제의 일괄타결에 동의했기 때문임.</li> <li>- 미국은 폐연료봉을 북한밖으로 반출하는데 북한이 동의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폐연료봉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의했음.</li> </ul> <p>0 사이토 日외무차관, 北核 과거 의혹 해소면 경수로 지원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北韓의 과거 핵의혹이 완전히 해명되면 경수로 지원</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5	<p>○ 韓昇洲 외무부장관, 美·北 합의 이행과정에 南北對話 재개 전망</p> <p>* 기자회견</p> <p>- 美·北 합의의 성격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한국형 경수로 이외에 대안이 나오기 어려움.</p> <p>- 경수로 제공이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대체에너지의 제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南北對話의 재개가 불가피함.</p>	<p>방을 위해 노력할 것임.</p> <p>5. 최근 日本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동포와 동포단체들에 대한 비이성적 행위들의 저지와 핵무장화 등 日本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임.</p> <p>※ 범민족대회 관련 動向 종합</p> <p>- 8.13 : 90년대 통일실천 결의 행진 및 집회(만수대)</p> <p>- 8.14 : 조국통일대토론회 (인민문화궁전)</p> <p>" 90년대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 연단 (모란봉 청년공원)</p> <p>" 「범민련」 북측대표단, 판문점 통과 불허 규탄 聲明 (판문점)</p> <p>" 제4차 북남·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개막식 (도교)</p> <p>- 8.15 : 제5차 범민족대회</p> <p>" 「범청학련」 북측본부 중앙위 확대회의 (2.8문화회관)</p> <p>* 의장단·중앙위원 구성 및 공동투쟁 결의문 채택</p> <p>" 「범청학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 남측대</p>	<p>에 응할 용의가 있음.</p> <p>○ 홍콩 「當代」지, 김영삼 대통령 訪中 시 北韓 암살기도說 보도</p> <p>* 張植榮 북경大 강사 기고문</p> <p>- 北韓은 지난 3월 김대통령 북경방문 시 3명의 특수요원을 파견, 암살을 기도했으나 중국 정보기관에 사전 적발돼 미수에 그쳤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15		<p>표의 판문점 통과 불허 규탄 연합성명 (판문점) " 통일문화의 밤(옥류관)</p> <p>○ 노동신문, 姜英勳 韓赤 총재의 회담 제의 거부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당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문제들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왕래니 방문단 교환이니 회담재개니 하는 것은 여론에 대한 우통임.</li> <li>- 이른바 拉北者문제란 남조선 사회제도에 환멸을 느끼고 공화국 북반부에 의거 입북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임.</li> <li>- 남조선 적십자사가 당장 관심하고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 문제, 인권문제는 남조선안에 있음.</li> <li>- 파쇼당국의 시녀 나팔수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國家保安法 폐지를 주장해야 하며 김인서·함세환의 송환문제를 해결해야함.</li> </ul> <p>○ 黨·政간부들, '조국해방' 49돌 즈음 만수대 김일성 동상에 화환 진정</p> <p>* 참석 : 이종옥, 김영남, 최 광홍성남, 양형섭, 김봉철 外</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6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정상 회담 北 제의뎌 수용 언급 * 민자당 의원 초청 만찬 만찬</p> <p>- 북한측에서 제의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임. 아마도 북한측에서 먼저 제의할 것으로 보임.</p> <p>- 우리는 북한 核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겠음.</p> <p>0 李榮德 국무총리, 범정부적 통일교육 실시 지시 * 국무회의</p> <p>-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통일교육이 시급함.</p> <p>- 각 부처는 필요한 기구를 구성,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전반에서 적극 활용토록 추진함.</p>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노르웨이에 拉北 고상문씨 송환 협조 요청 * 외무장관회담</p> <p>- 북한에 억류중인 高相文씨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p>	<p>0 「韓民戰」 중앙위, 남한 핵개발 주장 '공개질의서' 발표</p> <p>0 이인모, 범민족대회 참가 해외 동포들과 상봉 (고려호텔)</p>	<p>0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김정일체제가 동 언급 * 가토 日 자민당 政調회장과 회담</p> <p>- 美·北 회담의 합의를 통해 판단할 때 北韓의 새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확실함.</p> <p>0 日 아사히신문, 金日成 묘향산에서 심장발작으로 사망 보도 * 在美언론인 문명자氏 발언 인용</p> <p>- 金日成은 7.7 묘향산근처 농장을 현지시찰한 후 묘향산으로 돌아와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사망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6	<p>중립이 보장되는 제3국으로 데려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p> <p>0 北韓 벌목공 8명, 제3국 통해 귀순</p> <p>* 임만규, 한창권, 최학진, 김순구, 이상윤, 전명수, 이철수, 김창호</p>		
8.17	<p>0 韓·美 정상, 美·北3단계 회담 결과 관련 전화협의</p> <p>&lt; 朱煥植 청와대 대변인 발표 요지 &gt;</p> <p>- 특별사찰 등이 이루어져 북한 핵의 과거 투명성이 보장돼야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의견 일치될 보았음.</p> <p>- 北核 협상과정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토록 설득키로 했음.</p> <p>- 金正日 체제가 불안정 상태인 만큼 핵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데 의견 일치될 보았음.</p>	<p>0 외교부 대변인, 美 국무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 관련 記者會見</p> <p>- 美 국무성이 남조선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국제여론에 합류한 것이라고 생각함.</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분단상황 때문에 國家保安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北南사이의 대결을 격화시켜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은 것임.</p> <p>- 국제사회계는 인권이 유린 말살되고 있는 南朝鮮의 현사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국가보안법이 하루속히 철폐되</p>	<p>0 매커리 美 국무부 대변인, 전문가회담 9.4 재개 언급</p> <p>- 美·北 전문가회의가 9.4 재개될 예정이나 북한의 핵동결은 경수로 제공여부에 좌우될 것임.</p> <p>- 미국은 對北 경수로 지원과 관련, 北韓에 제시할 방안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韓國 등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할 것임.</p> <p>0 日, 북한 경수로 지원 G7에 요청 방침</p> <p>* 마이니치신문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7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경수로 비용 美·日도 분담해야 한다고 언급 * 기자간담회</p> <p>- 미국이 NPT체제 유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왔고 日本도 국제평화와 지역발전 기여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경수로 건설에 상응한 몫을 분담해야 할 것임.</p> <p>- 南北頂上會談 연기는 북한측 유고 때문이며, 북한측이 먼저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음.</p> <p>0 통일원차관 주재 북한역류자 실무대책회의 개최 * 高相文씨 등 남북자 귀환 대책 논의</p> <p>0 朴健雨 외무부차관, 對北 경수로 무상지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 국회 외무통일위 간담회</p> <p>- 40억弗에 이르는 비용 부담은 컨소시엄 구성, 방위비 분담금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무상제공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p>	<p>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0 拉北者 7명, 의거 入北 주장 내외신 記者會見 (고려호텔) * 유성근, 최성만, 이장수, 김영규, 양영식, 김태식, 김재수 참가</p> <p>- 의거자들은 한결같이 남조선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확고히 담보되어 있는 공화국의 품을 찾아 제발로 들어왔다고 말했다.</p> <p>0 職總·農勤盟·女盟 일꾼들, 김정일에 충성 맹세 모임. (만수대 김일성동상 앞)</p>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美·北 회담 참가후 平壤 귀환</p>	<p>- 日정부는 수십억弗에 이르는 북한 경수로 전환 지원문제와 관련, 자금지원 부담을 덜기 위해 선진 7개국(G7)에 의한 협조지원을 제안할 방침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8	<p>0 金泳三 대통령, 한국형 경수로 채택 강조 * 민자당 黨務회의</p> <p>- 경수로 건설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인만큼 절대 한국형이어야 함.</p> <p>- 韓國 기술진이 가고 한국의 자본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음.</p> <p>- 남북간 체제경쟁은 끝났으며 언제 갑자기 통일이 닥쳐올지 모름. 黨과 政府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p>	<p>0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 경축사 비난 論評</p> <p>- 동족이 사는 북에 대해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며 감히 남을 넘겨다보는 흥심까지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總評할 수 있음.</p> <p>- 통일문제, 남북관계문제에 역점을 두었다지만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p> <p>- 점진이요 단계요 하며 통일을 늦잡은 것 자체가 거래의 통일지향에 대한 도전임.</p> <p>- 통일은 自由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떠들은 것은 남조선에 세워진 식민지예속체제, 파쇼독재체제를 北에까지 옮겨놓겠다는 것임.</p> <p>- 핵무명성이요 뭐요 함으로써 3단계 朝·美회담 성과를 희석시키며 朝·美관계에 제동을 걸어보려 하였음.</p> <p>0 「汎民聯」북측본부 중앙위, 범민족대회 관련 對南 비난 聲明</p> <p>- 서울 범민족대회에 대한 남조선 파쇼강들의 야만적인 탄압</p>	<p>0 매커리 美國무부 대변인, 核물질 밀수 북한 관련설 부인</p> <p>- 북한인이 러시아로부터 核물질을 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바 없음.</p> <p>0 리 핵산업관리, 러시아, 10년전부터 北경수로 건설 준비 발인</p> <p>* 핵발전소 운영 컨소시엄 대변인</p> <p>- 러시아 核전문가들이 이미 10년전에 北韓에 대한 VVER型 경수로 2기의 건설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상지 확인까지 마쳤으나 재원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임.</p> <p>0 홍콩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 北韓, 백화원초대소를 카터초대소로 改名 보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8		<p>은 이른바 文民을 떠벌이는 김 00 일당의 파쇼적 정체와 반민족성을 고발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p> <p>- 김 00 일당은 지체없이 타도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함.</p> <p>0 中央放送, 인민학교 학생의 金正日 건강기원 편지 선전</p>	
8.19		<p>0 평양방송, 金泳三 대통령 방중 시 암살기도설은 安企部 모략극이라고 주장 (論評)</p> <p>- 安企部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모략설을 베이징대학 현직장사라는 사람의 입으로 기고문을 내게하고는 그 내용을 인용 보도하는 식으로 오그랑수를 썼음.</p> <p>- 우리에게 테러와 암살같은 것이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음.</p> <p>- 피로써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공고화되어 온 朝·中친선이 모략때문에 금이 가거나 훼손될 수 없음.</p> <p>0 『汎靑學聯』 북측본부 중앙위, 범민족대회 관련 對南 비난 聲明</p>	<p>0 美, 對북한 첨단기술제품 수출 규제 「수출관리법」 무기 연장</p> <p>* 8.26 駐美한국대사관 발표</p> <p>- 클린턴 美대통령은 北韓을 포함한 특정국가에 대해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輸出管理法(EAA)의 적용을 무기 연장하는 행정명령 발령</p> <p>0 美 동북아전문가들, 10년내 韓國 주도 흡수통일 전망</p> <p>* 權泰榮 국방연구원 박사, '94. 4~5월 美 전문가 52명 대상 여론조사</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19		<p>0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 염경식, 金正日 호칭 '위대한 지도자' 로 바뀌었다고 발언 * 記者會見</p> <p>0 北韓, 對外무역정책 전환 추진 * 북한 주체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정기,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조선의 새로운 발전전략' (중국 심양)</p> <p>- 지금까지 대외무역을 국가무역기구가 전담했던 것에서 탈피, 모든 생산부문들이 독자적인 무역기구를 갖게 함.</p> <p>- 합영·합작형태의 기업과 은행을 설립하고 자유무역지대, 자유항 등 특별지구를 설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을 촉진시킴.</p>	<p>- 통일시기에 대해 응답자중 66%가 10년 이내, 32%가 20년 이내로 전망</p> <p>- 통일方式에 대해서는 68%가 韓國주도 흡수통일로, 28%가 상호합의에 의한 점진적 방식 통일 전망</p>
8.20	<p>0 李築德 국무총리, 경수로 지원으로 통일기초 마련 언급 * 원자력연구소 순시</p> <p>- 앞으로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대해 技術支援까지 하게되면 통일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p>	<p>0 외교부 대변인, 特別査察 전체 경수로 도입 절대불가 주장 * 記者會見</p> <p>- 우리는 결코 경수로나 받겠다고 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수 없음.</p> <p>- 경수로를 제공받으려면 특별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일본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주장에는 결국 조미 합의성명 자체를 뒤집</p>	<p>0 日, 對北경수로 지원 多國籍기구 검토 * 니혼게이자이 신문</p> <p>- 北韓의 경수로지원에 따른 자금각출을 위해 한·미·일3국을 비롯, 유럽 호주 등과 多國籍機構를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0		<p>어 없고 또다시 조미사이의 대결을 고취해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p> <p>- 우리가 인정해 본적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른바 특별사찰이라는 것을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계속 복잡성을 조성하려 한다면 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임. 우리는 그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음.</p> <p>0 당 중앙위원 최만현 (前금속공업부장) 사망</p>	
8.21		<p>0 中央放送, 야심가·음모가들의 배신행위 경고 (論說)</p> <p>- 역사적 경험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할 후계자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야심가 음모가들의 배신행위로 해서 당과 혁명이 농락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p> <p>- 수령의 후계자 문제는 후계자를 옳게 내세우는 것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그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워야만 해결됨</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2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간 우편·통신교류 촉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국우편연합(UPU) 제21차 총회 개막식 치사</li> <li>- 남북간 우편·통신교류를 촉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람.</li> </ul>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특별사찰' 용어 고집않겠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북한이 실질적으로 특별사찰에 준하는 과거核 투명성 보장을 해준다면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li> <li>- 특별사찰이라는 용어를 고집함으로써 北韓이 거부하는 압박을 주는 것은 실질적인 사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없음</li> </ul> <p>0 '94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 실시(8.22~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美연합군 도상지휘소 연습으로 2주간 실시</li> </ul> <p>0 北韓 별목공 한철길氏 귀순</p>	<p>0 中央放送,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들은 단순한 지휘소훈련이 아니라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매우 위험천만한 試驗戰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li> <li>- 김○○도당이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높아가는 통일열망을 짓눌러놓고 좋게 발전하는 核問題 해결의 길을 가로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li> <li>- 괴뢰들이 인민들의 평화통일 염원에 도전해서 전쟁소동을 벌이는 것은 제 손으로 재 죽을 구덩이를 파는 것이나 다름없음.</li> </ul> <p>0 北韓, 일본 관광객 入北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단 15개월만에 재개되어 관광객 32명이 北京을 거쳐 평양으로 출발</li> </ul>	<p>0 中, 對北 곡물수출 격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駐中 한국대사관, 중국 海關總署 통계 인용 발표</li> <li>- '94.1~5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곡물규모는 744만 3천弗로 지난해 동기기간의 6천 81만弗보다 87.8% 감소</li> </ul> <p>0 러, 北 탈출 別목공 신원 확인면 한국 귀순 허용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정부는 탈출 別목공의 신원이 확인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한국 귀순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 23	<p>0 金泳三 대통령, 통일대비 전문인력양성 지원 지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년도 예산편성방향 보고</li> </ul> <p>-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관한 전문인력養成을 위해 최대한 支援할 것을 지시</p>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특별 사찰 관철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 집견</li> </ul> <p>-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特別査察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p> <p>-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긴요하며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로써 북한核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임.</p> <p>0 金泳三 대통령, 「김정일 타도」傳單살포설 관련 신 중대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자당 초·재선의원 초청만찬</li> </ul> <p>- 北韓내 여러가지 상당히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음.</p>	<p>0 平壤 외교단지내 김정일 타도 傳單 살포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서방 외교소식통</li> </ul> <p>- 8.19 밤부터 20일 새벽사이 平壤 외교단지를 중심으로 金正日 타도·내용의 전단지 대량 살포되었음.</p>	<p>0 美 국무부, 평양 외교가의 김정일 타도 傳單 살포설 관련 論評</p> <p>- 현단계에서 우리는 金正日이 평양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음.</p> <p>0 獨 외무부 대변인, 平壤외교가 傳單 살포 確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니혼게이지아 신문 보도</li> </ul> <p>- 平壤 외교주택가에서 傳單이 발견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불분명함.</p> <p>0 日, 9월중 對北수교 예비회담 제의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신문, 日 협상 담당자 발언 인용 보도</li> </ul> <p>- 美·北 3단계회담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日·北수교교섭이 재개될 것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럴때일수록 국민모두가 어떠한 사태에도 對備할 수 있도록 愼重하고 마음이 깨어있어야 할 것임.</li> <li>- 특히 외국공관단지에 전단을 살포한 것은 치밀한 효과를 노리고 한 계획된 행동이며 北韓내 상당한 계층내에 있는 인물들의 행동으로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本은 교섭재개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9월중 북한에 제의할 예정임.</li> <li>○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 외무차관, 北 경수로 교체시 支援용의 언급</li> <li>- 北韓의 경수로 교환에 관한 국제적 재정지원책이 마련될 경우 러시아는 경수로교체를 위한 계획에 參與할 준비가 되어 있음.</li> <li>○ 러 외무부 대변인, 北 벌목공 처리문제 관련 새로운 林業協定 체결예정 언급</li> <li>- 러시아는 벌목공문제와 관련한 완전히 새로운 협정을 北側과 조만간 체결할 계획임.</li> <li>- 새 임업협정에는 러시아기준에 맞는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될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4	<p>0 政府, 북한 탈출 北韓국적자 사안별 구제방침.</p> <p>* 在外國民 정책심의위원회 개최</p> <p>- 인도적·민족화합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결정</p> <p>- 불법체류 北韓국적자의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귀순동포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관련법을 제정키로 결정</p>	<p>0 외교부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訓練 비난 談話</p> <p>-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를 공격목표로 정하고 진행되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규모 지휘훈련으로서 核시험 예비전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전쟁연습임.</p> <p>- 美 군부 보수세력이 남조선 파쇼일당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은 朝·美 합의정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지 않는 적대행위이며 北南對話를 전면 부정하는 군사적 대결소동임.</p> <p>-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도발적인 군사연습과 같은 모든 적대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함.</p> <p>0 노동신문, 北 현상황 '매우 어려운 시기' 라고 언급 (正論)</p> <p>0 「韓民戰」창립 45돌기념 평양시 보고회 (청년문화회관)</p> <p>* 참석 : 이종옥, 최태복, 류미영, 염태준, 백남준</p>	<p>0 錢其琛 中외교부장, 북한 權力承繼 지연 異例적인 것으로 평가</p> <p>* 미쓰즈카 前일본 외상 면담시</p> <p>- 北韓에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임.</p> <p>- 中國 政府도 아직 북한 정부로 부터 아무런 情報를 입수하지 못했음.</p> <p>0 北, 동아시아경기대회 平壤 개최 반납 통보</p> <p>* 日교도통신 보도</p> <p>- '95.9 평양 개최 예정인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의 반납을 관계국 올림픽위원회에 통보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5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lt; 공보관 브리핑 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이 과거·현재·미래의 핵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南北關係진전이나 美·北關係 개선에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방침임.</li> <li>· 이를 위해서는 特別查察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IAEA와 정부의 입장임.</li> <li>· 北韓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앞으로 경수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韓·美 頂上간에 合意된 사항임.</li> <li>- 南北사이에 의미있는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경수로 지원을 포함한 제반 문제해결의 필요조건임을 확인하였음.</li> <li>- 북한의 權力承繼를 둘러싼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계속 慎重히 對處해 나갈 것임</li> </ul>	<p>0 平壤放送,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 우편·통신교류 촉진 표명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과 南이 우편, 통신교류를 하자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li> </ul> <p>0 駐러 북한대사 손성필, 특별사찰 거부입장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러 친선 및 문화협조협회 연설</li> <li>- 우리가 경수로나 열자고 해서 우리의 군사대상을 공개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음.</li> </ul> <p>0 조선기자동맹, 남한 당국의 主思派 단속 비난 聲明</p>	<p>0 美·北韓 실무접촉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회담 일정 협의</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5	<p>0 金泳三 대통령, '갑작스런 통일에 만반의 대비' 지시</p> <p>* 을지훈련 종합상황실 순시</p> <p>- 김일성 사후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문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가 있음.</p> <p>- 통일은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음.</p> <p>- 통일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착실히 해야함.</p> <p>0 朴弘 서강대총장, 主思派 1萬 5千名 각계진출 발언</p> <p>* 여의도클럽 토론회</p> <p>- '87년이후 사회로 배출된 주사파의 숫자는 약 1만 5천명선임.</p>		
8.26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金正日 체제 안정 남북관계에 도움 언급</p> <p>* 관훈클럽 토론회</p> <p>- 남북간 체제경쟁은 북한에 △大勢의 불리 △국력의 불균형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3不현상을 가져다 주었음.</p>	<p>0 平壤放送, 평양 외교가 김정일 타도 진단 살포설 부인</p> <p>- 평양 외교가에 살포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안기부가 직접 만들어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벌이는 모략책동임.</p> <p>0 재북평화통일촉진회·조선종교인협의회, 신공안정국 조성 규탄 聲明 발표</p>	<p>0 이가라시 日 관방장관, 金正日 후계체제 순조 발언</p> <p>- 전체적으로 후계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전망을 벗어나지</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3不현상을 핵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韓半島에서의 에너지수급을 포함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함</li> <li>- 북한軍은 북한내 다른 분야에 비해 앞선 눈을 가지고 있으며 變化의 전위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봄.</li> <li>- 현시점에서 金正日 체제 안정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li> <li>- 북한이 어떻게 남북관계에 협조적이며 긍정적 자세를 보일 것인가에 따라 道德性 문제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수 있음.</li> <li>-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가 아닌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며, 이점을 관련국들에게 이야기했음.</li> <li>- 북한의 核보유가 판명된다면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되며, 정부로서도 새로운 정책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임.</li> </ul>		<p>않고 있음.</p> <p>○ 獨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紙, 北韓 핵물질 구입시도 증거서류 발견 보도</p> <p>- 독일 수사당국이 지난 5월 플루토늄을 숨겨 갖고 있다 가 붙잡힌 무기밀매상에 대한 수사 결과 北韓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위임장등 관련 증거서류를 찾아냈음.</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6	<p>○ 韓昇洙 駐美대사, 한국, 北경수로 지원에 중심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언급</p> <p>*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기자회견</p> <p>- 한국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로의 對북한 지원참여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임.</p> <p>-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은 韓半島의 평화과정 및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함.</p>		
8.27		<p>○ 中央通信, 한국형 경수로 거부 표명</p> <p>- 경수로 제공문제는 철두철미 朝·美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남조선 당국이 나서서 간참할 문제가 아님.</p> <p>- 제3단계 朝·美회담에서 경수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조선 경수로 문제는 애당초 안중에도 둔 적이 없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경수로 문제를 공간으로 朝·美회담에 끼어들어 핵문제 해결과 朝·</p>	<p>○ 美,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략 정찰기 SR-71(블랙 버드) 재배치 결정</p> <p>* 日산케이신문 보도</p> <p>-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4년전 퇴역시켰던 SR-71기 3대를 부활시키기로 결정, 95회계년도 국방예산에 1억弗을 계상했음.</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7		<p>美관계 개선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北南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p> <p>- 동족의 유고에 칼부림으로 대응해 나선 그들이 이제와서 뻔뻔스럽게 경수로를 주겠다느니 어찌겠다는니 하는 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임.</p> <p>0 金正日의 '74.8.2 노작 발표 20돌기념 중앙보고회</p> <p>*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p> <p>* 참석 : 강성산, 김영남, 계웅태, 한성룡,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석형, 김기남, 김국태 외 ( 계웅태 기념보고)</p> <p>0 北韓 올림픽위 사무총장 장웅, 김정일 권력승계 문제 없다고 주장 (파리)</p> <p>- 김정일의 권력승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金正日의 건강은 양호함.</p> <p>- 김정일이 아직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김일성에 대한 애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임.</p>	<p>0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北核 지지 압력 행사 거부 표명</p> <p>* 도이 日 중의원의 의장 면담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8		<p>0 中央放送, 金正日 권력승계 이 미 해결 보도</p> <p>* 카프트 前북한주재 소련대사 의 8.23자 프라우다紙 기고문 인용</p> <p>- 조선에서는 정권 계승문제가 원칙적으로 벌써 오래전에 성과적으로 해결되었음.</p> <p>- 당과 국가, 군대의 수위에 추대된 그는 정치, 경제, 사상 등 모든 분야를 영도해 왔으며 또 영도하고 있음.</p>	<p>0 日, 일본형 경수로 개발 추진 계획</p> <p>* 니혼게이지사이신문 보도</p> <p>- 日 통산성은 우수 전기기기 메이커 및 전력회사와 협력, 낮은 가격에 안전성을 높인 일본형 경수로를 '96년부터 개발에 착수, 아시아 각국에 공급할 예정임.</p>
8.29		<p>0 平壤放送, 자본주의 요소 수용 땀 사회주의 경제 붕괴 주장</p> <p>* 김일성방송대학 특강</p> <p>-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이기주의를 조장시키는 방법은 남조선이나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하는 경제관리 방법임.</p> <p>-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자본주의 경제관리방법을 끌어들이면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유지될 수 없고 나중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임.</p> <p>0 勞動新聞, 주사파 단속은 反北 대결소동의 일환이라고 비난</p> <p>0 『祖平統』서기국, 남한 당국의 主思派 단속 비난 報道</p>	<p>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지원방안 未확정 언급</p> <p>- 경수로 지원문제는 여러 국가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제이며, 어떤 특정국가의 경수로 참여가 확정될 때까지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진행돼야함</p> <p>- 美國은 경수로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중이며 韓國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 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29		<p>0 부주석 박성철, 리비아 혁명 25돌 경축행사 참가차 리비아 방문 (8.29~9.10)</p>	<p>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p> <p>0 사이트 日외무차관, 한국형 경수로 지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日本의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나, 안전·기술 등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형 경수로가 바람직하다고 봄</li> <li>- 핵문제해결이 日·北 수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니나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국교 정상화가 이뤄질 수는 없을 것임.</li> </ul> <p>0 도리그뱅크 러 아시아센터 소장, 北韓의 중국 의존 심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北관련 日니혼게이자이신문 회견</li> <li>- 金日成 사후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30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한국 쉐 경수로 채택 명백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외무통일위</li> <li>- 美·北간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지원키로 한 경수로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한국 쉐를 지칭하며, 미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美·北 수교를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과정 및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뤄질 것임.</li> <li>-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美·北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대화는 필수적임.</li> </ul>	<p>0 中國, 북한에 軍停委 철수 결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中 외교부 부부장(송호경 - 唐家璇) 회담</li> </ul> <p>&lt; 9.2字 中央通信 보도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송호경 부부장은 8.30 중국 외교부 唐家璇 부부장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하였음.</li> <li>- 쌍방은 현 국제관계의 변화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조선정전협정을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로 바뀌어야 할 절박성에 대해 인정했음.</li> <li>- 특사는 중국측에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과 軍停委에서 자기측 대표단을 소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협상기구로 내오는 주동적인 대책을 취한 문제에 대해 통보했음.</li> <li>- 中國 정부는 조선측의 요구와 조선측에서 이미 軍停委 조선측 대표단을 철수했으며 軍停委가 실제상 이미 마비된 현 상태를 고려해 軍停委 중국 인민지원군 대표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음.</li> </ul>	<p>0 美·北韓 실무접촉 (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회담 일정 협의</li> </ul> <p>0 시도렌코 리 핵에너지부 차관, 北韓에 최신형 경수로 제공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타르 타스 통신 회견</li> <li>- 러시아 정부는 잠재적 판매자의 자격으로 北 원자로 교체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에 3基의 최신 쉐경수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li> </ul> <p>0 키에트 베트남총리, 韓半島 비핵화 지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베트남 총리회담 (하노이)</li> <li>-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지지함.</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30		<p>0 노동신문, 金泳三 대통령의 '갑작스런 통일 대비' 지지 강경 비난 (論評)</p> <p>- 감히 우리에게 선불질을 한다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p> <p>- 외세와 야합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흉심을 드러낸 것임.</p> <p>0 金平一, 김정일 추대 대규모 집회 곧 개최 언급 * 핀란드 언론인과 회견</p> <p>- 애도기간에 대규모 군중집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님. 대규모 선출모임이 곧 있을 것임.</p> <p>- 어떤 경우에도 나의 아버지가 택한 길을 계속 갈 것이며, 金正日이 이를 지도할 것임.</p> <p>0 김정일 노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10돌 기념 연구토론회 (인민대학습당) * 참석 : 최태복, 최기룡</p> <p>0 외교부 부부장 송호경, '정부 특사' 자격으로 中國 방문 (8.30~9.3)</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31	<p>0 金泳三 대통령, 임기內 통일기반조성 이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li> <li>-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임기중에 반드시 統一基盤 조성과 선진경제 실현을 위한 발판이 이룩될 것임</li> </ul>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대비책 강구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自黨 당무회의</li> <li>- 美·北간 연락사무소는 기능적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상징적 의미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대비책을 신중히 세워나가겠음.</li> <li>- 美國과 北韓간의 관계개선 속도를 우리가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민족에너지 차원서 경수로 지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정책 워크샵</li> <li>- 北韓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이며 민족에너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임.</li> </ul>	<p>0 駐핀란드 북한대사 金平一, 北 권력승계 이상없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자들과 회견</li> <li>- 金正日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음.</li> <li>- 김정일 주석직 승계는 애도기간이 끝나면 하게 될 것임. 정해놓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우리 인민들이 아직 애도기간으로 여기고 있어서 會議는 바쁘지 않음.</li> </ul>	<p>0 美 국무부, 9.10 전문가회담 개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 실무접촉 결과 발표</li> <li>- 2개 전문가회의를 각각 9.10부터 열기로 합의했음.</li> <li>- 平壤 전문가회의는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임.</li> <li>- 베를린 전문가회의는 경수로건설 지원, 대체에너지 지원, 寧邊 5MW 원자로에서 인출한 폐연료봉의 보관·처리문제 등을 다룰 것임.</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8.31	<p>○ 韓昇洲 외무부장관, 日·北 조기 수교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 경영인클럽 특별 강연</li> <li>- 북한은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되면 곧바로 日本과의 수교교섭과 經協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임.</li> <li>- 실제로 북한의 對日수교는 對美수교보다 먼저 이루어질 지 모름.</li> <li>- 북한의 對日수교 및 경험에 대한 관심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데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日本과 협조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li> </ul>		<p>○ 日, 2차대진 종전 50주년 즈음 '평화우호교류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라야마 日수상 명의 談話</li> <li>-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95년부터 10년간 피해국인 아시아 각국과 청소년 교류, 역사자료센터 설립 등을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평화우호교류계획'을 추진함.</li> <li>-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별적 보상은 하지 않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		<p>0 입북자 허종만 환영 평양시 군중집회 (중앙노동자회관)            * 참석 : 백남준, 김영남(직총 부위원장), 신안방(평양시 행정경제위 부위원장) 外</p> <p>0 黨·政 고위간부, 새학년도 맞아 김정일 출신교 (平壤 제4인민학교) 방문            * 참석 : 강성산, 장 철, 박남기</p> <p>0 제15차 민족통일을 위한 범해외동포학자들의 토론회 (9.1~3, 워싱턴 메릴랜드大)            - '1996년과 조국통일' 주제로 최정태, 선우학원, 램지 클라크 등 미주지역내 친북인사 참가</p>	<p>0 신화통신, 中, 북한에 군정위 철수결정 통보 보도</p> <p>- 唐家璇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송호경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에서 軍停委 철수 결정을 통보했음.</p> <p>- 양측은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의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p> <p>0 英 군사전문가, 北 「대포동 1호」 미사일 '96년 實戰배치 전망            * 조세프 버뮤즈 英 제인연감 상담역</p> <p>- 북한은 사정거리 1천5백km~2천km의 장거리미사일 大浦洞 1호를 96년에, 大浦洞 2호는 2000년에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됨.</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			<p>○ 錢其琛 中외교부장, 한반도에서 점진적 평화체제 전환 기대</p> <p>▪ 北외교부 부부장 송호경 면담</p> <p>- 조선반도에서 점차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기를 바람. 이 문제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중요한 관건임.</p> <p>○ 마이애스 美백악관 대변인, 平壤 전문가회담의 의미 축소</p> <p>- 이번 전문가회담이 연락사무소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p> <p>- 외교적 대화가 아니라 기술적인 회담임.</p> <p>※ 매커리 대변인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	<p>0 외무부 대변인, 중국의 軍停委 철수 결정 관련 유감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中國 정부가 군정 위의 자국 대표단을 소환 키로한 데 대하여 遺憾스럽게 생각함.</li> <li>- 현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관련국 간 협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함.</li> <li>- 政府는 중국측의 이번 결정이 현 정전협정체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li> <li>- 南北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임.</li> </ul> <p>0 駐韓 UN사령부, 북한에 정전협정 유효 입장 전달 * UN司 軍停委 비서장 슈메이커 대령 - 북한측 박임수 대좌 접촉</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 전문가 회담 개최 일정 발표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2 朝·美 합의성명에 따라 요즘 진행된 뉴욕 실무접촉에서는 전문가급 협상들을 시작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음.</li> <li>- 쌍방은 연락사무소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급 협상을 9.10 평양에서, 경수로 제공 및 보상문제와 관련한 전문가급 협상을 9.10 베를린에서 각각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li> </ul> <p>0 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戰後 50돌즈음 수상 담화 발표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저지른 과거 죄행을 그무슨 '평화우호교류계획'과 같은 허울좋은 보자기를 씌워 청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음.</li> <li>- 일본 당국이 과거 청산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li> <li>- 더우기 우리를 제쳐놓고서는 그 어떤 전후처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음.</li> </ul>	<p>0 美 국무부, 中國 군정위 철수 유감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軍停委가 한반도 평화실현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함.</li> <li>- 중국의 결정은 자국의 대표단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소환하는 것이지 철수하는 것은 아님.</li> <li>- 北京측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계속 인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음.</li> </ul> <p>0 中외교부 대변인, 中國 정전협정 유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협정은 이 협정의 관련조항들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며 北韓측도 이 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협정을 체결당사자인 유엔시, 중국, 북한 3자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음.</li> <li>- 중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체제는 유효함.</li> </ul> <p>○ 駐韓 UN사령부, 중국의 정전위 철수 결정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이같은 결정으로 UN司와 북한간의 사소한 충돌이 심각한 국면으로 비화될 위험이 높아졌음.</li> </ul>		<p>○ 日 요미우리신문, 北지원 경수로, 독 일製 가능성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核동결을 대가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경수로로는 한국형도, 러시아형도 아닌 독 일製로 하는 방안 이 급부상하고 있음.</li> </ul> <p>○ 日 마이니치신문, 日·北, 8월말 北京에서 修交관련 극비 접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정부는 8월하순 北京에서 북한측과 국교정상화회담 재 개를 위한 극비 에 비접촉을 가졌음.</li> </ul> <p>○ 홍콩誌, 北韓 지난 5월 전쟁 위협 보도 * 「九十年代」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5월 중국에 특사를 보내 전쟁 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으며 中國이 이를 만류했다고 보도</li> </ul>

■ 9 월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3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p> <p>&lt; 공보관 브리핑 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찰문제, 경수로 건설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li> <li>- 韓半島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南北 당사자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갈.</li> <li>- 현재 韓·美 양국은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는 원칙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中國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li> </ul>	<p>0 金正日, 부주석 박성철 통해 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인사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主席 업무 수행 시사</li> <li>- 대표단 단장은 金正日이 보내는 인사를 전했으며, 가다피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김정일에게 만수축원의 인사를 전할 것을 부탁했음.</li> <li>- 가다피는 金正日이 경축행사에 높은 급의 정부대표단을 보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음.</li> </ul>	<p>0 中·러 정상, 美·北회담 진전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스크바 정상회담</li> <li>- 中·러 정상은 美國과 북한간의 회담이 진전을 이룩한데 대해 환영을 표시</li> </ul>
9. 4		<p>0 中央放送, 시아누크의 김정일 '수령' 호칭 祝電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창건 46돌 즈음 8.31 보낸 축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首領이신 김정일 원수 각하' 라고 호칭한 내용 보도</li> </ul>	<p>0 日교도통신, 북한軍 김정일 배지 부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京 동유럽 군사 소식통 인용</li> <li>- 북한의 국경경비대 장교들이 金正日 배지를 달기 시작, 그의 권력 공식 승계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5	<p>0 李基澤 민주당 대표, 對北 정책 재검토 촉구 특별메시지 발표</p> <p>- 對北화해정책 추진,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분위기 조성,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 5개항의 정책방향 제시</p>	<p>0 黨·政 간부들, 金正日 지시로 연백별 협동농장 참관(9.5~6)</p> <p>* 참석 : 강성산, 이종옥, 김영주, 김영남, 최 광, 계웅태, 한성몽, 김철만 外</p>	<p>0 北, IAEA에 사찰범위 확대방침 통고</p> <p>* 9.10日 日요미우리 신문</p> <p>- 북한에 체류중인 2명의 사찰단에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확대방침 통보</p>
9. 6	<p>0 李炳台 국방부장관, 북한 난민 발생 대비책 마련 언급</p> <p>* 기자간담회</p> <p>-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北韓 내부 혼란보다는 김정일체제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함.</p> <p>- 북한으로부터 보트 피플 등 難民 발생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놓고 있음.</p> <p>- 지금까지 정전협정체제 유지에는 변함이 없음.</p>	<p>0 平壤放送, 통일후에도 '사적 소유 인정' 강조</p> <p>-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 재산, 사회적 명예, 자격의 인정성 때문에 의구심과 우려를 가지고 통일을 방관하거나 지어 통일을 달가워 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음.</p> <p>-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통일이 된 후에도 통일되기 전에 北과 南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所有들을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을 보호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밝혔음.</p> <p>0 후카다 日사회당 의원 일행, 訪北 (9.6~9.10)</p> <p>* 김일성 사망후 일본 의원으로서는 최초 방문</p>	<p>0 鄭淵珠 한겨레신문 기자 訪北(9.6~10)</p> <p>* 북한측 취재불허로 귀환</p> <p>0 만국우편연합(UPU) 제21차 총회(8.22~9.14), 南北우편교류 촉구 결의 채택 (서울)</p> <p>- 남북한이 가능한한 빨리 우편물 교환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UPU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p> <p>0 韓·日 의원연맹 제 22차 총회, 과거 核투명성 보장돼야 경수로 지원 내용의 共同聲明 발표 (도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7	<p>○ 韓·美외무장관, 남북관계 개선과 美·北관계 개선 상호보완 추진 합의 (워싱턴)</p> <p>&lt; 韓昇洲 장관 발표 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락사무소 교환 등 美·北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진전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li> <li>-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韓國의 중심적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한국형 경수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li> <li>- 경수로 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北韓이 남북대화 진전과 특별사찰 등을 통한 核 투명성 확보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li> <li>- 韓·美 양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기존 합의에 따라 남북한간에 협의·해결될 사안이며 美·北간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li> </ul>	<p>○ 拉北 고상문, 金泳三 대통령 비난 글 발표 (中·平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나절이면 와당을 평양에 조문사절 몇사람조차 보내지 못하는 김○○이 北南대화과 교류에 대하여 떠들고 있으니 가소롭기 이틀데 없음.</li> <li>- 제발로 北을 찾아온 의거자들을 납치했다고 떠들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의거자를 자살했다고 낭설을 내뉘린 자도 바로 김○○ 자신임.</li> <li>- 남녘의 동포들이 김○○ 역도의 무덤길을 재촉하여 과감히 분투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갈 것을 호소함.</li> </ul>	<p>○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韓·美외무장관회담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과거 핵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할 경우에만 경수로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li> <li>- 과거 핵활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한 NPT下의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할 수 없을 것임.</li> <li>- 보다 정상적인 정치·경제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있어서 추가적 진전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임.</li> <li>- 북한이 한국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 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힘.</li> </ul> <p>○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남북관계 개선</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간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현 정 전체제가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음.</li> <li>○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韓·美간 北核문제 관점 차이 언급</li> <li>* 기자간담회</li> <li>- 우리는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푸는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를 보고있는 반면, 美國에서는 핵문제 자체에 초점을 국한하여 보는 경향이 있음.</li> <li>- 북한이 南北당사자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나오게 될 경우 현재의 국면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도 협조할 용의가 있음.</li> <li>- 美·北 연락사무소 설치에는 의미있는 남북대화의 재개,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 등 2가지 사항이 모두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에 강요못한다고 언급</li> <li>* 기자회견</li> <li>- 美·北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연계돼야 한다는 것은 韓·美의 공통인식이지만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이 北韓에 중요성을 강조할 수는 있어도 강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li> <li>○ 中, 對북한 식량·석유 원조 확대</li> <li>* 중국 흑룡강방송 보도</li> <li>- 金日成 사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늘릴 결의를 채택하고 양곡·석유의 공급량을 증가시켰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8	<p>0 金泳三 대통령, 클린턴 美 대통령에게 美·北관계 개선 속도 우려 전달</p> <p>* 韓昇洲 외무부장관 통해 구두메시지 전달</p> <p>- 남북관계의 진전과 美·北 관계의 개선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수 있음</p> <p>- 북한 核의 과거 규명을 위해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p> <p>0 北韓 유학생 등 5명, 제3국 통해 귀순</p> <p>- 홍금수(중국 심양 동북공학원 3학년 재학)씨 등 5명</p> <p>0 金宇中 대우그룹 회장 6, 7월 극비 방북說</p> <p>* 한겨레신문 보도</p> <p>- 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이 김일성 사망전인 6월 중순과 7월 초순 두차례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음.</p>	<p>0 黨·政 간부들, 金日成 사망 2달 추모 화환진정 (만수대 김일성 동상)</p> <p>* 참석 : 강성산, 이종옥,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웅태, 한성룡, 김철만, 최태복, 최영립,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백학립, 김봉률, 김광진 外</p> <p>0 美·北전문가회담 북측대표단, 베를린 도착</p> <p>* 단장 :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p> <p>&lt; 도착 성명 &gt;</p> <p>-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의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제공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임</p> <p>- 생산적인 회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美國측도 적극 호응해줄 것을 희망함.</p> <p>0 노동신문, 자본주의국가와 우호 수립 언급 (社說)</p> <p>- 앞으로 북한에 우호적이고 상응한 대우를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경제·문화관계를 발전시킬 것임.</p> <p>0 『朝總聯』의장 한덕수, 김정</p>	<p>0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북한 창건 46돌 즈음 김정일에 祝電</p> <p>- 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에 굳게 단결하여 金日成의 생전의 뜻을 이어 사회주의 혁명과업 건설에서 승리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음.</p> <p>- 中·朝친선은 온갖 시련을 이겨냈으며 반드시 대를 이어 전해지고 끊임없이 발전될 것임.</p> <p>0 갈루치 美 국무부 본부대사, 특별사찰 문서검증으로 가능 시사</p> <p>* 카네기 평화재단 주최 간담회</p> <p>- IAEA가 북한 과거 핵활동 규명에 충분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검증을 생략한채 文獻 검증만으로도 특별사찰이 실시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8		<p>일에 충성 촉구 글 발표</p> <p>• '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충효 일심으로 받들어 주체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어 나가자 ' (조선신보)</p>	<p>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함.</p> <p>- 북한 내부의 심각한 정치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사찰 실시가 즉시 이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p>
9. 9		<p>0 北韓 창건 46돌 경축 중앙보고 대회 (2.8 문화회관)</p> <p>• 참석 : 강성산, 이종옥, 김병식, 한덕수, 배병두 外</p> <p>&lt;부총리 홍성남 경축보고 요지&gt;</p> <p>- 金日成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함.</p> <p>-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p> <p>- 우리나라 統一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大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大강령을 구현하여 聯邦制 방식의 통일방안에 따라 실현되어야 함.</p> <p>-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p>	<p>0 페리 美國방장관, 한반도 비핵화 관철 강조</p> <p>• 베를린 기자회견</p> <p>-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나 핵무기 개발시설이 전혀 없기를 바란.</p> <p>- 美國은 이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임.</p> <p>- 미국은 韓半島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북한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모색하고 있음.</p> <p>0 獨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 北·獨 대사급 수교 가능성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9		<p>당중앙위원회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쳐야 하며 당과 혁명대오가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一心團結을 노동자같이 지켜나가야 함.</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 회담에서 평화협정 토의 주장 談話</p> <p>- 朝·美 회담에서 평화협정체계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보는 것은 현시기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중 하나임.</p> <p>-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 당국자들만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음.</p> <p>- 남조선 당국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반드시 수립될 것임.</p> <p>0 金正日, 「朝總聯」에 교육원 조비와 장학금 1억엔 송금</p> <p>* 중앙방송 보도</p> <p>※ 현재까지 총 128회, 421억 1,299만 2,433엔 송금 주장</p>	<p>- 美·北 베를린 전문가회담을 계기로 현재의 北韓 이익 대표부가 대사관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아졌음.</p> <p>0 中, 북한인 탈출대비 국경통제 강화</p> <p>* 이타르 타스통신 보도</p> <p>- 중국은 최근 북한인들의 탈출사태가 급증하자 북한과의 국경선 일대에 수비대와 정규군을 증강 배치, 국경통제를 강화했음.</p> <p>0 모이세예프 리 외무부 한반도 담당관, 對북한 관계강화 의사 표명</p> <p>- 러시아는 북한과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종전의 전통적 협력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발전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9		<p>0 黨·政간부들, 북한 창건 46돌 즈음 대성산혁명열사능에 화환 진정</p> <p>* 참석 : 강성산, 김영남, 계응태, 김철만,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백학림, 김광진, 김기남, 김중린, 공진태, 박남기, 전문섭</p> <p>0 노동신문, 金正日 중심의 일심 단결 주장</p> <p>* 북한 창건 46돌 즈음 社說</p> <p>- 우리는 김정일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눈동자같이 고수하여야 하며 전당과 온사회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함.</p> <p>- 인민정권안에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정권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당의 영도밑에 풀어나가야 하며 정권으로서의 혈통을 대를 이어 고수해 나가야 함.</p>	<p>0 日 마이니치신문, 北, 독일제 경수로 도입 희망 보도</p> <p>* 駐베를린 北韓이의 대표부 직원 언급</p> <p>-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독일제 경수로임.</p> <p>0 中 신화통신, 北, 방글라데시에 쌀 3천 7백달러 어치 수입 타진 보도</p> <p>- '95년중 求償貿易 형식으로 3천 7백 달러 상당의 쌀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p>
9. 10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韓 평화협정 주장 관련 전쟁책임 거론 경고</p> <p>* 국회 ROTC 출신의원 모임 초청 간담회</p> <p>-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종결</p>	<p>0 美·北 전문가회담 개최</p> <p>- 평양 회담 (9.10~13)</p> <p>· 린 터크(美國무부 한국과 副과장) 참석</p> <p>· 연락사무소 교환·설치문제 협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0	<p>을 의미, 전쟁의 책임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협정 전환문제가 미국에서 공식 제기될 경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li> <li>-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북한에 대단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축적되었으니 만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li> </ul> <p>○ 한국형 경수로 『영광 3호기』, 핵연료 장전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백만kw 용량의 가압형 경수로로 89년 6월 건설에 착수(국산화율 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를린 회담 (9.10~14)</li> <li>• 세이모어(미국무부 核非확산국 副과장), 김정우(北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참석</li> <li>• 경수로 지원문제 협의</li> </ul> <p>○ 외교부 대변인, 독일에서의 연합군 철수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구라파에서 냉전시대의 마지막 章을 끝내기 위해 기울인 독일과 그 유관국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li> <li>- 우리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다른 나라 영토에 있는 외국 군대와 외국 군사기지들의 철수를 주장해왔음.</li> <li>-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냉전시대의 남은 국제관계가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할 것임.</li> </ul> <p>○ 부주석 박성철, 리비아 방문 마치고 귀국 (8.29~9.10)</p>	
9.11		<p>○ 中央放送, 美·北 평양 전문가 회담 개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나라 사이에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외교부 대표단과 미국무성 대표단 사이의</li> </ul>	<p>○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 北韓 폐연료봉 제3국 이전 관철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BC-TV 대담</li> <li>- 북한이 寧邊 원자</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1		<p>전문가급협상이 9.10 平壤에서 시작되었음.</p>	<p>로에서 매년 폐연료봉을 북한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美國의 일관된 입장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북한이 보관하되 강철통에 넣어두는 방안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임.</li> </ul>
9.12		<p>0 美·北 베를린 전문가회담 계속</p> <p>0 美·北 베를린 전문가회담 북측 수석대표 김정우, 경수로 선정 관련 3가지 조건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수출실적이 있으며 △성능이 검증된 경수로를 원함.</li> </ul> <p>0 체신부장 김학섭, 드 바로스 만국우편연합(UPU) 사무총장의 우편교류 촉구 편지 관련 회답 便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는 우리 공화국과 북반부 인민을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北南사이에 접촉과 서신,</li> </ul>	<p>0 IAEA 정기이사회 개막 (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核 토의 「의장 요약성명」 채택</li> <li>- 핵안전조치협정은 북한의 IAEA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며 완전히 이행되어야 함.</li> <li>- 최근 美·北회담에서 나타난 부분적 진전을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함.</li> <li>- 현재 진행중인 대화가 건설적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함.</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12		<p>통신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北과 南사이에 편지거래는 그 누구의 중재도 필요 없는 문제임.</li> <li>- 선생이 北南 서신거래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주려 한다면 남조선의 國家保安法이 철폐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li> </ul> <p>0 平壤放送, 한반도에서 핵위협장본인은 南韓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서 핵무기 개발은 연구단계가 아니라 실천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음.</li> <li>-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의 실제적 장본인은 남조선 괴뢰들임.</li> <li>- 남조선 통치배들은 누구의 과거 핵무명성 보장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남조선에서의 과거 핵무기개발 실상을 공개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체없이 중지해야 함.</li> </ul>	<p>0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 2개 核시설 사찰 허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이사회 보고</li> <li>- 북한에 체류중인 2명의 사찰단이 9.5 북한측으로부터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확대방침을 통보 받고 우선적으로 연료제조공장과 신규 연료저장창고를 방문했음.</li> <li>- 폐연료봉들이 아직 재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믿어지지만 원자로에 새로운 연료를 장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li> </ul> <p>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평양 전문가 회담 진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壤 실무자 협의는 협조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共同聲明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li> <li>- 美·北 연락사무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2			<p>교환 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이 있어야 실시될 수 있음.</p> <p>0 北, 독일 지멘스社에 경수로 관련 자료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멘스社 대변인</li> <li>- 駐베를린 북한대표부가 독일 콘보이(KONVOI)型 경수로의 자료를 요청해와 제공했음.</li> </ul>
9.13	<p>0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9.13)</p> <p>&lt;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기자간담회 요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昇洲 외무장관의 訪美에서 미국측에 핵문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였음.</li> <li>- 9.23 美·北 3단계 2차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긍정적 진전에 따라 남북간 인적 왕래, 경협문제 등 현안문제도 단계적으로 진전될 것이며, 政府에서</li> </ul>	<p>0 美·北 평양 전문가회담 종료 (9.10~13)</p> <p>&lt;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朝美 전문가급협상 진행정형에 대한 공동보도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은 전반적인 합의의 테두리내에서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와 관련된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문제들을 토의하였음.</li> <li>- 협상은 진지하고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음.</li> <li>- 쌍방은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협상결과를 각기 자기 정부에 보고하기로 하였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3	<p>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의 권력승계문제가 종결되면 모든 차원의 남북회담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 · 남북정상회담 합의·원칙은 계속 유효함.</li> <li>- 한국형 경수로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인가에 일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경수로의 명칭만을 거론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함.</li> <li>- 한국표준형 모델을 지원하게 될 경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재원부담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임.</li> <li>-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美·北 연락사무소 설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게 현재의 상황이며, 美國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봄.</li> </ul>	<p>○ 北韓, 실종 美軍 유해 14구 UN軍측에 인도 (판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9.2 판문점 반환실무단 공동의장 집측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국전 당시 사망했거나 실종된 UN軍 유해14구를 판문점에서 UN군사령부측에 인도</li> <li>※ '90년이후 현재까지 총 208구 인도</li> <li>○ 제네바 대표부 공사 한창언, NPT 무수정·무기연기 반대 입장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PT 연장검토 제5차 회의 준비 제3차 회의 (9.12~16, 제네바)</li> </ul> </li> <li>- NPT가 핵무기 소유국과 비핵국이 똑같은 의무를 가지는 평등조약으로 되게 하고 인류를 핵참화의 불안감에서 해방시키자면 비핵국가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수정되어야함</li> <li>○ 존 사무엘 탄자니아 수상, 북한 방문 (9.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접 : 강성산, 황장엽, 공진태, 이성대, 김영일</li> </ul> </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4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북한에 拉北者 조속 송환 촉구</p> <p>* 제13회 이산가족의 날 격려사</p> <p>- 북한이 우리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 나 갈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400여 남북자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하루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함.</p> <p>- 우리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p> <p>0 李基澤 민주당 대표, 남북 정상회담 先제의 촉구</p> <p>- 이제 대승적차원에서 남북한 신뢰구축과 화해를 위해 먼저 우리측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해야 함.</p> <p>0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이산가족 재회촉구 결의문 채택</p>	<p>0 美·北 베를린 전문가회담 종료 (9.10~14)</p> <p>&lt; 朝·美 전문가급협상에 대한 공동보도문 &gt;</p> <p>- 쌍방은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 기술로 교체하는 문제,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분, 대용 에너지 보장을 포함하여 복잡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였음.</p> <p>- 쌍방은 포괄적이며 허심탄회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朝·美는 이 문제들을 앞으로 더 토의하기로 합의하였음.</p> <p>- 쌍방은 이번 협상결과를 자기 정부들에 보고하기로 하였음.</p> <p>0 정무원 부총리 강성산, 金正日을 '위대한 영도자'로 호칭</p> <p>* 존 사무엘 탄자니아 수상 환영 연회 연설</p> <p>- 문무총효를 겸비하시고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친품을 지니신 '위대한 영도자' 金正日 동지는 오늘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음.</p>	<p>0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北 경수로 지원 40억弗 소요 언급</p> <p>* 東京 기자회견</p> <p>- 북한의 경수로 지원은 최종적으로 40억弗 규모가 될 것임.</p> <p>- 美·北 교섭이 진전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국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지원체제를 만들고 싶음.</p> <p>- 북한 경수로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이 요구되며 최선의 모델은 한국형임.</p> <p>0 갈루치 美국무차관보, 특별사찰 관철 강조</p> <p>* 日NHK-TV회견</p> <p>- 과거 핵개발의혹에 대한 규명을 보류한 채 북한과 다른 사안으로 부분적인 합의를 도출하려 하지 않을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산가족 재회촉구 범세계 서명운동 1,700만 명 달성 보고대회</li> <li>- 이산가족재회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는 청경임을 천명함.</li> <li>- 이산가족들의 가족재회와 고향방문이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은 앞서서 해결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함.</li> <li>- 서신교환과 더불어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혈육상봉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호응해 줄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함.</li> <li>- 북한 억류 납북자들의 무조건 송환을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제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壤放送, '84 수재물자 제공은 김정일 지시라고 선전</li> <li>- 구재물자들은 약 1,800만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으로 천 50만㎍, 쌀 5만석, 시멘트 10만t에 이르는 방대한 물자였음.</li> <li>- 이는 분열의 장벽때문에 쌓아두고도 주지못한 뜨거운 사랑을 남녘동포들에게 안겨주려는 金正日의 고결한 인간애, 동포애의 숭고한 결정체임.</li> <li>○ 「韓民戰」중앙위, '한국형 경수로 진상공개장' 발표</li> <li>• 9.15字 平壤放送 보도</li> <li>- 울진 3, 4호기에 한국형 경수로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국제적으로 등록된 바도, 공인된 바도 없는 일종의 사기협잡품임.</li> <li>- 한국형 경수로란 새로 개발된 원자로형이 아니라 北의 경수로 도입이 北·美협상에서 당면한 현안문제로 제기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생겨난 일종의 정치용어에 불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UN에서 관계국들과 함께 대북제재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li> <li>○ 軍停委 중국군측 대표, 본국으로부터 철수명령 未접수</li> <li>• 정부소식통</li> <li>- 9.13 UN군 유해송환 행사에 모습을 보인 중국군 장교들은 본국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은바 없다고 밝혔음.</li> <li>○ IAEA, 北 플루토늄 은닉 의심</li> <li>• IAEA 관리 발언</li> <li>- IAEA는 북한이 지난해 2月이후 핵연료 재처리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아직도 플루토늄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li> </ul>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5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남북관계 진전없이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반대 입장 표명</p> <p>* 갈투치 美 국무차관보 접견</p> <p>- 남북관계 진전없이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므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함.</p> <p>- 對北 지원 경수로는 韓國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임.</p> <p>-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美·北 간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과제도 아님.</p> <p>- 북한의 과거 핵무명성 확보는 기본적 필수요건임.</p> <p>0 韓·美, 핵문제 관련 고위 실무협의</p> <p>* 金三勳 외무부 핵담당대사, 갈투치 美 국무부 핵담당 대사 참석</p> <p>- 美·北 대화와 남북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p>	<p>0 美·北 전문가회담 북측 수석 대표 김정우, 한국형 경수로 거부 천명</p> <p>* 記者會見</p> <p>- 지금 한국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음. 선친이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아들의 이름을 따 수출한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것같음.</p> <p>- 독일 지멘스社는 36기의 경수로를 생산, 27기를 수출했음. 3가지 원칙에 충분히 만족된 것임.</p> <p>- 우리는 재정은 미국이 책임지고 爐型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했음.</p> <p>- 경수로 제공과 관련 미국측은 일정한 기구(컨소시엄)를 제정하겠다고 제의했으며, 남조선이 재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p> <p>- 선택방법은 입찰로 하겠음. 낙찰조건은 가격, 지불조건, 기능적으로 우월한 것을 선택 하겠음.</p> <p>- 납입 원자력에 대해 해당 가격을 지불할 것임. 그러나 흑연감속로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을 제한 것임. 30년 동안 연구비, 흑연감속</p>	<p>0 매커리 美 국무부 대변인, 전문가회담에서는 기술적 문제만 논의 강조</p> <p>- 베를린 전문가회담은 제반 기술적 정보를 교환했을 뿐 협상을 하거나 제안을 주고받는 회담이 아님.</p> <p>- 경수로 지원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기술·재정·정치적 조건의 측면에서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보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간 연락사무소 교환 등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문제 뿐 아니라 남북대화의 진전이 필요하며,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li> <li>- 9.23 속개되는 美·北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시 경수로가 지원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일치</li> <li>- 경수로 지원에 韓國의 중심적 역할이 필수적이며, 경수로 모델은 한국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li> <li>-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핵활동에 대한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li> <li>-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美·北관계 개선과 경수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확인</li> <li>-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美北간 협상대상이 아니며</li> </ul>	<p>로 건설 투자비는 수십억 달러로 추정됨.</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5	<p>南·北韓간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정전체제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p> <p>- 앞으로도 확고한 韓·美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p>		
9.16	<p>0 金泳三 대통령, 갈루치 美 국무부 核담당대사 接見</p> <p>- 核무명성이 확보돼야 경수로를 지원하고 여기에 韓國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내용의 클린턴 대통령 구두메시지 접수</p>	<p>0 외교부 대변인, 특별사찰 거부 재확인</p> <p>* 記者會見</p> <p>- 특별사찰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음.</p> <p>- IAEA 서기국이 특별사찰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IAEA의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계속 침해하며, 핵문제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려는 책동임.</p> <p>- 우리의 핵문제는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朝·美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p> <p>- IAEA 서기국의 일부계층들이 국제회의·국제기구 공간을 이용하여 계속 압력에 매달린</p>	<p>0 갈루치 美 핵담당대사, 경수로 선택권 北韓에 없다고 강조</p> <p>* 離韓 기자회견</p> <p>- 북한이 爐型을 선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충할 의사가 전혀 없음.</p> <p>-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형 경수호가 기술·정치·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함.</p> <p>- 연락사무소는 양국간의 정치·경제문제 등을 포함한 현안을 다루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임.</p> <p>- 경수로 지원 국제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 美國은 재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6		<p>다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질 것임.</p> <p>○ 平壤放送, 자유민주주의체제 바탕한 통일 주장 비난</p> <p>- 얼마전에 김 〇 〇 은 3단계 통일론을 되풀이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해보겠다는 용납못할 망발임.</p> <p>-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란 뒤집어놓은 북진 통일, 승공 통일로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 통일을 하지 않고 영구분열하겠다는 수작임.</p> <p>- 예멘식 통일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와 결부시킨 것부터가 억지이고 그것으로 연방제 통일을 부인하는 것은 무식의 발로임.</p>	<p>적인 부담을 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음.</p> <p>- 연락사무소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라야 개설이 가 능함.</p> <p>○ 美·日, 「戰域미사일방위」(TMD)계획 착수 합의 * 국방장관회담 (워싱턴)</p> <p>- 북한의 노동 1호등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戰域 미사일방위」계획에 관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p>
9.19		<p>○ 조선법률가협회,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고발·備忘錄·발표</p> <p>- 국가보안법은 자주화와 민주화, 생존권을 위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反민주 악법임.</p>	<p>○ IAEA 제38차 총회 개막 (빈)</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모조리 이적행위로 몰아 거세 말살하며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반통일 악법임.</li> <li>-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김○○정권의 만고대죄를 규탄하여 국제 인권단체들과 법률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함.</li> </ul> <p>○ 中央放送, 평화협정 당사자는 北韓과 美國이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우리와 美國 사이에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괴뢰들이 끼어들 문제가 아님.</li> <li>- 北과 南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에 불가침을 공약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있는 만큼 우리와 美國사이에 평화보장체계까지 수립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될 것임.</li> </ul>	
9.20	<p>○ 金泳三 대통령, 카터 前美 대통령에게 親書</p> <p>* 韓昇洙 駐美대사를 통해 전달</p>	<p>○ 노동신문,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노인 송환 요구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래 김영태 노인은 전쟁포로로서 마땅히 정전과 함께 부</li> </ul>	<p>○ 北, 제49차 UN 총회에서 부의장국으로 피선</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화를 위한 카터 前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활동을 기대</li> <li>- 카터 前 대통령은 韓昇洙 대사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중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li> </ul>	<p>모처자가 있는 공화국 북반부로 송환되었어야 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태 노인이 일가친척이 있는 공화국 북반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북남 사이에 가장 긴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문제의 하나임</li> <li>- 김 〇 〇 일당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김영태와 같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함.</li> </ul> <p>○ 파노프 러 외무차관, 옐친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 방문 (9.20~24)</p>	
9.21		<p>○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美·北 3단계 2차회담 참가차 제네바 도착</p> <p style="text-align: center;">〈 제네바 도착성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 쌍방이 문제토의를 진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음.</li> <li>- 쌍방이 진실로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바란다면 대화부정적인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개 의치 말아야 할 것이며 이미</li> </ul>	<p>○ 갈루치 美국무차관 보, 특별사찰 연기 가능성 시사 *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韓·日·中·러 4개국과 다른 아시아, 유럽국가들과도 협의를 진행중임. 컨소시엄은 가칭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PO)로 명명하고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1		<p>선택한 길을 따라 주저없이 나가야 할 것임.</p> <p>- 이번 회담에서 주되는 논의는 朝·美 합의성명의 이행을 위 한 동시행동조치들을 맞물리 는데 돌려지게 될 것임.</p> <p>○ 김정숙 사망 45돌 중앙추도대 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김영남, 계웅태, 최태복, 최영림 양형섭, 홍석형, 김기남, 황장엽 김중린, 김용순 외</p>	<p>- 對北 경수로 지원 에서 韓國은 중심 역할을 할 것임.</p> <p>- 핵문제 해결과정에 서 특별사찰 이행 은 신축적으로 늦 출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경수로 장 비가 도착하기전까 지는 특별사찰이 이뤄져야 함.</p> <p>○ IAEA 제38차 총회 참가 54개국, 對北 韓 핵안전협정 전 면 이행 촉구 결의 안 제출</p>
9.22	<p>○ 金泳三 대통령, 경수로 지 원관련 클린턴 美대통령에 親暱 전달</p> <p>* 외무부대변인 브리핑</p> <p>- 한국型 경수로가 채택되 고 과거 核무명성 확보를 포함한 북한 핵문제 해결 을 전제로 우리가 對北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중 심적 역할을 수행할 용의 가 있음을 표명</p> <p>-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 결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 대화의 중요성 강조</p>	<p>○ 黨·政 간부들, 김정숙 사망 45돌 즈음 동상에 화환 진정</p> <p>* 참석 :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김영남, 계웅태, 최태복, 최영림 양형섭, 홍석형, 백학립, 김광진 김익현 외</p> <p>○ 북한 대표단, 제49차 UN총회 참가차 平壤 출발</p> <p>* 단장 : 외교부 부부장 최수헌</p>	<p>○ 카터 前 美대통령, 확고한 언질없이 再 訪北 않겠다고 언급</p> <p>* 金大中 아태재단 이사장 면담 결과발표시</p> <p>- 南北 양측이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확고한 언질없이 는 재방북을 하지 않 겠음.</p> <p>○ 엘친 러 대통령, 김 정일에 러시아型 경 수로 채택 희망</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2			<p>* 이타르 타스통신</p> <p>- 대통령 특사로 訪北 중인 파노프 차관을 통한 구두메시지에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능가하는 경수로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p> <p>0 무라야마 日총리, 클린턴 대통령에게 경수로 지원 컨소시엄 참여 홍보 書翰</p> <p>* 백악관 확인</p> <p>- 일본은 美·北이 핵문제에 대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경우 對北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에 참가할 것임.</p> <p>0 美항공모함 키티호크호 東海 배치 (9.22~10.3)</p> <p>*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記者會見 (도쿄)</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 23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남북 대화 진전, 美·北관계 개선의 전제조건 부인</p> <p>* 국회 외무통일위</p> <p>- 美·北 연락사무소 교환 등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진전이 필요하나 반드시 전제조건은 아님.</p> <p>- 핵문제에 돌파구가 생기는대로 經協을 재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해석상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국익을 고려해 접근하겠음.</p> <p>-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美대통령간 親書교환은 한국型 경수로 기정사실화에 그 뜻이 있음.</p>	<p>0 외교부 대변인, 특별사찰 압력 맨 흑연감속로 동결 철회 경고</p> <p>* 記者會見</p> <p>-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가 경수로에 목이 메어 군사 대상까지 개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p> <p>- 만일 불순세력들이 특별사찰을 계속 고집하면서 경수로 제공에 난관을 조성한다면 우리는 흑연로체계를 동결시킬 필요를 구태여 느끼지 않음.</p> <p>-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도가 특별사찰에 있는것이 아니라 경수로를 제공하는데 있음</p>	<p>0 美·北 3단계 2차회담 개최 (제네바)</p> <p>0 IAEA 제38차 총회, 핵안전협정 전면이행촉구 對北결의안 채택</p> <p>* 찬성 76, 반대 1 (리비아), 기권 10 (중국, 쿠바 등)</p> <p>-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에 대해 계속적인 우려를 표명함.</p> <p>- 안전조치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위하여 즉각 IAEA에 협력할 것을 촉구함.</p> <p>- 핵안전과 관련한 제반 정보와 장소에 IAEA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함.</p> <p>0 엘친 러 대통령, 북한과 선린관계 증진용의 표명</p> <p>* 파노프 러 외무차관 통해 김정일에 구두메시지 전달</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4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북한 국제사회 합류 유도 필요 언급</p> <p>* 9.24 관훈클럽·언론학회 심포지엄</p> <p>- 북한을 개방과 국제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합류토록 유도, 여기에서 남북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p> <p>- 북한에 대한 우리의 경수로 지원은 핵문제해결에서 우리의 역할과 발언권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며 핵문제해결은 물론 南北交流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임.</p>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北·美 3단계 2차회담 관련 기자회견</p> <p>- 우리는 철저히 미국측에서 경수로를 확고히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흑연감속로의 동결을 이행할 것임.</p> <p>- 우리가 핵시설들을 동결하는 시점에서 그에 해당하는 물질적 보상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함</p> <p>- 우리나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전개하여 놓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회담에 중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임.</p> <p>0 외교부 대변인, 美항모 東海 배치 비난 記者會見</p> <p>- 미국이 군사적 위협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득이 회담을 위하여 취하였던 핵활동의 일시적인 동결조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평화적 핵활동을 재개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p>	<p>0 美·北 3단계 2차회담 계속</p> <p>* 전문가회담</p>
9.25		<p>0 외교부 대변인, IAEA총회 대북 결의안 채택 비난 談話</p> <p>-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시도로 보면서 그것을</p>	<p>0 美·北 3단계 2차회담 계속</p> <p>* 전문가회담</p>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核타결 안되면 武</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5		<p>단호히 배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IAEA의 부당한 제재 조치로 인하여 IAEA에서 탈퇴한 조건에서 어떠한 결의도 인정하거나 이행할 의무가 없음.</li> <li>- 만일 IAEA가 공정성과 독자성을 잃고 우리에게 대한 압력 수단으로 계속 악용된다면 지금까지 IAEA 사찰과 관련하여 취한 선의적 조치들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li> </ul> <p>○ 北韓, 단군릉 준공식에 남한 정당·사회단체 대표 초청 편지 (平壤放送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민주당」, 「조국전선」 「범민련」 북측본부, 「직총」 등의 명의로 남한내 45개 단체, 74명에게 초청 便紙 발송</li> </ul> <p>&lt; 사회민주당 중앙위 명의 便紙 요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군릉 재건이 완공되어 오는 10월 초순에 준공식을 거행하게 됨.</li> <li>- 반만년 역사국인 우리나라의 유구성과 단일민족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민족적 경사임.</li> </ul>	<p>力使用 경고 * NBC-TV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북한이 핵 사찰을 허용토록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北韓에 강압외교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음.</li> <li>- 북한이 국제사회와 協力할지, 아니면 끝내 對決할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임</li> <li>- 누구도 핵문제에 한반도에서 戰爭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나 유사시를 대비해 再處理 설비를 파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li> </ul>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5		- 우리는 이 역사적인 행사에 [남한인사들을] 정중히 초청 하면서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안전과 모든 편의를 보장 하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바임	
9.26		0 黨·政간부들, 전천군 상업관 리소 참관 * 참석 : 강성산, 김영주, 계웅태, 한성룡, 최태복, 최영림, 양형섭, 홍석형, 연형목 외  0 제4차 불려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平壤영화축전 (9.26~10.4, 국제영화회관)	0 美·北 3단계 2차 회담 계속 * 수석대표회담  0 데이비드 키드 IAEA 대변인, 北 특별사찰 거부 우려 표명 - IAEA는 平壤의 거부에 매우 우려하고 있음.  -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한 경제지원 제공 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임.  0 모스크바방송, 『朝·蘇 우호협력조약』 개정 시사  - 러시아와 조선이 많은 쌍무협정들을 새롭게 고찰할 때도 됨.  - 『朝·蘇 우호협력조약』은 96년까지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6			<p>효력을 가지므로 유효기간 1년전에 조약의 장래에 관한 결정을 해야함.</p>
9.27	<p>0 국회 외무통일위, 韓國 주 도 없이 北 경수로 부담 不可 천명</p> <p>• '북한 핵문제 해결 및 경수로 제공사업에 관한 외무통일위 입장'</p> <p>- 북한 핵문제는 투명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政府는 北韓 핵문제 협의와 병행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p> <p>- 북한 경수로 제공사업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부담도 대한민국의 참여 아래 그 주도적 역할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약속, 시행될 수 있음.</p> <p>0 政府, 국내기업의 北韓 사무소 설치기준 제정 방침</p> <p>• 金泰淵 경제기획원 차관 신경제추진회의 보고</p> <p>-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 『南北경제협력사업관리규정』을 제정해 국내기업이 北韓지역에</p>	<p>0 인민무력부 대변인, 美 항공모함 동해 배치 비난 談話</p> <p>- 미국이 지금까지 표방해온 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위선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힘의 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나 같음.</p> <p>- 미국이 무력대결로 나오고 있는 이상 우리도 언제까지나 회담에만 매달려있을 수 없음</p> <p>- 우리 인민군대는 특별사찰을 통하여 군사대상을 개방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 우리는 그러한 회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p> <p>- 미군부 보수세력들은 50년대의 치욕스러운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p> <p>0 黨·政 간부들, 맹산군과 은포 협동농장 참관</p> <p>• 참석 : 강성산, 김영주, 계응태, 한성룡, 최태복, 최영림, 양형섭, 홍석형 외</p>	<p>0 美·北 3단계 2차 회담 계속</p> <p>• 수석대표회담</p> <p>0 대무린 러 외무부 대변인, 北·러 우호관계 증진 언급</p> <p>• 파노프 외무차관 訪北결과 브리핑</p> <p>- 北·러 양국은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러시아의 對北 경수로 제공 제의를 북한측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였음.</p> <p>0 美·러 정상회담, 北核 긴밀협력 합의 (워싱턴)</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7	<p>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것음.</p>	<p>0 북한 黨·政대표단, 중국 창건 45돌 경축행사 참가차 중국 방문(9.27~10.4)                      * 단장 : 부주석 이종욱</p>	
9.28	<p>0 외무부, 평화체제 전환에 포함될 내용으로 '상호통행제도 확립' 제시                      * 국정감사 서면보고</p> <p>- 南北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현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함.</p> <p>- 평화체제의 주요내용에는 현 군사분계선 상호인정, 상호경계선 불가침, 상호통행제도 확립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p>	<p>0 「祖平統」서기국, 남한 당국의 학생탄압 규탄 보도</p> <p>- 최근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문민파쇼광들의 야수적 탄압 만행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음.</p> <p>- 남조선 통치배들의 검거소동은 동족의 유고를 기화로 반인륜적 야만행위를 감행한 제놈들을 규탄하는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비열한 보복행위임</p> <p>-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문민파쇼광들을 국가보안법과 함께 영원히 매장해버리기 위하여 더욱 과감히 투쟁할 것임.</p>	<p>0 美·北 3단계 2차회담 계속                      * 수석대표회담</p> <p>0 클린턴 美대통령, 광범위한 核非확산 과제 추진 천명                      * 제49차 UN 총회 연설</p> <p>- 美國은 △北韓 핵개발억제 △핵물질 생산중단 국제협약 체결 △핵탄두 폐기 △ NPT 무기 연장 등 광범위한 核非확산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임.</p> <p>0 日, 한반도 유사시 군용기 派韓 타진</p> <p>- 곤도 日중의원 의원 등 3명은 李洪九 통일원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본 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정부 전용기</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8			<p>를 파견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본내에 있다"고 발언</p> <p>○ 日 니시모토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의장, 韓·中·러와 합동 군사훈련 용의 표명</p> <p>- 日本 자위대는 앞으로 韓·中·러 등 주변국가의 군대와 합동훈련을 구상하고 있음.</p> <p>○ 열친 러 대통령, 金正일 후계지지 표명</p> <p>• 이즈베스티야紙, 파노프 외무차관 발언 인용 보도</p> <p>- 북한에서 대안없는 후계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러 정부는 김정일을 국가수반에 오를 유일한 후보로 지지했음.</p>
9.29	<p>○ 韓昇洲 외무부장관, 核협상관련 더이상 양보없다고 발언</p> <p>- 한국형 경수로 채택이나</p>	<p>○ 金平一 駐핀란드 대사, 主席 선출회의 조만간 개최 언급</p> <p>• 최근 佛감마통신 회견</p> <p>- 지금은 추모기간이라 대규모</p>	<p>○ 美·北 3단계 2차회담 계속</p> <p>• 수석대표회담</p> <p>※ 10.5 속개</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29	<p>특별사찰 실시 등에 관한 韓美 양국의 입장은 최저선이기 때문에 더이상 양보할 수 없음.</p> <p>- 정부는 美·北회담의 결렬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p>	<p>회의를 열 분위기가 아님. 조만간 선출을 위한 회의가 있을 것임.</p> <p>- 미국은 오랫동안 우리의 적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p> <p>- 정치체제가 어떻든간에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의 복지문제임.</p> <p>○ 『朝平統』 서기국, 남한 당국의 대학생시위 단속 비난 報道</p>	<p>○ 강택민 중국 주석, 北韓 부주석 이종욱 접견</p>
9.30	<p>○ 金熙 안기부장, 북한지역 콜레라 만연 사실 언급 * 국정감사 보고</p> <p>- 北韓의 함흥, 신포 등 동해안지역과 서해안의 해주 및 평양, 개성 등 내륙일대까지 콜레라가 만연, 북한 당국은 방역대책에 부심하고 있음.</p> <p>○ 韓·美 외무장관, 北韓核 집중 논의 (뉴욕)</p> <p>- 核무명성이 확보돼야 對北경수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韓·美 긴밀 공조체제 유지 합의</p>	<p>○ 단군릉복구위원회 대변인, 단군릉 준공식 남한인사 초청 관련 談話</p> <p>- 우리는 남조선의 일부 인사들이 우리의 초청에 호응하여 平壤 방문의사를 표시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함</p> <p>- 아직 초청편지를 받지 못한 인사들에게는 이미 발송으로 보낸 우리의 초청편지가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금 알림.</p> <p>- 우리는 10.1 부터 板門店에 해당하는 영접인원들을 내보내 남측에서 오는 각계인사들을 맞이할 것이며, 만일 베이징을 경유하여 平壤을 방문하려는 인사들은 중국주재 우리나라</p>	<p>○ 美·北 실무자회담 (제네바)</p>



원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9.30		<p>라 대표부에서 따뜻이 영접할 것임.</p> <p>0 平壤放送, 전력공급문제 관련 남북한간 협상說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안기부가 개입해서 날조유포시킨 모략설임.</li> <li>- 우리는 남조선과 전력공급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그런 문제도 제기한 적이 없음.</li> </ul> <p>0 黨창건기념비 착공식 (평양 문수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강성산, 계응태, 한성룡, 홍성남, 홍석형, 김기남, 박남기</li> </ul>	

■ 10월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1	<p>0 金泳三 대통령, 남북대화 조기개최 촉구</p> <p>• 제46회 국군의 날 치사</p> <p>-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비통제문제, 그리고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협의를 위한 남북간의 接觸은 빠를수록 좋음.</p> <p>- 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역에 꽃피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길·임.</p> <p>- 북한의 開放과 改革없는 한반도의 평화도, 민족의 통일도 진전될 수가 없음.</p> <p>- 북한이 핵무명성을 보장하고 개방과 개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북한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것임.</p>	<p>0 최정남(한총련 대표), 단군릉 준공식 참석차 入北 (10.1~11.24)</p>	<p>0 갈루치 美핵담당 대사, 本國정부와 핵협상대책 협의차 워싱턴 귀환</p>
10. 2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경수로지원 이전 특별사찰' 고수 표명</p> <p>• 기자간담회</p> <p>- 경수로지원 이전에 과거</p>	<p>0 지리노프스키 러시아 자유민주당 대표, 平壤 방문 (10.2~6)</p>	<p>0 홍콩 『鏡報』誌, 中, 한반도 유사시 대비 대규모 훈련 실시 보도</p> <p>- 중국은 한반도에</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2	<p>의 핵의혹 규명을 위한 사찰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지노선임.</p>		<p>상륙하여 북한을 지원하고 韓·美에 대항하는 것이 전술목표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8.23 遼東반도에서 실시했음.</p>
10. 3	<p>○ 姜英勳 「韓赤」총재, 북한지역 콜레라 공동방역조치 제의 聲明</p> <p>- 우리는 페스트가 東北亞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북한지역에서의 콜레라 퇴치와 방역을 위해 南과 北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북한 적십자측에 제의함.</p> <p>- 우리는 일차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알림.</p> <p>- 우리 적십자인들은 진정으로 人道主義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민족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함.</p>	<p>○ 단군릉복구위원회 대변인, 준공식 연기는 남한 인사들의 도착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주장 (記者會見)</p> <p>- 우리는 이미 초청한 바 있는 남조선의 각계인사들이 도착할 시각을 기다리며 예정된 단군릉 준공식을 미루고 있음</p> <p>- 이러한 조치는 단군릉을 개건하여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도모하고 5천년 역사국의 위상을 선양하려는 金日成의 애국애족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됨.</p> <p>○ 북한 외교부 대표단, 중국방문차 平壤 출발 * 단장 : 외교부 부부장 조규일</p>	<p>○ 美·北 실무자회담 개최 (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p> <p>○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 北核문제 중국과 긴밀협력 언급 * 美·中 외무장관회담후 기자회견</p> <p>- 북한 핵문제를 다뤄나가는데 있어서 중국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함.</p> <p>- 우리는 북한에 관해 일치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3	<p>0 李榮德 국무총리, 北 사회 개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천절 경축사</li> <li>- 북한은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회를 개방,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함</li> <li>-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민족공존공영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기를 바랍.</li> </ul>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核 해결땐 北 경제개발 지원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9차 UN총회 연설</li> <li>-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南北 공동번영의 정신아래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음.</li> <li>- 북한 핵문제는 NPT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중의 하나이며 한반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전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있음.</li> <li>- 북한 핵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과거·현재·미래의</li> </ul>		<p>0 美항모 키티호크, 동해에서 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 포스트誌 보도</li> <li>- 한국 근해에 배치됐던 美항모함 키티호크號가 부산을 떠나 일본 동쪽해역으로 철수</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3	<p>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함.</p> <p>○ 韓昇洲 외무부장관, '北, 핵연료봉 재장전엔 美·北 회담 기초 깨질 것' 경고          * 뉴욕 한국특파원 간담회</p> <p>- 핵연료봉의 재장전은 美·北간 회담의 기초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IAEA가 북한핵문제를 安保理에 회부할 수 있는 이유를 갖게되는 계기가 될 것임.</p> <p>○ 李敏燮 문화체육부장관, 월드컵 南北공동개최 제의 방침 표명          * 아사히신문 회견</p> <p>-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남북한 공동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할 방침임.</p>		
10. 4	<p>○ 李柄雄 「韓赤」사무총장, 김인서·합세환과 북한 가족들간 서신왕래사실 공개          * 국정감사 보고</p> <p>- 81년 출소한 미전향자 김인서(65.일명 김국홍)와 합세환(62) 2명이 각각 올 6월, 8월부터 국제적</p>	<p>○ 「祖平統」, 金泳三 대통령 국군의 날 치사 비난 聲明</p> <p>- 김○○이 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있는 것은 北南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부정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임</p>	<p>○ 美·北 실무자회담 개최 (제네바)</p> <p>○ 펠레트루 美국무차관보, 美·北고위급 회담시 북한측에 미사일 대외판매 중지 요구 확인          * 美상원 외교위 청</p>

■ 10월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4	<p>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극비리에 서신왕래를 해 왔음.</p>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갈루치 美 核대사와 核협상 대책 협의</p>	<p>-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선언해 나선데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임.</p> <p>0 제4차 블리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平壤영화축전 폐막 (9.26~10.4, 국제영화회관)</p> <p>0 黨·政대표단 (단장: 이종옥), 중국방문 종료 (9.28~10.4) * 9.29 江澤民 중국주석, 9.30 李鵬 총리 면담</p>	<p>문회 증언</p> <p>-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대외판매 증지를 요구했으나 북한의 반응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음.</p>
10. 5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정상 회담 북한측 제의 차례라고 언급 * 경향신문 창간 48주년 특별회견</p> <p>- 南北정상회담은 북측이 그들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만큼 북측이 우리측에 제의하는게 순리임.</p> <p>- 회담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 협의해야 할 것임.</p>	<p>0 平放, 姜英勳 「韓赤」총재의 콜레라 공동방역조치 제의 거부 (論評)</p> <p>- 우리 당과 정부의 인민적인 보건정책으로 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질병과 전염병들이 완전히 없어졌음.</p> <p>- 오늘 우리 인민들은 콜레라라는 말은 보도를 통해서 듣거나 의학사전을 통해서만 알고 있음.</p> <p>- 무슨 콜레라 확산이요 뭐요 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남을 물고 넘어지는데 이골이 난 괴뢰들만이 할 수 있는 파렴치한 수작임.</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 수석대표회담</p>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核美 중대 안보 문제라고 언급 * 기자회견</p> <p>-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핵은 美國의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가 될 것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5		<p>0 외교부 부부장 최수현, 제49차 UN총회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며 혁명 무력의 최고사령관임.</li> <li>- 김정일은 우리 인민의 높은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그에게 모든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음.</li> <li>-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세우는 것임.</li> <li>-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 누구도 여기에 관여할수 없음</li> </ul> <p>0 사회민주당 대변인, 단군릉 준공식 남한인사 참가 허용 촉구談話</p> <p>0 金正日, 朝·中외교관계 설정 45돌 즈음 강택민 중국 주석에 祝電</p> <p>0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제2차 학술발표회(10.5~7, 인민문화궁전)</p>	<p>0 江澤民 중국주석, 국교수립 45돌즈음 김정일에 祝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의 두리에 굳게뭉쳐 김일성의 생전의 뜻을 이어 사회주의 건설위업에서 더큰 성과를 이룰 것을 축원함.</li> </ul> <p>0 日 아사히신문, 中, 북한에 원유제공 통보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145만t의 원유를 절반은 무상, 절반은 국제시세의 절반가격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최근 北韓에 통보했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6	<p>0 李炳台 국방부장관, 北위협 소멸 전제로 「東北亞 집단안보체제」 제의 * 美육군대학원 연설</p> <p>- 北위협이 소멸되는 시기가 오면 韓美안보동맹은 종래 방위동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東北亞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동맹'으로 그 성격과 역할을 점차 확장시켜야 함</p> <p>0 韓·美, 한국군 평시작전권 12월 인수 합의 * 제16차 韓·美군사위원회(MCM) 회의 (워싱턴)</p> <p>- 양국은 韓·美연합사가 보유해온 平時작전통제권을 12.1부로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p>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日本,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조건부 지지 표명 * 韓·日외무장관회담 (도쿄)</p> <p>-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맡으려는 것을 이해함.</p>	<p>0 사회과학원 대변인, 단군릉 준공식 남한인사 참가 허용 촉구談話</p> <p>0 정무원 총리 강성산, 朝·中 외교관계 수립 45돌 즈음 이봉중국 총리에게 祝電</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제네바) * 대표단 전체회담 및 수석대표회담</p> <p>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北연료봉 재장전 우려 표명</p> <p>- 북한이 寧邊 5MW 원자로를 재가동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되는 문제로, 核협상의 시급성을 제기하는 문제중의 하나임.</p> <p>0 카터 美국방차관보, 韓·日 핵공격 받을 땐 美 대응공세 표명 * 美하원 외무위</p> <p>-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대응을 정당화시킬 것이라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7	<p>0 제26차 韓·美 안보협의회의(SCM), T/S훈련 실시여부 10월중 결정 합의</p> <p>* 李炳台 국방부장관, 페리 美 국방부장관 참석 (10.6~7, 워싱턴)</p> <p>- 韓·美상호방위조약의 이행과 미국의 계속적인 핵우산 제공, 주한미군 감축유보 등을 재확인</p> <p>- 군사정전협정은 남북한간의 직접 협상에 의거 영구적인 평화협정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데 합의</p> <p>-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이양을 위해 「군사위원회 및 韓·美연합군 사령부 관련약정」의 개정안에 서명</p> <p>- 韓·美 연합군사훈련의 지속적인 실시 합의</p> <p>&lt; 李炳台 장관 기자회견 &gt;</p> <p>- 금년도 T/S훈련 실시여부는 美·北회담과 김정일의 권력장악 등 북한동향등을 주시한 뒤 10월말 이전 최종 결정될 것임.</p>	<p>0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단군릉 준공식 남한인사 참가 허용 촉구 談話</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제네바)</p> <p>* 수석대표회담</p> <p>0 클린턴 美대통령, 협상 성과 없으면 對北제재 추진 시사</p> <p>* 기자회견</p> <p>-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美·北간 협상이 성공하기를 기대함.</p> <p>- 지난 6월 북한과의 진지한 협상에서 성과가 없었을 때 대북제재를 추진한 바 있음.</p> <p>0 페리 美국방장관, 特別査察만이 유일한 방법 아니라고 발언</p> <p>* 기자회견</p> <p>- 특별사찰만이 핵투명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임.</p> <p>0 中, 지하 核실험</p> <p>* 新彙 위구르차지구</p>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7	<p>0 金泳三 대통령, 美國의 對北 협상태도 언급 * 美 NYT紙 회견</p> <p>- 美 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에 있어 순진하고 과도한 신축성을 보이고 있음</p> <p>- 북한 정권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봉착해있어 권력에서 축출될지 모름. 따라서 美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강화해야지 태도를 완화해서는 안됨.</p> <p>- 미국이 아이티나 쿠바,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인권탄압이 더욱 심각한 북한에 대해서는 이를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음.</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 대미협상과정에서 韓國 배제 기도 경고 * 제3차 東北亞 상주외신기자 초청 세미나</p> <p>-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 미국과의 수교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p>		<p>0 北, 한국기업 訪北 초청 재심 통보설 * 국내재계 소식통</p> <p>- 北韓은 최근 북경 고려민족산업발전 협회(회장 이성복)를 통해 기존의 초청장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국기업들에 통보</p> <p>0 日산케이신문, 러 핵기술자 비밀리 방북 보도 * 美정부소식통 인용</p> <p>- 냉각수조에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봉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비밀리에 북한에 들어가 있음.</p> <p>0 中, 北, 피침팬 참전 밀약說 * 北京 서방소식통</p> <p>- 중국과 북한은 지난 6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북한지역이 외세의 침공이 있</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7	<p>0 外務部 대변인, 중국 核실험 관련 유감 論評</p> <p>- 현재 주요 핵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자제하고 핵실험금지조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함.</p> <p>0 金雲龍 대한올림픽위원장, 한국 개최 국제경기서 北 국기·국가 사용가능 언급 • 日교도통신 회견•</p> <p>-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며, 북한이 국기와 國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임.</p>		<p>을 경우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참전을 약속하는 비밀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음.</p>
10. 8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타결 안되면 안보리 회부 경고 •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p> <p>- 美·北 회담에서 핵문제가 끝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UN 안보리에 회부하는 수 밖에 없음.</p> <p>-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경수로 지원과 기술·자본 지원도 하겠지</p>	<p>0 中放, 韓昇洲 외무장관의 日本 UN 상임이사국 진출 조건부 지지 표명 비난 (論評)</p> <p>- 민족의 존엄에 대한 또하나의 용납못할 모독행위로서 추악한 친일 사대매국적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p> <p>- 우리를 반대하는 대결전쟁 책동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를</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제네바) • 수석대표회담</p> <p>0 北, 한국기업 訪北 초청 재심통보 보도 부인</p> <p>- 北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는 10.8 국 내기업에 기존 방</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8	<p>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T/S훈련도 재개할 수 밖에 없음.</p> <p>○ 이종훈 한국전력 사장, 對 北 장단기 전력공급방안 강구 발의 * 국회 국정감사</p> <p>- 통일시대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南北韓 인접 발전소간의 선로를 연결,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과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p> <p>-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상호 전력용통을 위한 단일 전력계통체제 구축을 구상하고 있음.</p>	<p>받으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임.</p> <p>○ 북한 사회단체들, 단군릉 준공식 남한인사 참가 허용 촉구 談話 * 「조국전선」중앙위, 「직총」중앙위, 「문예총」중앙위, 「범민련」북측본부 등</p>	<p>북 신청서의 재심 통보와 커미션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문서로 관계당국에 통보</p>
10. 9	<p>○ 李榮德 국무총리, 南北 언어 이질화 극복 노력 강조 * 한글날 기념사</p> <p>- 정부는 통일시대에 대비, 날로 심화되고 있는 남북간 언어의 이질화현상을 극복키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p>	<p>○ 勞動新聞,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 합의 관련 '의미없다'고 論評</p> <p>- 작전지휘권이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평시에는 의미가 없음.</p> <p>- 한국군이 군통수권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군사적 예측은 더욱 교묘하게 위장됐음.</p>	<p>○ 美워싱턴 포스트紙, 한국 강경자세 美·北협상 저해 주장</p> <p>- 한국의 대북 강경, 자세는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美·北 협상의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0		<p>0 노동신문, 당창건 49돌 즈음 社說</p> <p>- 오늘 우리 당은 자기의 혈통을 고수하는 것이 당의 운명과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이고 있음.</p> <p>- 金正日은 오래전부터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 세기의 빛나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임.</p> <p>0 「韓民戰」중앙위, 黨창건 49돌 즈음 김정일에 축하문</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제네바)</p> <p>* 대표단 전체회담</p> <p>0 페리 美국방장관, 한반도문제 대응할 軍事力 충분 발언</p> <p>* CNN-TV 회견</p> <p>- 美國은 중동에 군사력을 증강시켜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韓半島問題에 대해서도 예비군사력을 갖고 있음.</p> <p>0 北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아들, 中國 탈출설</p> <p>* 중국소식통</p> <p>-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아들로 인민무력부 산하 특수부대장인 軍장성 1명이 지난달 중국으로 탈출, 北韓 지도부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려있음.</p>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1	<p>0 大統領 주재 安保關係長官 조찬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核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사찰과 함께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돼야 한다는 기존 韓·美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li> <li>- 北核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사찰과 함께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돼야 한다는 기존 韓·美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li> </ul> <p>0 金泳三 대통령, '核협상 서두를 필요없다' 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CNN-TV 회견</li> <li>- 나는 美國이 북한핵협상 관련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한미간 합의를 지켜야 하며, 核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li> <li>- 金正日이 주석직에 취임하면 김정일을 상대할 것이며, 南北頂上會談 구상은 아직 유효함.</li> </ul> <p>0 金泳三 대통령, 韓·美간 신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WSJ紙 회견</li> </ul>	<p>0 단군릉 개건 준공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강성산, 이종옥, 김영남, 최태복, 양형섭, 김기남, 김용순, 김윤혁, 장 철, 박남기, 류미영, 최정남(한총련), 권순휘(조총련), 문명자(재미교포) 등</li> </ul> <p>&lt; 강성산 준공사 要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기념비적 창건물로 일떠선 단군릉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단일혈통을 빛내여 주려는 金日成·金正日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임.</li> <li>- 金正日의 현명한 영도따라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음.</li> <li>- 金日成·金正日是 우리 민족사의 올바른 연원을 찾아주고 平壤을 민족의 성지로, 우리 조국을 5천년 역사국으로 만방에 빛내어 준 애국애족의 위대한 화신이며 우리 민족의 정기를 한몸에 체현한 걸출한 위인임.</li> </ul>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대표회담</li> </ul> <p>0 셸리 美국무부 副대변인, 美·北 회담 긍정타결 확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회담이 긍정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것으로 확신함</li> <li>- 북한 핵문제에 관해 韓·美간 목표가 같고 지향하는 방향도 같음.</li> </ul> <p>0 유엔개발계획(UNDP) 南北韓 11개 협력사업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부 국감자료</li> <li>- UNDP는 남북한 및 제3국 협력사업으로 북한내 외국인 투자 촉진, 에너지 효율화, 연료기술 협력 등 11개 사업 제시</li> </ul> <p>0 駐韓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對北 투자조사단 파견 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美는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美·北회담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li> <li>• 트위스트 회장, 나진·선봉지역관련 세미나에서 표명</li> </ul>
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韓·美간 北核관련 관점 차이 언급</li> <li>• KBS-TV 會見</li> <li>-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과거·현재·미래의 핵무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은 NPT 유지라는 세계적 조망에서 문제를 보고 있음.</li> <li>○ 李世基 민자당 의원, 판문점 관리권 UN司로부터 반환 주장</li> <li>• 국회 외무통일위</li> <li>- 각종 남북회담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오갈 때 UN軍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잘못임.</li> <li>- 이 문제는 영토회복 차원에서 조속히 다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대변인, 日本의 核의혹 해결前 국교정상화 불가 입장 비난 記者會見</li> <li>- 우리는 현 일본 당국자들이 남아 빠진 對조선 적대시정책을 답습하면서 朝·日 국교정상화문제를 걸고 그무슨 압력을 가해보려는 행위에 대하여 결코 방임할 수 없음.</li> <li>- 일본 당국자들은 朝·日 국교정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핵문제를 떼어버리지 않는한 우리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li> <li>○ 獨逸외무성 대표단, 북한 방문</li> <li>• 단장 : 디테르 파펜푸스 외무성 전권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제네바)</li> <li>• 전화와 팩스를 통해 협의</li> <li>○ 무라야마 日총리, 北核 대처 위해 美 요청편 日本기지 사용 협력 시사</li> <li>• 日중의원 예산위</li> <li>- 일본은 憲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협력을 다할 것임.</li> <li>○ 러 외무부 대변인, 理念 배제된 새로운 러·北관계 정립 모색 언급 (방송회견)</li> <li>- 오늘 모스크바와 평양이 사상적 구속이 없는 새로운 관계 건설을 내다 보고 있음.</li> </ul>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3		<p>0 외교부 대변인, 제26차 韓·美 안보협의회의 개최 관련 비난 談話</p> <p>- 朝·美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모의판을 공공연히 벌여놓은 것은 朝·美 사이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됨.</p> <p>-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 수립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심상치 않은 군사적 소동을 벌이는 것은 결국 남조선을 영원히 군사적으로 가로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임</p> <p>-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지 못하고 냉전의 대결구도가 제거되지 못하는 책임이 美군부내 보수세력과 남조선 괴뢰들에게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줌.</p> <p>0 「祖平統」서기국장 백남준, 金泳三 대통령 뉴욕 타임즈紙 회견 비난 記者會見</p> <p>- 朝·美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北의 동족을 모해·압살하려는 반민족적 망발임.</p>	<p>0 美·北 3단계고위급 회담 2차회담 계속 (제네바)</p> <p>• 실무자회담</p> <p>0 獨 민간경제사절단, 무역대표부 설치 및 나진·선봉지역 투자방안 협의차 訪北</p> <p>• 한국무역협회 뒤셀도르프 지부 확인</p> <p>- 獨逸의 대기업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북한을 방문, 뒤셀도르프 인근지역에 北韓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와 羅津·先鋒에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함.</p> <p>- 북한 경제정보센터 소장 라인박사가 이끄는 1진이 10.10 출발한데 이어 2진도 10.13 平壤으로 떠났음.</p> <p>0 러 이타르 타스 통신, 平壤 주재 외국 공관, 직원들에 콜레라 방역실시 보도</p>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0 0 은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을 망상하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지 않고 朝·美 회담에 채방을 놓는 것임.</li> <li>- 우리에게 대한 강경조치라는 것은 사실상 남조선에도 이로울 것이 없음.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北과 南에 다같이 엄청난 후과를 가져다 줄 것임.</li> </ul> <p>0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의 아들 김용재, 국제인권기구들에 송환 협조 便紙 발송</p> <p>* UN 인권소위, 적십자국제위원회, 국제사면위 앞</p>	<p>0 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北, ADB 가입의사 타진 언급</p> <p>- 북한이 지난 10월 비공식 경로를 통해 가입의사를 표명해 왔음.</p>
10.14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美·北 회담 합의문 수용 방침 언급</p> <p>* 국회 국정감사</p> <p>- 북한이 IAEA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핵투명성을 보장한다면 협상안을 수용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임.</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 핵문제 해결 5개 原則 제시</p> <p>* 국회 국정감사</p>		<p>0 美·北 3단계 고위급 회담 2차 회담 계속</p> <p>* 실무자 회담</p>

■ 10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4	<p>① 北韓 핵개발 중지·동결</p> <p>② 韓半島 전쟁재발 예방과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p> <p>③ 남북당사자간 해결방향으로 非核化共同宣言 이행을 포함한 南北對話의 재개</p> <p>④ 北韓 핵의 과거·현재·미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IAEA의 기준·판단을 중시</p> <p>⑤ 대북 경수로 지원은 반드시 한국이 중심</p> <p>0 北韓軍 하사 안명철(25), 제3국 경유 귀순 * 안기부 발표</p>		
10.15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美·北협상 타결 南北關係개선 주요轉機 언급 *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입장</p> <p>- 남북한은 제네바 협상타결을 계기로 지난 2~3개월간 남북관계의 불편한 분위기를 씻고 지난 6월의 회담분위기로 되돌아가기 바람.</p> <p>- 美北協商的 타결은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전기가</p>		<p>0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담 계속 * 수석대표회담</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5	<p>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北韓의 새 권력체제가 안정속에서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의 새정권은 우리와 함께 南北和解協力시대들을 열어나아가야 함.</li> </ul>		
10.16	<p>0 金泳三 대통령, 核해결편향적 對北정책추진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매일신문 창간 기념회건</li> <li>- 남북관계에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조장하는 일이 될 것임.</li> <li>-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면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對北정책을 추진할 것임.</li> </ul>	<p>0 金日成 사망 100일 중앙추모회 (금수산의사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성애 외</li> <li>&lt; 黨비서 김기남 추모사 &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위임</li> </ul> </li> <li>-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li> <li>- 남조선 문민통치배들은 북남 관계를 다시금 반목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li> </ul>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北 核능력 동결에 최우선 목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BC-TV 회견</li> <li>- 美國은 북한이 核能力을 더이상 제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目標이며, 현재 진행중인 제네바 3단계 고위급회담이 타결될 경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임.</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6		<p>- 우리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연방제방식으로 90년대에 기어히 조국을 통일할 것임.</p> <p>&lt; 총참모장 최광 추모사 &gt;</p> <p>- 우리인민군대는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치고 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하여도 김정일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데 대한 김일성의 유훈을 끝까지 충실할 것임.</p> <p>- 우리혁명의 최고 뇌수이며 우리당의 최고영도자인 김정일을 결사옹위해야 하며, 여기에 김일성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 나가는 근본열쇠가 있음.</p> <p>0 金日成 사망 100일 즈음 당·정 간부들 김일성 동상 화환 증정 * 참석 : 오진우,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 광, 계응태, 한성룡 外</p>	
10.17		<p>0 美·北 3단계 2차회의, 「기본 합의문」 타결 (제네바) * 10.21字 참조</p>	<p>0 갈루치 美 국무차관보, 기본합의문 타결후 記者會見</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合意文이 북한 핵문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긍정적인 것으로 評價함으로써 본국정부측에 승인을 권고할 것임.</li> <li>- 합의문은 또한 美國은 물론 韓·日 등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이해와도 합치하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전적인 支持를 얻을 것으로 기대함.</li> <li>- 국제안보와 NPT체제를 위해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함.</li> <li>- 合意文은 IAEA가 북한의 과거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方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음.</li> </ul> <p>○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韓 2개 미신고시설 사찰</p>

■ 10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7			<p>계속 거부 지적                      * UN 總會 보고</p> <p>- 지난 7.8월중에 북한측의 拒否로 중단됐던, 신고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査察이 再開돼 현재 대부분이 진행되고 있음.</p> <p>- 그러나 두개의 未申告施設에 대한 사찰은 여전히 거부되고 있음.</p> <p>0 무라야마 日총리, 북한 金正日체제 조기안정 희망                      * 기자회견</p> <p>- 北韓의 상황이 새로운 지도체제의 조속한 확립과 더불어 안정되기바람</p>
10.18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關係 획기적 進展노력 천명                      * 국회 시정연설</p> <p>- 정부는 앞으로 한미간 긴밀한 共助體制를 유지하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美·北간 합의가 충실히</p>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美·北 3단계 2차회담후 記者會見 (제네바 북한대표부)</p> <p>- 이번에 우리는 朝·美사이의 불신 해소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를 해결하는데 기본을 두고 회담을 진행</p>	<p>0 클린턴 美대통령, 美·北 합의 전면수용 발표 (특별성명)</p> <p>- 美·北 합의로 한반도에서의 核확산에 따른 위협의 종식에 크게 기여할</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8	<p>이행되는 것은 물론 南北關係에도 획기적인 進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 合意를 통해 북한은 모든 핵활동을 즉각 동결하고 관련시설을 해체하는데 동의함으로써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韓半島 安定·平和維持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li> </ul> <p>0 제16차 통일관계장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된데 대해 긍정 평가</li> <li>- 북한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li> <li>- '95년도 통일과정 관리계획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결정</li> </ul> <p>0 韓昇洲 외무장관, 美·北 합의 한반도 平和 기초 마련 평가</p>	<p>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에게 대한 외부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른바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였음.</li> <li>- 흑연로체계가 경수로체계로 교체되면 이른바 핵의혹이라는 것도 말끔히 없어지게 될 것임.</li> <li>- 우리는 朝·美사이의 불신해소를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朝·美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들도 토의하였음.</li> </ul> <p>0 北韓적십자회 창립 48돌 기념 보고회 (평양 국제문화회관)</p> <p>&lt; 위원장 대리 이성호 報告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北南사이의 대화가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 반대화적 행위때문임.</li> <li>- 남조선 적십자사가 분열로 인한 거래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들을 北</li> </ul>	<p>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케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음.</li> <li>- 갈무치 대사에게 10.21 제네바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지시했음.</li> </ul> <p>0 고노 日외상, 美·北 合意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합의를 환영하며 美國의 끈기있는 협상과정을 높이 평가함.</li> <li>- 합의내용 대부분 日本이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일본의 구체적인 대응은 지금부터임.</li> </ul> <p>0 이가라시 日관방장관, 北核 타결 환영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를 통해 해결</li> </ul>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8	<p>*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금번 합의가 북한 核問題의 근원적인 해결 과 한반도의 安定과 平和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li> <li>-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 하고 南北基本合意書를 실천에 옮겨,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임.</li> <li>- 특히 북한에 대한 經水爐 지원 사업에 있어 우리가 中心的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를 토대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li> </ul> <p>○ 金始中 과기처장관, 經水爐 우리 기술로 90%건설가능 언급</p> <p>* 국회 국정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형 經水爐를 支援 경우 계통설계는 한국 원자력연구소, 터빈발전기는 한국중공업, 안전성심사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이 맡을 것이며, 전체 원전건설기술의 90%정도를 우리技術로 지원할 수 있음.</li> </ul>	<p>送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직십자사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률적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남조선 당국에 촉구해야 할 것임.</li> </ul> <p>○ 노동신문, 訪北 崔正남에 대한 의법조치 방침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〇 〇 일당은 崔正남 학생의 의로운 訪北활동을 범죄시함으로써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모르는 패덕한으로서의 야만적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음</li> </ul>	<p>된 것을 기본적으로 환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핵의혹 검증 등 일본이 요구한 사항이 합의에 들어있는 것으로 봄.</li> </ul> <p>○ 키드 IAEA 대변인, 북한에 사찰단 추가 파견 준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는 약 15명의 핵사찰단중 일부를 平壤에 추가로 파견할 수 있을 것임</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9	<p>0 金泳三 대통령, 美·北합의 관련 적극적 국민설득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샘년 美상원 군사위원장 접견</li> </ul> <p>- 미국과 북한의 회담 합의문에 대해 우리 내부의 일부계층에 불만이 있음.</p> <p>- 政府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회담 합의문이 성실히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임.</p> <p>0 李敏燮 문화체육부 장관, '95 민속예술경연대회 南北 공동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개막식</li> </ul> <p>- 광복 50주년을 맞는 9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남북한이 동시에 참가해 갖을 것을 제의함.</p> <p>0 박범진 민자당 대변인, 北 核타결 환영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빚어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기본목표가 이뤄진 것으로 봄.</li> </ul>	<p>0 「祖平統」서기국, 訪北 최정남 위법조치 방침 비난 報道</p>	<p>0 갈무치 美국무차관 보, 美·北 '대외비' 각서·체결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 회담결과 브리핑</li> </ul> <p>- 美·北 기본합의서에는 對外秘 각서가 첨부돼 있으며 공개 않기로 약속돼 있음.</p> <p>0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6개월내 연락사무소 설치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문에는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 6개월내에는 상호 설치하게 될 것임.</li> </ul> <p>0 이가라시 日관방장관, 對北수교협상 재개 용의 공식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ul> <p>- 일본 정부는 예전부터 북한의 핵개발문제 해결을 日·北 수교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p>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19	<p>○ 박지원 민주당 대변인, 北 核타결 환영 聲明</p> <p>- 한반도에서 핵위기가 사라지고 전쟁위협이 없도록 특한 회담타결을 환영함.</p>		<p>생각하지 않고 있음.</p> <p>-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北韓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있음.</p> <p>○ 美공화당 중진의원 4명, 클린턴 대통령에게 美·北합의 재협상 촉구 서한</p> <p>- 머코스키, 헬름스 등 상원의원들은 미·북합의내용을 비판하면서 재협상을 촉구</p>
10.20	<p>○ 韓昇洲 외무부장관, 北韓 인권문제 美·北수교 전제 조건 아니라고 발언</p> <p>* 연합통신 회견</p> <p>- 北韓 인권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美·北수교의 전제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음.</p> <p>- 그러나 美國은 앞으로 對 北수교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으로 봄.</p>	<p>○ 외교부 대변인, 美·北 『기본 합의문』 채택 관련 報道 발표</p> <p>-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최고사령관 金正日은 朝·美회담 우리측 단장에게 기본합의문에 서명하도록 지시를 주었음.</p> <p>- 기본합의문은 흑연로체계의 경수로체계의 교체문제, 朝·美 사이의 정치·경제관계 정상화문제,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보장문제, 핵전파방지체계 강화문제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해 朝·美 쌍</p>	<p>○ 클린턴 美대통령, 김정일에게 경수로 제공 및 대체에너지 보장 書翰</p> <p>* 내용 10.22字 참조</p> <p>○ 셸리 美국무부 副대변인, 對北제공 重油 첫 공급분 美國 부담 언급</p> <p>- 최초 3개월내 북한에 제공되는 대체에너지용 重油는 미국이 부담하겠지</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0		<p>방이 해야할 바에 대하여 공약하는 중요한 문건으로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합의문에는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우리가 내놓은 주동적 발기들이 충분하고 만족하게 반영되어 있음.</li> <li>- 기본합의문이 이행되면 朝·美사이의 적대관계 해소와 신뢰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라는 것은 중국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임.</li> </ul> <p>○ 최정남(韓總聯 대표) 환영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청년중앙회관) * 참석 : 최용해, 박관오, 홍일천</p> <p>○ 平放, '수령의 후계자는 선거가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 추대되는 것' 이라고 주장</p>	<p>만, 추가공급분은 對北 경수로지원 컨소시엄이 재정부담을 맡게될 것임.</p> <p>○ 불릭스 IAEA 사무총장, 美·北 합의 미흡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합의가 IAEA에게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을 파악하기위해 필요한 시설 접근 기회를 부여하겠지만 이것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음.</li> </ul>
10.21	<p>○ 韓昇洲 외무부장관, 대체 에너지 비용 부담 표명 * 국회 외무통일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체 에너지 제공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임.</li> </ul>	<p>○ 美·北 3단계회담 종료, 「기본 합의문」 서명·발표 (제네바) * 10.17 타결, 10.21 서명</p> <p>&lt; 朝·美 기본합의문 (Agreed Framework) 要旨 &gt;</p> <p>1. 쌍방은 朝鮮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p>	<p>○ 클린턴 美대통령, 美·北 합의 관련 金泳三 대통령에게 구두 메시지 * 페리 美국방장관 통해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에서 합의된</li> </ul>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1	<p>- 앞으로 경수로 지원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되더라도 대체에너지 제공엔 일절 참여할 계획이 없음.</p> <p>0 韓·美 국방장관, '94 T/S 훈련 중단 합의</p> <p>- 美·北 핵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 T/S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p>	<p>들로 교체하기 위해 협조함.</p> <p>1) 美國은 2003년까지 총 200만k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함.</p> <p>2) 美國은 1호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동결에 따르는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기위한 조치를 취함</p> <p>대용 에너지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함.</p> <p>3) 朝鮮은 흑연감속로와 연관 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함.</p> <p>경수로대상 건설기간 朝·美는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朝鮮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폐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협조함.</p> <p>4) 朝·美는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두갈래의 專門家協商을 진행함.</p>	<p>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호히 응징할 것임.</p> <p>0 클린턴 美대통령, 對北 중유제공 비용 대부분 韓國 부담 언급</p> <p>* 기자회견</p> <p>- 日本과 다른 나라들의 지원아래 한국은 북한의 핵에너지 상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對北 연료 공급 경비의 대부분을 떠맡을 것임.</p> <p>0 고노 日외상, 조건 없는 對北 수교협상 재개 용의 표명</p> <p>* 日중의원 안보위</p> <p>- 북한과의 회담을 재개하는데 전제조건을 달 필요를 느끼지 않음.</p> <p>- 상대방의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대화하고 싶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1		<p>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 에네르기와 관련한 연관문제들과 흑연감속로 계획을 경수로 대상으로 교체하는 데서 제기되는 연관문제들을 토의함.</p> <p>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폐연료의 보관 및 최종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함.</p> <p>2.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감</p> <p>1) 쌍방은 합의문 서명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의 장벽을 완화함.</p> <p>2) 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영사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들을 개설함.</p> <p>3) 朝·美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시급으로 승격시킴.</p> <p>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1		<p>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p> <p>1) 美國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朝鮮에 제공함.</p> <p>2) 朝鮮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北南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p> <p>3) 朝鮮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北南對話를 진행할 것임.</p> <p>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p> <p>1) 朝鮮은 NPT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것임.</p> <p>2) 경수로 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朝·IAEA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재개됨.</p> <p>3)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1		<p>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 핵관련 부분품들이 납입되기전에 朝鮮은 IAEA와 핵물질 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 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IAEA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 403)을 완전히 이행함.</p> <p>※ 대외비 각서(Confidential Minute) 별도 합의</p> <p>○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기본합의문」 서명후 記者會見(제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문은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로 되는 역사적 문건으로서 朝·美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들이 반영되어 있음.</li> <li>- 우리는 기본합의문에 우리의 정당한 입장과 주동적 발기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li> <li>- 우리가 이번에 핵활동의 현재</li> </ul>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1		<p>와 미래를 동결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우리의 핵개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게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되었을 때, 그리고 朝·美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에 가서 우리의 핵투명성이 보장될 것임.</li> <li>- 우리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김정일을 조선의 최고지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존칭하고 있음.</li> </ul> <p>○ 北韓 대표, UN총회 제49차회의 제1위원회에서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과 주변의 일부 나라들이 朝·美 기본합의문을 실천에 옮기는데 장애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 자신에게도 좋을것이 없음</li> <li>- 군사정전위에서 정전협정 체결일방인 朝·中측 대표단이 철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개설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2		<p>○ 中放, 클린턴 美대통령의 경수로 제공 및 대체에너지 보장 '담보서한' (10.20字) 공개</p> <p>* 金正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로 호칭</p> <p>- 朝鮮에 제공될 경수로 발전소 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에 제공될 대용에너지 기 보장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당신께 확인하는 바임.</p> <p>○ 「韓民戰」중앙위 선전국, 美·北 합의에 대한 남한내 반응 관련 '공보문' 발표</p> <p>○ 「朝總聯」의장 한덕수, 일본 귀환 즈음 金正日에게 便紙와 歌辭 진정</p> <p>- 이제 자기초소에 돌아가면 저의 생을 총련을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충효일심으로 받들어 나가는 충성의 부대로 튼튼히 꾸리는데 기꺼이 바치겠음.</p> <p>○ 조선인민군 친선참관단,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p> <p>* 단장 : 오용방 (대장)</p>	<p>○ 사이토 日외무차관, 日·北 수교회담 조기재개 가능성 시사</p> <p>* NHK 회견</p> <p>- 이번 美·北 기본 합의는 日·北간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됐으며 그렇게 멀지않은 장래에 국교정상화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3	<p>0 국군포로 趙昌浩, 북한 탈출 귀환</p> <p>- 6.25 전쟁당시 중공군에 포로된 당시 국군 포병대 소속 소위 趙昌浩씨(64)가 북한을 탈출, 귀환</p>	<p>0 「朝總聯」의장 한덕수, 日本 귀환</p> <p>* 전승 : 박성철, 김용순</p>	<p>0 日 연립여당, 북한에 여당대표단 파견 타진</p> <p>* 구보 와타루 日사회당 서기장 확인</p> <p>- 자민당으로부터 연립여당 3당의 관계자를 북한에 파견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사회당은 이같은 제의를 북한측에 전달했음.</p>
10.24		<p>0 中放,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반인민적 악정이 빚어낸 후과'라고 비난 論評</p>	<p>0 살리카시빌리 美합참의장, 내년 T/S훈련 실시 희망 표명</p> <p>* 美 星條紙 보도</p> <p>- 북한의 막강한 재래전 수행능력이 여전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95.3 예정인 T/S훈련은 열리지 않을 바람.</p> <p>0 日, 아시아 각국 및 안보리 상임국에 對北경수로 지원 참여 요청 방침</p> <p>* 산케이신문 보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5		<p>0 北韓 적십자회 중앙위 위원장 대리 이성호,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김영태 송환 요구 韓赤총재에게 便紙</p> <p>- 유감스럽게도 귀측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례하게도 회신조차 보내지 않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p> <p>- 그들의 가공한 정상을 외면하고 오늘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것은 貴적십자사가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당국의 압력과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음.</p> <p>- 貴적십자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을 무조건 시급히 送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p> <p>0 美·北 3단계회담 북측대표단, 平壤 귀환</p> <p>0 오진우, 신병치료차 파리 방문 (10.25~12.5) * 파리 라에넬 병원에서 폐암 종합검진</p>	<p>0 IAEA, 美·北합의서 내용 검토 비공개 會議 (제네바)</p> <p>0 갈루치 美국무부 核 대사, 남북대화 장기적 추진 언급 * 기자회견</p> <p>- 美·北간 연락사무소 교환을 위한 대화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지만 南北 對話는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될 것임.</p> <p>0 갈루치 美국무부 核 대사, 對北무역제재 완화 행정명령으로 가능 언급</p> <p>- 對北 무역제재 완화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함</p> <p>- 북한에 소규모의 重油를 제공하는데 새로이 의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에너지부의 재량권으로 가능함</p>

■ 10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5		<p>0 訪中 조선인민군 친선참관단, 중국 국방부장 지호전 예방 * 단장 : 오용방(대장)</p> <p>0 黨중앙위·중앙인민위·정무원 중국군 참전 44돌 즈음 우의답에 화환 진정 * 참석 : 최 광, 장 철, 지재룡, 조규일, 이종산, 교종희</p>	<p>0 무라야마 日총리, 조건없이 北과 수교 협상 희망</p> <p>-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것임.</p> <p>- 이번 내각에서 국교정상화를 하고 싶음.</p> <p>0 다케무라 日대장상, 北경수로 비용분담 유립에 요청 방침 언급 * 日중의원 재무위</p> <p>- 北경수로 건설비 일부를 분담토록 유립에 요구할것임</p> <p>0 러 원자력부 고위관 리, 北경수로 부지 신포·태천 예상</p> <p>- '89년 북한이 舊 소련의 도움을 받아 원전부지로 선정해 발표했던 신포 또는 태천 중 한곳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함.</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6		<p>○ 平放, '3단계 통일론' 비난</p> <p>-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부르짖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열을 영구화하자는 것으로써 용납될 수 없는 망발임.</p> <p>- 1국가 1체제에 의한 통일은 공화국 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제도통일을 꿈꾸고 있음.</p> <p>○ 「韓民戰」중앙위, 美·北 '기 본합의문' 지지 聲明</p>	<p>○ 갈루치 美 국무차관 보, 폐연료봉 처리 문제 시급 언급</p> <p>• 특별브리핑</p> <p>- 사용후 연료봉의 저장문제가 시급하며,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회담을 열어야 할 것임.</p> <p>○ 日 외무성, 대북경수로 지원 EU 참여 전제 부인</p> <p>- 유럽연합(EU)의 참여가 일본의 對北 경수로 지원의 전제조건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p> <p>○ 블릭스 IAEA 사무총장, 北, 특별사찰 거부입장 불변 언급</p> <p>• 英하원 외교위 중언</p> <p>- 미·북합의와 관계 없이 북한은 핵의 후 2개시설에 대한 사찰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있음.</p>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7	<p>0 金泳三 대통령, '南北이 화합한 한민족시대 건설' 강조</p> <p>* 제7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 치사</p> <p>- 東西가 단결하고 南北이 화합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함.</p>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對北 경수로 지원 국제컨소시엄 예산 45억弗 전망</p> <p>* 기자회견(브뤼셀)</p> <p>- 국제컨소시엄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PO)'의 전체예산은 약 45억달러가 될 것임.</p> <p>- 45억달러에는 △경수로 건설비 35억달러 △대체 에너지 비용 3억달러 △폐연료봉 처리 및 이전비용 1억달러 △후연감속로 2기 등 핵시설 해체비용 5억달러 △기타 컨소시엄 운영비 1억달러 등이 포함됨.</p> <p>- 韓國은 전체예산중 경수로 건설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게 될 것임.</p>	<p>0 中央通信,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軍停委 철수 보도</p> <p>- 군사정전위원회에 와있던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이 조선에서 철수하기에 앞서 10.27 조선인민군 板門店 대표부를 작별 방문했음.</p> <p>0 외교부 대변인, 日통산상의 태평양전쟁 침략부인 妄言 비난 記者會見</p> <p>- 日本의 군국주의적 체질의 반영으로서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줌.</p> <p>-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주재남제 UN 상임이사국이 되려 하는 것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함.</p> <p>0 김형직 동상 제막식 (평북 삭주군)</p> <p>* 참석 : 박성철, 최영립, 김기남 장 철, 강석승, 김학봉, 염재만</p> <p>0 軍停委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환송 군인집회 (북한군 판문점대표부)</p>	<p>0 美, 법령에 주한미군철수 日本과 긴밀 협의 명시</p> <p>* 『註釋 美법령집』 타이틀 22권의 섹션 2428a '한반도 정책에 관한 의회 선언; 하원의장 및 의회관련 위원회에 대한 보고'</p> <p>* '77.8.17 의회통과</p> <p>- 美대통령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점진·단계적으로 美지상군을 빼내는 여하한 정책을 실행할 경우 아시아, 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이익들과 합치되도록 해야 함.</p> <p>0 美, UN 안보리에 美·北합의 지지 요청</p> <p>- 울브라이트 UN주재 美대사는 안보리 15개국 대표에 美·北고위급회담 합의 지지 聲明 초안을 회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7			<p>0唐家璇 中외교부 부 부장, 對北경수로 컨소시엄 참여 시사 * 기자회견</p> <p>- 중국 정부도 관심 을 갖고 검토중이 며 상업적인 차원 에서 이 부문의 협 력과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임.</p> <p>- 중국은 美·北 제 네바회담 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한 반도 비핵화 합의 가 이행되도록 노 력할 것임.</p> <p>0 카라신 러 외무부 대변인, 美·北합의 문제 제기 * 공식 논평</p> <p>- 러시아는 회담결과 가 긍정적인 측면 이 있다는 점을 인 정하나 몇가지 의 문을 제기하지 않 을 수 없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8	<p>0 李榮德 국무총리, 訪韓 핀란드 총리에게 對김평일 메시지 전달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코 아호 핀란드 총리 면담</li> <li>- 북한의 駐핀란드 대사인 김평일에게 우리의 확고한 평화통일 의지를 전달 해주기 바람.</li> <li>- 核투명성이 확보되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전면 확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li> </ul> <p>0 韓昇洲 외무부장관, 오진우 파리 방문시 金正日 건 강검진 의뢰 가능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간담회(파리)</li> <li>- 具振宇를 동행한 6명의 수행원은 너무 많은 숫자로 이들의 목적 가운데는 金正日의 진찰기록과 사진을 가져와 간접적으로 검진을 받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앎.</li> </ul> <p>0 北韓 전직 고위인사들, '북한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서울대회' 개최</p>	<p>0 金正日, 전체 인민들에게 '감사문'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령님의 서거에 표시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애도의 정과 충성의 결의는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대가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위대한 일심단결의 힘있는 과시로 됨</li> <li>- 나는 金日成 동지의 서거에 이처럼 심심한 애도의 정을 표시한 우리의 노동계급과 협동농민, 인민군 장병들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림.</li> <li>- 우리 당은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임.</li> <li>- 나는 앞으로도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기대를 깊이 간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나갈 것임.</li> </ul>	<p>0 갈무치 美국무부 核담당대사, 美·北 전문가회담 4개분과 개최 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駐美한국대사관 오찬</li> <li>- 제네바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전문가회담을 △폐연료봉 처리 △경수로 지원 △대체에너지 지원 △연락사무소 개설 등 4개분과로 구분 개최할 방침임.</li> </ul> <p>0 블릭스 IAEA 사무총장, 특별사찰 수용 전엔 北신고내용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 (뉴욕)</li> <li>- 특별사찰이 5년간 연기된 것은 핵안전협정 이행을 맡고있는 IAEA측에는 긍정적인 것이 아님</li> <li>-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核물질보유에 관한 북한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28	<p>- 反北단체인 조선민주통일 구국전선(상임의장 朴甲 東)과 북한 민주화 촉진 협의회(회장 李淵吉)는 북한 전직고위인사 등 4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大會를 열고 金正日 퇴진 과 정치범 석방등을 촉구</p>		<p>0 北 고위간부 아들, 러시아에서 마약밀 매 관련 징역형說 * 교도통신 보도</p> <p>- 러 극동지역에서 지난 6월경 헤로인 8kg이상을 밀매하 려다 체포된 북한 인 2명이 10.27 징 역형 6-7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중 1 명은 北韓 고위간 부의 아들인 것으 로 밝혀졌음.</p>
10.29		<p>0 中放, 「독수리-94」훈련 실시 관련 'T/S훈련 중지는 기만이 있다'고 비난</p> <p>- 마지못해 朝·美 합의문을 받 아들이고 T/S-94 합동군사연 습을 중지했지만 실지에 있어 서는 그와 맞먹는 독수리-94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음으로 써 그것이 위선이고 기만이라 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음.</p> <p>0 「조국전선」중앙위,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김영 태 송환요구 聲明</p> <p>0 金正日, 단군릉 시찰 * 수행 :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30		<p>0 平放, 6.25 포로 조창호 소위 귀환 관련 북한군에 투항 귀순한 자라고 주장</p> <p>- 그는 전투중에 부하 사병들을 데리고 우리 인민군대에 투항 귀순해온 인물임.</p>	<p>0 北, 한국 기업 평양 사무소 허용 표명說 * 세계일보 보도</p> <p>- 북한의 對南경협 창구인 고려민족발전협회 베이징 사무소측은 최근 한국기업들에 平壤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음.</p> <p>0 北-獨, 무역사무소 기능 합작회사 설치 합의說 * KOTRA 뒤셀도르프 지부</p> <p>- 최근 訪北한 독일 경제협력사절단과 북한이 합작회사 형태의 무역사무소를 '94.4~5월중 설립키로 합의, 意向書에 서명했음</p>
10.31	<p>0 金泳三 대통령, 李鵬 중국 총리와 회담</p> <p>- 美·北 합의의 이행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는데 합의</p>		<p>0 沈國放 中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平和體制 전환 주장 * 기자회견</p> <p>-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는 停戰체제는</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 일치</li> <li>- 金 대통령은 "남북한이 공존공영해야 바른 통일 가능함. 北韓이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共存共榮의 정신에 호응해 온다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li> <li>○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核-經協 연계' 단계적 완화 검토 언급</li> <li>* 국회 본회의 답변</li> <li>- 제네바 美·北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핵과 경협의 연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화체제로 대체되어야 하며, 해당측들의 협상·대화로 그러한 체제를 찾아가야 함.</li> <li>- 평화체제를 세우기 전에는 정전협정을 인정해야 함.</li> <li>○ 江澤民 중국 주석, 北韓 조국전선 중앙위 대표단(단장 정두환) 접견</li> <li>- 중국 인민은 조선 인민이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김일성의 생전의 위업을 끝까지 관철하리라고 믿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1	<p>○ 李榮德 국무총리, 李鵬 중 국 총리에게 '흡수통일 不願입장 北 전달' 요청 * 韓·中 총리회담</p> <p>- 우리가 절대로 흡수통일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 임을 북한에 반드시 전해 주기 바람.</p> <p>○ 李榮德 국무총리, 南北 정상회담 北韓 새 체제 출범 후 협의 방침 언급 * 국회 본회의 답변</p> <p>-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새 지도체제가 출범하면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 나갈 것임.</p> <p>○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기본합의서에 바탕 한 남북대화 추진 언급 * 국회 본회의 답변</p> <p>- 남북대화는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핵통제공동 위, 경제공동위, 화해공동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함.</p> <p>- 제네바 美·北합의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의 또 다른 시작에</p>	<p>○ 외교부 대변인, 美·北 기본합 의문 이행조치 착수 발표 (記者會見)</p> <p>- 우리는 이미 朝·美 기본합의 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 했음.</p> <p>- 정무원은 11월초부터 5만kw, 20만kw 흑연감속로 등의 건설 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 금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p> <p>- 해당부문에서는 5mw 실험용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 하기로 하고 준비해 놓았던 새 연료봉들을 철수하는 조치 를 취했음.</p> <p>- 방사화학실험실을 비롯한 연 관시설들의 동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음</p> <p>-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이미 朝·美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p> <p>○ 金正日, '사회주의는 과학이 다' 題下 논문 발표 * 노동신문 掲載</p>	<p>○ 갈루치 美 국무부 핵 담당대사, DMZ 부근 병력철수 선행돼야 對北 대사급관계 수립 언급 * 日 교도통신 회견</p> <p>- 美·北 대사급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DMZ 부근 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북한 병력의 철수가 선행돼야함</p> <p>- DMZ 부근에 배치된 북한 병력과 중무 기의 철수를 위해 남북한이 신뢰조성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임.</p> <p>○ 갈루치 美 국무부 핵 담당대사, 한국형 경수로 北제공 언급 * MBC방송 회견</p> <p>- 북한에 제공될 경 수로는 합의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 으나 한국형이 될 것임.</p> <p>○ 沈國放 中 외교부 대 변인, 평화체제 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1	<p>불과함.</p> <p>- 우리의 경수로 지원은 단순히 제네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측면이 아니라 21세기 한반도 에너지 수급을 위한 민족공동체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함.</p> <p>0 「독수리 - '94」 韓·美 합동군사훈련 실시 (11.1~6)</p>	<p>-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임.</p> <p>-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 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실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임.</p> <p>-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에 기초하고 있기에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갖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로 됨.</p> <p>-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현하자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내세워야 하며 사회주의 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함.</p> <p>0 「職總」중앙위, 비전향 출소자 송환 촉구 聲明</p> <p>0 「朝總聯」총성의 결의 모임, 김정일에 대한 '맹세문' 채택 (도교 조선회관)</p> <p>* 참석 : 한덕수, 이진규, 허종만 박재로 외</p>	<p>환에 韓國의 역할 필요 언급</p> <p>* 기자회견</p> <p>- 한반도의 정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한국도 적당한 역할을 해야 함.</p> <p>- 한국이 정진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韓國의 역할이 필요함.</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2	<p>0 金泳三 대통령, 李鵬 중국 총리와 조찬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 합의가 성실히 준수되도록 협조할 것을 재 확인</li> <li>- UN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韓半島에서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되도록 공동노력키로 합의</li> </ul> <p>0 洪在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민간참여 南北 經協협의체 신설검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본회의 답변</li> <li>- 經協추진과정에서 민간적인 협의기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南北경제협력협의체 신설을 검토 하겠음.</li> </ul> <p>0 韓·中외무장관, 南北對話 주요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 核합의의 이행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데 합의</li> </ul>	<p>0 「祖平統」대변인, 독수리-94 혼련 실시 비난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朝·美 기본합의문이 발표된 시점에서 감행되는데 그 엄중성이 있으며, 중지키로 한 T/S 합동군사연습과 간판만 바꾼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이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음.</li> <li>- 朝·美 기본합의문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이행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매우 심상치 않은 도발임.</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이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北南사이의 화해와 협력,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줌.</li> </ul> <p>0 金正日, 청류다리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 : 계용태, 한성룡,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li> </ul> <p>0 광주학생의거 65돌기념 평양시 청년학생보고회 (사로청 중앙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염태준, 백남준, 이 찬, 박명철, 김영구</li> </ul>	<p>0 로드 美국무차관보, 한반도 美군사력 현 수준유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미국과 북한간의 核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한 韓半島에 현 수준의 美 군사력이 계속 유지될 것임.</li> </ul> <p>0 駐태국 북한대사 이도섭, 남북대화 앞서 南韓 사과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이터통신 회견</li> <li>- 한국측이 金日成 사망후 취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는 남북회담 재개가 어려울것임</li> </ul> <p>0 北, 羅津·先鋒지구 건설에 軍병력 14만 명 투입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일보 보도</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3	<p>0 李榮德 국무총리, '남북 교역은 민족내부거래' 임을 闡明 방침</p> <p>* 국회 본회의 답변</p> <p>- 세계무역기구(WTO) 비준 협정서 기탁시 南北韓 거래가 민족내부 거래임을 천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임.</p>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에너지 공동개발 '南北협의회' 구성 필요 언급</p> <p>* 영광 원자로 3, 4호기 건설현장 시찰</p> <p>- 對北 경수로 지원을 계기로 남북한의 에너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p>	<p>0 『汎靑學聯』 남북대표, '북남 청년학생 공동결의문' 발표</p> <p>* 북측본부 의장 허창조·한총련대표 최정남 공동 記者會見</p> <p>- 민족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동족간 긴장과 대결을 획책하는 모든 처사와 법적 제도적장치에 대한 투쟁을 펼칠 것임.</p> <p>- 조선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p> <p>- 자주적 평화통일의 국면으로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임.</p> <p>-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주체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p>	<p>0 美·北 실무접촉 (뉴욕)</p> <p>* 전문가회담 일정문제를 포함한 '기본합의문' 이행방안 협의</p> <p>0 마누엘 美 국방부 대변인, 駐韓美軍 감축說 부인</p> <p>- 駐韓美軍의 감축은 美·北협상의 일부가 아니며, 페리 국방장관은 휴전선에 1백만 北韓병력이 집결해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駐韓美軍을 감축하지 않을 것임.</p>
11. 4	<p>0 李榮德 국무총리, 北 무력적화노선 불포기 언급</p> <p>*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졸업식</p> <p>- 북한이 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우리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p>	<p>0 외교부 대변인, UN의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철회 결의안 지지 聲明</p> <p>- 이것은 쿠바인민의 승리일 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승리로 됨.</p>	<p>0 UN안보리, 美·北 합의 지지 '의장성명' 채택</p> <p>-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보유지에 긍정적인 조치로서 만족함.</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4	<p>있음.</p> <p>○ 韓昇洲 외무부장관, 南北 韓 평화협정 체결후  관련  國 보장 방안 언급</p> <p>-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關連國들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p> <p>- 현재의 정전협정에는 UN 과  中國이  關여하고 있음</p>		<p>-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 검증을 위해 IAEA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p> <p>- 북한의 核활동 동결 감시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IAEA에 요청함.</p> <p>-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동 선언 이행 결정을 환영함.</p> <p>○ 李鵬  中國 총리, 停戰체제의  平和체제 전환 언급</p> <p>* 離韓 기자회견</p> <p>-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南北韓 쌍방을 포함한  關連國이 모두 참여해야 함.</p> <p>- 美·北合意書 이행을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의  中國 참여문제는  中國실정에</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4			<p>맞는 방법으로 검토할 것임.</p> <p>○ 로드 미국무부 東亞 · 太담당 차관보, 평화체제 전환에 南 北 합의 우선 강조 · 美공보원 주최 토 론회</p> <p>- 미국은 정전협정의 전환문제에 대한 南北韓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따를 것임.</p> <p>○ 美 核전문가, 北 지 원 경수로 플루토늄 대량생산 가능 주장 · 엘버트 워홀스테터 · 그레고리 존스, WSJ紙 기고문</p> <p>- 경수로가 핵연료의 단위 W당 플루토늄 생산량은 천연우라 늄 원자로 보다 적 지만 생산가능한 플루토늄의 총량은 더 많을 것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5	<p>0 외무부 대변인, UN 안보리 의장성명 환영 論評</p> <p>- 정부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함.</p> <p>- 특히 IAEA의 핵동결 감시 활동에 대하여 안보리가 IAEA에 추가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p> <p>- 북한이 美·北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남북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p> <p>0 北韓 별목공등 3명 귀순</p> <p>- 시베리아 별목공 최호영 · 김호씨와 독립국가연합 내 북한식당 요리사 박명남씨 등 3명 귀순</p>	<p>0 『祖平統』서기국, '남매 간첩단' 사건 관련 규탄 보도</p> <p>0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 軍停委 철수 중국군 대표단과 담화</p>	
11. 6		<p>0 平放, 李鵬 중국총리 방한시 李榮德 국무총리의 '흡수통일 不願' 입장 北에 전달·요청 비난 논평</p> <p>- 이방인들을 붙잡고 늘어져서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北에 전달해달라느니 하고 청탁놀음을 벌인 것은 가소롭고 분수없는 추태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6		<p>0 金正日, 美·北 고위급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위해 연회 마련 (목란관)</p> <p>* 참석 :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진병호, 한성룡, 최태복, 최영립, 홍성남, 양형섭, 백학립, 김광진,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강석주</p> <p>0 「社勞育」 중앙위, 비전향 출소자 송환 촉구 聲明</p>	
11. 7	<p>0 金泳三 대통령, '核·經協' 연계·해제 방침 표명</p> <p>* 경제인 초청 만찬연설</p> <p>- 그동안 남북관계는 핵문제에 얽매어 여러가지 어려운 국면을 겪어왔으나 남북간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進展시켜 나갈 시점에 이르렀음.</p> <p>- 南과 北이 상부상조의 정신 아래 당국간 협의를 거쳐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p> <p>-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인들의 訪北 허용 등 南北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임.</p>	<p>0 외교부 대변인, 美·北 전문가 회담 개최 일정 발표 (報道)</p> <p>- 최근 朝·美는 기본합의문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협상들을 개최하기 위하여 일련의 실무 접촉을 뉴욕에서 진행하였음.</p> <p>-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전문가협상을 평양에서 11.12~19 진행하며, 경수로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문가협상은 베이징에서 11.30 시작하며,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전문가협상은 12.6~10 워싱턴에서 하기로 합의하였음.</p> <p>0 黨비서 김용순, 日·北 수교협상 관련 90년 '3黨 공동선언' 준수 강조</p> <p>* 日TBS-TV 회견</p>	<p>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北 인권개선해야 대사급 修交 방침 언급</p> <p>* 조선일보 회견</p> <p>- 대사급 수교관계를 위해선 남북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어야 하며, 미사일 확산·인권·테러 등 다른 광범위한 문제들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p> <p>- 주한미군의 어떤 감축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 5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체적 사업에 착수하게 되기를 희망함.</li> <li>- 북한이 APEC 등 지역공동체와 국제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참여를 원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 및 정계 일각에서는 3당 공동선언의 정신을 외면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인사들이 있으나 우리는 결코 이 같은 주장을 용납하지 않음.</li> <li>0 「女盟」중앙위, 비전향 출소자 송환 촉구 聲明</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日 연립여당, 대표단 北韓 방문 신중 추진 방침 결정</li> <li>• 연립 3당 회의</li> <li>- 북한이 공식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90년 3黨공동선언을 재확인할 것을 요청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신중을 기하기로 결정</li> <li>0 카터 前 美대통령, 김정일로부터 訪北 초청 사실 언급</li> <li>• 日야사히신문 회견</li> <li>- 金正日로부터 '서로 사정이 좋은 시기에' 북한을 방문토록 요청받았음.</li> <li>0 北, 최근 현대·삼성 등 한국기업인에 訪北 초청장 재발급</li> <li>• 財界소식통</li> <li>- 북한은 최근 북경주재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를 통해 한국기업인들에게 訪北 초청장을 재발급했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8	<p>0 정부, 南北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li> <li>- 기업인 訪北, 북한 경제인 초청 허용 등 남북경제인사의 상호방문 추진</li> <li>- 기술자 訪北, 시설재 반출 허용 등 위탁가공교역 활성화</li> <li>-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 사업 허용 및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li> <li>- 제3국에서의 북한인력 시범적 고용 및 제3국 합작 및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 허용</li> <li>-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南北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 마련</li> </ul>	<p>0 「祖平統」서기국, 남한 군사도발 주장 규탄 보도 발표</p> <p>0 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비난 (記者會見)</p> <p>- 일본은 과거청산을 똑똑히 하지 않고서는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p>	<p>0 레이니 駐韓美대사, 남북대화 이행돼야 연락사무소 개설 방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편집인협회 주최 조찬대화</li> <li>- 남북대화문제가 이행되지 않고서는 연락사무소 개설 등 美·北관계개선은 가시화되지 않을 것임.</li> <li>- 美·北 국교정상화는 절제되고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될 것이나, 그전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돼야 함.</li> </ul>
11. 9	<p>0 金泳三 대통령, 임기중 목표는 '南北공동체 실현' 이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더 오스트렐리언」紙 회견</li> </ul>	<p>0 金正日, 평양시 청류다리 2단계 및 금릉 2동굴 건설 命令 하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軍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li> </ul>	<p>0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 北 합의이행 따라 경제제재 단계 완화 방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여 임기중 목표는 남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임.</li> <li>- 이것이 이룩되면 금세기가 가기전 南北韓을 완전히 통일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임.</li> <li>- 이러한 구상은 남북한이 단일한 경제·사회공동체가 되게 함으로써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누리기 위한 것임.</li> </ul> <p>○ 金泳三 대통령,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클린턴 대통령의 구두메시지 전달</li> </ul> <p>○ 韓·美 외무장관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전선에 집중된 북한군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韓·美안보협력체제 유지 합의</li> <li>- 美·北관계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보조를 맞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金日成의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양시 중심부의 대동강에 청류다리 2단계와 금릉 2동굴을 건설할 것을 다음과 명령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민무력부에서는 청류다리를 연결하여 새로운 청류다리 2단계와 금릉 2동굴을 당창건 50돌이 되는 '95.10.10까지 건설할 것.</li> <li>2. 정무원에서는 청류다리 2단계와 금릉 2동굴 건설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최우선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li> </ol> <p>○ 「韓民戰」 중앙위, 金正日 감사문 관련 감사 便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의 제네바 합의사항 이행을 봐가며 결정될것임</li> <li>- 북한에 대한 금융통신 등 경제규제 완화는 한꺼번에 모두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실천하게 될 것임.</li> </ul> <p>○ 러 외무관리, 美 주도의 한반도문제 해결 반대 표명</p> <p>* 데니스프 亞洲局 부국장 잡지 기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國이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치않고 일방적으로 對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경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것임.</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 9	<p>추진해 나간다는 입장 재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리스토퍼 장관은 북한 재래식 군사력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駐韓美軍 추가감축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li> </ul> <p>○ 한국기자협회, 南北기자교류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기자동맹 앞 聲明</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이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남북기자 교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함.</li> <li>- 남북기자교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빠른 시일내 판문점이나 서울·평양 등에서 갖기를 희망함.</li> </ul>		
11. 10		<p>○ 『祖平統』대변인, 南北경협안 거부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외적 고립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한갓 연극이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결정책의 파산을 자인한데 불과함.</li> <li>- 김○○에게는 그무슨 협력과 화해를 논의할 명분도 없으며</li> </ul>	<p>○ 美 페연료봉 전문가 회담 대표단, 平壤 향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만 울프 美 군축처 핵비확산 및 군축담당 副국장 등 핵전문가 10명으로 구성</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0		<p>때늦게 던지는 그의 미소를 받을 사람도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협력을 운운하는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음.</li> <li>- 김○○은 응당 자신의 엄중한 반자주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함</li> <li>- 北南 협력과 교류가 호상 신뢰에 기초해서 착실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li> </ul> <p>○ 『祖平統』서기국, 12.12사건 관련 규탄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역도와 괴뢰 검찰이 12.12를 군사구테타로,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도 그 주범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비호두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못할 범죄행위임.</li> </ul> <p>○ 北韓적십자회 위원장대리 이성호, 적십자국제위 위원장에게 비전향 출소자 김영태 송환 협조 便紙 발송</p> <p>○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남한내 반정부투쟁 지지 聲明</p>	<p>○ 클린턴 美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계속 개입 방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지타운大 연설</li> <li>- 한반도 非核化에 계속 개입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亞·太국가들과의 쌍무안보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갈 것임.</li> </ul> <p>○ 美국무부, 북한에 南北경협 제의 호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金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건설적으로 응할 것으로 기대함.</li> </ul> <p>○ 北, ARF·APEC 가입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주재 북한대사관 대변인 발언</li> <li>- 북한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과 아태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하기를 희망함.</li> </ul>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0		0 군사대표단(단장 최광),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방문차 평양 출발	- 필리핀·브루나이 등 동남아 미수교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0 日,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강화 방침 * 아사히신문 보도  - 日 정부는 중국과의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하는 등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방침임.
11.11	0 韓·比 정상회담 (마닐라)  - 필리핀의 對北수교시 한국과 긴밀 협조, 한국의 '96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에 합의  0 金泳三 대통령, 對北경협 서둘지 않을 방침을 표명 * 韓·比정상회담후 기자회견  - 북한이 실질적으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임.	0 빈주재 북한대사 김광섭, IAEA의 北核동결 감시활동 협조 의사 표명 * 치담바람 IAEA 특별이사회 의장 면담시  0 黨·政간부들, 단군릉 참관 * 참석 :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계웅태, 한성룡, 홍석형, 김중린, 서관희, 장 철, 윤기복, 전문섭  0 정무원 사무국 간부들, 金正日 명령 관철 권기모임	0 IAEA, 北核동결 이행 감시 착수 결정 * 특별이사회 「의장 요약」 채택  - 사무국에 대해 對北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함.  - 사무총장에 대해 核동결 감시를 포함한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상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함.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걸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을 요구해 오리라 생각함.</li> <li>- 정부는 對北경협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li> <li>○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시범 經協사업 남북 당국간 협의 필수 언급</li> <li>* 「民主平統」상임위 보고</li> <li>- 시범적 경협사업이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협의가 필수적임.</li> <li>○ 韓·日 외무장관회담 (자카르타)</li> <li>- 대북경수로는 한국뿐이 돼야 하며 KEDO내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합의</li> <li>- 日·北 수교교섭 진행을 한국과 긴밀 협의해 나간다는데 의견일치</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북한 APEC 가입 후원 용의 표명</li> <li>* 기자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합의가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 협정의 조속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함.</li> <li>- 북한에 대해 관련 사항 이행을 위해 IAEA에 전면협조할 것을 촉구함.</li> <li>&lt;블릭스 사무총장 北核 보고 要旨&gt;</li> <li>- IAEA는 북한 핵동결을 △동결대상시설의 가동 불가 △신규 혹은 관련 시설의 건설 중단 △폐연료봉 재처리 불가 △핵물질·부속장비의 이동불가 △핵시설 유지보수 작업·핵물질 이동시 IAEA 감시허용 등으로 이해함.</li> <li>- 중국적 폐기처분이 합의된 흑연감속로와 그 관련시설은 해체과정에서 IAEA의 검증이 필요함.</li> <li>- 북한의 최초보고의</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환경이 조성되면 북한의 APEC 가입을 후원할 용의가 있음.</li> </ul>		<p>정확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북한이 핵 안전협정 규정대로 조속한 협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것으로 봄.</p>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부 대변인, IAEA의 북한 핵활동 감시조치 채택 환영 論評</li> <li>- UN안보리가 핵안전조치협정 이행과 북한의 핵동결 감시수행을 위해 IAEA에 부여한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연료봉 전문가회담 참가 美國 대표단, 平壤 도착</li> <li>○ 『祖平統』서기국, 남한 전쟁정책 추구 주장 '白書' 발표</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의 무모한 전쟁정책은 힘에 의한 이른바 제도통일을 망상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음.</li> <li>- 전쟁책동은 괴뢰군의 전력증강과 군사예산 증대, 도발적인 반복전쟁 폭언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음.</li> <li>- 북침전쟁연습과 군사적 도발책동은 집요하게 추구하는 전쟁정책의 연장임.</li> <li>○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남한 재야단체의 12.12 관련 시위 지지 聲明</li> <li>○ 『汎民聯』해외본부 의장 윤이상, 入北</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리스토퍼 美國무장관, 核해결돼야 北 APEC 가입 언급</li> <li>* 기자회견</li> <li>- 북한이 핵개발계획 테러지원 등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한다면 APEC회원국 가입을 바랄 수 있을 것임.</li> <li>○ 파노프 러외무차관, 러, KEDO 참여 희망</li> <li>* 서울신문 회견</li> <li>- 러시아는 북한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li> <li>- 긴장완화와 함께 駐韓美軍의 단계적 철수는 당연한 귀결임.</li> </ul>

■ 11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2			- 앞으로 러·北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로 나갈 것이나 군사협력관계는 아직 재개 계획이 없음.
11.13	0 韓·印尼 정상회담 (자카르타)  - 金泳三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계속 지지를 요청  -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평가하고, 북한의 美·北 합의사항 성실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 희망	0 「汎民聯」북측본부, 비전향 출소자 송환촉구 聲明	0 日 산케이신문, 美 의회, 美·北 합의 심의 요구 가능성 보도  -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美·北합의에 대한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음.
11.14	0 韓·美·日 3국 정상회담 (자카르타)  < 共同발표문 >  - 3國 頂上은 韓半島의 안정이 역내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 지역의 안보를 확고히 함에 있어서 美國의 지속적인 役割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0 「祖平統」, 북한주민 유인·납치·살해 주장·경고장·발표  -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범죄행위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못할 반민족적 적대행위로 낙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함.  1.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출장자들과 상주인원들에 대한 남조선 괴뢰들의 유인, 납치책동을	0 美·日 정상회담 개최 (자카르타)  - 클린턴 美大統領은 日·北 관계개선을 지지하나 南北對話를 장려하기 위한 힘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  - 무라야마 日總理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 지원국에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4	<p>- 3국 정상은 핵문제해결을 위한 北·美합의가 역내 안정과 번영증대를 향한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지지함.</p> <p>- 3국 정상은 南北對話 재개 및 남북한 관계개선이 북·미 합의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필수적임을 재확인, 북·미합의 이행의 모든 측면과 각국의 對北 政策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p> <p>0 韓·美 정상회담 (자카르타)</p> <p>- 클린턴 大統領은 韓·美 安保公約은 확고하며, 어떠한 주한미군의 감축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p> <p>0 韓·日 정상회담 (자카르타)</p> <p>-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韓·美·日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강화한다는데 의견일치</p>	<p>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p> <p>우리에게는 그에 강력히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응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 대응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정당방위로 될 것임.</p> <p>2. 남조선 괴뢰들의 유인, 납치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남조선 괴뢰들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 지게 될 것임.</p> <p>3. 우리의 이 경고는 결코 빈 말 이 되지 않을 것임. 우리는 한다면 반드시 하는 강한 결 단력을 가지고 있음.</p> <p>0 中放, 北 폐연료봉처리 관련 美·北 전문가회담 개최 보도</p> <p>- 지난 9.21 제네바에서 발표된 朝·美 기본합의문에 따라 원 자력연구중심 방사화학연구소 소장 이상근을 단장으로하는 우리나라 대표단과 미국 군비 통제 및 군축국 부국장 로만 울프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 표단 사이에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專門家協商이 11.14 平壤에서 시작 되었음.</p>	<p>韓·日뿐만 아니라 G7까지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p> <p>0 美·中 정상회담 (자카르타)</p> <p>- 클린턴 大統領은 미국은 북한의 고립을 해소하고, 핵 동결 대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p> <p>- 江澤民 中國 국가 주석은 北·美 합의 내용의 이행과 관련, 중국과 미국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언급</p> <p>0 토마스 허바드 美 국무부 부차관보, 美, 日·北수교회담 재개 지원 언급</p> <p>* 日자민당 의원 대표단 면담</p> <p>- 美國은 美·北 관계개선회담과 함께 북한-일본간 회담 재개를 제의했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4	<p>0 韓·中 정상회담 (자카르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泳三 大統領은 북한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기업인들과 직접대화를 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li> <li>- 江澤民 中國 국가주석은 韓半島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절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li> </ul> <p>0 韓·日 정상회담 개최 (자카르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泳三 大統領은 남북대화 진전과 北·日 관계개선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li> <li>- 무라야마 日 總理는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日·北韓 수교교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li> </ul> <p>0 국무회의, 평시 軍作戰統制權 12.1 인수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協商에서는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진행되고 있음</li> </ul> <p>0 北·라오스 군사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 라오스 국방상 사이니야쑤 참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北·美 專門家 協商에서 다시 일본과 북한의 회담재개를 提案할 생각임.</li> </ul> <p>0 美공화당, 北·美 合意 문제점 추궁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 美상원 원내총무 CBS 기자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북한 核협상이 제대로 된 타협인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5	<p>0 李洪九 副總理 겸 統一院 長官, 남북경협은 당국간 협의 필요 강조</p> <p>* 방송기자클럽 초청 연설</p> <p>- 이번 경협조치를 정경분리정책으로 보면 오해임. 對北政策은 총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核·經協연계 고리를 완화한 1단계 조치일 뿐임. 따라서 北韓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고리를 강화할 수도 있음.</p> <p>- 南北對話의 형식이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내년초까지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함.</p> <p>- 대화기구중 經濟共同委는 회담날짜까지 합의된 상태에서 연기됐으므로 이 공동위 가동이 가장 바람직함.</p>	<p>0 비전향장기수 송환촉구 평양시 군중집회(인민문화궁전)</p> <p>* 참석: 양형섭, 김용순, 유미영, 백남준</p> <p>&lt; 백남준 연설 要旨 &gt;</p> <p>- 남조선 赤十字社는 온 거래의 목소리를 외면, 북적의 편지에 회답조차 보내지 않는 무례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p> <p>-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을 하루빨리 공화국북반부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함.</p> <p>0 윤이상 음악연구소 창립 10돌 기념보고회(청년중앙회관)</p> <p>* 참석: 장철, 백인준, 윤이상</p> <p>0 공군사령관 조명복, 쿠바 방문차 평양 출발</p> <p>0 정무원 수산부장 최복연(60세, 당 중앙위원) 사망</p> <p>0 「朝總聯」의장 한덕수, 구보와타루 日사회당 서기장 면담</p>	<p>0 무라야마 日 總理, 對北 修交協商 조속 재개 입장 강조</p> <p>* 기자회견</p> <p>- 우리는 日·北 交渉에 응할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국교 수립 교섭을 하고 싶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p> <p>0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 北-러시아 관계개선이 '韓半島 안정에 重要하다'고 언급</p> <p>* 러 외무부 대외정책연구원 주최 회의</p> <p>0 美 核전문가팀, 영변 핵시설 방문</p> <p>* 日요미우리신문 보도</p> <p>- 核연료봉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에 체류중인 美 核전문가팀이 11.15 영변핵시설을 둘러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6		<p>0 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을사조약 날조 규탄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당국자들은 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89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의 불법무효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음.</li> <li>- 우리 정부와 인민은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일본 정부당국의 부당한 입장과 태도를 준렬히 단죄함.</li> </ul> <p>0 「祖平統」서기국, 남한의 프랑스製 미사일 구입 규탄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의연히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임.</li> <li>- 남조선 통치배들이 떠드는 경제교류니 협력이니 하는 것이 가짜이고 저들의 분열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한낱 거짓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li> </ul>	<p>0 IAEA·北, 핵동결 감시 관련 協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펠로 핵안전조치국 사무차장, 김광섭 민주재 북한대사 참석 (빈)</li> <li>- IAEA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기술팀을 平壤으로 파견, 검증조치를 시작할 것을 제의</li> <li>※ 核동결에 대한 사찰조건 목록 전달</li> <li>0 駐韓 美대사관, 美 기업인 訪北 허용 부인</li> <li>- 여행목적의 訪北은 인정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방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음.</li> <li>0 레이니 주한미대사, 北 과거核 투명해야 경수로 핵심부품 제공 언급</li> <li>- 북한이 과거핵 투명성을 보장해야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6			<p>경수로 핵심부품이 제공된 것임.</p> <p>0 北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김정우, 한국 기업 北韓투자 강력 희망</p> <p>* 북경소식통</p> <p>- 11.8~11 북경을 극비리에 방문,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남한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투자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했음.</p>
11.17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 선별적·제한적 남북경협 협의 예상</p> <p>* 국회 외무통일위 간담회</p> <p>- 북한은 성사가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제한적으로 經協 협의를 해울 것으로 예상됨.</p> <p>0 韓·美, 경수로 지원 관련 실무협의 (워싱턴)</p> <p>* 崔東鎭 경수로기획단장, 갈루치 핵담당대사 참석</p>		<p>0 北, IAEA 기술진 조속 入北 허용 표명</p> <p>* 빈주재 참사관 운호진 발언</p> <p>- IAEA 기술전문가들이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입국하도록 허용할 것이나 감시관들의 임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함.</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8	<p>0 韓·美·日, KEDO 구성 운영문제 관련 실무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갈무치 美국무부 핵담당 대사, 야나이 순지 日외무성 총괄국장 참석 (워싱턴)</li> </ul> <p>&lt; 합의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빠른 시일내에 KEDO를 발족시킴.</li> <li>- KEDO에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li> <li>- 韓·美·日 3국이 컨소시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韓國은 경수로 재정부담 및 건설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li> </ul> <p>0 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실무협의후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O와 북한이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 기업이 주계약자가 돼 KEDO와 상업계약을 맺게 될 것임.</li> <li>- 한국은 KEDO에서 경수로 지원에서만 중심역할을</li> </ul>	<p>0 폐연료봉 처리 관련 美·北 전문가회담 종료 (11.14~18, 평양)</p> <p>&lt; 공동발표문 要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朝·美 전문가들은 '94.11.14~18 평양에서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꺼낸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최종처분에 관한 유익하고 건설적인 토의를 진행하였음.</li> <li>- 협상과정에 寧邊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와 폐연료 보관시설에 대한 참관을 포함하여 광범한 통보 교환이 진행되었음.</li> <li>- 폐연료 보관시설의 물치리를 위한 계획이 토의되었음.</li> <li>- 쌍방 전문가들은 '94. 12월에 미결된 기술실무적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다시 가지기로 합의하였음.</li> </ul> <p>0 외교부 대변인, 北 핵동결조치로 비핵화 공동선언 의무 완전 이행 주장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朝·美합의에 따라 폐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 보관하다가 일정한 시기에 가</li> </ul>	<p>0 亞太의원연맹(AAPU) 제29차 총회, 北 억류자 송환촉구 결의문 채택 (방콕)</p> <p>0 北, 羅津·先鋒지구 '95년부터 無비자 입국 허용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대외경제 협력촉진위 부위원장 김웅렬 발언</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8	<p>하고 폐연료봉과 대체에너지 제공에서는 재원부담을 하지 않기로 양해가 이루어졌음.</p> <p>○ 韓·美 군사력평가회의 (MCC) 개최 (워싱턴)</p> <p>- 북한 특수전부대에 공군 저격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전 부대의 규모가 10만여명에 달한다고 분석</p>	<p>서 완전히 처분하고, 방사화학 실험소를 봉인해 IAEA 감시하에 두다가 경수로가 완공되는 때에 궁극적으로 해체하게 됨</p> <p>- 이것은 北南 비핵화선언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를 사실상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됨.</p> <p>- 이제 北南 비핵화선언을 위해 할 일은 미국과 남조선측에 더 많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朝·美합의문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임.</p> <p>- UN과 IAEA가 朝·美합의문을 환영하고 이행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국제공약으로 되었으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p> <p>○ 비전향 출소자 송환촉구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청년중앙회관)</p> <p>○ 북한 군사대표단, 라오스 방문 (11.14~17) 마치고 베트남 하노이 도착 * 단장 :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p>	
11.19		<p>○ 北韓 군사대표단, 베트남 국방성 대표단과 회담 (하노이) * 단장 :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p>	<p>○ 고노 요헤이 日외무장관, EU에 北경수로 지원 참여 촉구 * 日·EU각료회의</p>

■ 11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핵문제는 핵 非확산 관점에서 국제문제만큼 유 럽연합(EU)이 국제 컨소시엄에 참여하 는 것이 중요함.</li> </ul>
11.20		<p>○ 「祖平統」대변인, 구국전위 사건 관련 비난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죄없는 사람을 우리와 연결시 켜 재판, 처형하는 소동을 피 우는 것은 조선반도에 감돌기 시작한 완화와 화해의 기류를 차단하고 北南대결을 조장 고 취시키려는 날조극임.</li> <li>- 김○○ 일당은 구국전위 관련 자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무조 건 중지하고 부당하게 체포투 옥한 각계인사들을 즉각 석방 하여야 함.</li> </ul> <p>○ 노동신문, 駐韓美기업인 방북 은 美·北간의 문제라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원 대변인이 미국 기업인 들의 북조선 방문에 대해서 피뢰당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 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상식이하의 무례한 행동임.</li> <li>- 남조선은 朝·美사이의 관계 에 함부로 코를 들이치는 어</li> </ul>	<p>○ IAEA 협상단, 北 핵 동결 감시문제 협의 차 向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명의 사찰전문 가와 기술요원으로 구성된 IAEA 협상 단이 11.20 빈을 출발, 11.22 평양 도착 예정</li> </ul> <p>○ 베이커 前 美 국무장 관, 北核보유 대비 요격미사일체체 구 축 필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LA타임스紙 기 고문</li> <li>- 계속되는 북한 핵 위협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체의 현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요구 하고 있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0		<p>리석은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임.</p> <p>○ 노동신문, 『汎民聯』결성 4돌 즈음 남측본부 결성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력이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면 남측본부가 빠른 시일내 결성되어야 함.</li> <li>- 北과 南의 범민련 조직은 남측본부의 결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남측 범민련 관계자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적극 지지해야 함.</li> </ul>	
11.21		<p>○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對日비난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군위안부를 위한 인도주의적 민간기금은 몇푼의 돈으로 日本이 인류앞에 저지른 역사의 대죄를 그대로 묻어버리려는 교활한 책동임.</li> <li>- 일본 정부는 과거 전시죄행에 대하여 어물쩍 넘기려할 것이 아니라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연행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을 조사공개하고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함.</li> </ul>	<p>○ 日, 동북아 안보협약체 구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정부소식통</li> <li>- 日本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과 美·中·러 등을 포함하는 6개국 안보협의체 『동북아지역포럼』 구성을 검토중임.</li> <li>○ 세베리노 필리핀 외무차관, '95년 對北 수교 가능성 언급</li> <li>* 日니혼게이지아인</li> </ul>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1		<p>0 訪北 최정남(한총련 대표), 귀환 즈음 記者會見 (고려호텔)</p> <p>- 북녘동포들의 조국통일 열기는 金日成 서거 이후 더 높아졌으며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알게됐음.</p> <p>-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해 北과 南, 해외의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선두에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임.</p> <p>- 김 〇〇의 가장 큰 죄악은 반북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멀리 후퇴시키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더욱더 엄중한 장애와 난관을 가로지른 것임.</p> <p>0 『韓民戰』대변인, 구국전위 사건 관련 비난 論評</p> <p>0 中放, 일본내 日·北 국교정상화촉구 모임 상세 보도          • 도쿄에서 개최된 日국회의원들과 각계인사 참가집회</p> <p>0 中放,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95.4월말 개최 발표</p>	<p>문 회견</p> <p>- 태국주재 북한대사 이도섭이 12월중 필리핀을 방문, 국교정상화 협상을 벌인뒤 조건이 충족되면 내년중 수교할 예정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2	<p>0 金泳三 대통령, 먼데일 駐日 美대사 접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문제 해결이후 한반도정세와 美·北합의 이행 등에 대한 의견교환</li> </ul> <p>0 宋榮大 통일원차관,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최 세미나</li> <li>- 대학에서 통일관련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북한학과 및 북한학강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li> </ul>	<p>0 中放, IAEA 협상대표단 평양 도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朝·美 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나라와 IAEA간 해결할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 IAEA 협상대표단이 11.22 평양에 도착했음.</li> </ul>	<p>0 라빈 이스라엘총리, 北 중동지역 미사일 수출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리 美국무장관과 회담시</li> <li>-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에 제공한 미사일 기술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우려를 페리 장관에게 전달</li> </ul> <p>0 美 星條紙, 주한미군 감축중단 확정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아시아 전략구상'이라는 美국방부 보고서를 인용, 미군의 추가감축 중지결정이 확정됐다고 보도</li> </ul> <p>0 국제법률가중, 일본에 종군위안부 배상금 1인당 4만弗 지급 권고</p> <p>0 北, 수교前 日기업 북한 진출 불허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訪北 재일교포 기업인 발언</li> </ul>

■ 11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 체류시 관계자들로부터 일본과의 관계개선문제에서 '先국교정상화 後경협추진' 원칙을 정했음을 확인했음.</li> </ul>
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에 민주주의 강요 않겠다고 발언</li> <li>* 以北5道 시장·군수를 위한 특강</li> <li>-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정치원칙이지만 이를 北韓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li> <li>- 새 시대에는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상호 協助할수 있음.</li> <li>○ 韓昇洲 외무부장관, 美·北 핵합의 재검토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li> <li>* 민자당 당무회의</li> <li>- 美공화당내 일부 의원이 美·北합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백지화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임을 인식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平放, 파노프 러 외무차관의 對北 관계개선 발언 보도</li> <li>○ 『祖平統』서기국, 시위진압용 신형장비 도입 규탄 報道</li> <li>○ 미전향 출소자 송환촉구 평양시 여성집회 (청년문화회관)</li> <li>○ 군사대표단, 동남아국가 순방 마치고 귀환 (11.10~11.23)</li> <li>* 단장 :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li> <li>- 중국군 광주군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방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IAEA, 핵동결 감시활동 관련 協商 (11.23~28, 평양)</li> <li>* 북한·IAEA 협상대표단간 북한의 핵활동 동결을 감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논의</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4	<p>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南北經協 후속조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회의</li> <li>- 南北經濟交流協力을 남북 교류협력을 규정한 제반 國內法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질서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련규정과 구체적 대책방안 등 심의</li> <li>- i)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ii)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 iii)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등 3개지침을 확정·발표</li> </ul> <p>0 귀순 안명철 북한군 하사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레스 센타</li> <li>- 그동안 北韓이 부인해 왔던 정치범수용소가 북한 곳곳에 실제로 존재함.</li> </ul>	<p>0 『汎民聯』북측본부 중앙위,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징역구형 관련 규탄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은 온겨레의 통일염원에 대한 또 한차례의 악랄한 도전임.</li> <li>- 김○○ 일당의 이러한 처사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만행으로 민족의 화해도 통일도 바라지 않는 자들의 민족반역행위로 준렬히 규탄함.</li> </ul> <p>0 노동신문, 美 보수세력이 美·北합의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들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직도 교훈을 찾지 않고 군사적 선택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임.</li> </ul> <p>0 平放,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모실 것을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正日 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모시고 천세만세 받들려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않을 것임.</li> </ul> <p>0 최정남(한총련 대표), 북한 방문 종료 平壤 출발</p>	<p>0 北, IAEA의 상주사찰요원 추가파견 요청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부 당국자</li> <li>- IAEA는 寧邊에 파견된 2명의 사찰요원의외에 추가요원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북한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있음.</li> </ul> <p>0 北, 외국인투자보호법 제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 서방소식통</li> <li>- 북한 정무원은 최근 김정일 특별지시로 북한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파산할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투자보호법을 마련했음.</li> </ul> <p>0 北, 김정일 초상화 우표 첫 해외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佛 렉스프레스誌 보도</li> </ul>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5	<p>○ 韓昇洲 외무부장관, 경수로업체 선정권 KEDO 보유 언급</p> <p>• 국회 외무통일위 간담회</p> <p>- 11.18 워싱턴 韓·美·日 실무회담에서 주계약자인 건설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북한이 아닌 KEDO가 갖기로 합의했음.</p>	<p>○ 中放, 패트리엇 미사일 남한 내 영구배치 결정 비난</p> <p>- 北南관계를 전면 대결에로 끌여가는 위협천만한 사태발전으로서 용허할 수 없는 노골적인 군사적 도전행위임.</p> <p>- 朝·美 기본합의문의 쌍방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사항에 배치되는 것임.</p> <p>- 美國은 힘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패트리엇 미사일을 당장 끌어내가고 남조선에 대한 무기강매책동을 그만두어야 함.</p>	<p>○ 마이어 IAEA대변인, 北韓과 핵동결감시협상 관련 언급</p> <p>- IAEA협상단과 북한 당국과의 핵동결 협의가 다음주에도 계속될 것임. 협상은 건설적으로 진행중임.</p> <p>○ 日연립여당, 訪北선발대 파견요청 거절</p> <p>• 모리 자민당 간사장 발언</p> <p>- 북한이 연립여당 3당의 政調會長級 선발대를 보내달라는 정식 초청이 있었으나 거절했음.</p> <p>○ 日연립여당, 정신대 민간기금 창설 합의</p> <p>- 민간모금으로 기금을 창설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기금대상을 前군대위안부만이 아닌 여성 지위향상사업을 포함시킨다는 것에 합의</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5			<p>0 日, 플루토늄 4.7t 보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과학기술청 「94년도 원자력백서」</li> <li>- '93년말 현재 일본 국내에 저장돼있는 플루토늄은 4.7t에 달하는것으로 추정</li> </ul> <p>0 北, 블라디보스토크에 정무원 대표부 개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스크바방송 보도</li> <li>- 北대외경제위 대표단이 11.14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정무원대표부를 개설하기로 합의</li> </ul>
11.26	<p>0 귀환 趙昌浩 중위, 북한에 국군포로 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역식, '북한 당국에 보내는 호소문' 발표</li> <li>- 북한 당국자들은 6.25 남침에 대하여 사죄하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루속히 남북적십자회담에 응해야함</li> <li>- 지금이라도 제네바협약을 준수하여 國軍 포로들의</li> </ul>	<p>0 中放, 종군위안부문제 관련 일본에 국가배상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가 최근 새롭게 고안해낸 이른바 사죄편지를 보내는 놀음에는 종전의 입장에서 전진한 새로운 것이란 아무 것도 없음.</li> <li>- 日정부는 민간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 공개하고 국제법의 요구대로 마땅히 배상</li> </ul>	<p>0 日교도통신, KEDO 기존 국제기구에 편입 추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외무성 소식통 인용</li> <li>- 韓·美·日은 KEDO를 유엔개발계획(UNDP)이나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같은 기존 국제기구의 일부로 하는데 합의했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6	<p>생사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즉각 송환해야 함.</p>	<p>하여야 함.</p> <p>○ 黨·政 고위간부들, 광천 식료공장과 영예군인수지일용품 공장 참관</p> <p>* 참석 : 이종욱, 김영주, 김영남, 한성룡, 최태복, 최영립,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김국대 外</p>	<p>○ 파노프 리외무차관, 경수로 판매 모색차 北韓에 대표단 파견 언급</p> <p>* 교도통신 보도</p> <p>- 러시아는 對북한 경수로 판매를 모색하기 위해 대표단을 12월 평양에 파견할 계획임.</p> <p>○ 北, 로이드社에 흥작보험 2억弗 요구</p> <p>* 중앙일보 보도</p> <p>- 북한은 식량난에 대비해 '90년 로이드社의 흥작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1천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올해엔 2억 1천만달러를 요구했음.</p> <p>○ 中, 북한집경지역에 北核 감시위한 지진 감측소 설치說</p> <p>* 북경소식통</p> <p>- 중국은 10월 美·日 등의 협조를 얻어 북한 집경지대 일원에 핵폭탄 실험여부</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6			<p>를 감지할 수 있는 지진감측소를 설치했음.</p> <p>0 日 지지통신, 北 총 베트남 쌀 바터무역 합의 보도</p> <p>- 최광의 베트남 방문시 북한계 군용 총의 부품·총탄과 베트남산 쌀을 상대방에 공급하는 바터무역을 하기로 합의했음.</p>
11.27		<p>0 「祖平統」서기국, 남한의 군사훈련 실시 비난 報道</p> <p>- 우리는 이미 독수리 94, 방패 등 북침전쟁연습이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데 대해서와 그 엄중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바 있음.</p> <p>- 만약 김○○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긴장을 격화시키는 길로 나간다면 그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지게 될 것임.</p> <p>0 노동신문, 金日成사망 조의 표시 거부 거듭 비난</p>	<p>0 美 공화당, 對北 중유지원 저지 추진</p> <p>* NYT紙, 머코스키 상원의원 발언 보도</p> <p>- 美행정부가 북한에 한 양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구입비용 지원을 저지하겠음.</p> <p>※ 갈투치 美국무부 핵담당대사는 “對北 중유제공 저지결의가 상원에서 있을 경우 美·北 협상은 원점으로</p>

■ 11월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00 일당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악은 동족의 유고시에 감행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임.</li> <li>- 이제와서 협력이나 뭐니하는 것이야말로 무뢰한의 땀땀스러운 수작임.</li> </ul>	<p>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金日成, 신중한 경제개방 지지 표명說</li> <li>* 도쿄소식통, 한덕수 朝總聯 의장 발언 인용 언급</li> <li>- 金日成은 사망하기 이틀전 黨간부회의를 소집, 신중한 경제개방에 대해 분명한 지지를 나타냈으며 북한지도부는 이를 유언으로 간주하고 있음.</li> <li>0 北, 유럽국가들과 수교 추진</li> <li>* 조선일보 보도</li> <li>- 11.25 파리주재 북한대표부 직원이 네덜란드에 수교의사를 전달하는 등 유럽국가들과 외교수립을 위한 공세를 벌이고 있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8		<p>0 北韓 원자력총국대표단-IAEA대표단, 핵동결 감시활동 관련 協商 종료 (11.23~28, 平壤)</p> <p>&lt; 中放 보도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朝·美 기본합의문에 따라 원자력총국 대표단과 IAEA 대표단은 '94.11.23~28 평양에서 우리 나라와 IAEA사이해 해결해야 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음.</li> <li>- IAEA 대표단은 영변과 태천을 방문하고 朝·美기본합의문에 지적된대로 핵시설들이 정확히 동결되어 있고 건설작업이 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li> <li>- 쌍방은 우리 나라에서 IAEA의 활동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많은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음. 일부 문제들은 다음 번 협상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했음.</li> </ul> <p>0 노동신문, 일본의 중군위안부 민간기금 설립 추진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적인 위문금으로 선심을 쓰는 척하여 여론을 기만하며 과거청산문제를 어물쩍해 넘기려는 교활한 술책임.</li> </ul>	<p>0 IAEA, 北 핵동결 확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전문가팀이 부분적으로 현장사찰에 착수, 북한의 핵동결을 확인했음</li> </ul> <p>0 경수로 전문가회담 참가 美國 대표단, 北京 향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리 세이모어 美 국무부 핵비확산담당과장 등 10명</li> </ul> <p>0 日방위청보고서, 北 체제 10년은 유지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 내부보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韓 장래와 관련, 미지수 상태인 김정일의 경제적 수완, 간부의 고령화 등 불안정요소가 있으나 10년정도는 현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li> </ul> <p>0 日연립여당, 訪北선발대 우선 서울파견 방침</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범죄는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li> <li>- 일본 정부는 중군위안부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 공개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옳당한 보상을 해야함.</li> </ul> <p>○ 黨·政고위간부들, 채취설비생산기지 5월 10일 종합공장 참관</p> <p>* 참석: 이종욱, 김영주, 김영남, 한성룡,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김국태 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北선발대 대표로 내정한 사키야마 日사회당 정책심의 회장과 호리 자민당 政調會長대리를 11.29 한국에 우선 파견키로 결정</li> <li>○ 강석주, 갈투치에 보안법 폐지 영향력 행사 요청 편지說</li> <li>* 박영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美 국무부 관리 면담시 확인 언급 (12.20)</li> <li>- 北韓외교부 부부장 강석주는 11.28 갈투치 美력대사에게 公翰을 보내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 국가보안법을 폐지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음.</li> </ul>
11.29	<p>○ 金泳三 대통령, 한국의 자유와 번영의 힘으로 통일 이룩 언급</p> <p>* 서울 1000년 타임캡슐에 넣은 대통령메시지</p> <p>-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힘으로 멀</p>	<p>○ 노동신문, 自由民主體制 統一論 비난 논평</p> <p>-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론은 곧 승공통일론을 되살린 것으로서 전쟁으로 우리를 먹여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져있는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는</p>	<p>○ IAEA 협상대표단, 북한 방문마치고 平壤 출발</p> <p>○ 구보 日 사회당 서기장, 연립여당 대표단 訪北計劃 취소 발표</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9	<p>지않아 겨레의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p> <p>0 북한産 모래 1만 4천t 첫 반입</p> <p>- 국내 (주)서명건설은 조선족이 경영하는 연변항운공사의 중개로 청진시와 5년간 총 5백만t의 북한산 모래 반입계약을 맺고 1차분 1만4천t을 동해항에 반입</p>	<p>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p> <p>- 경제협력이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의 내부를 허물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의 길을 터보려는 불순한 기도도 깔려 있을 것임.</p> <p>0 민주조선, 南韓이 미·북합의 이행 방해 비난</p> <p>- 김○○ 일당은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 안에서는 대결과 전쟁소동을 피우고 밖에서는 공조체제 청탁 높음을 벌였음.</p> <p>- 괴뢰들이 대화요 경제협력이요 떠들어댔지만 이것은 분과 대결을 추구하는 그들의 반민족, 반통일적, 사대매국 행위를 감싸기 위한 여론오도 술책이었음.</p> <p>0 美·北 連絡事務所 개설 전문 가회담 북한대표단, 워싱턴 向發</p> <p>0 美·北 경수로 제공 전문가회담 북한대표단, 北京 향발</p> <p>* 단장 : 김정우(대외경제위 부위원장)</p>	<p>- 오늘 北韓側이 대표단선발대의 방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해 왔음.</p> <p>- 여당으로서의 先發隊의 파견계획이 拒否된 만큼 대표단 자체의 방북계획도 取消하지 않을 수 없음.</p> <p>0 美의회조사국, 美·北 核협력협상 곧 시작 예상</p> <p>* 美·北관계 개선관련 보고서</p> <p>- 미국은 對北경수로 지원과 관련, 조만간 美·北간 핵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30	<p>0 韓國정부, 平時작전통제권 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美 공동성명</li> <li>- 韓美聯合司令官이 수행해 온 한국군부대에 대한 평시작전권이 12월 1일부터 韓國政府에 移讓됨.</li> <li>- 韓昇州 외무장관과 레이니 駐韓美國대사는 양국 정부를 대표, 「대한민국 정부와 美합중국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 군사령부 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交換覺書」에 서명하였음.</li> </ul>	<p>0 美·北경수로 전문가회담 개막 (11.30~12.2, 북경)</p> <p>0 「韓民戰」중앙위, 美·北회담 체방정책 폭로·고발장·발표</p>	<p>0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김정우, 韓國船 나진·선봉 入港 허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중순 在美통신사 「US 아시아 뉴스」紙 회견</li> <li>- 자유경제무역지대(경제특구)인 나진·선봉항에 韓國船이 韓國國旗를 달고 매일 입항해도 관계 없음.</li> <li>0 日, 對北수교문제 주변국과 협의추진 방침</li> <li>• 訪韓 호리 자민당 정조회장대리·세키야마 사회당 정책심의회장 언급</li> <li>- 日·北 국교정상화 문제는 전후처리차원의 입장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변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임.</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1	<p>0 金泳三 대통령, 작전통제권 환수계기 自主國防기를 마련 강조</p> <p>* 군작전지휘관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신고식</p> <p>- 이를 계기로 국군주도의 방위태세를 갖추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임.</p>	<p>0 北韓 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제 29차 아·태의원연맹 총회 對北 인권개선촉구 결의안 비난 談話</p> <p>- 남조선 괴뢰들과 공모하여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고 모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모략작동임.</p> <p>- 우리 나라에서는 북받은 인민들과 공화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의거자들과 재일귀국자들이 있을 뿐 남북자나 억류자는 없음.</p> <p>-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이 결의안 채택을 철회하고 그 무효를 선포해야 하며 사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p> <p>0 中·平放, 작전통제권 인수 관련 비난 論評</p> <p>- 평시작전통제권이냐 넘겨받는다고 해서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인 남조선이 하루아침에 주권국가로 둔갑할 수는 없음</p> <p>- 군사행동에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 연합훈련과 군사정보관리는 남의 군대가 쥐는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졌대야 빈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것임.</p>	<p>0 갈루치 美국무부 핵담당대사, 美, 對北 중유 1차분만 부담 재확인</p> <p>* 美상원 외교위 東亞 太小委 주최 北核침 문회</p> <p>- 첫 선적분에 대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지만 그이후 제공분은 국제컨소시엄에서 부담하게 될 것임.</p> <p>- 북한측은 핵시설 동결을 IAEA의 확인뿐 아니라 미의 기술자들이 추가로 확인할수 있도록 한다는데 동의했음.</p> <p>0 亞·太지역 14國 안보포럼 개최</p> <p>* 日방위청 산하 국방연구소 주최 (12.1~17, 도쿄)</p> <p>- 韓·美·日 등 亞·太지역 14개국 고위 군사관계자들이 참석, 자국의 방위전망등을 논의</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1		0 전국노동일꾼대회 (12.1~ , 인민문화궁전) * 참석 : 이종옥, 한성룡, 최영림 홍성남, 홍석형, 김 환, 김복신 박남기	
12. 2	0 차세대 전투기 F-16 1호機 출고식 (美 텍사스 포트워 츠 공항) * 金鴻來 공군참모총장 참 석 -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KFP)사업에 따라 美 록히드사가 제작한 F-16 1호기 출고식 진행	0 美·北경수로 전문가회담 종료 (11.30~12.2, 베를린) < 공동발표문 요旨 > - 朝·美는 '94.11.30~12.2 베 이징에서 조선의 흑연감속로 와 연관시설들을 교체하기 위 한 경수로 제공에 관한 협상 을 진행하였음. - 쌍방은 朝·美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그리고 합의 문 사항들에 맞게 조선에 경 수로 대상을 제공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 여 협조하려는 자기들의 의지 를 재확인하였음. - 협상은 복잡한 문제들을 취급 하였으며 진지하고 유익하였 음. - 다음번 협상을 '95.1월에 진 행하기로 하였음. 0 『祖平統』서기국, 추곡수매가 인상요구 농민시위 관련 대남 비난 報道	0 美국무부, 美·北 연락사무소 전문가 회담 일정 공식발표 - 연락사무소 교환설 치에 관한 영사문 제와 그의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6~9까지 워싱턴에서 개최 - 린 터크 북한조정 관, 박석균 북한 외교부 부국장 참 석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3		<p>0 美·北 경수로 전문가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귀국                      * 단장 :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p> <p>0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95.4 개최 관련 記者會見 (인민문화궁전)                      * 참석 : 신일본 프로레슬링 주식회사 대표단, 김관철 국가체육위 부위원장</p> <p>0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파리에 서의 질병치료 마치고 귀환 (10.25 - 12..5)</p>	<p>0 北, 독일에 대사급 수교 요구說</p> <p>- 최근 본에 북한이 외대표부 직원을 파견, 외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舊동독과 맺은 협정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요구</p>
12. 4		<p>0 노동신문, 작전통제권 인수관련 군통수권을 빼앗겼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論評</p> <p>- 외국에 군사통수권까지 빼앗긴 식민지 괴뢰의 가련한 물골을 드러낸 추태임.</p> <p>- 남조선 사회가 자주화되기 전에는 그따위 작전권이양놀음을 수백번 벌여도 소용이 없음.</p>	
12. 5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김정일 내년 3, 4월 승계 전망                      * 기자간담회(베를린)</p>	<p>0 平放, DMZ내 남측의 군사도발 주장 비난 論評</p> <p>-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의 거듭되는 총포탄 사격사건에 대해</p>	<p>0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전문가회담 북한대표단, 워싱턴 도착                      * 외교부 부국장 박</p>

■ 12월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5	<p>- 북한은 내년 3, 4월쯤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일의 주석 선출 등 권력 승계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됨.</p>	<p>매우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음</p> <p>- 김○○ 일당이 극도로 정세를 긴장시키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행단계에 들어선 朝·美 기본합의문을 뒤집어엎으려는데 있음.</p> <p>○ 勞動新聞,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고 주장</p> <p>- 金日成의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위대한 영도자인 김정일에게 영원히 충실하겠다는 결의임.</p> <p>- 金日成 동지는 김정일 동지이고 金正日 동지는 김일성 동지임.</p> <p>○ 『祖平統』 서기국, 남한내 학생 시위관련 대남 비난 報道</p>	<p>석균 등 5명</p> <p>○ 金日成, 사망前 금강산 종합개발안 승인說</p> <p>* 北京 소식통</p> <p>- 金日成은 금강산지역을 국제적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1.27 금강산국제그룹이 작성한 '금강산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p>
12. 6		<p>○ 『祖平統』 서기국, 남한도 核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p> <p>* 남한 핵개발 '진상공개장'</p> <p>- 남조선 당국은 현재와 미래의 核 결백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무기개발 동결 의지를 명백히 밝혀야 함.</p> <p>- 핵무기 제작 실상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현존 핵무기 개발</p>	<p>○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전문가회담 (12.6~9, 워싱턴)</p> <p>* 연락사무소 개설에 따른 기술적 문제 협의</p> <p>○ 머코스키 美 공화당 상원의원, 美·北 합의 이행 표명</p> <p>* 기자회견(도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6		<p>수단들을 완전히 동결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회피할 수 없는 의무임.</p> <p>-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에 상응하게 핵무기개발에 악용되고 있는 월성중수로와 대덕다목적연구로, 조사후 시험시설등 일체 관련수단들에 대한 폐기 및 봉인조치를 취해야 함.</p> <p>0 平放,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예측과 약탈의 수단이며 내정간섭의 술가미라고 주장</p> <p>0 黨·政 고위간부들, 영화 '민족과 운명' 제19부 관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김병식, 최 광, 전병호, 한성룡, 최영립, 홍성남 外</p> <p>0 「社勞育」- 러시아 공산주의 청년동맹, 공동결의문 발표 (평양)</p> <p>• 러시아 사회주의 재건 투쟁 및 민족대단결 10대강령 조국통일운동 지지</p>	<p>- 미국은 북한과 체결한 核합의 조건을 이행할 것임.</p> <p>0 日연립여당, 종군위 안부 개인별 보상 방침 확정</p> <p>• 3당 대표회의</p> <p>- 종군위안부 민간기금 설치문제를 논의, 개개인에게 일시금 지급과 민간기금에 정부출자 방침을 최종 결정, 정부에 요구키로함</p>

■ 12월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7	<p>0 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 기업인 訪北 허용 언급</p> <p>* 기자회견</p> <p>- 금주중 6~7개 기업관계자들의 訪北을 일괄승인할 예정임.</p> <p>0 호남정유, 北韓에 벙커C유 5만t 공급 발표</p> <p>- 美·北 기본합의문에 따른 對北 대체에너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측 제공분 벙커C유 5만t (화력발전소 연료용)을 12. 15~31 공급키로 했다고 발표</p>	<p>0 中放, 美·北 連絡事務所 개설 전문가회담 워싱턴 개최 보도</p> <p>- 朝·美 기본합의문에 따라 朝·美사이의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전문가협상이 12. 6 워싱턴에서 시작되었음.</p> <p>0 金日成의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지도 30돌 기념보고회 (평양 국제영화회관)</p> <p>* 참석 : 이종욱, 김기남, 장철강, 석승, 백인준 외</p>	<p>0 구르 이스라엘 국방차관, 北·이란 미사일 공동개발 추진 언급</p> <p>* 방송회견</p> <p>- 이란은 사정거리 1,3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구입·합작생산하기 위해 北韓과 접촉중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음.</p> <p>0 北, 최근 파리에서 나진·선봉특구 설명회 개최</p> <p>* 대한무역진흥공사 파리 무역관 확인</p> <p>- 파리주재 북한대표부 경제담당참사는 최근 프랑스 기업의 북한투자 유치를 위한 나진·선봉특구 설명회를 개최</p>
12. 8	<p>0 南北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p> <p>- 對北경협 활성화조치(11. 8)이후 북한 방문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訪北승</p>	<p>0 北韓,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민간항공기에 대한 영공 개방 통보</p> <p>* 김요용 민용항공총국장·ICAO 이사회위원장 회담(몬트리올)</p> <p>* 12. 22字 中放 보도</p>	<p>0 IAEA 이사회 개최 (12. 8~9, 빈)</p> <p>* IAEA 사찰단의 北核동결 사찰활동 상황 논의</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8	인문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용항공총국장은 공화국정부가 자기의 영공을 거쳐 세계의 모든 나라 민영기들이 착륙, 혹은 통과비행할 수 있도록 영공을 개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시한번 취했다는 데 대해서 통보했음.</li> <li>- 또한 공화국 정부가 국제항로 통과협정 가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통보했음.</li> <li>○ 『汎民聯』 해외본부,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의장 징역형 구형 관련 대남 비난 聲明</li> <li>○ 黨·政 고위간부들, 김일성 현 지지도 30돌 즈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참관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강성산, 이종욱,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진병호, 한성룡,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外</li> </ul> </li> <li>○ 『祖平統』 서기국, 국가보안법 위반 단속 비난 報道</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블릭스 사무총장 보고 요약 &gt;</li> <li>- 사찰반은 동결대상 시설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건설작업도 중단됐음을 확인했음.</li> <li>- 북한이 사찰단의 추가파견을 검토하고 이들을 위한 비자발급을 간소화할 용의를 시사했음.</li> <li>○ 세계은행(IBRD), 北 경제지원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소식통</li> </ul> </li> <li>- 세계은행이 美·北 합의를 계기로 북한 경제를 개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음.</li> <li>○ 린 데이비스 美국무차관, 미사일수출 중단해야 美·北 관계 확대 언급</li> <li>-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중거리미사일과 발사장비를</li> </ul>

■ 12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8			<p>계속 공급해온 점을 우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같은 무역이 중단돼야만 미국이 외교관계 확대를 준비하게 될 것임.</li> </ul> <p>○ 길면 美하원 국제위원장 내정자, 北核 합의 이행 추가보장 필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북한에 상당한 중유를 제공해야 하나 북한으로부터 더욱 엄정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음.</li> </ul>
12. 9	<p>○ 宋榮大 통일원차관, 北, 개방폭 싸고 강은派 대립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 북한부장 초청 간담회</li> </ul> <p>- 북한은 대외개방폭과 속도를 둘러싸고 強·穩派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아직까지 내부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임.</p>	<p>○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전문가회담 종료 (12.6~9, 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린 터크 美국무부 부과장, 박석균 北韓외교부 부국장 참석</li> </ul> <p>&lt; '공동발표문' 要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朝·美 대표단은 기본합의문에 따라 '94.12.6~9 워싱턴에서 연락사무소 교환과 관련한 영사 및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음.</li> </ul>	<p>○ 허바드 美국무차관 보, 美·北전문가회담 관련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전문가회담에서 부지선정문제가 해결되고 관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야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임.</li> <li>- 북한의 미사일수출 문제, 미군 실종자</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은 협조적이며 건설적으로 진행되었음.</li> <li>- 쌍방은 영사문제들과 거의 모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을 보았으며, 남은 문제는 연락사무소의 적합한 부지를 확정하는 것임.</li> <li>- 쌍방은 '95년초에 부지조사를 위한 전문가대표단을 각기 상대방 수도들에 보내기로 합의하였음.</li> </ul> <p>○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남매간첩 사건 관련 대남비난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일당이 터무니없는 간첩사건을 마구 조작해내는 것은 궁지에 몰린 앞날이 없는 자들의 단말마적 발작임.</li> </ul> <p>○ 정춘실운동 선구자대회 개최 (12.9~10, 인민문화궁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강성산, 이종욱, 한성룡, 서운석, 최태복, 홍석형, 연형묵, 김기남, 김중린, 서관희 外</li> </ul> <p>○ 「朝總聯」, 비전향장기수 송환촉구 집회 (도쿄)</p>	<p>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南北對話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락사무소의 格은 비엔나협약상 가장 낮은 급이 될 것임</li> <li>- 북한측 대표들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休戰協定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음.</li> </ul>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가 그 어느때보다 韓 美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시점임.</li> <li>&lt; 머코스키일행 訪北설명 &gt;</li> <li>- 현단계에서 북한은 제네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았음.</li> <li>- 북한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美·北 관계개선은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강조했음.</li> <li>○ 金泳三 대통령, 北 권력승계 뒤 남북대화 기대</li> <li>* MBC 창사 33주년 기념 특별회견</li> <li>- 이렇게 오래도록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li> <li>- 북한의 권력승계가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상호간에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미국 정부도 자기가 지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데 대해서 이야기하였음.</li> <li>- 우리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朝·美기본합의문 테두리안에서 두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힘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함.</li> <li>○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콘크리트장벽 구축 15돌 관련 세계 각국 국회·정치인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li> <li>- 콘크리트장벽은 우리 민족의 단일성을 부인하고 통일을 반대하며 정치 군사적 신뢰조성을 가로막는 물리적 차단물임을</li> <li>- 여러 나라 국회들과 정치인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함께 콘크리트장벽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함.</li> <li>○ 정춘실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국가표창 및 선물 수여식 (인민문화궁전)</li> <li>* 참석 : 계웅태, 한성룡, 최태복</li> <li>○ 北, 「軍停委」 중국대표단에게 훈장 수여(만수대의사당)</li> <li>* 참석 : 이종욱, 송호경, 교종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면 탄도미사일 수출중단과 함께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재래식 병력이 철수문제가 해결되어야 함.</li> <li>- 서방선진 7개국과 동아시아의 주요 나라들을 참여시켜 KEDO의 회원국을 늘리는 작업을 시작했음.</li> <li>○ 美, 한국전 초기 原爆 사용 검토</li> <li>* 美국방부 비밀문서 공개</li> <li>- 美 극동군사령부는 존스 홉킨스大 전문가들과 극비로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했음.</li> </ul>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3	<p>0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北, 제한적 개방·개혁 불가피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활성화 세미나 치사</li> <li>- 북한은 경제난 해소·국제적 고립탈피 등 시급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개방·개혁이 불가피할 것임.</li> <li>- 이같은 북한의 사정과 함께 주변상황 역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 통일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임.</li> <li>- 통일문제는 단순한 논의 차원을 넘어 실천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統一對備態勢 완비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li> </ul> <p>0 쌍통그룹 經協조사단, 북한 방문(12.13~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 부회장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li> <li>- 청진과 나진·선봉지역을 시찰하고 北대외경제협력 추진위 임태덕 부위원장과 시멘트분야 협력사업</li> </ul>	<p>0 平放, 남북간 일체 政爭 및 비방중상 중지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자면 北과 南사이에 정쟁을 중지해야 함.</li> <li>- 지난날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서 대방을 자극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일체 정쟁을 그만두고 비방중상을 중지해야 함.</li> </ul> <p>0 勞動新聞, 김정일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발표로 우리 式 사회주의의 지도적 지침 마련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덕정치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됨으로써 우리 式 사회주의를 완성하고 빛내나갈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음.</li> </ul> <p>0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확산 관련 '통보' 발표</p> <p>0 反공화국 모략책동 규탄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사로청 중앙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정두환, 허창조</li> </ul> <p>0 平放, 조창호 처를 등장시켜</p>	<p>0 라빈 이스라엘총리, 北, 核·미사일기술 중동수출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외상과의 회담시 (도쿄)</li> <li>- 북한이 核무기 개발기술을 이란에 이전하고 미사일 기술을 이란·시리아에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고</li> </ul> <p>0 北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장웅, '95. 3월부터 국제체육활동 재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ANOC) 총회 참석(美 애틀랜타)</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3	및 나진·선봉지역 투자 문제 논의	<p>조창호는 투항귀순자라고 주장</p> <p>○ 외교부장 김영남, 작별 방문해 온 軍停委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과 담화</p>	
12.14		<p>○ 외교부장 김영남, 弔問금지 사과없이 남북대화 不可 언급</p> <p>• 獨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紙 회견(12.14字 보도)</p> <p>- 남한측이 조문금지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한 남북대화는 결코 속개되지 않을 것임.</p> <p>- 金주석에 대한 인민들의 추도를 경시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p> <p>- 金正日이 아직 국가주석직을 승계치 않고 있는 것은 3年喪을 치르는 전통예법에 따른 것임.</p> <p>○ 『汎民聯』북측본부, 남매간첩 사건 관련 비난 聲明</p> <p>-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대표하고 있는 한총련과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을 모해하고 파괴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서 꾸며진 날조극임.</p>	<p>○ 북경방송, 韓國의 對北경협조치는 남북대화 여건 조성 위한 것이라고 평가</p> <p>- 한국정부의 조치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 南北對話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괴뢰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음.</li> <li>0 中央通信,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北 핵·미사일기술 증동판에 발언 비난</li> <li>- 평화애호적인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매우 불순한 정치적 기도임.</li> </ul>	
12.15	<p>0 韓·이스라엘 정상회담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합의</li> <li>- 金泳三 대통령은 북한의 對중동수출은 자신들의 호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국제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li> <li>-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에 스커드C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사거리 1천3백km의 노동미사일을 개</li> </ul>	<p>0 「軍停委」중국군대표단, 판문점에서 완전 철수</p> <p style="text-align: center;">&lt; 中放 보도 要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철수하는 軍停委에 와있던 중국인 민지원군대표단이 12.15 평양을 출발했음.</li> <li>- 중국정부가 중국인민지원군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지지로 됨.</li> <li>0 駐中 북한대사 주창준, 김정일 승계지연은 김일성 애도때문이</li> </ul>	<p>0 UN총회, 核안전협정 이행 및 IAEA 사찰 수용촉구 對北결의안 채택</p> <p>* IAEA 연례활동보고서에 관한 결의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li> <li>- 북한의 안전조치협정의 완전 이행을 위한, 진행중인 양자간 협의를 포함한 모든 노력들을 지지함.</li> <li>- IAEA 사무총장 및</li> </ul>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5	<p>발중이라고 언급</p> <p>0 宋榮大 통일원 차관, 남북 경협 신중접근 필요 강조 * 전경련 산하 국제경제원 조찬간담회</p> <p>- 남북경협에 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경협은 서둘러서는 안되며 신중하고 질서있게 접근해야 함</p> <p>0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서울) * 총재 : 김연준</p> <p>-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납북억류자 송환 활동 목적의 순수민간단체로 출범</p>	<p>라고 언급</p> <p>- 김일성을 아진도 깊이 애도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 임명할 준비가 안돼있음.</p> <p>0 비전향 출소자 김병주의 아들 김명진, 남한 이복여동생 김지현에게 便紙 발송</p> <p>0 『법정학련』북측본부, 한총련 의장 검거 관련 비난 聲明</p> <p>0 재일동포 귀국실현 3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인민문화궁전) * 참석 : 박성철, 양형섭, 김용순 장 철, 박남기</p>	<p>서기국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함.</p> <p>- 북한에 대하여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안전조치협정의 완전 이행을 통해 IAEA에 협조할 것과 모든 안전조치 관련 정보·장소에 대한 IAEA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함.</p> <p>0 美 헤리티지재단, 美·北 핵합의 의회 재검토 필요 건의 * 美 공화당 '95년도 정책지침서 작성</p> <p>0 美 민간인권단체, 北인권 최악 평가 * 美 프리덤하우스 '94 세계인권상황 보고서</p> <p>- 북한을 이라크, 수단과 함께 인권탄압이 가장 극심한 3국중 하나로 선정</p>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6	<p>0 韓·美·日, KEDO 설립 관련 고위실무협의 (12.15~16, 워싱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崔東瓚 경수로기획단장, 갈무치 美국무부 핵담당 대사, 엔도 日외무부 대사 참석</li> </ul> <p>&lt; 공동발표문 要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다국적 컨소시엄 KEDO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뉴욕에 두기로 결정했음.</li> <li>- 3국은 KEDO의 창립멤버로서 이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음.</li> <li>• 韓國은 한국표준형의 경수로 2기를 북한에게 제공하는데서 재정과 건설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임.</li> <li>• 日本도 경수로 프로젝트의 관리와 재정분야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의향을 표명했음.</li> <li>• 美國 역시 중유제공을 위한 첫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폐연료봉의 안전 보관 및 처리를 원활히 하</li> </ul>	<p>0 勞動新聞, 생물무기 보유 보도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NBC-TV 방송에 의하면 최근 미국이 우리가 생물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핵무기로 신속히 보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li> <li>- 우리에게서 생물무기도 없으며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음.</li> </ul> <p>0 金正日, 전천군관리사업소장 정춘실에 격려 서한 * 12.16字 中放 보도</p> <p>0 黨·政 고위간부들, 국제친선 전람회 참관 * 참석 : 이종욱, 박성철, 김병식, 김영남,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양형섭, 홍석형 외</p>	<p>0 라빈 이스라엘총리, 對北 비밀협상은 잘못이었다고 언급 * 기자회견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시리아·이라크 등 중동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중동평화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음.</li> <li>- 이스라엘은 북한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북한과 비밀협상을 벌인바 있으나 대단히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었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6	<p>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참가의사를 밝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정부는 또 KEDO에 많은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음.</li> <li>- 3국은 '95.2월에 KEDO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 몇주간 추가협의를 함께 참가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임</li> </ul> <p>○ 國會, '남북한 거래는 민족내부 거래'임을 명시한 WTO협정이행특별법안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에 관한 특별법안 '제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함.</li> </ul>		
12.17	<p>○ 離任 李洪九 통일부총리, 통일전망은 북한체제 변화가 큰 변수라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간담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li> </ul>	<p>○ 주한미군 헬기, DMZ내 북한지역에서 격추</p> <p>&lt; 中·平放 보도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7 10:45 적 직송기가 전선 동부 군사분계선을 넘어</li> </ul>	<p>○ 美국방부 대변인, 미군 헬기 북한지역 비상착륙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정부는 현상황에서 비상착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li> </ul>

■ 12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7	<p>하며, 平和를 지켜야 함.</p> <p>- 그 과정에서 원칙을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통일의 전망은 우리 정부의 원칙의 변화보다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좌우될 것임.</p> <p>0 韓美연합사, 美軍헬기 격추 관련 軍停委 소집 요구</p>	<p>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지역 상공 깊이 불법침입했음.</p> <p>- 조선인민군 고사포병들의 자위적 조치에 의해서 단발에 적 직승기는 우리측 지역에 격추됐음.</p> <p>- 해당기관에서는 직승기의 불법침입사건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음.</p> <p>0 「祖平統」서기국, 한총련 의장 김현준 구속 비난 報道</p> <p>0 美하원 빌 리차드슨 의원, 북한 방문 (12.17~22) * 12.18 김영남, 양형섭 면담</p>	<p>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 조사중임.</p> <p>0 이가라시 日 관방장관, 미군 헬기 북한 지역 비상착륙 관련 論評</p> <p>- 우려할 만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p> <p>- 북한군의 이동과 같은 긴장된 상황은 없음.</p> <p>0 北, 대만에 여행사 무소 설치 예정 * 臺北 소식통</p> <p>- 북한은 대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대만의 한 여행사와 합작으로 '95.1월 臺北에 여행사 무소를 설치할 예정임.</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18			<p>0 클린턴 美 대통령, 미군헬기 추락 관련 조종사 조속 송환 촉구 聲明</p> <p>- 訪北중인 빌 리치 드슨 하원의원을 통해 북한당국에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음.</p> <p>-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한 힐레먼 준위와 생존해 있는 홀 준위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송환임.</p>
12. 19	<p>0 金泳三 대통령, 미군 헬기 문제 조속해결위해 韓·美 공동노력 언급</p> <p>* 주한미군 제2사단 사령부 방문</p> <p>- 韓·美가 힘을 합쳐 생존 조종사와 사망 조종사 유해의 조기송환을 위해 노력하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함.</p> <p>- 이번 사건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르쳐 주었음.</p>	<p>0 UN주재 북한대표부 副대사 김종수, 미군헬기 사건 관련 평화협정 체결 주장</p> <p>* 기자회견</p> <p>- 미군 헬기가 북한영공에 들어왔을 때 경고사격을 했으나 착륙하지 않고 기수물 남쪽으로 돌려 격추시켰음.</p> <p>-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함.</p> <p>0 만경대구역 협동농장들, '전인민적 소유제' 국영농장 전환</p>	<p>0 매커리 美 국무부 대변인, 美軍 조종사 송환지연시 美·北 관계 악영향 경고</p> <p>- 미국인들은 사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원하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판단을 내릴 것임.</p> <p>0 사이토 日외무차관, 日, 대북경수로 지원금 최소액만 부담</p>

■ 12월

원 일	한 국	북 한 /	주 변 동 향
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경대구역 국영농장 종업원 결의모임 개최</li> <li>* 참석 : 서관희, 김원진, 강현수 이신자</li> <li>- 이곳 구역에서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겨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개변하는 역사적 사변을 남먼저 맞이하게 되었음.</li> <li>- 새로 조직되는 만경대구역 국영농장에는 구역안의 협동농장들과 국가기업소들이 다 통합되며 협동농장들은 분장으로, 국가기업소들은 직장으로 되게 됨.</li> </ul> <p>○ 中放, WTO 가입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관련 비난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농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대한 외세의 예측이 더욱 더 심화되게 되었으며 수백만 농민들은 명줄을 끊기우게 됐음</li> </ul>	<p>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ul> <p>- 일본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액만을 지출하게 될 것임.</p>
12.20	<p>○ 한국 군함, 사상 첫 日本 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해군 순항훈련부대가 일본 도쿄 하부미항에 입항, 4일동안 머물면서 일본방위청 예방 및 국산</li> </ul>	<p>○ 「朝總聯」 국제국장 김태희, 남한 해군함대 도쿄항 기항 규탄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노골적 표현으로서 朝·日사이의 앞으로의 관계발전예 중</li> </ul>	<p>○ 美·北, 미군헬기 불시착 관련 軍停委 실무접촉 개최 (판문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힐러리 미군 중령, 유영철 북한군 중좌 참석</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0	전투합 공개행사 개최	<p>대한 화근을 남기게 될 것임.</p> <p>0 金正日 노작·사회주의는 과학이다·중앙연구토론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이종욱, 양형섭, 정하철, 최기룡, 홍석형 外</p> <p>0 조선천도교회 교인들, 단군제 개최 (단군릉)</p> <p>• 참석 : 유미영, 한철식</p>	<p>0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 美軍 조종사 송환지연시 美·北 관계 악영향 경고</p> <p>• 기자회견</p> <p>- 조종사 송환이 더 이상 지연된다면 美·北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임.</p> <p>0 日, '95 전후처리예 산 246억엔 책정</p> <p>• 日대장성 발표</p> <p>- 日정부는 무라야마 정권이 주요과제로 삼아온 전후 50주년 예산으로 총246억엔을 책정</p> <p>0 르 몽드紙, 北·獨, 平壤서 국교수립 준비 외교접촉 보도</p>
12.21		<p>0 中央通信, 미군헬기 조종사 유해 송환·報道·발표</p> <p>- 공화국은 인도주의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죽은 상급준위 헬러면의 시체를 판문점을 통하여 미군측에 곧 넘겨주기로 하였음.</p>	<p>0 美·北, 미군헬기 불시착 관련 장성급 고위접촉 개최 (판문점)</p> <p>• 스미스 미군 소장, 이찬복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참석</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해당기관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끝나면 우리 군대의 해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임.</li> <li>○ 政·黨·團體대표협의회, 국가보안법 철폐 대책위원회 구성(平壤)</li> <li>-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이기 위한 조직적 대책으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했음.</li> <li>- 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장철(정무원 부총리)</li> <li>· 부위원장: 정신혁, 염태준</li> <li>· 위원: 김용호, 한영수, 이성호, 이진수, 이소영, 이찬, 장재철, 정춘경</li> </ul> </li> <li>○ 노동신문, 남한 군함의 일본 기항 비난 論評</li> <li>- 일본 반동들과 남조선 괴뢰들 사이의 공조체제, 군사적 공모결탁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한 힐러먼 준위의 시신을 12.22 판문점을 통해 송환키로 합의</li> <li>○ 마이어스 美백악관 대변인, 北 송환 결정 환영 論評</li> <li>- 이같은 인도적 조치를 크게 환영함.</li> <li>- 美정부는 생존자도 성탄절前에 석방되길 희망하고 있음.</li> <li>○ 머코스카 美 상원의원, 北 현재 지도력 부재 언급</li> <li>* 기자회견</li> <li>- 북한은 현재 지도력의 공백상태에 빠져있는 것같음.</li> <li>- 경수로를 지원받는 문제를 놓고 북한 권력층내부에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는 것같음.</li> <li>○ 北, '86년 이후 일본에서 核재처리용 화학약품 10여품목 수</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1			<p>입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마키 日현대연구 소 이사장 언급</li> <li>- 북한은 '86년이후 '93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플루토늄의 핵무기 전용에 필요한 10여가지의 화학약품과 기자재등을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li> <li>○ 美, 독일에 舊동독 대사관 공관 임대가능성 타진說</li> <li>• 프랑크푸르트 알게 마이너紙 보도</li> <li>-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 옛 동독대사관이던 독일이익대표부 공관의 임대가능성을 타진해왔음.</li> </ul>
12.22	<p>○ 統一院, '95년도 제3국 통 한 이산가족 서신교환 1천 5백여회에 달한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상봉 현황</li> </ul>	<p>○ 北韓, 미군헬기 조종사 데이비드 하일먼 준위 遺骸 송환 (10:00, 판문점)</p> <p>※ 訪北 빌 리치드슨 美 하원의 원 함께 板門店 통과</p>	<p>○ 마이어스 美백악관 대변인, 北역류 미군조종사 조속 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북한측이 흘 준위를 곧 돌려</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2		<p>0 中放, 미군헬기 조종사 遺骸 인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따라 미군직승기 조종사의 시체를 12.22 板門店에서 미군측에 넘겨주었음.</li> <li>- 미국측은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하여 공화국 정부에 사의를 표시했음.</li> <li>- 이에 앞서 방문중인 美하원 의원 빌 리차드슨과 우리 해당 일꾼사이에 조종사 시체 인도문제와 관련해서 여러차례 의견교환이 있었음.</li> </ul>	<p>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p> <p>0 訪北 리차드슨 美하원 의원, 北, 남북대화 필요 인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昇洲 외무장관 면담시</li> <li>- 북한은 美·北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여건이 조성돼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음.</li> </ul>
12.23		<p>0 金正日 최고사령관 추대 3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2·8문화회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강성산, 이종육, 박성철, 김영남, 최 광, 계웅태, 전병호, 한성룡, 김철만, 최태복, 최영립, 양형섭, 홍석형, 김광진 外</li> </ul> <p>&lt; 최광 기념보고 要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혁명위업 계승·완성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全黨·全軍·全민이 김정일의 영도를 더욱 높이 받아들여야 함.</li> </ul>	<p>0 訪北 리차드슨 美하원 의원, 헬기사건 처리 北군부 장악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li> <li>- 헬기사건과 관련, 제반사항을 북한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正日の 영도는 주체혁명의 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임.</li> <li>- 최근년간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지만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음.</li> </ul>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金泳三 대통령, '남북간 화해협력시대 개막'을 새 내각의 4大課題중 하나로 제시</li> <li>* 국무회의 주재</li> <li>- 내년이 남북간 대화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통일원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li> <li>-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되어 함.</li> <li>※ 새 내각 4大課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의 본격추진</li> <li>· 지방화시대의 본격준비</li> <li>· 남북간 화해협력시대 개막</li> <li>· 경제안정과 경쟁력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黨·政 고위간부들, 김정숙 생일 77돌 즈음 동상에 화환진정(혁명열사능)</li> <li>* 참석 : 강성산, 최 광, 계응태, 전병호, 최태복 외</li> <li>0 『韓民戰』대변인, 남한정부 개각 규탄 談話</li> <li>- 위기정국의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간교한 기만술책이며 문민독재를 미화분식하고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모략극임.</li> <li>- 문민의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 던지고 5.6공 세력과 공공연히 손을 잡고 노골적인 파쇼화와 북남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는 길에 나섰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美·北 군정위 일직 장교급 접촉 (12. 24~25, 판문점)</li> <li>* 조종사 송환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日程 논의</li> <li>0 게리 러 주한미군 사령관, 金正日에게 헨기 越境사건 관련 유감 서한</li> <li>- 이번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장래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약속</li> <li>0 日주간文春, 러·북 군사협력 재개 보도</li> <li>* 북한소식통 인용 (1.5字 최신호)</li> </ul>

■ 12월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 24	<p>0 金應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 강조</p> <p>* 취임식사</p> <p>- 인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민족공동체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음.</p> <p>- 통일문제를 현실로 끌어내려 南北關係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p> <p>0 金應 신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 추진 언급</p> <p>* 기자회견</p> <p>- 남북관계는 실질적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겠음.</p> <p>- 남북관계의 시대적 변화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데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p>		<p>- '94.9 파노프 외무차관 訪北시 미그 전투기 북한내 생산 등 군사협력의 정서 체결을 북한측에 제시,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 같음.</p> <p>0 日, '95년도 외교과제로 北核대응 제시</p> <p>- 日외무성은 '95년도 주요외교과제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비롯한 한반도정세 △등소평사후 중국변화 △러시아정국의 움직임에 대한 對應 등을 발표</p>
12. 25	<p>0 孔魯明 신임 외무부장관, 美·北합의 이행에 南北關係개선 필수전제라고 언급</p> <p>* 기자회견</p>	<p>0 노동신문, 남한정부 개각 비난 論評</p> <p>- 앞으로 北南관계가 더한층 악화되고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p>	

원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北합의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됨.</li> <li>-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임.</li> </ul>	<p>장애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음.</p>	
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統一院, '48년 이후 脫北 귀순자 7백여명으로 추산</li> <li>* 보고서</li> <li>- '48년 정부수립후 '94년 10월까지 귀순자는 7백여명에 이르며, '80년대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中央通信, 미군헬기 사건 관련 '詳報' 발표</li> <li>- 모든 사실은 미군 직승기에 의한 우리측 영공침입이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의도적인 정탐행위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음.</li> <li>- 미국의 호전계층은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면서 위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음.</li> <li>- 美군부가 새로운 협상기구를 내놓는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계속 외면해오고 있는 것은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견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갖게 하고 있음.</li> <li>- 사태의 엄중성으로 보아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더 깊이 파헤쳐보지 않을 수 없음. 우리는 자기의 군법에 따르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美·北, 헬기조종사 송환을 위한 장성급 접촉 개최 (판문점)</li> <li>0 허바드 美국무부 副 차관보, 北역류 조종사 송환문제 협의차 向北</li> <li>* 美국무부 대변인실 聲明</li> <li>- 북한이 12.26 주UN 대표부를 통해 홀 준위의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파견을 요청해왔음.</li> <li>- 허바드 副차관보로 하여금 12.26 군용기편으로 출발케 했음.</li> </ul>

■ 12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6		<p>조사를 계속할 것이며 그에 따라 처리할 것임.</p> <p>- 미국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가해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응당 인정하고 성근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뚜렷이 보여야 할 것임.</p>	
12.27		<p>0 平放, 핵폐기물 처리장 굴업도 선정관련 북한에 대한 피해 가능성 제기</p> <p>- 공화국 북반부에서 가까운 섬에 핵폐기물을 마구 버리려고 있음.</p> <p>- 우리 공화국과 전체 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를 우리에게까지 들씌우려는 고약한 행동임.</p> <p>- 김○○ 일당의 책동을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규탄하며, 그 범죄적 계획을 무조건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p> <p>0 黨·政 간부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20부 관람 (인민문화궁전)</p> <p>* 참석 : 김병식, 김영남, 최광한성룡, 김철만 外</p>	<p>0 이타르 타스통신, 北·러 별목협상 결렬 보도</p> <p>- 12월 중순, 평양에서 열흘동안 시베리아에서의 벌목, 목재가공과 삼림회복에 관한 협정 타결방안을 논의했으나 성과없이 끝났음.</p>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8		<p>0 조선반핵평화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규탄 聲明</p> <p>- 핵폐기물 처리장을 감히 우리 측 가까이에 건설하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적대행위이며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행위임.</p> <p>- 김○○ 일당의 책동을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핵폐기물의 희생지로 만들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강력히 규탄함.</p> <p>- 남조선 통치배들은 핵폐기물 처리장을 굴업도에 건설하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당장 견어치워야 함.</p> <p>0 中放,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平壤 도착 보도</p> <p>- 美행정부 대표인 국무성 부차관보 허바드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했음.</p>	<p>0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北역류 조종사 송환 협의차 판문점 통과 訪北 (12.28~30)</p> <p>0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訪北시 정치협상 不應 표명</p> <p>• 張在龍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p> <p>- 방북이 조종사 송환을 위한 한정된 목적을 가지고 있음.</p> <p>- 우리는 核합의의 특정 부분과 홀 준위의 석방을 명백히 연계시키지는 않고 있음.</p> <p>- 북측이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 등 여타 사항을 제기하더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임.</p> <p>0 클린턴 美대통령, 北역류 조종사 조속 석방 촉구</p> <p>• 기자회견</p>

■ 12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 준위의 신속한 석방을 원하고 있으며 그가 억류돼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했음.</li> <li>○ 매커리 美국무부 대변인, 조종사 석방 지연시 美·北합의 위태 경고</li> <li>- 앞으로 1개월내에 석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반적인 합의의 골격이 위태롭게 될 것임.</li> <li>○ 고노 日외상, 對北 수교협상 재개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포럼誌 기고문</li> </ul> </li> <li>- 북한과 관계개선 노력을 강화해야함</li> <li>- 日·北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를 제의함.</li> </ul>
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央通信, 미군헬기 조종사 홀 준위 '자백서' (12.25字) 공개</li> <li>- 우리가 조선의 영공깊이 침공</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29		<p>한 것은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조선을 반대하는 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함.</li> <li>- 이러한 침공행위는 그 무엇으로서도 변명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된다고 인정함.</li> <li>- 나는 조선인민군측에서 불법 침입행위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며, 고향에 돌아가게 하여 주기를 애원함.</li> </ul>	
12.30	<p>0 韓·美 정상, 미군 조종사 송환관련 전화통화</p> <p>&lt; 金대통령 발언 要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 준위가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li> <li>- 南北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의 확고한 유지를 위해 韓·美가 함께 노력해야 함.</li> </ul>	<p>0 北, 미군헬기 조종사 보비 홀 준위 송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국무성 부차관보 허바드가 대통령 특사로 12.28~30 평양을 방문하고 공화국 관계일꾼들과 회담을 진행했음.</li> <li>- 쌍방 사이의 회담들과 호상합의한 양해문에서 美·합중국 측은 미군 직송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불법침입한데 대하여 인정하고, 진심으로 되는 사죄를 표시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담보했음.</li> </ul>	<p>0 美, 미군 조종사 송환협상 관련 美·北 '양해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가 12.28~30 대통령 특사로 平壤을 방문, 북한 관계관리들과 협의를 가졌음.</li> <li>- 협의 결과, 양측은 다음과 같은 양해(understanding)에 도달했음.</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30	<p>&lt; 클린턴대통령 발언 要旨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한 두 당사자간의 직접협상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美·北간에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했음.</li> <li>- 이번 헬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미국의 어떤 성명도 美·北간의 양자협상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li> </ul> <p>0 외무부, 北역류 미군 조종사 송환 관련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보비 홀 준위가 송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함.</li> <li>- 우리는 북한측이 이러한 비정상적 상태의 제거를 위해 南北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南北관계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함.</li> <li>- 남북한간 협의에 의해 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는 유지되어야 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측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막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朝·美사이에 군부접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요구에 동의했음.</li> <li>- 미국측은 남조선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측의 전쟁포로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빨리 송환되도록 지대한 협력을 할데 대한 우리측의 요구에 응했음</li> <li>- 미국측의 이러한 입장과 요청을 고려하여 공화국 정부는 관용성과 인도주의를 발휘하여 미군 직승기 조종사 보비 홀을 돌려보내기로 했음.</li> </ul> <p>0 中放, 미군헬기 조종사 판문점 인도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11:10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부대표 박립수 대좌와 미군 대령 슈미니크가 만나 인도인수 관련절차를 확증한 다음 미군직승기 조종사와 그의 소지품을 미군측에 넘겨주었음.</li> </ul> <p>0 中放,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판문점 記者會見 보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美측은 미군헬기가 북한영공에 법적으로 부당하게 침입했음을 인정했음.  美측은 진정한 유감(sincere regret)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보장했음.</li> <li>2.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막기위한 조치들을 확인하고 취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appropriate forum)의 군사적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음.</li> </ol> <p>0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한국측에 訪北결과 설명 * 張在龍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해문의 '적절한 형태의 군사접촉유</li> </ul>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30	<p>며, 軍停委 활동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p> <p>0 孔魯明 외무부장관, 美·北 새 군사채널 설정 否認 * 고위당정회의</p> <p>- 美·北사이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군사채널은 기존의 軍停委를 의미할 뿐 새로운 별도 채널의 설정과 다름.</p> <p>0 合參 통합방위본부, 對간 첩대책본부로 개편</p>	<p>- 미국은 美·朝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군부와 정부가 가능한 모든 통로를 다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美國은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방문기간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도 논의되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남조선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p> <p>0 국가환경보호위원회,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규탄 聲明</p> <p>0 숙천군 농업연합기업소, 국영 농장 전환 종업원 결의모임 * 참석 : 서운석, 서관희, 김원진 김락희</p>	<p>지·는 기존 軍停委 채널을 의미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했음.</p> <p>- 미국은 앞으로 軍停委외에 북한과 직접 군당국가접촉을 갖지 않을 것임</p> <p>-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한국의 주권사항으로, 북한측의 관심사항을 한국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고만 약속했음.</p> <p>0 뉴욕타임스紙, UN군-北韓간 핫 라인 설치방안 검토 보도</p> <p>- UN군사령부와 북한간에 의사소통을 좀더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음.</p> <p>- 이는 핫라인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임.</p> <p>0 클린턴 美대통령, 조종사 송환관련 北</p>

■ 12월

월 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30			<p>에 양보한 것 없다고 강조</p> <p>- 미국은 그의 석방을 위해 북한측에 양보한 것이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의 이익을 희생시킨것도 없음</p>
12.31	<p>0 朴建佑 외무부 차관, 장기수 석방요구 전달 관련 카트면 駐韓美부대사 면담</p>	<p>0 평양시 청년학생들, 새해 설맞이 공연(만경대 학생소년궁전)</p> <p>* 참석 : 강성산,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이인모</p> <p>0 『祖平統』서기국, 한총련 의장 징역형 구형 비난 報道</p>	<p>0 日산케이신문, KEDO 중동국가 참여 보도</p> <p>* 日정부소식통 인용</p> <p>- KEDO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中東 수개국이 참가하게 될 것임.</p>

南北對話年表  
(1994. 1. 1~12. 31)

1995年 2月 日 1刷 發行

1998年 12月 日 2刷 發行

發行處：統一部 南北會談事務局

